

THE MISSILE

1963年 3月 15日 印刷
1963年 3月 20日 發行

月刊

미사일

1963

3

民主軍人の使命

多用途 單座戰鬥機의 運用論 (完)

軍運用에 있어서의 企劃業務의 位置



제 23 호

목차(目次)

3·1정신(精神)과 5·16혁명(革命) 허선간(許善杆) (2)
민주군인(民主軍人)의 사명(使命) 박희동(朴熙東) (5)

군 운용(軍運用)에 있어서
기획업무(企劃業務)의 위치(位置) 마중인(馬熙鍾仁) (8)
「군수이념(軍需理念)」에 대하여 김정린(金正麟) (53)

다용도(多用途) 단좌전투기(單坐戰機)의 운용론(運用論)(원(完)) 윤응열(尹應烈) (32)
원자력(原子力) 항공기(航空機) 홍성표(洪聖杓) (33)
하늘의 길 박상희(朴相熙) (63)
공산권(共產圈)의 장래(將來) 양흥모(梁興模) (13)
스카이볼트 논쟁(論爭)의 그 후(後) 이중수(李鍾秀) (29)

특집(特輯)·현대적(現代的) 상황(狀況)에의 초대(招待)

◇스피드 최태호(崔台鎬) (20)
◇매스 프로덕션 박중희(朴重熙) (22)
◇매스 커뮤니케이션 김준환(金俊煥) (25)

전체주의(全體主義)를 극복(克服)하는 길 야스퍼스 (67)
형(兄)님 안녕하……〈공중전비화(空中戰秘話)〉 외지(外誌)에서 (31)
북한동포(北韓同胞)는 날 구(救)했다 ② 이준수 (47)
「조련(朝聯)」의 정체(正體)를 해부(解剖)한다 장세원 (41)

전파방해(電波妨害)에 대한 소고(小考) 송기엽(宋奇燁) (87)
고민하는 중공(中共) 외지(外誌)에서 (16)
주체(主體)에서 존재(存在)에의 과정(過程)
〈철학강좌(哲學講座)〉 ③ 김형석(金亨錫) (77)
한국(韓國)의 유머……〈한국의 자량〉 ③ 조윤제(趙潤濟) (82)
★유머와 생활(生活) 김석만(金石萬) (84)
★세계경이순례(世界驚異巡禮) 김영주 (74)

시(詩)·바위에의 기도(祈禱) 박기원(朴琦遠) (76)
수 날들무심증 한국남(韓國男) (91)
필 유니폼 산고(散考) 임방현(林芳鉉) (93)
호양정신에 대하여 곽중원(郭鍾元) (95)
산(山)으로의 몽상(夢想) 손경석(孫慶錫) (96)
연재(連載) 신판(新版) 토끼전(傳) 계문수(桂文樹) (98)
단편(短篇) 사랑과 덕만의 용기(勇氣) 최요안(崔要安) (101)

표지설명: 현대적 장비로써 세계 수준에 이른 한국공군은 자유세계의 수호에 중요한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한국공군은 인류의 자유를 침해하려는 여하한 불의의 세력도 이를 분쇄함에 과감함을 상징하고 있다.

발행처·공군본부 정훈감실
발행겸편집인·공군대령 김영호
인쇄처·공군 교재창
인쇄인·공군대령 백춘득



제11기 사관졸업식
하늘의 수호자·공군사관학교 제11기 사관생도 졸업식 및 임관식이 지난 2월 22일 대통령관
한대행궁가 재건 최고회의 박정희(朴正熙) 의장을 비롯한 정부요인 델토이 유엔군총사령관에게
비롯한 내외 귀빈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히 거행되었다.
사진은 위에서부터 동식전에서 유시하는 박(朴)의장 △졸업생을 격려
하는 장(張)참모총장 △졸업식 광경 △졸업 축하파티

3 · 1정신(精神)과 5 · 16혁명(革命)

허선간(許善杆)

〈여교부 학무국장(女敎部 學務局長)〉

1.3 · 1정신(靜神)

“우리는 우리 한국이 독립국이며 우리 국민이 자유민인 것을 이제 선언한다.”

이로써 세계만방에 대하여 인류가 평등하다는 큰 뜻을 뚜렷이 밝히며 이로써 자손만대에 깨우쳐 민족자존의 정당한 권리를 영원히 보존케 한다'라고 한 구절은 바로 3·1 정신을 집약축소(集約縮小)한 기미(己未) 독립선언서의 서두임은 국민 누구나 다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다.

독립, 자주, 정의, 인도, 생존, 번영의 숭고한 양심의 발동이 곧 기미 독립 운동인 바, 이 운동의 목표는 소위 1910년 침략주의 일본의 강압으로 겪은 민족과 국가의 경술치욕(庚戌恥辱)을 설분하고 잃었던 조국과 빼앗겼던 생존의 자유를 되찾는 데 있었다.

실로 경술치욕은 극악무도한 일본의 침략적 야망으로 강요된 민족의 수난이었던 만큼 경제적 착취와 정치적 강압 및 무고한 양민의 투옥과 살육은 인류역사상 그 유례를 찾아 볼 수 없을 정도로 가혹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일본의 침략적 무단정치에 대하여 우리의 국민 상하는 마침내 통분과 격노를 억제할 수 없어 곳곳에서 의병과 애국지사가 속출하여 국권 회복의 기운은 날로 성왕하여 갔다.

그러나 한 편 일제(日帝)의 무력탄압과 강제력 약탈 또한 날로 기하여 우리의 애국지사들은 삼천리 이 강산에 발붙이고 칼 짚을 한 조각의 땅마저 용납이 안 되어 대대로 조산의 백골이 묻히고 민족의 연면한 생명이 자라고 발전하는 겨레의 요람지인 조국을 등지고 해외로 눈물의 망명을 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이다. 이때부터 낮선 노령(露嶺) 연해주와 중국, 만주 및 미주는 우리 애국선열의 독립운동의 무대가 되었다.

우리의 독립투사들은 갖은 일본의 탄압 하에서도 굴하지 않고 일편단심 국원회복을 위한 노력은 더욱 왕성하여 이국산야(異國山野)에서의 실력적 저항은 물론 일본의 잔악한 제국주의적 침략행위를 국제정치의 호소하는 외교면에서의 민족운동도 게을리 하지 않고 세계대세의 추이에 따르는 비상한 노력을 전개하였다.

가까이 중국의 항일운동에 가담하여 공동전선을 펴는 한편 멀리 국제회의에 대표를 파견하여 세계추세에 호응하면서 독립의 티전을 마련하기에 전력을 경주(傾注)하였다.

1914년부터 시작된 인류 역사상 미증유(未曾有)의 참극인 세계 제1차 대전이 연합국 측의 승리로 확정되자 1918년 1월에 미합중국 대통령 윌슨 (Thomas W. Wilson)은 강회조약의 기본조건으로 14개조항의 평화원칙을 제시하였다.

1차 대전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세계 약소민족의 독립 불을 일으킨 저 유명한 민족자결주의(民族自決主義)는 윌슨대통령의 제창인 14개조항의평화원칙 속에 명시된 대구호로 강국의 예측상태 하에 있는 모든 약소민족의 울분을 일시에 터트리는 화산의 분화 점 역할을 하였음은 당연하다. 이러한 세계대세의 추세를 대망(待望)해 오던 우리의 민족지도자들에게는 윌슨의 민족자결원칙을 조국독립의 절호의 기회로 포착하여 활동을 개시하였다.

이와 같은 민족자결의 신 사조는 먼저 일본 유학생들에서 획책되어 1919년 2월에는 적부 동경에서 독립선언문이 발표되기까지 하였던 것이다.

피눈물보다 진하다는 민족의 유대의식과 독립감정은 무언중에 전 국민의 맥박에 뛰여 용솟음쳐 올랐다. 이 끓어오르는 민족의 독립감정에 또 하나 화중첨유(火中添油)의 폭발적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것은 한말비극의 군주인 고종황제(高宗皇帝)의 승하였다.

고종황제의 승하의 원인이 간악한 일제의 독살이라는 풍문이 향간에 떠돌아 온 국민의 일본에 대한 적개심을 극도로 자극하였다.

그렇지 않아도 십 수 년 일정폭악(日政暴惡)에 참고 견뎌 온 민족의 증오심은 건잡을 수 없을 정도로 충천(衝天)하여 항일 독립운동의 절호의 요인을 마련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럴 때 우리의 민족지도자들은 밖으로 민족자결이라는 세계의 대세와 앞으로 일제의 폭정에 저항하는 온 민족의 끓어오르는 적개심과 증오심을 독립운동으로 지도하기 위해서 고종황제의 인산을 계기로 지방으로부터 많은 사람이 상경하는 기회를 타서 3월3일 우리 민족의 독립을 세계만방에 선언하기로 결정하였다.

민족지도자 33인을 필두로 많은 젊은 학도들의 민첩한 활동으로 2월말까지는 독립선언을 위한 만선(滿船)의 준비절차가 완료되었다.

국상에 참렬(參列)코자 전국에서 모여든 수십 만 군중을 포용한 수도 서울을 위시하여 북으로 개성(開城), 평양(平壤), 의주(義州)와, 남으로 대구(大邱) 등 5대도시에서 3월 1일 정오를 기하여 일제히 독립을 선언하는 만세운동이 조수처럼 터져 나왔던 것이다.

이 날 서울의 상가는 하나같이 철시하고 모든 공사립 전문 중학생들은 무슨 사전 약속이나 또는 지령이라도 한 것처럼 정오에 앞서 탐동공원(塔洞公園)으로 모여들었다. 이때 정오를 알리는 보신각(普信閣)의 종소리와 때를 맞추어 군중 속의 청년 한 명이 공원 육각정에 뛰여 올라 23인의 민족대표가 서명한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뒤이어 독립만세를 소리 높여 부르니 일창(一唱)에 만세! 목이 터져라 외치는 수만 군중의 우렁찬 호응은 순식간에 전 서울을 감격과 흥분의 도가니로 몰아넣고 말았다.

공원에서 시작된 독립만세의 시위군중은 공원 문을 나가서면서부터 수십만의 대군중으로 증가되어 적수공권으로 온 시내를 휩쓸었던 것이다.

촌철도 갖지 않은 오직 독립만을 외치는 적수공권의 평화적 시위 행렬에 대하여 간악무도한 일제의 관헌은 총검으로 마구 쏘고 짓밟았던 것이다.

한편 우리의 민족대표 33인은 당시 태화관(泰和館)에 집합하여 엄숙하게 독립선언을 국내외에 발표하고 난 다음 축배로 서로를 격려한 후 그들의 결의와 각오 및 소재를 왜경에게 자진 전화로 통고하여 투옥당하였던 것이다.

이날이 있는 이후 전국 각지에서 일어난 독립 만세운동은 삼천리 방방곡곡 미치지 않은 곳이 없었다. 실로 5월 말까지 독립을 위한 만세운동의 집회는 1,542회였다고 하며 이에 참가한 인원은 무려 2,100,000여 명이고, 일경과 싸워 죽은 수 7,500여 명, 부상자 수 15,000여 명에, 검거 투옥당한 수 46,000여 명을 헤아리는 진실로 우리 민족의 역사 이래 처절 비장한 일대 민족운동이라 아니 할 수 없다.

일제의 강압과 감언에 속아 합방이라는 미명아래 나라를 빼앗기고 생존권을 약탈당한 지 십수 년의 울분을 정의 인도에 호소함으로써 조국의 독립과 민족의 자유를 지키려는 거창한 호국운동인 점에 3·1 운동 정신은 우리 민족의 역사상 길이 빛나는 금자탑(金字塔)이라 아니할 수 없다.

2.5 · 16 혁명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의 숭고한 독립정신을 계승하고 4·19의거와 5·16혁명의 이념에 입각하여 새로운 민주공화국을 건설……’한다고 한 구절은 개정 헌법의 전문의 일부임은 누구나 다 잘 아는 바로서 5·16혁명을 한 말로 해서 민족의 독립과 자유수호를 위한 숭고한 3·1정신의 발현이라 할 수 있다.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북으로 공산군과 대치하여 영일이 없는 긴박한 사태 하에서 구정권의 정치지도자들은 정권욕에만 혈안이 되어 정쟁에만 골몰할 뿐 민족과 국가의 안전과 번영은 안중에도 없을 정도였다.

실로 부정과 부패의 십여 년 간의 자유당독재를 피로써 무너뜨린 젊은 학도의 숭고한 자유수호의 정신이 민족당 정부의 무능으로 완전히 짓밟히는바 되고 말았음은 슬픈 일이다.

반공 제1의 호국국시(護國國是)가 무색할 정도로 북한괴뢰가 남파한 대량의 간첩들과 합세한 일부 몰지각한 정상배(政商輩)들의 용공(容共) 또는 친공중립(親共中立)의 회오리바람은 우리의 사회질서와 정치기강을 완전히 마비시키고 말았다.

3·15 부정선거를 위시해서 온갖 부패와 독재가 자유당의 소산이라면 용공 또는 친공중립의 가장 공산주의의 발호(跋扈)는 민주당정부의 무능과 우유부단의 소산이라 아니할 수 없다.

실로 가장 공산주의의 횡행과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부정부패가 야합(野合)하는 날에는 우리 민족과 국가는 다시 바로잡을 수 없는 침체의 구렁으로 빠지고 만다는 것은 면약관화한 일이다.

이와 같은 누란의 국가적 위기에 속하여 뜻있는 자 어찌 안일하게 좌시할 수 있으랴! 백척간두(百尺竿頭)에서 목숨을 걸고 민족과 국가의 위기를 바로 잡으려고 꺾기한 것이 5·16군사혁명의 이념인 점에 온 국민은 금차(今次) 혁명에 대하여 역사적인 기대를 걸고 있다고 하겠다.

혁명 주체세력이 혁명과업 완수를 위한 공약으로 국민에게 서약한 바 있는 ‘반공을 국시의 제1의(義)로 삼고 이 나라 사회의 모든 부패와 구악을 일소(一掃)함으로써 퇴폐한 국민도의와 민족정기를 다시 바로 잡고 국민 자유주의경제 재건에 총력을 경주하여 공산주의와 대결할 수 있는 실력을 배양한다.’와 같이 5·16 혁명이 기도하고 있는 것은 공산주의의 침략으로부터 오직 국가의 안전번영과 민족의 항구적 자유수호를 목표로 하는 점에서 5·16 군사혁명의 이념은 3·1 독립정신과 완전히 합치된다고 믿는 바이다.

그러므로 5·16 혁명의 이념은 우리의 숭고한 3·1독립정신과 4·19 자유 민주정신을 계승선양하기 위한 필사적인 노력이었음은 더 말할 나위 없다고 하겠다.

3. 결론

3·1 독립정신, 4·19 자유민주주의 수호정신, 5·16 반공 민주정신은 우리 배달민족의 독립, 자유, 정의, 인도, 생존 및 존영을 위한 숭고한 민족정기라 하겠다.

3·1 운동은 일본 관헌의 무자비한 탄압을 받아 가면서도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온 민족의 열광적인 독립만세의 민족자유를 위한 항일운동이라 하겠다. 그리고 4·19의거는 정권욕에 눈이 어두운 자유당의 독재와 부정에 대한 국민의 자유수호운동으로 열혈의기에 넘치는 젊은 학도가 선봉이 되어 범국민적 지지 하에 이루어진 반독재 반부정의 빛나는 자유 민주주의 운동이라고 하겠다. 또한 5·16 군사 혁명은 민주당의 무능과 망지소도의 우유부단한 정책으로 민심이 유리되고 민생이 도탄에 빠져 극도로 사회기강이 문란한데서 재래된 가장 공산주의의 간접침략을 전광석화वाद 같이 하루아침에 분쇄한 빛나는 반공 민주혁명이라고 하겠다.

처음 5·16혁명에 대하여 일반 국민들은 어리둥절하였으나 혁명 당국의 기민한 활동과 적절한 혁명시책의 발표로 차츰 수긍하고 호응하게 되어 국민혁명의 성격으로 전환하였다고 할 수 있다.

동서고금의 모든 혁명사가 그러하듯이 혁명에는 국민적인 지지가 없이는 성공할 수 없는 것이다. 비록 3·1 독립운동이 가혹한 일본 관헌의 탄압으로 그 당시 성공은 거두지 못하였을지라도 독립자주의 민족혼에 공명하고 정의인도라는 인류의 양심을 찌르는 진리였던 고로 우리 역사상 빛나는 금자탑을 이루고 있다고 보는 바이다.

4·19의거 역시 부정과 부패에 저항해서 자유의 적인 독재를 타도한데서 정권의 획득과 관계없이 사회정의와 인류양심에 부합되기 때문에 우리 역사상 불멸의 자유종을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가지로 5·16혁명 또한 반공이라는 인류 구원의 천륜과 민족적 양심에 파고드는 필연의 진리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민주주의 사상으로 빛나는 전환점을 이루고 있다고 본다.

그러므로 3·1 독립정신, 4·19 자유 수호정신, 5·16 반공 민주정신은 한결같이 우리 민족의 자유번영과 독립자존의 구국정신으로 귀일된다고 보는 바이다. (끝)

민주군인(民主軍人)의 사명(使命)



박희동
〈공군준장·공사교장(空軍准將·空士校長)〉

1. 서론(序論)
2. 군대(軍隊)의 제유형(諸類型)과 그 성격(性格)
3. 민주이념(民主理念)과 군인(軍人)의 사명(使命)
 - ㄱ. 국토방위(國土防衛)
 - ㄴ. 자유수호(自由守護)
 - ㄷ. 국민(國民)의 의표(意表)
4. 결론(結論)

1. 서론

전면전쟁(全面戰爭)이라는 극단과 전면평화라는 극단을 가진 스펙트럼(Spectrum) 사이에서 국가의 흥망과 인류의 생존은 계속되어왔다.

더욱 2차 대전 후 17년의 역사는 세계를 2개의 대립하는 세력권으로 양극화하여 놓았고, 끝없는 냉전의 ‘도가니’ 속에서 우리는 보다 나은 생존을 탐색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대립의 과정 중에서 자유민주주의의(自由民主主義)는 자체의 존립과 방위를 어느 때 보다 강력히 느끼고 있다.

무릇 어떤 국가이고 그 자위를 위하여 군대를 가지지 않는 국가는 없겠으나 우리처럼 군사력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국가도 드물 것이다. 우선 국가가 성립하면 국방의 필요를 느끼며, 국방을 요(要)함에는 반드시 군인을 요하게 되었다.

이는 동서고금을 통하여 변함없는 필연지사(必然之事)였다고 본다. 그러면서도 군대의 성격은 각기 사회의 특질에 의하여 규정되었고 군대는 대외적인 정치권력행사의 수단이 되었으며, 군대의 형태는 국제정치권력이 변함에 따라 변화하였고 또 군대의 제(諸)형태는 각 시대의 인간사회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진전하여 왔다. 그러므로 군대의 중심체인 군인도 그 조직과 사명을 달리하였던 것이다.

돌이켜 지난 3세기의 역사를 살펴본다면 주로 민주적 충동의 그것이었다. 그리하여 세계는 민주주의에 대한 열의에 물결쳤고 우리 민족도 이 물결에 휩쓸렸다. 그런데 이 ‘민주주의’라는 개념은 어떤 집단개념 예를 들면 민주학원, 민주사회, 민주군대, 민주국가 등으로 표현이 될 때, 거기에는 막연히 새겨 넘길 수 없는 문제가 내포된다. 한 집단이 지향하는 이상과 목표를 실현하려 할 때 거기에는 필연적으로 개인의 행복, 이익과는 상반되는 모순이 개재된다는 사실이다. 더욱이 그 집단이 전체주의 내지 사회주의 체제 속에서의 것이 아니고 민주이념 실현을 위한 ‘성격’의 집단일 때 심각한 것이 된다. 여기에서 필연적으로 현출(顯出)되는 것이 집단규약 및 규칙인 것이요 집단도덕인 것이다. 이 집단의 목적과 이상실현을 위한 제도 내지 규칙은 아무쪼록 개인에 의해 거리낌 없이 수용 되어야 한다는 것이 곧 그 문제 해결의 관건인 것이고 보면 이는 민주주의이념 수호의 기본적인 단계인 것을 이해케 될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소위 한국적 민주주의니 한국적 자유니 하는 개념을 상기하게 된다. 이해를 통한 ‘자각’ 내가 곧 집단의 주인이라는 주체적인 태도는 곧 민주집단의

성원이 가져야 할 가장 기초적인 자세인 것이다.

모든 규범과 도덕은 나의 신조(信條), 이념의 구현수단으로서 내가 만든 것이며, 내가 그것에 의해 지배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곧 민주시민의 자격요건인 것이다.

2. 군대의 제 유형과 그 성격

고대의 군대는 그 시대와 지역에 따라 두 개의 유형 즉 국민적 군대와 용병적 군대의 유형이 있었다. 우리 나라에서는 상고(上古)에도 국민개병제(國民皆兵制)라는 것이 있어서 병농일치제, 둔전병제(屯田兵制) 등의 형이 있었다고 한다. 희랍의 도시국가는 국민적 군대로서 방위에 이용되었고 제국주의 군대의 형은 용병적 군대로서 제국주의적 정책에 사용되었던 것이다. 무장사회였던 봉건시대의 초기의 군대는 종복적(從僕的) 전사로서 행동하였으며, 중세 초기에 있어서는 무장민족으로 된 민족적 군대, 타방제국의 군대 및 협의의 봉건적 군대 등이 병존하였다.

13 내지 18세기에 이르러는 군대는 국왕의 권력 행사의 수단이었고 군주제가 확립되자 주권자인 국왕은 무력의 사용권을 국왕의 수중에 넣었다.

거의 모든 국가에 있어서 군대와 군주권과는 평행하게 발달하였고 군대와 군주권과의 사이에는 일방의 진보가 타방의 세력을 지원한다는 관계를 볼 수 있었다. 이조 말까지의 우리나라 군대도 이 군주제적 군대의 성격을 면치 못하였다.

프랑스 혁명은 정치사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군대의 역사에 있어서도 중요한 전환기를 획하였다. 프랑스 혁명전까지 제전쟁은 왕조적 성질을 띠었으나 혁명군의 병사들은 국민을 위하여 전투를 하였던 것이다. 즉 ‘군주제적 충성’에서 ‘애국심’으로 변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전쟁이 프랑스에서 시작된 이래 프랑스군이 출정한 구주에는 이러한 감정이 도처에서 발현되었다. 이와 같은 자유 평등 박애를 낳은 프랑스 혁명은 놀랍게도 역동적으로 19세기의 전 기간에 대항적으로 국민주의를 탄생시켰던 것이다. 여기서 프랑스 공화국과 제외국과의 대투쟁은 다른 모순을 낳았으나, 곧 군사적 징집의 기초가 되는 체제를 창출 시켰던 것이다. 평등감은 여기에 이익은 보였으나 영구 평화의 꿈은 공상의 병기고에 들어가게 되었고 이 때부터 전쟁은 보다 민중적이고 더욱 광범하며 보다 심한 성질을 띄우게 되어 국민의 쫓겨 하에 무장된 제국민간의 전체 전쟁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19세기의 자본주의는 그 후 사적 제(諸)독점체를 창출하여 그것들은 20세기 초두의 경제적 국민주의에 의해 제 국가를 몰아넣었던 것이다. 어느 국가가 강국이 되면 그 ‘힘’은 단지 군사적인 것만이 아니라 정치적 및 경제적인 면도 병행되는 것이다. 여기에 부가하여 무기면에 있어서 제1차 대전 중의 제 변혁을 가져온 현저한 과학적 발달을 생각할 때 우리는 19세기에 있어서의 근대적 군대의 탄생은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 후 20세기에 들어와 제2차 대전을 계기로 인류는 전체주의적 파쇼주의 군대의 위협을 받아 연합국은 이에 대항하여 마침내 승리하였으나 대전 후에는 공산주의 군대가 다시금 우리 인류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우리가 논하려는 민주 대가 요청되는 의의가 있는 것이다.

3. 민주이념과 군인의 사명

민주주의는 강력한 이념이다. 민주주의가 강력한 것은 각인의 희망을 존중하기 때문이요, 자치를 습득할 역량 가진다는 신념에 놓여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역량에 대한 신념과 희망의 인정이 현대인의 포부에 호소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주의는 개인의 존엄성을 힘의 근원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강력한 것이다. 민주국가에 있어서는 도덕질서의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어느 한 사람도 배제되거나 제외될 수 없는 것이다. 또한 각인에 대한 책임이 어느 정도까지 전체에 놓여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것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도덕적 신조를 기대하며 또 거기에 입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강력한 것이며, 이 강력한 이념 속에 깊이 뿌리박은 자유와 평등은 민주이념의 상징인 것이다. 그러나 자유와 평등은 절대적으로 무제한한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개념의 범주를 가진 것이며 민주정치의 이념인 참다운 인간의 권리를 존중하고 보호하는 데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매혹적 선풍(旋風)에 무조건 끌려가는 국민이 교양과 지식이 박약하고 몰지각하다면 그들에게 아무리 정치적 자유와 평등을 인정할지라도 이는 다만 혼란과 무질서를 조성하는 중우정치(衆愚政治)가 되고야 말 것이다.

그러므로 일을 방지 제거하기 위하여 민주국가에 전제(前提)하여야 할

기본정신이 있으니 이는 자기 스스로가 해나가려는 자율심, 나와 같이 남을 아끼는 공공심, 나를 사랑하는 마음과 모든 일에 급하지 않는 관용심이 구현됨으로써 민주정치의 이념을 살릴 수 있을 것이요 인간도 비로소 그 가치를 느끼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Laski가 “자유는 그 역사가 명시하는 바와 같이 인격 발전의 기본적인 것으로 되는 기회”라고 지적인 것처럼 인간의 인격은 빈부, 강약, 성별, 연령, 지위, 직업 등을 불문하고 그 독자적 개성을 충분히 발휘하여 사회에 협동하는 균등한 기회와 존엄성을 인정하여야 하는 것이다.

민주정치는 인격의 존엄과 보장을 위하여 자유의 확보가 필연적으로 요청되며 또한 여기에 비롯됨은 물론이다. 그러나 민주정치는 다만 권리의 산물인 자유의 확보로서만이 아니라 평등의 이념이 서로 구현되어야 하는 것이다. 평등은 모든 인간의 대우의 절대적인 평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권리를 법 앞에 평등하게 인정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개개의 인간은 생리적 지적 도덕적 면에 있어서 상위에 있으며 어느 점에서 유사한 인간이 있다 하더라도 전연 동일한 인간이란 역사상 찾아 볼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민주주의 이념으로서의 평등은 권리의 향유에 대한 평등이요, 권리는 자유라고 할 때 그것은 또한 자유를 평등하게 향유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와 때를 같이 하여 선진구미(先進歐美) 각국은 민주혁명을 거쳐 정치, 경제, 문화 및 사회 전반에 있어서 확고한 민주 군대를 탄생. 발전 시켰으며 현대에 들어와 각국 간의 전쟁은 군인간의 전쟁만이 아니라 국민 전체가 이에 관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총력전으로 변모하였다. 특히 국토방위를 위하여는 국민에게 일반징병제를 실시하고 있는 것이 세계 각국의 통례로 되고 있다.

국가는 국민에게 병역의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만으로 족하지 않고 국민전체에게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토방위의 의무를 부담시킬 필요를 가지게 하였던 것이다. 오늘날 민주국가의 군대는 옛날의 왕후나 군주의 상비군이나 또는 직업군대와는 근본적으로 그 성격과 사명을 달리 하게 된 것이다. 곧 민주주권을 원칙으로 하는 민주주의 국가에 있어서는 군대는 곧 국민의 군대임을 우리는 간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왕년의 제국 군대나 금일의 붉은 공산 군대와 같이 침략적 야심이나 옛날의 당파심이나 이기심을 중심으로 하는 용병과는 본질적으로 그 존재 가치를 달리하며 오직 국민의 군대로서 존재하는 민주국가의 군대는 실로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민의 군대인 것이다. 그러면 이와 같은 군인은 무엇으로 그 사명을 완수하여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기로 하자.

ㄱ, 국토방위

국토방위의 사명은 이른바 이념에 입각하여 조국을 수호하고 조국의 발전에 봉임하는 사명을 뜻하는 것이다. 우리는 국민 중에서 선발되어 무기를 들게 되었고 국가 있는 곳에 반드시 국방력이 있어야 하며 우리 군인이 국방의 제일선에 나선 국가의 간성인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무장은 항상 외적의 침략을 방위함으로써 국가의 자유와 독립을 수호하며 국민의 자유와 안전과 행복을 확보하여야 할 군인으로서 건국이념의 원리와 원칙에 따라 행동함은 군인의 최고의 도덕이며 군인정신의 정화인 것이다. 우리 국가의 적이 공산주의일진대 국가를 방위하는 국군이 공산주의를 배격하는 정신을 가짐은 물론이다. 그러므로 공산주의에 대한 증오는 장래에 올 어떠한 적에 대해서 보다 더 강렬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ㄴ, 자유수호

민주군인은 자기 국가에 한정된 방위뿐만 아니라 자유진영의 민주주의 정신을 계승하여 외향적으로도 봉사할 도의적 사명이 또한 부과되어 있는 것이다.

그것은 진정한 평화수호 국가들과는 정대(正大)한 국제 도의와 예절로써 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정신은 우리 군인이 언제나 인류와 정의의 군대임을 자각하게 되는 것이다.

정의에 대한 꾸준한 기백과 부정의(不正義)에 대한 증오를 스스로 지니며 이에 따라서 움직이려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6·25가 준 산 경험, 그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 바로 30년 전 우리의 자유를 위하여 16개 우방국의 수만의 용사가 생명을 이 땅 위에 바쳤다는 뼈저린 사실인 것이다. 우리 민족이 이 사실을 망각할 때 우리는 이미 죽은 민족이나 다름이 없는 것이다.

ㄷ, 국민의 의표

민족의 역사적인 과업을 수행하고 국가의 자위와 자유를 수호하는 군인은 무엇보다 남의 수범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기원의 사실이다. 우리 군의 기본이념에 대한 개인의 충성심에 미쳐지는 이상과 같은 (19P로 계속)

군 운용(軍運用)에 있어서 기획업무(企劃業務)의 위치(位置)

1. 서론(序論)
2. 기획(企劃)에 대(對)한 정의(定義)
3. 국가적(國家的) 견지(見地)에서의 기획(企劃)
4. 군대(軍隊)에 있어서의 기획(企劃)
5. 결론(結論)



마중인(馬鍾仁)
〈공군대령·본부기획국차장 (空軍大領·本部企劃局次長)〉

1. 서론

어떠한 조직체도 그것이 형성되려면 그 집단이 달성해야 할 공동목적이 인위적이든 자연발생적이든 생기는 데서 조직의 필요성이 나온다고 보겠다.

군대도 이와 조금도 다를 바 없으며 국가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힘의 균형의 확보와 유사시에는 전쟁으로서라도 국가목표를 유지시킬 필요성을 인정하는 데서 군대가 조직된 것이라고 보겠다. 따라서 군대는 엄연한 임무가 부여되어 있는 것이며 그것이 국가적 견지(見地)에서 정치적으로나 또는 평화적 방법을 위하여 이렇게 이용되는 간에 그것은 위정자의 수완이고 군으로서의 철두철미 전쟁준비를 위한 내적 충실을 위하여 평시에 완전무결한 질적 양적 면의 우위가 확보유지 되어야 한다는 것만은 사실이다.

그 이유는 재언할 바 없지만 여하튼 국운이 일차 전쟁이 발발하고 나면 거의 전부 군사력에 좌우되고 말기 때문이다.

이렇게 전쟁 준비를 하고 그것을 유지하여 전쟁을 승리로 만드는 일이 군의 임무이며 국가가 바라는 것이라고 볼 때 이와 같이 전쟁을 위하여 전쟁이 발생하기 이전에 평시에 전쟁수단을 기획하고 그것을 달성할 수 있도록 국력의 모든 요소를 활용하여 사전 대비를 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군의 존재가치를 의의있게 하고 국민의 신뢰와 국가의 힘이 될 수 있게 하는 군 본연의 자세라고 본다.

따라서 군은 장래에 전개되는 목표달성을 위하여 현실에 존재하며 현재에 기초를 두고 있느니만큼 이러한 앞으로의 목표에 대하여 효율적인 행동지침을 설정하고 전개되는 의도적인 과정으로서 목표와 현실간의 교량적 역할을 하는 기획제도 없이 군 임무를 완수한다는 것은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며 명목상 또는 형식상의 존재에 불과한 것이다.

2. 기획에 대한 정의

기획은 행동 이전의 과정으로서 조직체가 창설될 때의 취지나 창설 목적에 따라서 이미 발생하는 것으로서 장래를 위한 것이며 목표달성을 위한 수단이며 설계도라고 보겠다.

오늘날과 같이 과학은 과도화되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심리 등 모든 면에서 복잡다난(複雜多難)한 변천과 다양성 있는 인간의 욕구는 제반면(諸般面)에서 예기치 못할 많은 문제의 야기를 촉진하여 왔으며 모든 관리층이나 지도층에 있는 책임자를 더욱 곤경에 몰아넣었다.

이러한 데에서 더욱 경제적이고 능률적이며 효과적인 경영관리를 요구하게 되었고 시대의 조류는 더욱 이에 박차를 가하여 이러한 새로운 시대적 가치개념에 역행할 수 없는 현실을 초래 하였다고 보겠다.

사실에 의하지 않더라도 기획이란 개념이 인류생활에 반영된 것은 석기시대부터라고 보겠으며 인류가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일정한 수단을 가지기 시작했을 때부터라고 보겠다.

그러나 기획 자체가 학문적 체계를 갖추게 된 것은 비교적 근대의 사실이어서 그 내용이나 방법은 물론 용어의 개념조차 아직 통일된 것 같지 않아서 명확히 단정 짓기는 곤란하다고 보겠으나 부문적으로 또는 개별적으로는 많은 이론이나 방책이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실천 행동의 뒷받침 없이 타학문과 달리 이론만이 선행될 수 없는 것이 기획임에 앞으로도 많은 발전의 여지가 있다고 보겠다.

따라서 기획은 실천과 동일하거나 또는 그보다 더 중요하며 행동이전에 성립되어야 하는 것으로 최선의 방책을 강구하는 것으로 방치나 무관심에서 구출하고 본연의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 도구라고 보겠다.

그러므로 기획은 예정된 행동방안(Predetermined Course Action)이며 3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즉 장래(Future), 행동(Action), 담당부서(Personal or Organization)이다.

그리고 기획은 장차 달성해야 할 목표에 필요한 가정을 설정하는 것임에 이것은 어디까지나 사실에 기초를 두어야 하고 감정이나 희망이나 욕구에 기초를 두어서는 안 된다.

기획은 본래가 지능적 업무로서 반사적 사고 즉 상상력이나 선견지명이 요구되는 것이며 크든 적든 변해가는 것이 사회의 철칙임에 여기서 야기되는 문제를 사전에 해결해나가고 마찰을 적게 만드는 것이 또한 이 기획이 거머쥔 일이기도 하다.

기획과 실천은 서로 따라다니는 것이며 기획은 단계이고 실천은 기능이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기획은 목표를 실현시켜 주는 길을 더 주는 것이며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만이 아니고 더 나아가서 기획을 하는 사람 자체도 모르고 있었던 새로운 방향과 방법을 유도해 주는 역할도 하게 되는 것이다.

특히 기획이 관리의 5대기능이나 기릭(Luther Gulik)의 Postcorb

에서 볼 수 있듯이 그 기본적 기능이며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계획 없이 타기능(他機能)의 발휘가 어려운 것이다. 그러나 일단 기획이 수립되고 나면 물론 동시에 전기능이 고려되어야 한다.

3. 국가적 견지에서서의 기획

기획은 국가 통치하는 장기적 시야에서 감안(勘案)하는 민주주의 체제 하에 있어서의 하나의 행정과정이며 최소한의 인력과 기구 및 예산으로서 최대의 성과를 획득하는데 그것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오늘날의 우리나라와 같이 정부의 계획 제도의 도입이 늦은데다 정부의 과중한 과업과 혁신적인 과감한 시책이 요구되는 현실의 제한된 시간과 공간 면에서 볼 때는 이 계획의 중요성과 이의 실질적인 적용 및 적극적 추진이야 말로 매우 중요한 기본정책의 하나가 아닐 수 없다

더구나 후진국의 경제제제와 자립적인 생활능력을 갖지 못하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가일층(加一層)의 난관과 실천 상의 애로(隘路)가 있음은 용인치 못할 사실이나 최소한 계획이 점유하는 현대 행정국가에 있어서의 영역과 점고(漸高)되어가는 국민의 이에 대한 인식은 범국가적 국가재건 성업(聖業)에 총체적 능력을 집중 발휘(集中發揮) 할 수 있는 기틀이 되어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실천과 이에 따르는 자립경제체제의 기반을 조속히 만들어 국가백년대계(國家百年大計)를 위하여 추진군하는 데 있어서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일이라고 본다.

기획은 국가적 견지에서 볼 때 국가의 이념국가 목표에서 그 근원을 갖는다고 보겠다.

이 국가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국내적으로 그 이익의 보장과 발전을 위하여 국가의 정책이 수립되어야 하며 이것에 의하여 기획이 작성된다고 한다.

따라서 기획이란 목표달성을 위한 기술이며 정책으로서의 목표와 현실을 이어주는 교량적 역할을 하는 것으로서 우리들의 일상생활에 실제(實在)하고 있으며 정당한 정의와 균형을 위한 분배를 말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기획은 현대사회에 있어서 필요불가결한 것으로서 특히 자유경쟁 경제체제 하에 있는 자본주의 정치체제 제도하에서는 부분에서 전체로 소수의 행복으로부터 다수의 행복으로 국가적인 조정이 필요한 것이며 확고한 국가시책에 따르는 거족적 전진과 후진성의 탈피를 위하여 매우 절실한 하나의 과정이며 제도라고 본다.

기획개념이 국가에 도입되어 정부정책화한 것은 좋으나 위정자들이 곧 이 시대적 조류를 악용하여 국민 전체의 이익보다 집권력 확대 또는 침략적 준비에 이용함으로써 국가 기획제도는 그 요람기에 있어 오류를 범하였고 그 때문에 일대(一大) 이론적 혼란을 야기(惹起) 아니할 수 없게 되었으니 진실로 국가 기획제도는 그 발기 초기부터 수난기를 맞이하였다고 보겠다.

이것은 우리나라도 예외일 수는 없었으며 집권층의 의도의 관철(貫徹)과 국민의 자유와 권익을 제한하는 하나의 방책으로서 외면상의 빛 좋은 간판으로서 앞세우고서 배후에 가서는 사리사욕이나 영리에 몰두하여 오히려 기획개체에 대한 증오감까지 조성(助成)했다고 보겠다.

더구나 후진국으로서 2차 대전 후의 선진 제국에서의 경제개발원조는 물론 국가적으로 큰 혜택을 받을 것만은 사실이나 국가의 자체의식에 대한 제약을 초래하게 되었고 정상적 절차와 순서에 의한 조직적이며 체계적인 기획수립을 불가하게 한데서 보다 더 큰 난관이 개재 하였다고 보겠으며 피동적인 소극적 방향으로 흐르는 경향(傾向)에 놓이게 한 여건을 부여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러나 적어도 집권자로서는 정부가 지향하는 국가시책을 가장 경제적이고 능률적이며 수행을 위한 국가기획의 정당한 자세로 발전시킴으로써 일진월보(日進月步)하는 시대적 요구에 적응해야 할 것이다.

4. 군대에 있어서의 기획

군에 있어서는 특히 국가가 평화적 방법으로서 국가의 목표를 달성할 수 없을 때 전쟁으로써 국가의 목표를 유지할 책임을 가지고 있음에 상시 이러한데 대비하기 위하여 목표달성에 필요한 인원 무기 기지 및 각종 교종에 대한 사전 준비가 요구되는 것이며 이것을 위하여 국력의 모든 요소를 신중히 검토고려(檢討考慮)하여 기획을 수립함으로써 직접적으로 국가의 목표달성을 위한 수단 및 도구로서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이다.

공군은 국가적 견지에서 보아 그 투자 면에 있어서나 또는 연간 소비(세출(歲出))에 있어서는 가장 큰 기업체가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이것을 가장 경제적이며 능률적으로 운용하여 장차에 대비할 수 있는 현재 능력을 유지케 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긴급한 일이며 이러한 제반사항은 정확한 기획을 하는데 있어서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전쟁에 대비하는 준비는 전쟁기획(War plans)의 작성으로 문서화되며 이 기획은 두 가지 목적을 갖는다.

즉 첫째는 전체적인 군사적 노력을 종합조정(綜合調整)하는 것이며 둘째는 이 노력을 가장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단방법(手段方法)을 말하는 것이다. 원칙적으로 보면 합동참모본부(TCS)가 수립하는 ‘연합기획’이 타군과 더불어 공군의 업무(Tasks)를 부여하게 되면 공군은 전시 작전을 위해 공군의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전투수단으로서의 최대능력을 갖추는 데 필요한 인원 항공기 공군기지 시설 및 물자의 수량과 종류를 적기에 구비(具備)키 위한 기획을 수립하여야 된다.

그러나 아직 현실로서는 이렇게 되기 위해선 많은 과제가 남아있다. 이와 같이해서 기획이 작성되면 이에 입각한 공군의 임무를 수행키 위해서 기획에서 고려된 각 기간에 있어서 필요한 인원수와 일정한 종류의 물자 소요량을 확보하여야 되는데 이와 같은 소요량에 의거하여 전력구조(Force Structure)를 개발키 위해서 작성되는 평시의 사전기획 또는 시간계획(Scheduling)이 즉 계획(Programming)이며 이런 계획사항을 반영하는 계획문서(Program document)가 국회에서의 자금 즉 예산인가를 얻는 기초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기획은 계획의 목표를 설정해 주는 것이며 또한 계획은 기획달성을 위한 전투능력의 유지 및 발전에 그 목적을 갖게 된다고 보겠다.

기획과 계획은 지휘관이나 참모의 기본적 직무(Primary)이며 동시에 상호 밀접한 관련성을 갖고 상부상조의 위치에 있다고 보겠다.

그리고 공군에 있어는 기획은 통상 전쟁기획을 말하며 국가목표 달성을 위한 정부의 도구로서 전시의 군 운용을 위한 설계도이며 작전상 3가지 요소를 고려 할 수 있다.

그것은 원칙이며 또 기준도 되는 것으로서 첫째 모든 기획은 목표로 지향되어야 하며 둘째 노력의 집중이 크게 요구될수록 더욱 기획의 필요성이 생기는 것이며, 셋째 기획을 빨리 작성해야 할 경우일수록 미리미리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며 계획은 보통 평시계획을 말하며 기획에 그 목표를 두고 작성되는 것으로서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요소가 고려되어야 한다.

첫째 기획을 지원하기 위한 목표에 지향되어야 하며, 둘째 과거 현재 미래를 연결하는 계속적인 과업이 되어야 하며, 셋째 현재의 능력과 요구사항을 설정한 현실적인 것이 되도록 해야 하고, 넷째 변동이 있을 때 적응할 수 있는 융통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5. 결론

오늘날 많은 관리층(管理層)에 있는 사람은 너무나 바쁘다.

지휘관 참모는 그 시간의 대부분을 결재서류나 현실적인 업무집행이나 그 해결을 위하여 소비하고 있다. 또한 지휘관으로서는 상위직책이 될수록 부득이 참석하여야 할 표창식 기념식 환송환영회 예방 등 적지 않다.

그리고 연회 골프 등의 사교를 위해서 시간이 꼭 차있다.

이러한 일들은 어느 것이나 권한을 위임할 수 없으며 또한 중요성을 가진 것 같이 보인다.

그러나 물론 그것이 군을 위하는 것이며 불가피한 체면상의 일이긴 하나 군은 현재 이 순간도 어떠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며 움직이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다.

따라서 지휘관 참모는 다망(多忙)한 일상 업무의 대하여는 권한을 위양(委讓)하고 정기적으로 현황을 보고 받되 적어도 기획이나 계획에 대하여 거적(巨的) 시야를 가지고 적극적이며 결단성 있는 방침을 결정하고 계획수립에 참여하여 명실공(名實共)히 군의 기업경영화(企業經營化)에 과학적이며 경제적 능률적인 접근을 시도해야 할 것이다.

오늘날 단기계획이 기업의 합리적 경영을 위하여 불가결(不可缺)의 것으로 널리 이용되어 왔으나 장기계획은 아직 일반적으로 제도화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장기계획의 뒷받침 없는 단기계획은 계획으로서 충분한 합리성을 가질 수 없으며 단기계획의 일환으로서 만들어질 때 비로소 가장 합리적 계획이 될 수 있는 것이다.

페이올(H. Fayol)은 이미 반세기 이전에 “경영한다는 것은 예측 한다는 것이다”라고 말하였으며 경영관리에 는 어떠한 예측이 필요함을 언급하였다.

따라서 앞으로 기획의 방향은 장기기획에 중점을 두고 기획제도의 확립, 현행 기획 및 계획의 완성(한미합동), 기획의 계몽 및 교육을 위주로 하고 현실적으로 요구되는 각종 정책의 확립을 위하여 전진해야 될 것이다. 오늘날 정부기구를 비롯하여 기획기구가 확장개선(擴張改善)되어 가고 있으며 공군에서도 기획국으로서 선임참모부로 탄생된 이면(裏面)에는 지나치게 벅찬 감을 느낄 정도로 다대(多大)한 과업과 기대(期待)가 놓여 있음을 체감할 때 무엇보다도 기획제도의 강력한 활용과 이의 필연성을 최대한 선용하기 위해서는 지도층을 비롯해서 군 전체가 이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있어야만 할 것은 물론이거니와 기획요원 자체도 개척자적 정신을 발휘하여 매진(邁進)해야 되리라고 본다.

<참고문헌>

Lebreton & Henning ; Planning Theory

Newman ; Administrative Action

Charles Worth ; Governmental Administration

Terry ; Principles of Management

AFM 27-1 ; Program Process

AFM 28-3 ; Guide for Wartime Planning

AF CSC M ; Air Force Planning and Programming

내각기획통제실발행 ; 기획(축보(縮報))

(內閣企劃統制室發行)

이해원(李海元) 교수(教授); 서울대학교(大學校) 행정(行政) 대학원(大學院)에서의 기획강의(企劃講義) 중(中)에서 (1962 연도(年度)후반기(後半期))

사소한 방심이
큰일을 그르친다.

문제의 제기

공산권의 장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는 너무나 커다란 질문이다. 아마도 이 질문에 명백한 답변을 할 사람은 없을 것 같다. 그러나 이와 같은 질문은 최근에 자주 제기되는 것 같다. 왜냐하면 최근에 공산권의 움직임은 과거 어느 때 보다 심상치 않은 것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공산권의 이론투쟁(理論鬭爭)이다. 공산권의 이론투쟁은 갖가지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그 역사도 긴 것이다. 어느 한 파가 이길 때 공산권 전체의 모습은 승리한 파의 정책과 이론으로 채색(彩色)될 것이다.

그리고 그동안 공산권 이론투쟁이 진행되는 가운데는 그들이 무엇 때문에 싸우느냐는 짐작할 수 있게 되었고 앞으로 어떠한 결말을 볼 보게 될 지도 어느 정도 내다볼 수 있게 되었다. 특히 공산권의 이론투쟁은 최근에 와서 한 가지 문제에 집중된 것 같다. 그것은 세계 공산당 회의를 개최해야 옳으나 아니냐에 있다. 그만큼 세계 공산당 회의는 문제의 초점이 되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현금(現今)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허다한 국제적인 사건은 대체로 공산주의와 직접 간접으로 연관되어 있다. 그러한 의미에서 세계 공산당 회의는 세계정세에 영향을 미칠 지도 모른다. 세계정세에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지는 차치하고서라도 이것은 공산권이론투쟁을 결정적으로 좌우할 수 있는 것이다. 여기에 세계 공산당 회의설의 자초지종을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북경과 세계 공산당 회의

그러면 세계 공산당 회의는 누가 제기하였으며 무엇 때문에 열자는 것일까?

이는 작년 12월 15일자 북경 인민일보 사설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즉 “체코슬로바키아 공산당대회에 참가한 중국공산당의 대표단은 성명에서 국제 공산주의 운동 중에 약간의 중대한 원칙문제에서의 분규를 해결하기 위하여 중국 공산당과 그의 형제당들은 세계 각국의 공산당과 노동당 대표들 간의 회의를 열고 시비(是非)를 똑똑히 하며 단결을 강화하며 공동의 원수에 대처할 것을 제의한 바 있다. 우리는 이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것이고 정확한 것이라고 인정한다고 지적했다…….”

이것을 보면 세계 공산당 회의가 언제 제기되었는가를 알 수 있다. 또한 무엇 때문에 열자고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체코슬로바키아 제12차 공산당대회는 작년 12월 초였으므로 세계 공산당 회의는 그때부터 나온 말임에 틀림이 없다. 우선 이러한 말이 나오게 된 체코슬로바키아 제12차 당 대회의 성격을 보면 중공이 이 세계 공산당 회의를 개최하자고 한 내막을 더욱 자세히 알 수 있다.

작년 11월과 12월에 걸쳐 동유럽 공산 위성국에서는 일련의 공산당 대회가 있었다. 즉 불가리아 제8차 공산당회의(작년 11월 5일-11월 14일), 헝가리 제8차 사회주의 노동당 대회(작년 11월 12일), 체코슬로바키아 제8차 공산당대회(작년 12월 4일) 등이었다. 그리고 공산 위성국 아닌 제10차 이탈리아 공산당 대회가 있었다.

이 중에서도 체코슬로바키아 공산당대회에서는 중공과 소련이 격돌한 것 같다. 전기한 공산당 대회는 예외 없이 중공과 소련이 충돌하였으나 체코슬로바키아 당 대회가 가장 심한 것 같이 보도되고 있다. 이는 중공의 인민일보에서 다음과 같이 논할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다. 즉 “……이번 대회의 연단들이 형제 당들을 공격하기 위한 장소로 이용되었다는 것은 불행한 일이다. 단결을 파괴하며 분열을 조작하는 이 오류는 이탈리아 공산당과 체코슬로바키아 공산당대회를 계기로 새로운 절정에 이르렀다.”

따라서 중공이 세계 공산당 회의를 개최하자고 한 것은 중공과 소련 간의 상호비난이 절정에 다다랐을 때이다. 그러면 왜 중공은 이 세계 공산당 회의를 제기하였을까?

전기한 바와 같이 표면적인 이유는 ‘원칙문제의 분규’를 해결하자는데 있을 것이다. 그러나 중공은 이 회의를 가짐으로써 공개토론과 함께 중공의 주장을 내세워보자는 야심을 간과할 수 없다. 원래 중공과 소련 간의 이론투쟁에서 중공은 소련을 수정주의자(修正主義者)로



공산권(共產圈)의 장래(將來)

—세계(世界) 공산당(共產黨) 회의(會議)

개최설(開催說)을 중심(中心)으로—

양흥모(梁興模)

모든가 하면 소련은 중공을 교조주의자(敎條主義者)로 모든 동시에 소수파로 몰고 있다. 중공이 소수파로 몰리는 이유는 중공을 추종하는 자들은 알바니아 공산주의자 등 소수라고 보기 때문일 것이다. 중공은 소수로 몰리고 있지만 길고 작은 것은 재보자는 격으로 자기들의 주장이 진리라고 믿고 이러한 것은 세계 공산당 회의를 개최함으로써 설득할 수 있다고 보고 있을 것이다.

모스크바의 반응

중공이 세계 공산당 회의를 개최하자고 하는데 대한 모스크바의 처음 반응은 냉담한 것이었다. 중공이 세계 공산당 회의를 개최하자고 제의한데 대한 모스크바의 반응은 금년 1월 7일 프라우다 지(紙)에서 처음으로 개진되었다. 소련 공산당 기관지 프라우다 지는 장문의 사설로써 조심스럽게 세계 공산당 회의문제에 언급하였던 것이다.

프라우다 지는 이데올로기의 대립문제를 토의하기 위한 각국 공산당화외에 동조하기로 하였으나 ‘다수파(소련지칭)의 결론을 거부하기 위하여 이른바 소수파(중공지칭)의 독단론적인 주장을 내세우려는 자들은 이에 참가할 자격이 없다고 하였다. 이것은 중공이 세계 공산당 대회를 문제해결의 유일한 길로 지적하고 있는데 비하여 소련은 동회의의 성격을 규정하여 그 회의에서 중공 주장이 용납될 수 없음을 명백히 하였다. 이와 같은 프라우다 지의 사실이 나오자 세계 공산당의 표정이 주목할 만한 것이었다. 동유럽 공산 위성국을 중심으로 해서 거의 다 같이 소련노선을 다시금 지지하는 태도를 보였다. 이 중 중공노선을 지지한 것은 북한 공산괴뢰집단과 알바니아뿐이었다.

이러한 일이 있는 후 세계 공산당 회의 문제는 금년 1월 15일부터 1월 21일까지 개최된 동독 제6차 사회 유일당 대회에서 다시금 제기되었다.

이 동독 사회 유일당 대회에는 호루쇼프가 직접 참가 하였다. 중공 대표로서는 그 이전 동유럽공산 위성국 당 대회 참석한 일이 있었던 우슈취안(伍修權)이었다. 호루쇼프는 세계 공산당 회의 문제에 언급하여 “대립의 악화와 분열을 더하게 할 것으로 필요가 없다”고 하였다.

호루쇼프는 그때 알바니아를 공격하고 중공이 주장하는 전쟁불가피론에 일침을 가하여 “핵 전쟁에는 승리자가 없다.”라고 하였다. 그러는가 하면 쿠바에서의 소련 정책은 승리하였다고 하여 중공의 비난을 일축하였다. 그래서 동독 사회 유일당 대회까지만 해도 소련이 세계 공산당 회의에 의향이 없었음을 간취할 수 있다.

소련 공산당 동조의 이면(裏面)

그러다가 1월 28일 중공인민일보는 다시금 그들이 주장한 세계 공산당회의를 개최하자고 주장하였다. 중공은 1. 세계 공산당 회의를 소집할 것과 2. 소련이 논쟁을 중지할 것과 3. 소련은 1957년과 1960년에 발표된 모스크바 선언을 준수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1월 30일자 북한공산괴뢰의 노동신문은 “……우리 당은 국제 공산주의운동 내에 의견 상이는 유구한 형제당 들의 개별적 접촉과 모든 당의 국제회의에서 토의하여 해결해야 한다고 인정 한다”라고 하여 중공의 세계 공산당 회의에 찬성하였다. 아마도 북한이 중공의 세계 공산당 회의 개최 제의를 지지한 공식 태도는 여기서 처음일 것이다. 북한이 이렇게 나오는 것은 그 이전 이미 중국 노선을 지지한 바 있으므로 새삼 놀랄 것은 없다.

이러한 일이 있는 후 2월 10일 소련 공산당은 중공의 세계 공산당 회의 제의에 수락하는 성명을 발표 하였다. 즉 “소련 공산당은 만약에 여러 형제당 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마르크스·레닌주의 정당들의 국제 대회를 열자”라고 하였다.

그러면 소련이 어째서 이와 같은 태도로 나왔을까? 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다. 그 하나는 소련이 진정으로 분규를 해결하기 위하여 그 회의를 개최하자고 하였을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이와 반면에 또 하나는 이 회의를 개최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해보자는 심산보다도 이 회의와 함께 소련의 주장을 확인해 보자는 것이 아닐까 하는 것이다.

이 두 가지는 다 같이 작용되었으리라고 보아야 한다.

첫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중공과의 이론투쟁이 격심해짐에 따라 공산권은 두 갈래로 갈라놓게 되었다. 소련은 북한. 알바니아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 일본공산당이 북경노선에 따르는 눈치가 보이므로 일단 중공은 차치하고서라도 그 밖의 공산당의 동향이 심상치 않으므로 차제에 휴전해서 대립을 완화시키는 듯한 태도로 나왔을지 모른다.

둘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와 반면에 소련은 앞으로 세계 공산당 회의가 개최되더라도 소련 주장을 밀어줄 각국 공산당의 지지를 명백히 받을 수 있다는 전망에서 나왔을 것으로 볼 수 있다. 그 동안 작년 말에서 지금까지 소련은 그들 노선을 중심으로 규합시키는데 성공하였다. 따라서 처음 중공 이 세계 공산당 회의를 제기할 때와는 정세가 달라져 만약에 동(同)회의가 개최되면 결정적으로 중공 주장을 물리칠 수 있다는 자신에서 나왔을지도 모른다.

세계 공산당회의의 전망

소련이 어떠한 이유에서 세계 공산당 회의를 개최하자는데 수락하였던 간에 이 회의가 개최되어도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그 단적인 이유로서는 중공과 소련 간의 견해대립이 심각하기 때문이다. 동시에 이 견해 대립은 단순히 견해대립에 그치지 않고 어느 일방이 수그러진다는 것은 양측의 대내(對內)정치적 기반을 근본적으로 뒤흔들리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최근의 표면적인 대립은 서상한 세계 공산당 회의를 중심으로 한 것이었으나 문제는 소련이 비난하는 중공의 교조주의와 중공이 비난하는 소련의 수정주의에 있다. 중공이 비난하는 소련의 수정주의는 1956년 2월의 제20차 소련공산당대회 이래 호루쇼프의 정책이 되고 이론이 되어있다.

호루쇼프가 중공이 주장하는 대로 수정주의를 버리자면 평화공존 정책도 버려야 하고 스탈린 격하(格下)운동이나 개인숭배 배격도 버려야 한다. 그러는가 하면 호루쇼프의 야심작이라고 할 수 있는 20개의 새 강령(제22차 당 대회에서 통과)도 버려야 하고 호루쇼프가 스탈린주의자 내지 반당(反黨) 분자로 찍어 추방한 폴로토프, 말렌코프, 카가노비치 등 허다한 스탈린주의자들의 주장을 옳다고 인정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호루쇼프가 세계 공산당 회의를 통해서 이러한 것들을 굽히리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다. 이론 투쟁에 있어서 호루쇼프가 중공에 굴복한다는 것은 그 자신의 정치적 생명을 위협하는 것이다.

이와 반면 중공이 소련의 주장대로 교조주의를 버릴 수도 없다. 중공 역시 소련이 중공에 굴복할 수 없는 동인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한때 중공에서도 호루쇼프의 영향을 받아 그 노선에 추종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즉 백가쟁명, 백화제방, 정풍운동 등이 바로 그것이었다. 그러다가 중공은 당황한 일이 있다.

이러한 것은 젓혀 놓고서라도 중공은 소련을 비난하기 앞서 언제나 유고슬라비아를 전형적인 수정주의자라고 공격하였다. 그러나 유고슬라비아는 스탈린 시대와는 달리 소련과 더욱 가까운 사이가 되었다.

중공이 소련과 화해 할 수 있느냐는 중공이 유고슬라비아와 화해할 수 있느냐를 생각하면 족할 것이다. 그 것을 생각하면 중공과 소련 간의 해빙(解氷)이 있을 것인지는 지금으로서 생각을 할 수 없다. 특히 2월 10일 소련공산당의 성명이 있는 후 중공은 “소련이 유고슬라비아의 수정주의를 두둔하는 따위의 과만(過漫)을 시정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것을 보더라도 알 수 있는 것이다.

일언이폐지(一言而蔽之)해서 중공과 소련의 이론투쟁은 근본적으로 변천하는 정세에 모순되는 공산주의에서 나온 것이니 만큼 그것이 쉽사리 해결 될 수는 없다. 미봉적으로 해결 될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세계 공산당 회의가 개최되더라도 그로써 이 이론투쟁을 가시게 할 수는 없다.

역사적으로 본 국제공산회의

100여 년 전 1848년 2월 마르크스는 공산당선언에서 “모든 역사는 계급투쟁의 역사다”라던가 “만국 노동자는 단결하라”고 하였다. 그 이래 공산주의자들은 국제적인 단결을 계양하였다. 그에 따라 조직된 것이 마르크스가 조직한 제1인터네셔널(1864년-1872년 국제노동자협회)·엥겔스의 제2인터네셔널(1889년-1914년)·레닌 창립의 제3인터네셔널(1919년-1943년)·스탈린이 창설한(1947년-1956년) 코민포름(공산당정보국) 등이 있었다. 또한 스탈린 사후 코민포름이 해체된 후 국제공산회의는 1957년에 모스크바 회의와 1960년의 모스크바 회의가 있다. 그밖에 공산위성국의 개별당회의가 그러한 모습을 띠었다.

그러나 공산주의자의 단결은 이러한 국제회의와 함께 굳게 단결된 것이 아니라 분열되고 있다. 또한 시초의 이론이나 예언이 변천된 정세에 모순됨을 드러냈다. 이제 중공과 소련은 전기한 모스크바 선언의 해석까지 달리 하고 있는 것이다. 두 차례에 걸친 모스크바 선언이 공산권의 단결을 주장한 것은 사실이다. 1957년의 모스크바 선언은 수정주의와 교조주의를 두루 극복할 것을 주장했는가 하면 1960년의 모스크바선언은 평화적 공존정책을 확인했는가 하면 유고슬라비아의 수정주의를 공격했다.

지금에 와서는 모스크바와 북경이 다 같이 모스크바 선언에 충실할 것을 다짐하고 있으나 중공은 그것이 자기 노선을 확인한 것처럼 해석하는 데 반하여 소련은 자기 노선을 확인한 것처럼 해석하고 있다. 만약에 앞으로 세계 공산당 회의가 개최되면 이 해석부터 따져야 할 것이다. 이제 공산주의자들의 국제회의는 판결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주장을 내세우는 투쟁의 장소로 변모되었다. 후퇴해가는 공산주의의 모습은 세계 공산당 회의를 정점으로 노정할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아직 세계 공산당 회의가 언제 어디서 개최될 것인지는 알 수 없다. 소련공산당 기관지 프라우다는 2월 14일 오는 12월 모스크바에서 동 회의를 개최하자는 인도 공산당의 제안을 논평 없이 제제하였다고 한다. 이것은 인도 공산당이 제안한 12월 개최설을 소련이 검토해 볼 용의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한편 소련은 세계 공산당 회의가 개최되기에 앞서 중공과의 양자회담을 가질 것을 표명하였던 만치 이 양자회담이 개최되어 세계 공산당 회의에서 타결될 눈치가 보이지 않는 한 동세계공산당회의가 개최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월 15일 현재)

'탱크'라는 명칭의 유래

1915년, 영국에서 장갑 자동차를 만들기 시작하였는데 그 설계의 기초를 미국 무한궤도식 농경차(無限軌道式 農耕車)에 두었다.

당국에서는 적군이 이 새로운 무기를 곧 알아낼까 겁이 났다.

그리하여 공장의 제작자들에게 지시하기를 이 이상한 수레가 무엇이나고 묻거든 사하라 사막의 영국 군대에게 음료수를 나르는 수조차라고 대답하라고 하였다.

그러나 이 말이 읽기에 불편하고 너무 길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그래서 뜻이 같으면서도 읽기에 좀 더 쉬운 말을 찾기로 하였다.

그딴 말이 바로 '탱크'인 것이다.

고민하는 중공

US News & World Report 지(紙)에서



◇탈출에 성공한 중공의 난민들이 밥을 달라고 내민 이 앙상한 손들은 굶주린 7억 인구의 참상을 대변해주고 있다.

오늘날 중공을 괴롭히고 있는 것은 인도국경문제 정도가 아니다.

모택동(毛澤東)은 국내외를 막론하고 사면초가(四面楚歌)에 직면하고 있다. 그가 하려고 하는 일은 도무지 되는 일이 없는 것 같다. 중공은 파멸 상태에 있다.

그런데 왜 모택동은 현행 방식으로 일을 벌이고 있는 것일까? 다음의 글은 U.S News & World Report지의 국제문제 담당원인 로버트P. 마틴씨가 집필한 것인데 아시아의 대표적 중공 전문가들의 합치된 의견을 반영하고 있다.

중공의 괴이한 대인전(對印戰)에 관해서 아시아의 전문가들은 이제야 그 의견이 일치되기 시작하고 있다. 얼마 전(1962년 말) 중무장으로 잘 훈련된 중공군대는 1,400마일 국경선의 여러 지점으로부터 인도를 향하여 공격한 바 있다. 이 공격은 맹렬하고, 잘 진행되었으며, 또 놀랄 만큼 성공적이었다. 동화국경선에 배치되었던 인도군은 문자 그대로 소멸되었다.

그러나 중공은 인도의 가장 풍요한 영토인 아쌈 영토를 점령할 단계에 이르자 갑자기 그 침공을 중지하고 말았다. 모택동은 승리를 눈앞에 두고 그것으로부터 후퇴함으로써 전 세계를 놀라게 하였던 것이다. 중공은 왜 먼저 공격해 왔을까? 그리고 왜 주침공(主侵攻) 개시의 순간에 갑자기 이를 중지하였을까? 앞으로 그들은 무엇을 할 것인가?

☆전문가들의 견해

이러한 수수께끼를 해결할 열쇠를 찾고 있는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은 해답에 도달 하였다. 모택동과 그 추종자들은 공포 때문에 모든 행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것 같다. 인도전쟁은 바로 그 한 예이다.—인도가 국경선 일대에 초소(哨所)를 세웠을 때 중공은 일을 결코 묵과할 수 없는 군사적 도전으로 간주하였다. 인도가 혹시 티베트의 반공 폭동을 도와주려고 하지 않을까, 중공은 우려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진격하였다. 그러나 공포와 군사적 타산이 이를 가로막았다. 전쟁을 인도평야 안으로 확대시킨다면 중공의 인력이나 자

원으로서는 너무나 큰 지출이 될 것이다. 그리고 미국이나 영국의 개입을 초래할 가능성도 다분히 있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모택동은 진공을 중지하고 알았던 것이다.

중공이 처음에 인도를 침공하고 그 후 그것을 중지하지 않을 수 없었던 심정의 이면에는 중공의 지도자들을 괴롭히는 보다 근본적인 공포가 있다고 홍콩의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이 전문가들은 또 최근에 중공경제 상황을 알고 있으며, 국민의 감정을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리고 있다 중공은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감정적으로 병들어 있다. 중공은 수년 전에 누구나 예측했던 것보다 더욱 중태에 빠져 있다.

지난해 (1962년)의 추수는 1959년 이래의 풍작이었다. 그러나 전 양곡(糧穀)의 생산은 고구마를 합쳐서 1억 8천 5백만 톤을 초과 하지 못 하였을 것이다. 7억에 달하는 중공의 인구는 매년 최소한 2억 5백만 톤이 필요한 것이다.

모자라는 것은 오스트리아, 프랑스, 서독으로부터 곡식을 수입함으로써 다소 메울 수 있었다. 중공은 양곡을 수입하기 위해서 1961년에 1억 8천 4백만 불을 지불하였는데 1962년 말에는 1백 7십 5만 불을 더 지불할 예정으로 있었다. 아직도 장부에는 3억 4천 1백만 불의 빚이 있다.

농업의 실패는 비참한 결과를 가져왔다. 대소무역(對蘇貿易)은 1959년에 약 20억 불에서 1961년에는 10억 불 이하로 저락하였다. 외환을 전용하여 양곡을 구입하기 때문에 서유럽으로부터의 강철, 화학제품, 중공업시설 수입은 50%가 삭감되었다.

☆전형적인 경제부진

중공은 오늘날 전형적인 디프레션에 빠져있다. 이러한 현상은 공산주의자들이 일어날 수 없는 것이라고 장담해왔던 것인데 많은 실업자와 인플레이션 그리고 광공업의 운휴(運休)가 계속되고 있다. 적어도 3천만 이상의 도시민들이 농촌으로 이송되어 농사를 짓고 있다.

1960년과 1962년 사이에 강철 생산량은 1천 8백 4십만 톤에서 1천만 톤으로 줄어들었다. 석탄 생산량은 4억 5천만 톤으로부터 3억 4천만 톤으로 감소되었으며, 전력은 5백2십억 킬로와트에서 3백억 킬로와트로 감소되었다.

경공업 역시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종이 생산량은 1959년과 1962년 사이에 2백 3십만 톤에서 1백만 톤으로 떨어졌다. 직물 생산량이 대폭 감소되고 또 그 배급량이 어떻게나 줄어들었는지 양복 한 벌을 해 입으려면 2년분의 배급품이 필요하게 되었다.

전 중공을 통하여 공장들은 폐쇄되거나 하루에 한나절 움직이고 있다. 하나밖에 없던 트럭공장은 1960년에 문을 닫았다. 중공은 그들의 홍지 자동차를 이미 생산하지 못하고 있으며, 조선소도 부진 상태에 있다. 그들은 전기나 통신시설을 건설할 수 없으며, 이것을 외국에서 사들일 여력도 없다.

체코슬로바키아에서 세워준 볼 베어링 공장도 거기에 필요한 특수강철을 사들일 수 없기 때문에 파리를 날리고 있다.

☆악화일로(惡化一路)의 교통

침묵, 궤도(軌道), 차량 및 노동자에게 줄 식량의 부족으로 철도의 시설은 중지되었다. 각선의 현행 운행표는 대폭 감축되었으며, 관동 및 북경 간의 본선도 객차는 매일 1회 왕복 밖에 운행하지 않고 있다. 이것은 50%의 삭감이다.

1961년에는 중앙지대의 제일 중요한 교통수단인 양자강의 수상운송이 하물부족으로 반이나 줄어들었다. 전 해안을 운항하는 선박은 30%가 휴선 하였으며, 트럭운수는 1960년의 50% 가 감소되었다. 1960년 6월에서 1962년 6월 사이에 많은 노인과 아이들은 영양실조 및 질병의 희생자가 되었다.

식량공급과 인구 사이의 균형을 잡기 위하여 현재 비상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5년 동안 매년 평균 2% 내지 4%의 식량증산을 가져온다 하더라도 중공은 인구증가를 따라 갈 수는 없을 것이다.

산업전망도 한결 더 암담하다. 중공이 1960년의 생산 수준을 다시 회복하려면 잘해야 5년 내지 10년은 걸릴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믿고 있다. 많은 공장들은 다른 대체물로 흡수되고 있으며 계속 위축일로(萎縮一路)에 있다.

중공은 실업가와 지주의 재산을 압수하고, 상업을 독점하고, 소련의 차관을 이용함으로써 제1차 5개년 계획의 자금을 조달할 수 있었다. 그들은 노동의 강제동원과 식량의 강제 저축 —인민공사제도를 통하여 2차 5개년 계획의 자금을 조달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는 비참한 결과를 초래 하였다 오늘날 3차 5개년 계획을 위한 새 자본이 어디에서 염출될 것인가가 하나의 수수께끼로 되어 있다.

☆기진맥진한 백성들

중국인은 개인적으로 볼 때, 사기만 복돋아 준다면 일하면서 살아나갈 충분한 능력을 구비하고 있다. 그러나 모택동 지배하의 중국인들은 환멸과 무감각 상태에 있다. 홍콩이나 마카오로 탈출을 성공한 피난민들의

공통점은 그들의 모두가 공산제도 하의 중국의 장래에 한결같이 희망을 잃었다는 것이다.

모택동은 아마 전 세계의 지도자 가운데서 가장 실패한 지도자일 것이다.

그는 외계로부터 차단되었다. 그는 아시아의 신생국가로부터 중공이 기반을 잃고 있음을 알고 있다. 그는 국방부 지배하의 대만은 해방시킬 수 없었으며 오히려 지난여름에는 국부군의 침공 위협에 대처해서 군사력을 동원하지 않을 수 없었다.

중공과 소련은 공산주의 전략에 관하여 서로 상극하고 있다. 모택동은 이 분규(紛糾)에서 좀처럼 양보할 수 없을 것이다. 만일 그가 소련과의 최종적 분열을 촉진한다면 그때는 중공은 틀림없이 고립될 것이다.

☆모택동의 많은 공포

오산(誤算)은 공포를 수반하는 것이다. 전문가들이 보는 견해에 의하면 현재 중공을 휘덮고 있는 공포는 다음과 같다.

▲호루쇼프가 세계 공산주의 운동을 지배하고 있다는 점. ‘세계 혁명’을 성취할 방법에 관한 중공의 이론은 인기를 잃고 있다.

▲소련이 중공과 대체해서 아세아에 있어서의 가장 지배적인 세력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점. 호루쇼프는 보다는 많은 자원을 마음대로 할 수 있으며 인도, 인도네시아 및 라오스에서 튼튼한 기반을 닦고 있다.

▲아세아 제국(諸國)이 이제는 중공군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점.

▲공산주의의 사활을 쥐고 있는 군대가 실패와 절망으로 사기(士氣)를 잃고 있다는 점.

중공은 농민군의 등을 타고 권력을 잡았다. 한국 전쟁 중 소련의 장비는 이 군대를 현대화시켰다. 그러나 지난 10년 동안에는 이렇다 할 발전을 보지 못하였다. 군대는 국내 치안에 이용되었으며, 또 많은 군인이 농사를 짓기 위해 농민으로 전환되었다.

최신 무기로 완전 장비된 직업군을 창설하기를 원하고 있는 일부 지휘관들에게 불평불만이 자자하리란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그들은 모택동-호루쇼프 간의 분쟁을, 중공군에 대한 장비 지원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보고 있다. 이러한 장교들은 모택동이 굴욕적인 항복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모스크바와 화해하기를 바라고 있다.

지난 3년 동안에 일어난 경제적 재앙으로 인해서 중공군이 전반적으로 얼마만큼 타격을 받았는가에 관하여 아는 외부인은 아무도 없다.

그러나 현역 및 제대군인의 가족들이 다시 특별대우를 받고 있다는 사실, 즉 더 많은 식량, 의류, 자녀 교육의 혜택을 입고 있다는 사실은 의미심장한 바 있다. 만약에 대부분이 농민인 수백 만 중공군인이 현상에 만족한다면 이러한 특별 우대는 필요 없을 것이다.

또 중요한 사실은 중국공산당이 정치훈련을 촉진시키고 절대 지배체제를 재확립하기 위하여 군대내의 모든 계층에 침투하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일들은 많은 문제로 골치를 앓고 있는 중공에게 설상가상의 괴로움을 주는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전문가 중에 한 사람은 모택동의 만용(蠻勇)을 다음과 같이 해석하고 있다.

“공포에 떨고 있을 때는 누구나 안전한 도피구를 찾던가, 그렇지 않으면 이 공포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물불을 가리지 않고 거대한 모험을 감행할 것이다. 자존심이 강하고 거만한 중국인인 모택동은 호루쇼프의 대결에 있어 후자의 방향을 따르는 것 같다. 그것은 대인공격에서도 증명이 되고 있다.

그러나 그는 아직도 공포에 사로잡혀 있다. 중공군의 궁지를 견지하기 위해 국경전쟁은 앞으로도 계속 불붙을 것이다. 그러나 나의 추측으로는 이러한 섬광은 늘 중공의 전체적인 충성의 결핍으로 인해 명멸할 것이다.”

(김기태 역)



◇강제노동에 동원된 중공의 대학생들

<7P에서 계속>

제영향중에서 일정한 인물과 단체들의 행동도 적은 것은 아니다. 어느 사회에서나 군인과 군대는 상징적인 기능을 획득하게 된다. 그들은 국가사회의 지배적 포부의 표본이 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민족의 지상 과제인 국토통일과 민족자립의 이상을 실현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다. 수범의 힘은 민주주의 경쟁원칙에 대한 일반적 충실성을 조성하는 과정을 구성하는 요소인 것이다.

우리 군인은 국민의 근본이익을 수호증진(守護增進)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자각 하여서 누구보다도 많이 배우고 연구하는 한편 진취적인 과감한 정신을 바탕으로 하여야만 국민의 의표(意表)가 된다는 것을 명심하고 항상 행동할 때 국민을 위한 국민의 군대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4. 결론

우리는 아직도 민주국가의 육성발전에 박차를 가고 불철주야(不徹晝夜), 자국의 융성(隆盛)과 민족의 번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조국 재건의 이상인 동시에 과제인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이 확보함에 있어서는 군인에 부과된 신성한 의무를 충실히 완수함으로써 비로소 달성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이러한함으로써 우리의 생존과 발전은 기약(期約)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군인은 각자에게 맡겨진 임무를 자각하고 이 임무를 통하여 조국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바를 실천하여야 비로소 참된 영광과 명예는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이다. 무릇 이 나라가 훌륭하고 빛을 내려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경제건설과 국방이라는 중대한 사명을 인식하고 우리 군인은 국방의 기간(基幹)이 되고 또 평화의 용사가 되어야 한다.

“정의와 강의를 군은 숭하며 불의와 열악(劣惡)의 군은 패 한다”는 것을 명심하여 우리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굳건히 수호하고 크게 융성 발전케 하기 위하여 심지를 견고히 해야겠고 많이 알아야 하며 보다 큰 ‘힘’을 갖추어야 한다. 이렇기 위하여 우리 군인은 더욱 자중자각(自重自覺)하여 국가에 기여하는 군인이 되어야 할 것이다.

민족 · 인종 · 국민

현재 우리는 민족의 자유와 인간의 자유를 위해서 적색제국주의(赤色帝國主義)와 대전하고 있다. 이것은 엄숙한 현실이요, 긴장된 현실이다. 그러면 이러한 현실에 있어서 우리가 옹호하는 민족의 본질과 우리가 외치는 자유의 본성은 과연 어떠한 것인가? 이것은 마땅히 한 번 반성해 보아야 할 일이다.

민족은 인종과 다른 것이다. 인종은 생리적 개념이나 민족은 문화적 개념이다. 한민족은 민족으로서는 하나 있지만은 인종으로서는 수개의 혼합종이다.

그 근간적인 종이 중국어의 소위 ‘괴매(Khouei-mai)’, 일어의 ‘고마’, 영어의 ‘코리아’, 우리말의 ‘개마’인 것은 사실이다. 허나 이 근간 인종의 괴에 한인, 몽고인, 일인, 터키인들의 피가 섞여 있음이 또한 사실이요, 현재는 구미인(歐美人)과도 혼혈하는 중에 있다. 이런 사정은 우리민족 뿐만 아니라, 현재의 문화민족 일반에 공통된 것이다. 지구상에 혼혈되지 않은 민족은 하나도 없다.

민족(民族)은 국민과 또 다른 개념이다. 국민은 사회적, 정치적 개념이나 민족은 정신적, 문화적 개념이다. 우리 민족은 단일민족이되 현금 대한민국과 공산 괴뢰로 양분되어 있다. 저 독일 민족도 같은 민족이면서 역시 서독과 동독으로 나누어져 있다. 이런 예는 현재뿐 아니라 역사상에도 허다하였다. 가령 일찍이 폴란드는 러시아, 오스트리아, 독일의 삼국에 분속해 있었던 것이다. 반대로 한 국가 안에 다수민족이 포함되어 있는 수도 있다. 현재 미국이 여러 민족으로 성립된 것과 같고 일제(日帝)의 소위 만주국(滿州國)에 5종의 민족이 편입되어 있었던 것과 같다.

민족과 국민은 외연이 합치 하지 않고 있다. 여기에 정치성 마이너리티(Minority) 문제 혹은 이레덴티즘(irredentism) 문제가 생기는 까닭이 있다. 전자는 다른 국내에서 통치되는 소수민족이 그 국가 안에서 자치를 요구하는 것이요 후자는 자국에 귀속되지 못하고 있는 동족과 동족이 사는 토지를 자국에 회수케 하고자 하는 것이다.

요컨대 민족은 인종과 다르고, 국민과도 다른 것이다. 민족은 그것보다 이상의 정신적, 문화적, 역사적인 개념이다. 민족의 자유를 강조하는 것은 같은 전통, 풍속, 언어, 역사에 대해서 공동의 감정을 품을 뿐더러 현재와 미래를 향해서 공동의 희망과 궁지와 운명과를 또한 의식케 하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민족적 의식은 곧 문화적 공동의식이다.

—최재희(崔載喜)「민족과 자유」중에서—

퇴청(退廳) 후 러시아워(Rush-hour)에 세종로 길을 건너노라면 도시생활의 삭막과 부자유를 새삼 느끼곤 한다.

무엇 때문에 이 많은 사람이 북악(北岳)과 남산(南山) 사이 골짜기에 몰려 살면서 횡단보도라는 괴물 앞에서 때가 오기를 이렇게 공손히 기다려야 하는 것일까? 그리고 자동차의 홍수—의젓하게 앉아서 가는 사람들이 영화 몇 도의 추위에 떨고 있는 사람들을 목살하고 지나가는 거리의 질서가 우스울 때도 있다.

아마도 100년 전에 우리 서울을 예상한 분이 있었다면 모름지기 예언자의 칭호를 받았으리라. 그러나 돌이켜 생각해 보면 복잡한 도시생활과 거리의 질서는 역사적으로 있어야 할 생활형태요, 없을 수 없는 제약이기도 한 것이다. 현대에 사는 우리는 <시간>이라는 옛사람들이 실감 못한 제한 속에서 살아야 하고 그 제한을 완화시키기 위하여 스피드라는 무기를 선용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빨리 가야 하기 때문에 자동차가 달려야 하고 자동차가 있기 때문에 횡단보도 앞에서 일정한 시간

을 머물러야 하는 것이다. 즉 시간생활을 합리적으로 운영하는 사회구조로 자연히 변형되어 온 것이 아닐까?

우리는 흔히 현대의 과학 문명을 구가한다. 그러나 요순시대(堯舜時代)의 유장(悠長)과 순후(醇厚)를 칭송하는 이는 합리주의의 각박(刻薄)과 규제성을 주저하리라. 이 구가(謳歌)와 주저(呪咀)의 틈바구니에서 마음 약한 사람들은 피해망상을 일으켜서 노이로제에 걸리는 것이다. 신문을 본다. 쿠바의 카스트로가 망동(妄動)을 했다. 베트남의 공비(共匪)가 준동(蠢動)을 한다. 민정(民政)을 앞두고 모씨의 성명이 있었다는 정치면에 관심이

없을 수 없다. 그런가 하면 애국의 문단이 화단이 무용이. 이렇게 문화면에 눈을 돌려야 할 필요가 있는가 하면 풍속 유행에까지 관심이 가야 할 현대인 것이다. 만약에 이러한 모든 면에서 초연할 수 있다면 그 위인은 세종로 네거리에서 어리둥절하거나 횡단보도를 무시하고 건너가다가 교통순경에게 따끔한 맛을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가 받는 문명의 혜택인 기계화 합리화의 배상(賠償)인 것이다. 기계화 합리화는 원칙적으로 적은 노력으로 많은 효과를 추구하느니만큼 거기에는 반드시 시간과 공간의 단축이 부수(副隨)하고 한편에서 고도의 정신 소모와 기

능의 발휘가 필요하다. 이제 우리는 극도로 좁아진 지구 위에서 쿠바 사건이 우리 사건으로 실감되고 할리우드의 풍속이 우리 주변과 직결되는 편리성과 중압감을 느끼게 된다.

이러한 모순은 무엇보다도 우리의 생활관과 생활 태도의 전환을 필요로 한다. 첫째로 기계화로 말미암은 생활양식에 적응하는 태세가 갖춰져야 하겠다. 기계화의 특징은 스피드에 있다.

창공을 날아가는 제트기를 본다. 그 쾌속이 주는 상쾌감은 제삼자의 공통한 바이어니와 막상 조종사의 입장에서는 꼭 그렇지도 않으리라. 내가 처음 탑승하였다고 하면 우선 현기증이 나고 멀미를 하여서 견디어 내지 못할 것이다. 참으로 쾌속감을 느끼게 되기에는 먼저 체질을 바꿀 만한 준비가 있어야 하겠다. 둘째로 조종을 하게 되기까지에는 항공기에 대한 과학적 이론에 밝아야 하겠다. 셋째로 이론뿐만이 아니라 조종간을 잡고 자재로 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하겠다. 이것으로 과연 제3자가 느끼는 바와 같은 쾌속감이 그에게 있을 것인가 할 때 나의 소견으로는 체질과 이론과 기능 위에 더 한 가지 명민한 판단과 행동을 할 수 있는 보다 고차적인 정신인 자신이라는 것을 지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거기에는 개인만의 자신이 아니라 정비사(整備士)라는 다른 개인과의 신뢰감이 있어야 하며 기계 제작자라거나 연료 공급자에 대한 꿀을 수 없는 사회적 여건이 있어야 하며 그것은 의무와 책임을 넘어서 하나의 인간관계에까지 맺어지는 것이다.

오늘날 후진성이란 말을 불명예스럽게도 우리 사회와 민족은 짊어지고 있다. 그것은 근대화하지 못했다는 것—합리화하지 못한 생활을 한다는 데에 있는 것이지 정신문명에 관한 것은 아니라고 항변 하는 분들도 있지마는 나는 이 후진성은 결코 물질문명에 한한 것이 아니라 물질문명과 조화되는 정신생활도 포함하여 생각하고 싶다.

우리 생활을 살펴보면 아직도 피나리봇짐 지고 한양 천리(千里) 구경 가는 격의 유장한 관습이 너무나 많다. 생존하기 위한 경쟁은 본인이 원하건 아니하건 활동의 스피드를 요구하고 대량생산기기로 인한 원가의 저렴은 정확과 스피드 없이는 기할 수 없는데 습관과 행동은 구태의연한 것이다.

하나의 예를 들자. 아침저녁 배달되는 신문을 읽는다. 여간 부지런한 사람 아니면 아침 일찍 일어나서라도 신문 8면을 모조리 읽을 장사는 없다. 자연히 필요한 것만 그리고 대충 대충 읽게 된다. 만약에 옛날 논어맹자(論語孟子) 읽듯이 하다가는 하루해를 다 보내리라. 그런데 일전 어느 신문에서 소개한 바에 의하면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은 아침일과 2시간여(餘)가 이 신문읽기라는 것이었다. 적어도 세계 민주국가의 맹주격인 인물인 지라 그가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으면 안 될 위치에 있으니 그런 고역도 따를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에게는 속독이라는 유력한 무기가 있어서 1분간 1,800내지 2,000 단어를 능히 독과한다하니 예사 사람들의 34배는 시간적으로 능률이 오를 것이다. 여기에 그의 스피디한 판단의 비결이 있지 않은가 생각한 것이다. 이 하나의 예에 따라서 근자(近者) 국어교육의 방향이 정독주의 일변도에서 속독지도의 경향 아니 맹렬한 훈련이 요청되고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우리는 원자무기나 인공위성에 그 과학적 이론 이외에 속속 계산기—책산(策算)으로 했다가는 수 3년 걸릴 계산을 단시간에 해치우는 성능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근래 한국의 주택설계에 주방이 늘 문제가 된다고 한다. 사실인지 모르나 본래의 부엌과 장독대와 땀감 창고에 사는 주부는 하루에 적어도 10리 이상은 걷는다 하니 그 노력과 시간의 낭비가 이만저만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정신적 피로와 교양 오락 시간의 부족이 미치는 영향은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것이다.

혁명 정부가 끼친 시민생활의 질서의 하나로서 교통규칙의 엄정(嚴正)이 있다. 아침 출근할 때 대로를 건너려면 자동차 홍수에 짜증이 나고 시간에 조바심이 난다. 그러나 이것도 교통 규칙의 준수로서 안심하고 소요시간을 계량하여 보행할 수 있는 것이다. 서울특별시 시민헌장에 시간을 지키자는 것이 두드러지게 강조되고 있는데 정각을 지키는 것도 물론 중요한 일이지만 어떻게 시간생활을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느냐가 근대생활에서는 더욱 문제가 된다. 스피드에 관한 이야기가 너무 시간에 국한된 것 같다. 스피드는 시간의 단축보다도 공간의 단축에도 있다. 하나는 분립된 소구역(小區劃)이 부락(部落)으로, 부락이 지역 사회로 이렇게 전 세계가 거리로서 좁아지고 있는 이때에는 자연히 인간관계도 그와 같이 넓어 가고 있는 것이다. 오늘날 우리가 민주주의를 건설하려는 지상목표를 갖게 된 것도 필경은 울타리 쌓고 분립되던 인간관계가 이제는 하나의 세계가 아니면 살 수 없게 되기 때문이 아닐까?

전근대적 사회에 있어서는 예절이 상하구별 대립되는 모순을 권력과 복장으로 규제하여 왔으나 이제는 친화단결의 친근해서 찾고 있는 것이다. 오늘날 우리가 비교적 세계의 광역에 통용되는 나라말을 배우고 있는 것은 한편 생활 기술로서 필요도 하지마는 보다 더 인간관계를 급속히 소통하자는데 의의가 있다. 유엔 총회 같은 데서 일국의 대표가 연설을 하면 그것이 곧 각국 대표가 요구하는 국어로 통역되어 전달된다. 이 스피드가 곧 인간관계 조성의 바로미터가 되며 한편으로는 세계 평화에 크나 큰 영향을 가져 오는 것이다. 그러나 언어가 일종의 교통수단인 이상 그들이 표현하는 이념의 거리가 하루 빨리 단축되어야 할 것이다. 현대는 확실히 스피드를 특징으로 하는 시대이다. 개인이거나 사회이거나 국가이거나 스피디한 자는 발전하고 완만한 자는 쇠잔(衰殘)한다. 스피드는 그것을 자아내는 조직과 시설과 운영을

특

집

현대적 상황에서의 초대

특

집

현대적 상황에서의 초대

요한다. 이것은 거기에 조화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다.

현대 과학 문명은 한편 지나친 스피드로서 인간을 괴롭히고도 있다. 처음 항공기를 탄 사람이 현기증을 일으키듯 현대 과학과 조화를 갖지 못한 사람은 역시 괴로움을 면치 못한다. 풍자적인 설을 세우자면 현대의 가장 행복한 자는 미개인일지도 모른다. 그들은 문명 이전의 자연을 즐길 수 있기 때문이다 .

여기에 스피드와 조화되는 생활수단으로서 나는 한국의 오락을 생각해 본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다 더 기계화된 조직 하에 스피디한 생활양식을 갖게 될 때 거기서 우리는 무엇을 얻을 것인가? 만약에 노동시간 8시간이 철칙(鐵則)이 되어버리면 우리는 과연 행복을 느낄 것인가. 산업이 발달하고 생산이 충족하여 의식주의 불편이 없을 때 그것으로서 과연 우리는 만족한 생을 향락할 수 있을 것인가?

스피드화한 현대의 1시간은 과거의 1시간이 아니다. 문명화한 생활의 10분이 미개의 10분이 결코 아닌 것이다. 그러나 인간의 체력과 정신은 문명 발달에 적응하여 함께 발달되지 않는다. 적응도의 증가는 생활환경과 교육으로서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으나 절대적인 효과는 올리지 못하는 것이다. 가까운 예가 우주선 발사에 앞서 우주인의 훈련이 그 얼마나 세심하고도 가열(苛烈)한가를 짐작하면 알 일이다.

여기에 우리는 스피드와 조화되는 생활로서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인간관계—평화로운 세계를 예상하는 것이지만 가장 효과적인 것은 휴양을 취해야겠다는 것이다. 과격한 노동 후의 충분한 수면이 필요한 것과 같이 스피디한 긴장된 생활 속에 완만한 정서생활이 또한 필요하다. 근대 학교에서 정서 교육을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정서 생활의 가장 으뜸가는 것은 오락이 아닐 수 없다. 전통적인 통념으로서 우리는 오락을 일부 유한인(有閑人)의 비생산적인 향락으로 알기 쉽지만 오락이야말로 근로인의, 문화생활인의 불가결한 요소인 것이다. 근래 도시생활에서 불건전한 오락이 무위도식(無爲徒食)하는 사람들의 전유물로 되어 있는 것은 가석(可惜)한 일이다. 그리고 오락을 그러한 것으로 체념해 버리는 시민

의 판념 또한 안타까운 일이다. 우리는 보다 발전하는 우리의 사회상—스피드로 인해서 변모되어가는 인간상을 눈앞에 그려 원대한 눈으로 건전한 정서생활을 구상할 필요가 있다.

정서생활은 즐거움을 아는 생활이다. 인류는 즐거움을 탐구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역사를 살아왔고 그 노력이 오늘의 과학문명을 낳았다면 문명이 가져온 스피드를 충분히 누리지는 한편 그 부산물로서의 폐단 또한 용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러셀과 같은 철학자는 문명의 죄악을 일찍이 예견하여 왔거니와 나는 문명 자체가 죄악이 아니라 이에 조화되지 못하는 인간이 죄악이라고 믿는 것이다.

매스 프로덕션

박중희(朴重熙)

<한국일보논설위원>

현대사회의 특성은 무엇보다도 그 대량성에 있다. 정치적으로 대중국가 또는 대중사회, 경제적으로는 대량생산시대의 등으로 현대로서의 특징들을 표현하고 있다.

매스 프로덕션 . 매스커뮤니케이션 . 매스소사이어티 등은 대량생산. 대량전파수단. 대중사회 등 현대사회의 특징적 현상들의 외래어로서의 표현이다.

현대 사회의 출현이 경제적 생산양식의 능률화 대량화에 비롯했다는 것은 다시 설명 할 나위도 없다. 도시 인간의 역사의 발전이란 전체적으로 인간이 어떻게 자연과 대결하고 이의 극복을 위해 어떻게 노력해 왔는 가라는 경제적 요인들에 의해 결정적으로 규제돼 온 것이다. 고대로 치켜 올라 불의 사용, 농업의 시작에 비롯해서 지리상의 발견 등이 인간의 역사적 발전의 방향에 획기적인

영향을 끼쳐왔다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바다 우리가 말하는 소위 현대라는 것도 18세기 일예의 산업혁명을 기점으로 한 새로운 역사적 단계를 두고 말하는 것이다.

산업혁명이라는 것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수공업적인 생산방법으로부터 기계에 의한 대공업화의 단계로의 이전을 계기했다는 것이다. 종래생산에 있어서의 중요한 수단을 이루어 온 도구라는 것이 기계 의하여 대체되고 기계에 의한 생산기계를 생산은 생산의 양적인 비약을 가져와 대량생산시대 로서의 현대의 기반을 이루기 시작했던 것이다.

산업 혁명에서 가장 선진적인 구실을 하여 온 영국에서는 1760년부터 과학적, 기술적 발견과 진보에 따른 산업의 기계화가 본격화하기 시작했고, 1820년대 이르러서는 기계제조업, 제철업을 포함하는 기계제 대공업이 일반적으로 확립을 보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공업 면에서의 소위 ‘기계체계’의 출현은 농업생산 면에도 필연적으로 영향되어 타각계(打刻械)를 비롯한 갖가지의 기계들이 인력에만 의존했던 생산양식의 능률화를 촉진시켰음은 당연한 얘기다. 영국에 뒤이어 산업혁명의 조류에 휩쓸리게 된 독일, 프랑스 그리고 신대륙 개척에 패기 찼던 미국 등에서도 역시 1830년부터 1848년 사이에는 각각 대공업적인 생산이 산업면에서 지배적인 형태로 등장하게 되었다.

산업 양식 면에 있어서의 혁명적인 변혁들이 정치적, 사회적으로도 역시 획기적인 파문을 끼쳤음은 말할 것도 없는 일이다. 산업자본과 더불어 소위 ‘부르주아’ 계급의 등장은 봉건적 계급이나 신분 관계를 타파했음은 물론 한 걸음 더 나아가 노동계급의 분화(分化), 성장을 촉진시켰고 정치적으로는 봉건적 지배 관계에 대체되는 시민적 자유 근대적 민주주의의 발아와 성장을 결과했다.

결국 산업 면에서의 혁명은 정치, 사회적인 면에까지 확대되어 소위 ‘현대적 상황’의 연원(淵源)을 이루었다. 따라서 우리가 이른바 현대라는 것을 산업혁명에 그 기점을 둔다는 것은 정확을 얻은 것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산업혁명으로부터 공고한 기반을 구축해 온 자본주의는 그의 내재적인 모순에도 불구하고, 또 그를 효과적으로 극복해 가면서 기하급수적이라고 해도 그리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 활력을 배가해왔다.

자본주의 경제의 활력을 부어준 근본적인 요소는 사유재산제를 바탕으로 한 이윤추구라는 것이었음은 말할 것도 없다. 이것이 과학적 기술적 발달과의 상호 연쇄적인 자극작용 속에서 대량성을 특징으로 한 현대사회는 발전을 가속도적으로 빨리 해온 터이다. 이런 성장 속도를 얘기 할 때 우리는 산업의 합리화라는 것을 빼놓을 수는 없다.

산업의 합리화라는 것은 상품의 생산과 판매과정에서 일절의 가능한 낭비를 극소화하기 위해 이를 합리화하고 산업의 이윤을 증대하기 위한 산업정책을 뜻하는 것이다. 이것은 1920년대 제1차 세계 대전 후의 전후공포의 시기에 미국에서 먼저 채택되었고 그 뒤를 이어서 독일, 영국, 프랑스 등 서구 각국에까지 파급되기에 이르렀었다. 이때 산업합리화에서 과학적인 관리 방법, 호환성이 있는 부분품(部分品)과 제품들의 국내외적인 규격화와 표준화와 그리고 발달하는 과학과 기술의 산업에의 적용을 통한 대량 생산방식 등이 그 중심을 이루었다. 이 밖에도 기업의 확대화를 통한 저능률(低能率) 공장의 정리, 과도경쟁의 배제 등등도 산업의 합리화를 촉진시키는데 공헌했다.

산업혁명이 선진제국 사이에 하나의 새로운 생산 질서의 바탕을 거의 마련해 놓은데 뒤이어 19세기 말엽부터 20세기 초 중엽까지 라듐의 발견, 상대성 이론, 양자론(量子論)의 전개, 그리고 드디어는 원자력의 출현 등은 인류 앞에 새로운 시대가 밝아 옴을 가리키는 것이었다. 확실히 원자핵의 분열 반응이나 융합 반응이 새로운 에너지원으로서 문제제기에까지 이른 단계는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에 획기적인 시대의 여명을 말해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하긴 아직 이런 경이적인 사실들이 아직은 아주 밝지 않은 여명이나 하나의 큰 가능성으로 남아 있을 뿐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사건에까지지는 이르지 못 했으나 과학적 기술적 발전이 얼마나 눈부신 발전 과정을 걸어왔는가를 말해 주기에 족한 것이다.

제2차 대전 중후(中後)를 통해 한 층 거족의 발전을 거듭 해온 수학, 물리학, 화학, 생물학 등의 종합

과학의 발달은 대량산업기술을 더욱 더 높여주지 않고는 못 배겼다.

이러한 자연과학상의 진보성과가 산업면에 널리 적용 되고 있는 현상이 자본주의 나라들에서 말해져온 기술 혁신이라는 것은 다시 설명할 필요조차 없다. 오토메이션의 등장 등에서 여실히 표명된 산업의 고도한 기술적 진보는 근본적으로 산업의 합리화나 대량생산(大量生産)과 상맥(相脈)한다는 것 또한 되풀이 할 나위도 없는 일이다.

그럼 여기서 이른바 대량생산이라는 것의 경제적 의미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대량생산이라는 것은 개별생산이라는 것과의 상대적인 개념을 갖는 것이다. 생산이 고객의 주문에 응하여 이루어질 때는 제품의 디자인, 품질규격, 가격 등이 각개의 경우 다를 수밖에 없고 생산하는 양식도 다를 수밖에 없다. 이럴 때의 생산양식을 우리는 개별생산이라고 부른다. 다양한 고객의 요청에 따른 생산이란 자연 다중소량생산을 특성으로 하게 마련이다. 따라서 그런 경우에는 동일한 작업의 대규모적이며 계속적인 반복이란 없다. 그 반면 특정한 고객이 아닌 시장이라는 것을 상대로 상품을 생산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제품의 디자인, 규격, 표준, 가격 등이 생산자 자신에 의해 결정되고 생산규모도 대량화되는 경향을 나타내지 않을 수 없게 된다. 같은 상품의 대량생산이야말로 생산원가를 덜 들이며 반면 생산자의 최대의 이윤을 보장하는 방법이 되기 때문이다. 질을 달리 하는 각종의 제품을 생산하는 다중소량생산이 질적 생산이라고 불리는데 대해 소중대량생산은 양적 생산 또는 양산 이라고도 불린다.

양산(量産)은 제품에 있어서 다양성보다도 균등성(均等性), 획일성이 특질을 이룬다. 대량 생산이란 본질적으로 고도로 특수화된 전용적 생산시설로 일종의 제품을 반복적으로 대량으로 생산한다는 것이다. 물론 대량 생산이라 하더라도 한 가지 시설으로써 꼭 한 가지 제품만을 생산한다는 것은 아니다. 한 가지 시설에서 2종 이상의 소종의 제품을 조별로 교체하여 생산하는 방법도 있고 이것은 조별생산방법이라 불린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대량 생산이 현대 산업의 특징을 이룬다는 데는 변함이 없다. 지금 생산원가를 생산시설에 필요한 고정비용과 재료비, 노무비 등 두 가지로 나눈다면 같은 고정 비용을 들여 되도록 많이 생산할수록 단위 원가는 싸질게고 원가를 적게 들인다는 것은 이윤을 비례적으로 크게 한다.

대량 생산이라는 것은 넓은 뜻에 있어서 조별생산을 포함하는 시장생산방식을 의미한다. 또 대량생산이라는 것이 단순한 생산방법의 원리로서 뿐만 아니라 오늘날 사회질서 형성의 원

리로서도 이해 될 수 있다.

시장생산방법에서 우리는 몇 가지 특징들을 손쉽게 찾아낼 수 있다. 무엇보다도 수공업 시대, 다종(多種)소량 시대의 질과 양을 결정하는 지배적 요인을 이루었던데 반하여 다량생산에 있어서는 어떤 개인이 아니라 생산자, 또 물개성(沒個性)적인 시장이라는 것이 상품의 질과 양을 결정해 준다는 것이다. 개인은 자기 앞에 제시된 기성품을 소비하게 마련이고 개인이란 자꾸 영향하는 존재이기보다는 영향받는 존재이기 쉽다는 것이다. 상품이나 그 소비에 있어서의 문제뿐만 아니라 생산과정에 있어서도 개인으로서의 존재는 기계화의 진전에 따라 그 비중을 적게 해 왔다. 기계들이 이제 사람이 하는 일들을 대신 하게 되고 또 생산과정이 고도로 전문화 특수화됨에 따라 개인의 기량(技倆)이란 수공업 시대에 비해 그리 큰 문제가 안 되게 된 것이다. 산업의 기계화의 정점이라고 볼 수 있는 공장의 오토메이션화의 경우에서 인간의 노동은 양에 있어서 격멸되는 것이다.

대량 생산의 또 하나의 특질이란 대량소비를 전제 한다는 것이다. 대량으로 소비됨이 없이 계속적인 대량 생산이란 불가능하다는 것은 자명한 때문이다. 이러한 필요에서 파생된 것의 하나가 ‘매스커뮤니케이션’이라고 불리는 대량전달수단의 발달이다. 물론 신문, 라디오, 통신, 텔레비전 등등 매스 커뮤니케이션의 발달을 대량생산 시대의 경제적 필요가 낳은 부산물(副産物)로 꼭 봐야 할 것까지는 아니나 산업의 현대화를 빼놓고 매스커뮤니케이션의 발달은 생각할 수 없다. 항상 매스커뮤니케이션의 대상이 되고 있는 민중들은 무의식중에 그들의 사고가 조작(操作)의 대상이라고까지는 아니나 할지라도 거의 압도적으로 매스 미디어에 의한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만은 틀림없다. 대중사이에 이른바 사고동질화, 획일화 경향이라는 것도 이런데서 연

유(緣由)한다고 할 수 있겠다.

결국 경제적 조건들의 변이는 인간들의 사회생활 면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쳐왔다.

산업혁명의 바로 뒤이어 봉건적인 신분관계가 인격의 평등을 기초로 하는 계약적 관계로 대체되었고 생활태도에서도 종래의 전통적인 비합리적 태도로부터 합리적인 태도로 변개(變改)하게 되었다. 자본주의의 성장과 더불어 개인주의 사상, 민주주의 사상도 발아, 성장됨으로써 정치적으로도 새로운 역사적인 한 단계의 전개를 보아 온 것이다. 그러나 산업화 기계체계가 극도로 높아짐에 따라 개인은 다시 매스의 세계 속에 획일적이며 물개성적인 존재로서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해가고 있다. 기계화된 사회 속에서 개인은 항용 거대한 기계나 기구 속의 하나의 치차(齒車)와 같이 자신의 존재를 보게 된다는 것이다. 이른바 ‘고독한 군상’ 또는 ‘모래와 같이 무성격한 군상’ 등은 기계화된 사회 속에서의 물개성적인 개인들의 모습을 집단적으로 표현한 말이다.

합리주의를 바탕으로 생산양식의 대량화, 기계화에 따라 등장해온 현대사회, 새로운 자신에 자각했던 개인이 엄청난 ‘매스’ 속에 위축된 자신을 발견해가는 시대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른바 현대사회라는 것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다. 현대 사회의 토양을 이룬 것이 합리주의면서도 비합리가 아직 인간사회의 구석구석에 잔류하고 있음은 물론이다. 또 과학적 기술적 발달과 이에 힘입은 대량생산 시대—대량소비 시대의 등장이 아직은 꼭 누구에게나 대량소비를 가능케 할 조건을 가져다 준 것은 아니다. 그러면서도 누구나 ‘대량생산 시대’라는 것을 호흡하며 살아가야 한다. 사람들은 이제 합리주의를 발달한 대량생산—대량소비 시대의 ‘합리성’을 다시 ‘합리적’으로 생각해 봐야 할는지 모르겠다. 오랜 식민통치가 현대화 과정을 저해해온 우리 한국에서는 아직도 산업화, 대량화, 기계화 그리고 이에 따른 사회면에서의 현대적 특징들은 서구 선진국의 경우처럼 뚜렷하지는 않다. 그러나 이미 시간적으로 지리적으로 위축되어 버린 지구의 한 자리를 차지하는 우리들이 현대적 상황 밖에 있을 수 없음은 말할 나위도 없다.

매스 커뮤니케이션

김준환(金俊煥)

<동양통신 외신부장>

1. 매스컴과 매스 미디어

매스 커뮤니케이션(Mass communication)(대량전달)은 그것을 가장 단순하게 정리할 때 1개의 발신인과 막대한 수의 수신인 간의 전달행위 내지 전달과정이다. 이 경우 “전달”이라 함은 어떤 information(정보, 지식)의 전달을 말한다.

매스 커뮤니케이션 의 동로 내지 수단을 이루는 것을 mass media(대량 전달 수단)이라 부른다. 현대의 대량 전달 수단에는 신문, 잡지 등의 인쇄물, 라디오, 텔레비전, 영화 등 4개 주요 부문이 있다.

인간의 사회생활은 사회생활의 통제를 위해 이른바 ‘커뮤니케이션(정보의 전달)’을 필요로 하였다. 바꾸어 말하면 ‘커뮤니케이션’이 사회를 만들었다고도 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전달행위의 가장 최소의 수단은 인간의 육성 내지 언어였다. 인간은 이미 선사시대 있어서 조차 그들의 동료인 다른 인간들에게 정보를 전달하고 그들을 설득시키고 또 납득시키기 위해 언어를 사용하였다. 현금에 있어서도 언어는 가장 중요한 전달수단으로 구실을 하고 있다. 인류가 겪어 온 여러 세기 동안을 통해 언어라는 전달 수단은 그 힘을 어느 하나도 상실하지 않았으며 20세기에 와서는

언어는 과학의 발달과 여러 발명 덕택에 청중 내지 수신인을 막대하게 증가시키게 되어 오히려 전달 수단으로서의 세력을 더욱 확대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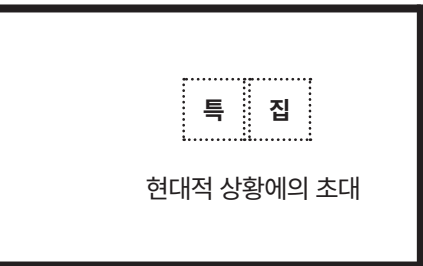
육성(언어) 외의 전달 수단으로 인간이 손으로 쓴 글자 내지 인간이 그린 그림 등이 역시 초기 사회에서 큰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인간의 손으로 쓴 또는 손으로 그린 글자나 그림이 획득할 수 있는 수신인의 수는 극히 국한된 것이다. 글자나 그림이 전달 수단으로서 획기적인 약진(躍進)을 이룩하게 된 것은 서기 1450년을 전후하여 활자 인쇄술이 발명되고 나서 부터였다. 오늘날의 매스컴을 이룩한 실질적 제 일보(一步)가 바로 이 활자 인쇄술이라고 하는 것은 현대의 주요한 매스 미디어인 신문을 예로 들어 생각하면 할 것이다. “대량전달(大量傳達)”이란 “대중사회”(Mass society)의 한 사회현상이다. 대량전달의 의의를 보다 평이하게 파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예를 들어 보자.

사회 구성원의 수가 소수였던 미개사회에 있어 중요한 언어나 사건을 알리는 수단으로서 종, 북, 봉화 등이 사용되었음을 우리는 잘 안다. 그러나 이러한 원시적 전달기술이 전달하는 정보의 양은 매우 국한(局限)된 것이다. 그렇기에 현대와 같은 대중사회, 다수의 사회성원(成員)을 수신인(受信人)으로 가지는 복잡다단한 사회에서는 종이나 북 내지 봉화대신 신문, 잡지, 라디오, 텔레비전, 영화 등의 전달기술 내지 전달수단을 발전시키지 않으면 안 되었고 또 발전이 이루어졌던 것이다.

미개사회의 전달 수단이던 북이나 종이나 봉화가 “대중사회”의 여건에 적응한 것이 바로 매스 커뮤니케이션의 수단 즉 매스 미디어인 것이다.

2, 매스컴의 특징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매스 미디어의 발달에 의해 발신인과 수신인 간의 수적 관계는 매우 대규모화 하였다.



이미 말한 바와 같이 매스컴이란 “대중사회”를 컨트롤하는 수단이다. 매스컴의 성립은 컨트롤의 대상이 되는 집단이 대규모화함으로써 성립된 것이다. 여기서 매스컴의 첫째 특징이 나온다. 즉 대규모의 컨트롤(규제)이 그것이다.

현대사회에서는 마이크로폰 앞에서 연설을 하거나 또는 글을 활자로 인쇄함으로써 동일한 정보를 동시에 수 백·수 천만의 수신인에게 보낼 수 있다.

매스컴의 이 특징을 가장 단적으로 표시하는 것이 광고이다. 신문이나 라디오를 통한 광고를 우리는 일상 대하고 있거나와 신문이나 라디오의 광고료가 이들의 수입의 큰 부분을 차지한다는 것은 주지된 사실이다. 매스컴의 특징은 정치라는 사회 과정에 있어 매스컴이 차지하는 위치에 결정적 영향을 준다.

매스컴은 대중사회 규제수단이므로 흔히 정치 담당자에 의한 이용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매스 미디어는 자칫하면 권력의 압력을 받기 쉽다. 그 뚜렷한 예는 전체주의 국가 특히 공산국가에서 찾아볼 수 있다. 우리는 소련이나 중공에 진정한 의미의 민영(民營)신문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러한 사회에서는 권력의 담당자만이 매스 미디어를 독점하는 것이며 여론의 다양성을 표시할 수단은 없는 것이다. 민주주의를 신봉하는 사회는 여러 집단을 대변하는 여러 매스 미디어가 정립하는 것이다. 이런 면에서 볼 때는 매스컴의 사회적 기능 여하에 따라 그 사회의 정치적 성격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이다. 매스컴의 제2 특징은 그 수단 즉 매스 미디어가 기업이라는 것이다.

매스 미디어는 정보의 송신자이며 거기에 필요한 장비를 필요로 한다. 인쇄기, 송신기, 영사기 등 그 예는 얼마든지 있다. 장비 외에도 또한 운영에 종사하는 인원과 조직이 필요하다. 이러한 장비, 시설, 인원, 조직의 유지에는 경비가 필요하며 이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서는 자체의 수입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수입에는 방송 청취료, 영화 관람료, 신문구독료 등 형식으로 직접 수신인에게서 입수(入手)되는 방법과 민간 상업 방송에서 하듯 스폰서를 통해 입수되는 방법이 있다. 매스컴의 제3의 특징은 송신인과 수신인이 다 전문화하여 버린다는 것이다. 개인과 개인의 직접 대화에 있어서는

일방이 송신인과 수신인의 역할을 자유롭게 교환할 수 있으나 매스컴의 경우에 있어서는 송신인은 일방적 전문적 직업적으로 송신만 하며 수신인은 언제나 수신만 하는 것이다. 라디오를 예로 든다면 일반 청취자는 방송국이 보내는 프로를 듣기만 하는 것이지 방송국에 송신을 하지는 못 하며 또 방송국은 매일 청취자에게 송신만 할 뿐 청취자로부터 수신을 하지는 않는 것이다. 즉 매스컴에 있어서는 통신 과정이 언제나 일방통행인 것이다.

3, 매스컴의 문제

매스컴의 문제는 송신인과 수신인이라는 양 측면에서 관찰될 수 있다. 첫째 송신인의 면에서 보면 매스컴은 거대한 사회집단을 컨트롤하는 데 필요한 통신수단이다. 그러나 대량전달이란 송신 면에 있어서는 대량화 내지 확대이지 수신 면에서의 확대 내지 대량화는 아닌 것이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매스컴에 있어서는 통신과정은 어디까지나 일방통행이며 한 사람의 발신인의 의사가 수천만의 사람에게 전달되기는 하나 수천만의 사람들이 각각 보내는 발신이 한 사람의 감각기관에 전달되는 것은 아닌 것이다.

매스컴의 발신인들이 가지는 송신 목적은 한마디로 말하여 대중(Mass)의 획득에 있다. 그들은 막대한 수의 수신인들을 설득하기 위해 송신하는 것이다.

라디오나 신문의 광고주는 그들의 상품을 선전해서 판매고(販賣高)를 올리려는 목적을 가지며 방송연설을 하는 정치가는 그의 정치 노선에 대한 대중의 공감(지지)을 얻기 위해서 송신하는 것이다.

그런데 매스 커뮤니케이션의 발신인은 한정된 특정 인물들인 것이 보통이다. 혹은 금력(金力)이 혹은 권력이 매스 미디어를 손아귀에 쥐는 일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매스 미디어에는 그것들이 특정의 사람들의 이익만을 위해서 움직이게 되고 또 그것들의 보도내용이 왜곡될지도 모른다는 위험한 일면이 따르게 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매스 미디어 자체가 수입을 고려해야 되는 기업이므로 자체의 수입을 위해 사실과 거리가 있는 선전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또 보도의 생명이 스피드에 있으며 매스 미디어 자체가 심한 경쟁을 벌리고 있어 미처 확인치 못한 보도(오보)를 보내는 수도 있다. 흔히 “신문을 믿을 수 없다”라는 말이 있는 것은 바로 매스 미디어의 이러한 면에서 나오는 것이다.

매스컴 송신인에 관한 또 하나의 문제는 그가 수신인이라는 자신의 위치를 악용할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스캔들이나 부정행위를 미끼로 협박을 하는 따위의 것이 있을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나라에서도 과거에 이따금 있는 일이었다. 이런 경우의 매스 미디어는 마치 하나의 폭력단과 같은 위치로 타락하는 것이며 매스컴의 사회적 기능은 최대로 악용당하는 것이다.

한편 수신인에 관한 문제를 살펴보면 여기에도 또한 위험요소가 내재하고 있다. 과연 매스컴은 우리에게 이득 해아릴 수 없는 편리를 제공하고 있다. 세계 어느 구석에서 발생한 일도 몇 분 만에 전파를 타고 전 세계에 퍼지며 우리는 세계의 변천(變遷)을 시시각각 좇아서 관찰할 수 있는 것이다. 비단 사건보도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판단의 형성과 교양의 축적이라는 면에 있어서도 매스컴이 담당하는 역할은 지대한 것이다.

그러나 매스 미디어 즉 발신인 자체에 따르는 전기 한 바와 같은 위험 요소를 고려할 때 수신인 입장에도 경계하지 않으면 안 될 위험이 따르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수신인(독자, 관람자 등)이 매스 미디어 즉 발신인에 대해서 일정한 정도의 신뢰와 존경을 가진다는 것이 문제이다. 이러한 심리적 자세가 없다면 물론 매스 커뮤니케이션이 성립할 기반이 발견될 수 없지만 매스 미디어가 제공하는 정보의 정확성에 대한 그리고 판단의 정당성에 대한 수신인의 신뢰와 존경은, 때로 매우 위험한 심리로 발전되는 것이다. 단적인 예로서 신문의 권위에 대한 독자의 신뢰는 잔적으로 신문 기사를 근거로 해서 스스로의 판단을 형성하게 하는 것이다.

신문의 권위에 대한 신앙(신문에 대한 신뢰)은 수신인의 수가

막대하다는 사실에 의해 더욱 강화된다. 현대의 대집단 사회에 있어 사회성원은 주로 매스 미디어를 통해 공통의 경험(정보)에 접하며 따라서 이른바 사회 생활상의 동조행동(同調行動)으로 매스 커뮤니케이션에 접근하는 경향조차 있는 것이다. 이를테면 남이 다 읽었다기에 자기도 그 책을 읽는다는 경우가 바로 이러한 예이다.

매스 미디어에 대한 신뢰와 수신인 상호 간의 동조성이라는 양 요소가 결합되면 '매스컴의 영향'이라는 현상이 용이하게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매스 미디어가 제공하는 제 나름의 정보에 의해 현대인들이 농락당한다는 설도 성립되게 되는 것이다. 즉 매스 미디어가 여론을 지도하고 형성하는 영향력을 가질진대 매스 미디어는 미리 결정된 목표를 향해 여론을 오도하는 폭위도 떨칠 수 있는 것이다.

4, 매스 미디어의 상호관계

앞에서 말한 바 있듯이 현재 매스 미디어라고 하면 신문, 잡지 따위의 인쇄물과 라디오, 텔레비전 등으로 4대분 될 수 있다. 수년 전 미국 심리학협회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196개 도시에서 조서대상이 된 4,000명의 사람 중 85%는 매일 1개 또는 그 이상의 신문을 읽으며 라디오 청취자가 74% 독서자가 40% 영화 관람자가 21%였다 한다. 매스 미디어 중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지는 것은 인쇄된 미디어이다. 라디오의 발명이 있기까지 약 400년 동안 인쇄물은 유일한 매스 미디어로 존재하였다.

20세기에 들어와 라디오가 발명됨으로써 인쇄된 미디어 중 신문은 크게 위협을 당하는 것 같았다. 속보성(速報性)에 있어 음악을 보낼 수 있다는 점이 있어 그리고 듣는 것이 읽는 것보다는 편하다는 점에 있어 라디오는 신문보다 훨씬 우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신문은 몇 번이고 되풀이해서 읽을 수 있으며 용이하게 오래 보관할 수 있고 또 라디오로는 보낼 수 없는 그림을 실을 수 있다는 장점들이 있어 신문과 라디오는 병립의 길을 찾을 수 있었던 것이다.

영화는 뉴스영화를 제외하고서는 시사성 내지 속보성이 없는 이른바 극영화(劇映畵)가 대부분이며 그렇기에 신문이나 라디오와 경합(競合)하지 않고 스스로의 영역을 확보할 수 있었다. 이상 3개의 매스 미디어에 급격한 위협을 가하며 등장한 것이 바로 텔레비전이었다. 텔레비전은 말하자면 전기 3개의 매스 미디어를 종합한 것 같은 존재이기 때문이다. 텔레비전의 출현으로 가장 큰 타격을 받은 것은 역시 영화였다. 수신인이 가정에서 편안히 영화와 실질상 다름이 없는 것을 볼 수 있고 또 별도 요금을 지불 하지 않아도 되므로 상당한 수의 영화관람객을 빼앗은 것이 사실이다.

입체영화, 대형영화 등이 등장한 것은 실로 텔레비전의 위협 앞에서 새로운 활로(活路)를 개척하려는 영화 기업의 노력의 결과였다.

5, 결어

이상에서 우리는 매스 커뮤니케이션을 매우 단편적으로나마 개관(概觀)하였다. 이제 우리는 매스컴의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대강 파악하였고 매스 미디어의 상호관계를 간단히 훑어보았다.

매스 미디어를 가장 주요하게 이용하는 것은 역시 언론(Journalism)일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끝으로 언론의 정도에 대해 약간의 고찰을 가지고자 한다.

매스컴의 문제점은 그대로 언론의 문제점에 직결된다. 그렇기 때문에 언론에는 몇 가지 의무가 따른다.

첫째 언론은 독립적이어야 한다. 즉 자체의 이윤에 의해서 자립해 있지 않으면 안 된다.

둘째 언론은 공정해야 한다. 공정은 언론의 이상이다. 그렇기에 비록 적대자에게라도 발언의 기회를 주는 것이 현대의 관행이 되었다.

셋째 언론은 정확해야 한다. 일간 신문 일면에서 시간상 제약을 받지만 공정한 정확성은 언론의 특성의 하나가 되어야 한다.

넷째 언론은 정직해야 한다. 비단 보도에 있어서 뿐 아니라 광고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다섯째 언론은 책임이 있어야 한다. 언론의 자유를 누리는 것은 언론의 반공공적 성격 때문이며 따라서 언론은 그것을 봉사하고 그것을 지지하는 공동체(사회)에 대해 책임의 의무를 지는 것이다.

여섯째 언론은 품위를 지켜야 한다. 비단 기사 내용이나 계제(階梯) 사진에서 뿐 아니라 뉴스의 입수에 있어서도 분한을 잃지 말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이다.

<해설>

스카이볼트 논쟁(論爭) 그 후



이종수(李鍾秀)
<한국일보 과학부>

미·영 양국 사이에 심각한 간격을 자아낼 뻔했던 스카이 볼트 논쟁은 나소협정으로 조용히 가라앉아버렸다. 나소협정이 맺어짐을 경계로 해서 이후로는 자유세계의 핵 억제력(抑制力)을 거의 완전히 미국이 거머쥐게 됐고 제2차 대전 이래 독자적인 핵 억제력을 보유하면서 미국과 대등한 위치에서 발언해 오던 영국은 강대성을 상당히 상실당하는 쓰라린 입장에 빠지게 되었다.

이렇게 미·영 양국의 국세를 확연하게 갈라놓을 만큼 중요한 인자(因子)를 내포하고 있었기 때문에 스카이볼트 논쟁은 드높고도 심각했던 것인데 아무튼 양국 사이에 금을 내지 않고 해결된 것은 자유세계 전체를 위해서 다행한 것이라 아니 할 수 없다.

스카이 볼트 논쟁은 왜 일어났으며 논쟁은 어떻게 벌어졌었던가를 살핀 다음에 논쟁 이후의 사태를 적어 보기로 한다.

제2차 대전 중에 영국은 미국이 원자폭탄을 제조하는 사업(맨하탄계획)에 적극 참여하여 협력해 주었다. 그러나 전쟁이 끝나자 미국은 원폭제조에 관한 정보를 일체 비밀로 부치는 바람에 영국은 독자적으로 원폭(原爆)을 개발해 내는데 무던히 애를 쓰지 않으면 안 되었다.

천신만고 끝에 영국은 원자폭탄과 그리고 수소폭탄까지를 독자적으로 개발하여 대영제국의 체면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하여 대서양조약기구(NATO)에다 통합적으로 핵 억제력을 두려는 미국의 의도와는 달리 독자적인 핵 무장국(武裝國)으로서 강대한 발언권을 행사에 오고 있었다. 영국이 독자적으로 핵 억제력을 보유해야 된다는 신념은 처칠 전 수상(首相) 때부터 싹트었으며 맥밀런 수상도 그 신념을 이어받아 확고하게 지키려 했으나 미사일 시대로 들어서면서부터는 도저히 전통을 지키기 어려운 여러 가지 불리한 사태가 속출하기에 이르렀다. 핵폭 운반체로서의 미사일이 미·소 양국에서 완성되면서부터는 종래의 핵폭 운반체인 중폭격기만으로는 도저히 대적할 수 없게 된 것이 무엇보다도 심각하게 핵무장 독립국으로서의 영국을 고민에 빠지게 만들었다. 10,000km를 단 30분에 나는 대륙 간 탄도(彈道) 유도탄(誘導彈) 앞에 속력이 그 10분의 일도 못 되는 폭격기가 위력을 상실한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미사일 없는 핵폭탄은 바퀴 없는 수레나 매한가지이기 때문에 영국도 종래의 체면을 유지하고 강한 발언권을 행사하기 위해 미사일 개발에 손을 대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렇게 해서 영국이 개발에 착수한 미사일이 블루 스트릭이었다.

그러나 대전(大戰) 때 입은 상처가 아물지 않았고 또한 많은 식민지를 잃어 경제력이 약해진 영국으로선 막대한 경비를 투입해야만 되는 미사일 개발이 벅찬 과제였다. 할 수 없이 1960년 4월 영국은 중거리 미사일 블루 스트릭 계획을 포기하고 1960년 6월에 미국과 스카이 볼트 공동 개발 협정을 맺고야 말았던 것이다.

스카이 볼트란 미 공군이 개발하는 공대지 중거리 탄도 유도탄인데 사정은 1,100마일 중폭격기B-52 혹은 수송기급유기에서 발사되게 되어있다. 고체연료 로켓이며 관성 유도 장치에 의해 목표까지 날아간다는 그 스카이 볼트는 막대한 예산을 잡아먹는 것에 비해서는 개발이 지지부진이었다.

그 뿐 아니라 아틀라스, 타이탄, 미니트맨 따위 대륙간탄도미사일이 예정대로 개발되었고 거기다가 소련에서 미사일 특히, 미사일 요격용(邀擊用) 미사일이 개발되었다고 하는 판이라 그 전략적 가치까지 의문시되게 됐다.

그뿐 아니라 이제까지 드린 경비(經費)만도 5억 달러였다고 하지만 완전히 개발하려면 적어도 앞으로 25억 달러가 더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 밖에 케네디 대통령 집권 이래 여섯 번이나 발사 실험에 실패했다는 것도 스카이 볼트 개발 포기를 자아낸 원인이 되었다. 이렇게 스카이 볼트를 64년도까지 실용화시키고 65년에는 영국의 중폭격기를 발칸에 장비시킨다는 계획을 예정대로는 도저히 실행할 수 없음을 인정한 미국은 그 개발포기를 선언했던 것이다. 그것이 영국에게 크나큰 타격이 아닐 수가 없었다.

독자적으로 개발한 핵폭탄을 비록 독자적으로 개발한 것은 아니지만 여하튼 영국의 지배에 놓여있는 공군에다 스카이 볼트를 배치시키기만 하면 독자적인 핵 억제력을 보유하는 것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인데 아닌 밤에 홍두깨 모양으로 개발포기 설(說)이나와 영국은 크게 당황하게 됐다. 아니 당황하기보다 영국 내에선 격분에 찬 비난의 소리가 빗발치듯 일어났다. 배신이니가 미국에 빌려준 기지에서 미군을 철수케 하라는 등 별의 별 소리가 다 나왔다. 결국은 이 문제는 미·영 양국 수뇌의 정상회담으로 옮겨져 심각한 토의가 진행됐다.

미·영 정상회담은 대서양상 상하의 피한지(避寒地) 바하마 군도(群島)의 나소에서 1960년 12월 18일부터 3일간에 걸쳐 계속되었다.

나소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문제는 스카이블루에 관한 것만은 아니고 상당히 광범위한 문제가 논의됐다고 한다. 그러나 스카이 볼트 문제에 대해서 가장 심각하게 그리고 오래 논의된 것만은 틀림이 없다.

케네디 미국 대통령은 스카이 볼트 개발을 포기하고 그 대신 영국에게 똑같은 공대지(空對地) 미사일인 하운드 덕을 제공하겠다고 제의했다.

이 하운드 덕은 스카이 볼트가 개발될 때까지의 중간적 병기로써 미 공군이 개발한 것으로 이미 1960년에 실용화되었다. 그리하여 미 본토의 SAC(전략공군)에 대비해 놓았다.

그렇지만 전략적 가치는 별로 없는 것이어서 영국의 맥밀런 수상이 곱게 케네디 대통령의 제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이다.

하운드 덕을 영국이 튀기자 미국은 보다 발달되고 전략 가치가 크다고 인정되는 중거리 미사일 폴라리스를 미국이 영국에 제공하겠다고 또 다른 대안을 내놓았다.

폴라리스는 잠수함에 장비되어 있어 수중에서도 발사 가능한 성능 높은 미사일이라고 알려져 있는 미국의 자랑거리의 하나이다.

잠수함 한 척에 도합 16개가 장비되어 있으며 사정은 1,200마일(AI형)이다. 개발 도중에 있는 A2형 (1,500마일) A3형 (2,500마일)을 기다리지 않더라도 지구의 정상인 북극해에서 능히 모스크바를 겨냥할 수 있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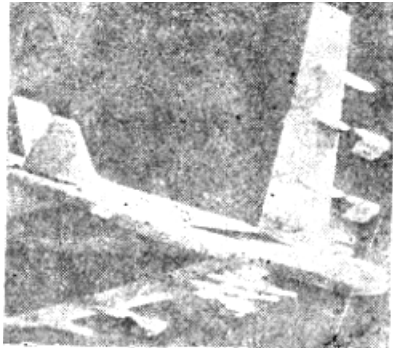
현재 폴라리스를 장비한 잠수함 6척이 취항(就航)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래의 전쟁에서 가공할 수중이동 기지로서의 위력을 보일 것으로 알려져 있는 폴라리스를 제공하겠다고 하는 데 대해 맥밀런 영국 수상은 스카이 볼트 문제로 그 이상 분교를 계속시키지 않을 결단을 내리고 말았던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해서 맺어진 나소협정은 누가 보나 영국에게 불리한 것이었다. 프랑스의 파리 주르 씨가 스카이 볼트 쿠데타에 미국이 성공했다고 말 할 만큼 미국에게는 희심의 미소를 띄울만한 성과였다.

나소협정에서 미국은 폴라리스 미사일만 제공하고 핵탄은 제외하며 제공시키는 영국이 폴라리스 장비용 잠수함을 완성할 때라는 조건을 붙였다.

그리고 폴라리스 잠수함이 완성하더라도 NATO의 핵 무장대에 통합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다. 이 나소협정에 따른다면 영국은 적어도 1969년까지는 핵 운반체를 보유하지 못하게 되었다. 즉 잠수함을 완성하자면 일러도 69년까지는 가야만 한다. 그리고 그렇게 폴라리스를



<스카이 볼트를 장비한 B52捷트폭격기>

장비할 수 있는 잠수함이 완성됐다 되더라도 NATO에 통합되는 것이니까 영국 독자의 억제력은 없어진다. 미·영 정상회담에서 합의를 본 이와 같은 결말에 대해서 영국 내에서 비난의 화살이 던져졌다 함은 당연한 일이다.

이와 같은 결과에 대해서 혹자는 케네디 외교의 성공이라고 평하고 혹자는 영국이 2류의 위성국으로 전락했다고 빈정대기도 했지만 날로 치열해지지만 하는 미사일개발 경쟁시대에 못 따르는 나라가 맞보아야 하는 필연적 운명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비난의 소리가 들끓는 가운데 맥밀런 수상은 나소협정을 각의(閣議)에 보고했고 하원(下院)에서 승인을 얻기도 했다. 영국 하원은 1월 31일에 나소협정을 표결에 부친 결과 찬성 330표 반대 236표로 가결했다.

이에 앞서 영국 노동당이 나소협정을 비난하는 불신임 동의안을 제출했던바 반대 337표, 찬성 230표로 부결되고 말았던 것이다.

이렇게 영국의 독자적인 핵 억제력을 꺾어버린 케네디 미국 대통령은 그 다음 화살을 프랑스를 향해 겨냥하고 있다.

영국 못지않게 전통 의식이 강한 프랑스의 콧대 높은 드골 대통령 역시 독자적인 억제력을 보유하느라고 대단히 애를 써왔다. 오산이나 우연지사(偶然之事)로 핵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꺼리기 때문에 미국은 핵 억제력을 NATO에 통합시킬 것을 바라고 있는데 드골 대통령 역시 맥밀런 영국 수상 모양 독자적인 핵 억지력을 보유하려는데 양보하려 하지 않는다.

케네디 미국 대통령은 프랑스에도 폴라리스를 제공하겠다고 제의했다는데 드골 대통령이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아직 예측키 곤란하다.

영국은 독자적인 핵 억제력을 잃은 오늘날 유럽에서 유독 프랑스만이 독자적인 핵 억제력을 보유하려 드는 것을 마땅치 않게 여기고 있다. 따라서 미국을 충동거리서라도 프랑스의 핵 억제력도 NATO에 통합시키려는 방향으로 나가도록 노력할는지 모른다.

지금 프랑스가 독자적 핵 억제력을 강화하고 또한 계속 유지해 보려고 갖은 애를 쓰고 있지만 강력한 핵 운반체를 개발 못 하는 한 결국은 영국과 비슷한 입장에 서게 되지 않을까 한다.

영국은 나소협정 후 애초 스카이 볼트를 장비시킬 예정이었던 발칸 폭격기 180기를 집단 핵 억제력 창설축진을 위해 NATO에 제공하기로 결정을 내렸다.

그 발칸 폭격기대(爆撃機隊)는 영국 폭격기대 사령부의 지휘를 받기로 되어 있다고 한다.

한편 개발을 포기했다는 스카이 볼트를 아주 폐기해 버리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즉 미 공군은 맥나마라 국방 장관에게 스카이 볼트용의 새로운 계획안을 제출한다고 한다. 그것은 미 공군이 스카이 볼트를 우주전쟁 병기로 사용한다는 것을 내용으로 할 것이라고 한다.

그 방법은 첫째 군사 목적을 위한 우주 탐사, 둘째 적의 인공위성을 사찰 다시 필요하다면 그것을 요격하는 두 가지라고 한다.

그리하여 5억 불이라는 막대한 경비를 잡아먹은 미완성 미사일인 스카이 볼트는 국제적인 파문(波紋)을 일으키고 나서 새로운 용도를 찾아 새 길을 걷게 됐다.

정확한 미사일 요격용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다고 자랑하고 지구를 한 바퀴 돌아 레이더 없이는 남쪽으로부터 미국으로 침입할 수 있는 지구로켓을 가지고 있다고 큰소리를 치는 소련을 이기려면 다시는 스카이 볼트 논쟁 같은 분규가 자유세계에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힘을 합쳐 언제라도 공산세계를 억제할 수 있는 강력한 핵 억제력을 지니도록 서로서로 노력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

소화

별로 뽀족한 수도 없으면서 노상 선비노라 뽐내고 앉아 누워있는 형이 있었다. 그것이 마음에 못마땅해서 아우는 한 시도 형을 거들떠보지 않고 있는데 어느 날 또 형이 아우를 부른다.

“무슨 일입니까?”

“여보게, 회초리 한 개만 해오게.”

“회초린 해 뭘 합니까?”

“마누라가 실수한 일이 있어서 매를 쳐야 하겠는데 차마 여자의 몸에 매를 댈 수는 없고, 그렇다고 해서 행세하는 선비의 도리에 그대로 두어 버릴 일도 아니고 하니 매를 해 오면 내가 대신 맞겠네.”

가하다 부하다 소리도 없이 아우는 큼지막한 회초리 한 개를 해왔다. 형은 먼저 사당 앞에 엎드려 내력을 고하고 조상의 명령이라 하여 스스로 말하되, 네가 집안을 잘 다스리지 못 했으니 그 벌로서 내 백 대를 맞을 지니라.”

아우는 평소부터 형의 그 완고한 꼬락서니가 보기 싫던 다음 일 지라 옳다 좋은 기회라 하고 형이 불기를 가고 엎드리기를 기다려 사정없이 한 개를 쳤다. 형이란 선비님이 얼마나 불기가 아팠으면

“아아 아냐! 나머지 아흔아홉 개는 조상께옵서 고만두라고 하셨어! 어! 어! 정말이야 정말!”



F-20의 이륙하는 모습

다용도(多用途) 단좌(單坐) 전투기(戰鬥機)의 운용론(運用論)

윤응열(尹應烈)
〈공군준장·공군본부 작전국장〉

5. 결론

이상에서 필자는 현금의 유럽에 있어서의 항공 작전 개념의 변천 즉 제1단계—방공(防空) 위주의 경요격기(輕邀擊機)의 출현, 제2단계—핵 전쟁론의 대두와 방공 및 공격겸용(攻擊兼用)의 중요격기의 필요성, 제3단계—핵폭탄의 미소화(微少化)와 미사일의 발달에 따른 고성능 전자 장비를 설치한 다용도의 전폭기(戰爆機)의 등장—의 면모를 고찰하고 이에 따라서 단좌기 전투의 그 다용도성과 ‘Maneuver’의 상상의 발전을 논술한바 있는데 이의 대표적 기종으로서 미 공군의 F-105 Thunderchief와 프랑스 공군의 Mirage3의 작전 면과 그 다용도성을 관찰하였다. 일익발전(日益發展) 하는 항공기는 현대전(現代戰)의 개념이 나날이 변천됨에 따라서 미래기종의 예측을 불허하고 있으며, 근년간에 있어서 F-105의 요격 능력과 기체 레이더 기능을 보완, 개선하고 전천후(全天候) 작전 능력과 다용도성을 자랑하는 F-110기종이 바야흐로 미국 공군의 일선기(一線機)로 그 모습을 나타내고도 있는 것이다.

현하(現下) 유럽 자유진영(自由陣營) 제국(諸國)은 NATO에 파군(派軍)하고, 동시에 자국방위 비(自國防衛費)에, 미국의 군원(軍援)이 있기는 하나, 연간 막대한 예산을 계상(計上)하지 않으면 안 되는 형편에서, 특히 유럽의 지리적인 여건에 비추어, 경제적이고 다용도의 기종 운영은 무엇보다도 그네들에게 각진(喫緊)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더욱이 이는 경제 부흥 및 국제수지개선(國際收支改善)과 대공방위라는 이원적 목표에 봉착함에 있어서야 재연의 여지가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 한국과 같이 지호지간(指呼之間)에 대치하여 있고 연간 막대한 경원(經援)과 군원의 뒷받침으로서 유지되는 국방의 경우에 있어서 경제적이고 다용도적인 기종을 운용하여야만 된다는 논의가 아무리 강조된다 한들 지나침이 없을 줄로 믿는다. 즉 전장에서 논증하는 바와 같이 기종 운용론의 개념을 적용시켜 본다면, 안가(安價)의 cost로 유지, 관리할 수 있는 기종으로서, 가, 전천후 작전이 가능해야 한다.

전기(前記) 한 바와 같이 전천후 작전이 가능한 기종이 아니고서는 이미 그 가치의 재고조차 없는 것이며 더욱이 한국의 기상 조건으로 보아서 1년 중 수개월에 가까운 연일수는 악천후(惡天候) 하에서 행동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인 것이고 또한 주간에만 작전 행동을 그칠 것이 아니라 적에게 노출의 핸디캡을 덜어 주는 야간 작전에 보다 더 집중해야만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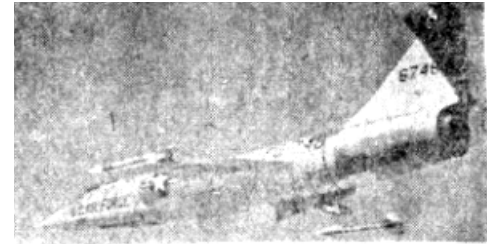
나, 다용도라야 한다.

ㄱ, 제공임무(制空任務)(Counter-ai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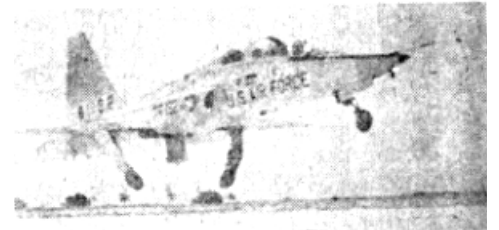
- ㄴ, 요격(interception)
- ㄷ, 장거리침공(Long range ferry)
- ㄹ, 근접지원(Close air support)
- ㅁ, 전술정찰(tactical reconnaissance)

등을 시기 적절히 수행할 수 있도록 무장의 장착, 부품품의 분해, 기체의 조립이나 수송이 용이하고, 기지 지원 능력이 간편해야 될 것이다.

필자는 목하(目下) 한국 공군이 신 기종 도입과 선택을 앞두고 이에 유의하고 있는 부문에 미력(微力)이나마 참고가 되고자 하는 의도에서 한국 공군에 있어서의 다용도 단좌전투기의 군용 지침론을 제시하고 줄고를 끝맺으려 한다.



F-104의 모습



N-156의 복좌형인 T-38 훈련기의 이륙광경

1. 한국 공군력과 다용도 단좌전투기

오늘날 핵(核)미사일이 미래전(未來戰)에 있어서의 궁극적인 무기로 등장된 이래 이에 대한 연구, 개발이 끊임없이 계속 되면서도 일방적으로는 아직도 유인 항공기는

그 효용가치를 상실하지 않고 있는데 그 논증으로서, 현대의 전쟁 개념이 핵폭탄의 미소화(微少化)와 그 운반 능력의 전위—즉 전략폭격기(유인)에서 미사일(무인)로 인하여 새로운 모습을 띄게 되었는데, 이에 따라서 미래의 전면전에서는 유인 항공기가 공중 방위 수단으로서는 일고의 가치도 없는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다는 논의가 계속 되면서도 요격 미사일(AMM)이 적의 공격 미사일을 격추할 수 있는 능력에 있어서 아직도 의문이 잔재하고 있으며 상공까지 미사일에만 공격 수단을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유인 항공기를 의연 병용(竝用)하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이상, 계속 이에 대응하는 유인기(有人機)에 의한 공중 방위 수단은 불가결한 것이 아닌가 싶다. 특히 미사일이 수행하지 못 하는 ‘판단’과 ‘공격목표의 자유자제적인 변경’이나, 지상군 협동, 전술폭격, 항공기 요격, 전술 정찰, 제공조계(制空哨戒任務) 등을 유인 항공기만이 가능한 이상, 전술 항공기의 비중은 전쟁 승리의 관건에 크게 작용될 것이 아직도 불변하고 있는 것이고 이러한 개념에 따라 방위 면에서도 조기 경보방을 통한 공중제제 중의 고성능 항공기로부터의 요격 미사일 발사의 가능성은 유인 항공기의 필요성을 잔존케 하고 있다고 보겠다.

시야를 돌려서 현재의 적정(북괴의 군사력, 특히 공군 면과 우리의 현실로 보아서는 공격의 최량의 방법일 뿐이고 기상과 여하한 제한을 받지 않는 전천후작전과 ‘수’적 열세를 불문케 될 우리 공군의 묘책으로서는 요격까지도 포함한 다용도 전투기의 운용 원칙은 절실히 요구 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필자는 이런 범위 내에서 한국 공군에 관하여 언급하려고 하며, 전면전쟁 하에서의 제 문제는 별도로 상론이 요할 것이므로 논외의 대상이 될 것이다)

연간 막대한 우방의 군원에 의지하고 있는 한국 국방의 경제력을 상기고 이 중 군원의존도가 가장 높은 공군에 있어서 가장 중대한 문제야말로 여하히 하여서 가장 낮은 비용(예산, 물자, 인력, 장비)을 들이고서도 고도화된 전력과 작전효율을 획득하느냐 하는 것이 지상의 과제일 줄로 생각하는 바이다.

이러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공군 운영의 핵심이 되는 항공기



<도표 N-156기에 의한 대지공격 작전행동 전선 가까이 있는 기지(A)에서의 행동범위는 (B)기지에서 보다 유리하다 행동반경: 150n.m.>

운용은 항공력(Air Power)확보에 직결되는 것이라고 보겠다. 물론 이에 는 조기 경보망이나 고도화된 비행 시설(flying facilities) 항법(航法) 보조 장치 및 장비 후방 능력이 부수되어야 할 것은 재언의 여지가 없는 것이며, 우리와 같이 동일국토 내 단일민족이 ideology 상으로 분열되어 있는 정치적 특수성에서 볼 때에는 항공기나 장비 그 자체뿐만 아니라 이를 운영, 유지 하는 인적 요소의 건실한 정신력이 back-Up 되어야 할 것이다. 더구나 북괴 공군력의 수적인 열세를 만회함에는 일기당천의 감투정신과 개인의 전술전기(戰術戰伎)의 연마가 긴급한 문제이기도 한 것이다. 현대전에서 공중지원을 고려의 대상으로 하지 않은 지상군이나 해상군의 작전이란 이미 논의의 가치가 전무하며 전략상으로 볼 때 제공권(制空權)의 확보 또는 공중우월이라는 것이 절대적으로 전쟁 승리에 필수적 조건으로 남아있는 한해서는 공권력의 비중 문제는 한국에서도 적용될 것이 명약관화(明若觀火)한 사실인 것이다. 한국 공군에서 요구되는 다용도 단좌 전투기 운용의 원칙을 제시하여 본다면

가, 작전면

기후, 조건, 적정(敵情)에 구애됨이 없이 작전 수행이 가능하고 이 작전 수행의 용이하도록 융통성이 부여되어 있어야 할 것이다. 즉 천후에 관계없이 적 레이더 유효 망권 이하로 초음속, 저공 침입에 의한 적에 대한 기습이 가능한 기동성이 있어야 하며, ‘제공공격’이나 ‘방공’이라는 임무의 구별이 없이 적시적절하게 ‘공격’과 ‘방어’의 양면을 수행할 수 있는 작전 용이성이 있어야 할 것이다. 과거와 같이 아방(我方)에 제공권이 확보된 경우에 있어서는 ‘용맹’ 또는 ‘돌격’이라는 명분하에 백주출격의 감행이 가능하였지만 현재의 작전 개념에서 볼 때는 적은 완비된 경보망을 통해서 즉각적인 요격(지대공(地對空) 미사일, 요격기에서의 공대공(空對空) 미사일)이 예상되는 실정에서, 이제에는 적의 레이더 유효망권이하로 초저공, 초음속 방법으로 야간, 또는 악천후 상태하에서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되는 것이고, 이것이야말로 작전을 성공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이며, 이러한 전쟁 원칙은 예나 지금이나 그 원리에 있어서 하등 변함이 없이 우리들에게 작전 교리를 교시하고 있다고 보겠으며, 이를 금일(今日)의 항공 작전의 테두리 안에 적용시키기 위해서는 고도화된 과학의 활용 즉, 완전한 현대기의 보유, 이 현대기를 효과적으로 운영, 유지하여 전투할 수 있는 최고도의 Crew training, 및 각 특기 분야가 작전목적에 집중되는 Unit efficiency training 등이 강조되는 것이다. 특히 절대 불가결의 요소로서는 적기에 능히 대적할 기체의 성능이 구비되어야 함은 재언의 여지도 없는 것이다.

나, 후방면

전술한 작전 행동이 실질적으로 보장되기 위해서는 정비능력과 보급능력이 확보 되어 있어야 할 것이다. 특히 현재의 우리 장비 분야의 인원의 Skill도나 기술원의 신진대사가 단시일 내에 낙관할 전망이 없는 현황에서 무엇보다도 장비, 보급의 용이성(장비 인원의 감소, 부분품 Pipeline의 간편, ‘Turn around’ 시간의 단축)이 있는 기종이라야 할 것이다.

다, 인사면

작전이나 후방 부문의 병원(兵員) 획득이 현 여건으로 보아서 충원(양성 시간의 장기로 인한) 이 원활치 못하고 Skill의 확보 문제가 당분간은 난관을 면치 못 하게 될 것인바 인원의 대폭 증원이나 Skill도의 급격스러운 요구를 필요치 않은 기종이어야만 될 것이다.

이에 부가해서 공군에서의 ‘Manpower management’는 육군이나 해군에서와 같이 민간에서의 ‘War Reserve’ 확보라는 것은 있을 수 없고 ‘Force in Being’만이 어느 때나 공군 전력일 수 있는 고로 자체의 ‘Ceiling’ 내에서 일단 유사시에 요구되는 ‘Fire Power’를 담당할 ‘Reserved Manpower’의 ‘Pool’을 형성할 수 있도록 수렴되어야 할 줄로 믿는다.

라, 기지의 위치와 조건

위치 문제

적의 주요 목표를 보유 전투기의 작전 행동 반경 내에서 둘 수 있고, 또한 비상시에는 50분간의 초음속 비행할 수 있는 연료를 남길 수 있도록 기지가 위치되어 있어야 한다. 이럼으로써 저 공군 세력을 ‘Neutralize’ 하고 ‘Denid’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의 주요 심장부를 충분히 적의 기습공격으로부터 조기 탐지하여 Cover할 수 있는 거리에 위치하여야 할 것이다.

적의 피습으로부터 공군력을 회피한다는 점에 중시하여 작전 기지를 후방 깊숙이 둔다면 공군 작전부대의 목적은 그 의의를 상실 할 것이다 마치 최선의 비행 안전은 비행을 안 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역설과 같이 적으로부터 불과 10분 이내에 감행 될 기습을 저지하고, 우리의 심장부를 Cover하며, 반대로 적을 신속하게 공격 하여야 될 ‘Concept’에서, 다만 항공기의 파괴를 피하기 위해서 작전 가능권 외로 기지를 두어야 된다는 소극론(消極論)처럼 년센스는 다시없을 것이다 물론 유사시에 ‘recovery’ 및 ‘Turn around’에 대비 하여야 할 후방 예비 기지의 타당성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이렇다면 상대적으로 우리도 적으로부터 의 피습을 각오 하여야 될 것이므로 항공기나 장비, 인원 및 작전 기지 조직망 등을 지하로 은닉할 수 있는 내피 시설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다 이에 는 막대한 노력이 소요 될 것이지만 적의 초도 일격을 무력화시키고 곧 보복력을 가질 수 있다는 점에 현실적으로 기여한다는 점에 본인은 수차 강조 해왔으며, 냉전의 실마리가 언제 열정으로 화 할 지도 모르는 긴장의 틈바구니에 처해 있는 우리로서는 적의 공격이 예고를 바라지 않는 이상 이 문제가 가장 시급한 것이 아닐 수 없다는 지론을 여담 이나마 적어두는 바이다.

전천후 작전에 필요한 기지시설의 조건 문제

전술한 바와 같이, 피아 간의 공격은 호전 시보다는 악천 시에, 주간보다는 야간에 감행될 것으로 보아서 우리는 전천후 작전 능력을 보지하고 있어야만 된다는 것이다. 즉, 활주로 조건, 격납 시설, 항법 보조 시설 및 부속시설 등이 완비 되어야 할 줄로 믿는다.

마, 통수 조직면

작전, 후방, 지원 등의 각 분야가 유기적으로 통합되어서 실질적인 고도화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commanding’이 작용할 수 있도록, 조직과 기구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즉 작전-주임무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한 후방, 지원, 인사, 행정 분야의back-UP과 제대 상에서의 통솔의 폭이 적절하게 조절되어야만 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작전부대를 중심으로 군대의 목적인 전투 임무를 수행하고 발휘할 수 있으려면 ‘Direct support’, ‘indirect support’, ‘training retraining center’ 등이 부수적으로 지주되어서 조직 운영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조직의 평면성으로 인해서 군의 주임무 -전투, 작전-가 후방이나 또는 교육에 비중이 쏠려서 경시되고 있는 사례는 시정되어야 할 과제가 아닌가 한다.

또한 중적인 지휘의 단일화를 기하고 통수계통과 군율을 엄정히 확립함으로써 각급 지휘관에 대한 권한 위임과 독단 활용을 통한 ‘운영의 묘’는 우리의 좌우명이 될 것이다.

요컨대 현대공군에 있어서 다용도 전투기의 효율적인 운영 문제는 공권력 확보라는 지상 목표에 밀접하게 기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적어도 현대의 다용도 전투기 한 대가 핵무기와 결부될 때는 재래식 항공기 수백 대의 기능을 수행할 수가 있게 되기 때문인 것이다. 현재 한국의 항공 작전이란 것은 한-미 공군의 합동을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고 이에 따라서 기종 운용 문제나 공군 운영에 독자적인 구현이라는 것은 우리가 수원(受援) 국가이니 만큼 기대가 거의 불가능한 사정이므로 우리에게 는 무엇보다도 전술한 제 조건을 적용시켜야 할 운영 문제가 Close-up되고 있는 것이다. 한미 양국 간에서의 진지한 이해와 연구 증진 협동만이 발전의 요소가 될 것이라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을 것이다.

2, 맺는 말

오늘날의 항공기 분야의 발전은 전언한 바와 같이 미사일 개발에 병행하여 미래 전에 있어서의 방위 공격 또는 수단으로써 그 위치가 부동하리라는 것은 거의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것이다.

미국은 현재 요방위(要防衛) 지역의 점차적인 확대와 전면전 하에서의 전략적인 책임으로 집단안전을 위한 상호 방위에 의한 고가의 운영 유지비를 투하하면서도 항속거리가 길고 중량이 무거운 고성능 전폭기의 운용이 불가피하고, 또한 이것이 경제적으로 충분히 가능할 것이지만, 유럽 제국의 사정은 자국의 입지적, 경제적인 조건 때문에 기종운용은 미국과는 다른 면모에 의한 발전을 이루어왔던 것이다.

특히 핵전쟁을 전제한다면 삼시간에 피아를 막론하고 지구를 전멸시킬 수 있으며, 이러한 전면전쟁의 가능성을 UN의 평화 정신이나 국제주의가 아직껏 중화시켜 보지 못했으며, 오로지 군비경쟁과 공포의 균형만이 제3차전 폭발의 안전판이 되고 있다고 보겠다.

최근에 일어나고 있었던 국지적인 무력충돌이 종전까지는 그래도 제한전쟁이라는 명목으로 전면전쟁의 코스를 회피하였지만, 이제 앞으로의 전쟁 개념은 정략적인 요소로서 제한전쟁이나, 또는 전면전이나 하는 구분을 불능케 하여 줄 것으로 예상 된다. 즉 핵무기 사용을 전제하는 한 이는 벌써 제한전쟁의 성격을 가질 수가 없기 때문인 것이다.

지난번 라오스에서의 무력충돌을 그 이상 확대하지 않고 양대 세력을 배경으로 하는 라오스 좌우 양측이 평화회담으로 들어간 일이라던가 쿠바 핵미사일 기지건설 문제에서의 미국의 강경한 응수로 소련이 주춤하고 물러선 것은 국지적 열전이 곧 전면전을 폭발시키는 도화선이 될 위험을 회피한 사실로서 이미 제한전쟁의 개념을 변전시켜 주고 있다고 아인슈타인 박사가 3차전 이후에 또 다시 있을 전쟁에서는 필연코 ‘석전’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인류에게 경고한 사실을 재음미하여 본다면, 미래의 핵전쟁이야말로 인류사에 중지부를 찍지 않으면 안 될 최후가 되리라는 것이 틀림없을 것이다.

이러한 적의 전쟁 도발을 방지하는 길은 우리의 전쟁보복에 달린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국가적인 역량을 기울여서 국방력을 준비 강화하여야만 될 것이고, 용병에 있어서는 단지 선제적이어야 하므로 ‘공격은 최량의 방어’라는 원리가 재삼 간직되는 것이기도 하다.

후기(後記) - 그간 아까운 지면을 할애하여 주신 편집 당국에게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자료의 미비로 또는 미흡한 곳은 후일 보완의 기회로 미루기로 합니다.

◇지조

찰스 2세(영국)때의 이야기다. 재무상인 단비 백작은 옛 학우인 마벨을 설득하여 정부여당을 지지 하게끔 하는 역할을 맡았다. 단비는 마차를 타고 마벨을 찾아갔다. 마벨은 산간초옥에 보잘 것 없이 살고 있으면서 오늘날 나라를 움직이고 있는 옛 학우를 만나 매우 기뻐했으나 몇 마디 얘기를 해본 결과 라벨은 야당을 지지하고 있었다. 단비는 라벨을 여당으로 끌어넣는데 단념하고 떠날 때 순수한 우정에서 1,000파운드의 수표를 주면서 곤난한 모양이니 써 달라고 말했다. 그것이 수표인 줄을 알아차린 마벨은 “각하, 잠깐 부탁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하고 떠나는 마차를 세우고 도로 집으로 모셔 들였다. 그리고 식모를 불러들어 “어제 밤 요리는 무엇이었지?” 하고 물었다. “잊어버렸습니다. 아마 양 고기 조금 -” “그래, 그럼 오늘 저녁은 무엇이지?” “양갈비 조금 있습니다.” “응, 알았어, 물러가게.” 그러자 식모를 물러났다. “각하, 들으셨지요. 저의 식사는 이제 식모가 증언한 것처럼 준비되어 있습니다. 걱정 마시고 수표를 도로 가져가 주십시오. 각하의 친절은 감사하오나 제가 투표할 인물은 이미 결정되어 있습니다. 모쪼록 정부가 요구하는 인물은 다른 사람을 골라 주십시오.” 하고 깨끗이 거절했다.

◇백 번째의 환자

프랑스의 유명한 희극작가 모리엘의 작품에 이런 이야기가 있다. “여보게 그 증권 장사는 하지 말게. 그 장사는 오늘 벌었는가 하면 내일 잃게 되네.” “아 그럼 하루건너 장사를 하면 될 것이 아닌가.” 이와 비슷한 이야기로 어느 병원에 환자가 “선생님 저의 병은 나을까요?” 하니 의사 가라사대 “암, 당신의 병은 염려할 것 없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이런 병은 100명에 한 사람 꼴은 살아나는데 우리 병원에 이제까지 99명이 들렀는데 모두 죽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꼭 100번째로 찾아온 환자니 틀림없이 살 것입니다.”

이런 의사는 병원에다 특설 장의사라도 병설하는 것이 좋을 듯.

◇색다른 부탁

찰스 2세(영국)의 궁정 사제 사우스가 정신들이 모인 자리에서 설교했다. 청자들의 대다수가 졸고 있는 것을 보자 그는 로다테루 백작의 이름을 세 번이나 호명했다. 호명을 당한 백작은 깜짝 놀라 눈을 떴다. 그러자 사우스가 말했다.

“모처럼 주무시는데 방해를 해서 죄송합니다. 백작께서 좀 더 코를 작게 고시도록 부탁드리려 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폐하의 잠을 깨울 것 같아서—.”

◇양부

‘실낙원’의 시인 밀턴(1608-1674)은 처에 대해서 관심이 적었다. 어느 날 어떤 모임에서 처에게 말했다. “그 자리는 바람이 잘 통하오?”

“네 잘 통합니다.”

“그럼 자리를 바꿔주세요. 이 자리는 바람이 너무 들어와서 먼지가 심한 걸”하고 자리를 바꾸어 앉았다.



1961. 7. 9 소련 루시노 비행장에 출현한 문제의 거인 폭격기

원자력(原子力) 항공기(航空機)

홍성표(洪聖杓)

〈공군소령〉

원자력하면 지구상의 그 어느 누구도 그 매력을 느끼지 않은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이다. 개중에는 그 원자력으로 인한 비극적인 참화를 받은 사람도 있겠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개인의 희생이요, 그로 인하여 원자력 전반에 걸친 시비는 있을 수 없는 것이다. 이렇듯 오늘날 원자력이 인간에게 주고 있는 매혹적인 신비감은 일찍이 없던 일이다. 그의 위력은 제2차 대전 말기에 미 항공 B29 폭격기에 의하여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2발의 원자폭탄(20KT-TNT 2만 톤)이 각각 투하됨으로써 비록 사망자만도 십 수만 명이 나왔지만 이러한 희생은 미국이 추산한 일본본토 상륙작전에 미군 백만 명과 일본군 2백 5십만 합계 3백 5십만 명의 희생으로 장기적으로 전쟁을 종식시키겠다고 각오했던 것과 비교해 본다면 문제시할 것이 못 되는 것이다.

이때부터 원자력은 가공할만한 전쟁 무기로서 그의 위력을 과시하였고 그로 인하여 오늘날은 ICBM이라는 장거리 공격 무기가 출현하여 세계는 승리냐 패망이냐가 아니고 전 인류가 전멸이나 연이면 대전회피(大戰回避)이냐의 기로에 서게 된 것이다.

그러나 원자력은 그렇게 인류의 위협적인 존재로만 등장한 것은 아니며 그 위력은 원자력의 출현으로 비록 목적이 군사 무기이지만 초대형 항공모함을 비롯하여 세계 전략을 일시에 획기적으로 변화시킨 원자력 잠수함도 있지만 평화적으로는 전기와 기반 그 이외 우주를 정복할 원자력 로켓까지 불원한 장래에 출현하기에 이른 것이다.

여기에 원자력 항공기로서 이것은 그의 가능성이 이미 수년 전부터 인정되어 미소 양국에서 경쟁적으로 열을 올려 제조에 온갖 노력과 다액의 돈을 투입하고 있다는 것인데 이렇듯 열을 올려 원자력 항공기 제조에 혈안이 되다시피 하는 것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이다. 현용 항공기는 속도 면에 있어서는 상당한 진전을 가져왔으나 많은 적재물을 탑재하고 장거리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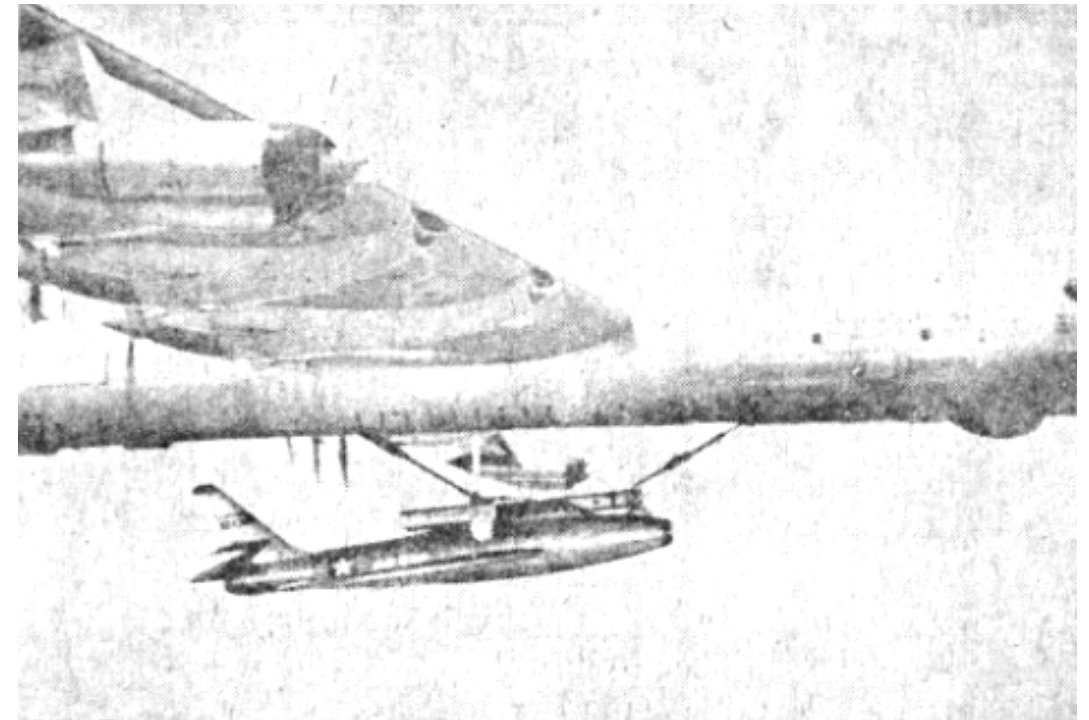
비행하는데 아직까지 우리들 인간은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오늘날 항공기에서 사용하는 연료는 초음속 전투기이면 1시간에 3,000-4,000 G/L (보통 아음속(亞音速) 전투기 4,000-5,000 G/L)이 소모 되는데 이렇게 많은 연료를 소비하면서 계속적으로 초음속 비행을 하려면 그 기체의 중량과 비교해 볼 때 불과 몇 십분 밖에 비행하지 못하는 결과가 나온다. 그러나 원자력 항공기는 비행 중량 30톤으로 시속 3000km로 비행할 때 엔진의 효율을 20%로 보고 1시간에 소비하는 양은 우라늄 235.25g이며 이로 인하여 세계 일주 비행(4만km·20시간)에 소요하는 연료는 불과 500-600kg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세계일주 비행을 현 제트 항공기로 여행한다면 1000톤(33만 G/L)이상의 케로신이 필요한 것으로써 이만한 양을 소비하려면 수차에 걸친 공중급유를 받아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원자력 항공기는 세계 일주에 공중에서 재보급 없이 20시간을 비행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그 위에 수일간을 무착륙 비행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을 입증할 만한 것으로는 어느 정도의 신뢰성을 가졌는지는 몰라도 미국의 1961년 5월호 항공 잡지는 한국에 있는 비밀 첩보 기관으로부터 당시 중앙정보국장 알렌 딜레스 씨에게 들어온 비밀 정보라고 전제하고 소련은 수개월 동안 멈추지 않고 초음속으로 비행할 수 있으며 레이더망에도 걸려들지 않은 원자력 항공기를 만들어냈다고 보도하였다. 이어서 동지는 소련의 원자력 한 공기가 순항 속도를 시속 4,000km(2,500PMH)로 비행 하였는데 최대 속도는 시속 5,600km(3,500PMH)까지 비행할 수 있다고 하였으며 제1회 시험비행에서는 공중에서 연료 재보급 없이 21일 간을 비행하였는데 그때의 고도는 25,500m(8,5000ft)까지 상승하였다고 하였다. 그리고 동지는 무착륙으로 90일 간을 비행할 수 있는데 시험비행 중 소련 영내 10대 도시에 대하여 25차에 공한 가상 폭격 중 23차에 걸쳐서 소련의 레이더망에 포착되지 않았다고 부언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정보를 뒷받침할 만한 소련의 원자력 항공기의 실제 비행한 정보가 없어 확인할 수는 없으나 원자력 항공기가 무착륙으로 장거리를 비행할 수 있다는 것만을 모두 수긍하는 것 같다.

원자력 항공기에 대해서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하게 된 것은 역시 1958년 3월 1일호 미국의 저명한 항공 지 'Aviation Week 지'에서 소련은 이미 원자력 폭격기의 원형을 시험비행하고 있다고 보도한 데서 서방측은 크게 충격을 받았다. 물론 그때 발표한 내용이 당시에는 서방 진영에 알려져 있지 않았지만 1961년 7월 9일 소련의 공중 시위에 나타난 Bounder(Code name)대형폭격기와 대단히 유사한 것을 발표하여 오늘날은 상기 항공지가 오늘날의 Bounder 대형항공기의 원형이 시험 비행 하는 것을 목격한 것이 원자력 항공기로 잘못 보도된 것이 아닌가 추측하고 있다. 그러나 Bounder 폭격기는 그의 엔진에 부착된 장소와 크기가 상이하므로 혹자는 내부 엔진은 강력한 보통 엔진이며 외부 익단에 부착한 소형은 원자력 엔진으로서 실용, 아니면 시험용이 아닌가 보고 있으니 대부분의 항공기 전문가는 램제트로 보고 있다.

여하튼 원자력 항공기가 소련에서 먼저 출래(出來)하였다고 하는데 대하여 비상한 관심을 가졌던 것만은 사실이나 그렇다고 미국은 아직까지 완전히 개발에 착수하지 않고 있었느냐 하면 그렇지 않다. 미국도 일찍이 2차 대전이 종결한 직후부터 공군에서는 NEPA 계획으로써 Fairchild회사와 계약에 도달하였으나 1951년에 와서 당시 월슨 국방장관은 유도탄 분야에 전력을 경주함으로써 중지되고 말았다. 그 후 미 공군에서 1954년에 또 다시 WS-125 계획으로써 NB-36H (B-36 10발 전략폭격 공조형)에다 직접 원자력 엔진을 장착하지 않고 내부에 적재하여 그 다음 해인 1955년 9월부터 시운전을 행하였으며 미 해군에서도 대형 수상기 P6m Sea-master를 원자력기로서 개조하여 원자로를 조립해서 4일 간을 연속 운행하여 2,500Kw(3,400마력)의 출력을 얻었다고 발표하였는데 이와 때를 같이하여 모스크바 방송은 이미 원자력 제트기의 설계 완료를 발표하는가 하면 동독 방송도 소련이 원자력 항공기 제작을 개시해서 가까운 장래 초비행(初飛行)을 보도하고 같은 해 중공 방송은 소련의 원자력 항공기가 시험 비행을 성공하였다고 계속적으로 방송하니 그의 의도가 나뉘어 있는지는 몰라도 몇 개월 만에 설계 완료로부터 제작 과정을 지나 1회 시험 비행을 성공하였다는 것은 공산위성국 내에서의 국가는 다르지만 발표한 내용이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곧 납득이 가는 일이 아니었다. 이러던 중 58년에 들어와서 미 항공지가 소련의 원자력 항공기의 출현을 보도함으로써 서방세계에서 놀라움을 금치 못하였다고 하는 것도 당연한 귀결인 것이다. 그 후에도 미국은 실제로 엔진을 직접 장비하고 실험은 행하지는 못하였지만 엔진 자체만으로는 많은 실험을 거듭해 왔으나 아이젠하워 대통령만



B-36 모기에 매달린 F-84 전투기

해도 원자력 항공기에 대한 시기 상조론을 내세웠기 때문에 별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원자력 항공기는 많은 세인(世人)의 관심 속에 그간 미소 양국이 다 같이 발전을 거듭해 오고 있거니와 작년 말에 들어서면서부터 또 다시 미영 양국의 항공 지는 같은 내용의 기사로써 대수롭지 않게 소련의 원자력 항공기에 대해서 발표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소련의 핵 동력 계획은 시험으로부터 일변하여 대체 작전 계통으로 전환 발전시키고 있으며 이 계획의 목적은 대량의 전자탐지장치와 깊숙한 수중 목표물까지 핵 공격할 수 있는 폭탄을 적재하고 오랜 기간을 잠수함이 순항하는 지역을 충분한 항속력으로 비행할 수 있는 대(對) Polaris 잠수함 무기로 현재 발전하고 있다고 소문이 돌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에서도 작년 7월 19일 영국 항공지가 보도한 바에 의하면 미국의 유인로켓 다이너소어(Dyna-soar)기가 X-20이 된다는 기사에서 고체연료 로켓은 NB-52 모기로부터 떨어져 나온 후 X-20을 초 비행에서 초음속으로 추력(推力)시키기 위하여 사용될 것이라고 하였다. 여기에는 NB-52는 미국 공군에서 사용하는 명명법에서 'N'자는 B-52 전략폭격기를 원자력 항공기로 전환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써 미 공군에서는 이미 X-20 모기로써 NB 원자력 폭격기를 개조 하였다고 보는 것이다 이러한 원자력 항공기를 제조하는 데서 가장 문제되는 것은 주어진 기체 중량에다 방사성 물질을 탑재시켜야 하기 때문에 너무나 유명한 방사성의 오염으로부터 탑승인원은 보호하여야 하는 것이다. 세계적으로 보편화된 것은 인간이 일주일에 받는 허용한도의 방사성은 0.3μSv로서 이와 같은 제한성을 주기위하여 어떻게 차폐(遮蔽)하느냐하는 것이다. 그런데 아무리 대형의 항공기라 할지라도 원자로와 조종실 또는 객실과의 거리는 기껏해야 20-30m 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서 원자로를 전력으로 가동했을 때 인체의 안전을 주기 위하여서는 방사선의 강도를 1,000분의 1정도까지 적게 할 필요가 있는데 이때 감마선의 예만 들어 보아도 다수의 방어물질이 있으나 하프늄의 예를 들면 35m의 두께의 차폐장치가 있어야 하는 것으로서 하프늄을 차폐물질로 사용하였다고 하면 1제곱미터의 무게는 4톤으로서 폭은 몰라도 35m의 두께로 하려면 상당한 중량의 하프늄 또는 차폐물질이 소요되기 때문에 자연히 항공기는 대형이며 중량이 커지는 것이다.

그 다음은 엔진의 구조로서 이 역시 중량과 형(型)에 많이 좌우되는 것으로 그의 종류는 현 항공기엔

진의 형식이 총망라한 외 더 많은 모든 구조가 복잡한 것이다. 그러나 소련은 그의 문헌에서 발표한 바에 의하면 직접 공기 가열식 원자 터보제트로써 마치 터보제트 내부의 연소실만을 그대로 원자로를 대체하여 장치한다는 것이다. 물론 가장 이상적이고 간단한 것이지만 무엇보다 문제되는 것은 고출력의 마력을 얻어서 초음속 이상으로 소형의 우라늄으로 비행한다면 다소 방사성의 문제는 해결되겠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직접 연소시킴으로써 많이 나오는 방사성은 비행장에서 지상 근무하는 요원은 말할 것도 없이 주위에 오염되기 쉬워 이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는 것이다. 그다음은 반응로 내에 있는 재료가 우라늄이 고열로 연소할 때 일어나는 열처리 문제로서 강한 강철 재료를 사용하여야하는데 이러한 문제들은 이미 소련에서는 해결되었다고만 할 뿐 어떻게 해결하였는지는 알 수 없으나 이 방법의 해결방법은 Bounder와 같이 내부에 대형이며 고성능의 보통 제트엔진을 장치하여 지상에서 이륙 및 착륙 시에만 사용하고 상당한 고공에 상승하여 쓸 때는 원자로를 발화시켜 운전케 하는 것 같다. 이상과 같은 문제점으로 인하여 원자로의 종류도 열중성자라고 고속 중성자로 그리고 중간형인 중속 중성자라고 있는데 이중 최근 가장 활발히 개발시키고 있는 것은 고속 중성자라고인데 그 이유는 비록 시동 시 또는 점화 시에 핵반응에서 나오는 격한 열변화로 인하여 팽창과 응축에서 오는 파괴 또는 고장이 있는 외 복잡한 열교환기를 장치하여야하므로 대형이며 중량이 큰 항공기를 제작하여야 한다는 문제가 가로 놓여있으나 그 반면에 속도가 초음속 이상으로 비행할 수 있다는 것과 고가의 우라늄235가 550kg로 저속 중성자로는 전력 운전했을 때 500시간을 지속할 수 있으나 고속 중성자로는 불과 65kg의 연료를 소비하는데 지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저속 중성자로는 핵분열 반응 시에 분열 속도가 늦어 중성자가 외부로 도피하는 확률이 많기 때문에 핵연료의 소모량이 많은 것 같다.

이렇듯 원자력 항공기의 장단점은 대형 항공기의 속도에 관계없이 다량의 폭탄을 적재할 필요가 없고 속도가 빨라야 한다는 데서 제조할 가능성도 없거니와 제조할 필요도 없다.

그래서 원자력 항공기는 그의 목적 자체가 속도는 별로 관심을 갖지 않고 많은 각종 탑재량을 적재하고 무한히 장거리를 비행할 수 있다는 데서 다음과 같은 용도로써 제작하는 듯하다.

우선 공격용 무기로서는 별로 그의 능력을 인정할 수 없으나 최근 금년 초에 영국 공군의 발칸 폭격기들은 미국의 조기 경계망을 성공적으로 침투하여 모의 수소폭탄을 투하하였다고 영국의 데일리 익스프레스 지가 보도함으로써 한때 물의를 일으킨 사실이 있거니와 그때 성공 여부는 불문에 부치고 만일 현 폭격기들이 아주 저공인 해면 100m 내외를 무한히 장거리를 저 음속으로 비행할 수 있다면 레이더의 사각과 대공 유도탄의 초 저공 공격 불능으로 방공계통을 무력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 폭격기들이 초음속으로 해면상을 장거리를 도저히 비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연료를 소량으로 소모하기 위하여 고도로 비행하기 때문에 결국 탐지되어 반격을 가할 시간적인 여유를 많이 상대방에게 주는 것이다.

그렇다면 원자력 폭격기이면 초저공비행 폭격 후 역시 초 저공으로 도피하는 방법이 가장 이상적인 이외에 항상 고공에서 순회비행 하다가 공격명령에 의하여 직접 극 강하 공격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 다음은 현재 미소 양국은 레이더망의 사각을 보충하고 또 해면상 또는 수중의 잠수함을 감시하기 위한 각종 조기 경계기가 많이 비행하고 있는데 이런 항공기로 원자력 항공기를 이용하면 1회 연료를 보급하면 18-24개월을 비행 할 수 있다니까 또한 우수한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소련에서는 이미 미 해군의 대 잠수함 감지 및 감시용으로 제작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하는 것을 보면 이미 이에 착안하여 개발하고 있는 듯 하다.

끝으로 미 공군의 X-20의 모기나 NB-36H의 F-84 전투기 탑재용 또는 위성 발사용 원자력 항공기로서 제작하여 사용할 수 있다. 물론 이미 이 방면에 노력은 경주(傾注)하고 있으나 방공 전투기의 요격전투 행동반경이 짧은 단점을 보충하는 데는 또한 적절한 방안의 기종일 것이다.

이 이외에도 원자력 항공기의 용도는 다양 다종한 것이지만 실제로 이 세상에 출현하여 군사적으로 기여할 날이 머지않은 것 같다. 원자력은 앞으로 더욱 개발하면 인류의 평화와 행복을 위하여 지금까지 우리 인간의 뇌리 속에 가공할 살상 무기로서 증오의 대상이 되었던 것이 일변하여 욕망을 충족시켜줄 수 있는 위대한 존재로 등장하여 영원히 삶의 터전을 마련하는데 공헌할 것을 믿어 마지않는다.

'조련(朝聯)'의 정체를 해부한다

<깨어진 낙원의 꿈> (완)

—연귀성 「낙원의 꿈은 깨어지고」에서—



향해서 좌가 필자

◇인간 부활에의 고민

북한에서 돌아온 나는 수일간 피로와 혼란 속에서 남몰래 고민하였다.

그것은 새삼스레 말 할 나위도 없이 북한의 구석구석을 목격하고 듣고 하는 동안에 내가 꿈에 그렸던 15년의 이상이 무참히도 일조의 꿈으로 화해 버렸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의 심중에 깊이 간직되었던 지난날의 이상이 그대로 재처럼 사라지고 말 수는 없었다.

얼마 후 나는 다시 극히 정력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지금 현재 제일 교포가 북한으로 들어가고 있는 이때 미숙한 나의 웅변이나 불충분한 시간으로 북한의 실정을 정확히 그리고 정당하게 전할 수 있을까. 때문에 사전에 조련의 최고 간부와 면담하고 내가 보고 온 북한의 실정을 신중히 검토하고 냉정하게 비판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당면의 급부로서는 방금 북송(北送) 중에 있는 자들에 대해 종래와 같은 기만적인 선전, 허위의 보도를 즉각 중지하고 그들에게 참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정책을 바뀌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것은 내가 일본 국적을 가졌기 때문에 두 번이나 북한을 왕복하게 된 나의 의무가 아니겠는가.

나는 성심성의(誠心誠意) 조련의 최고 간부들을 역방하여 북한의 진상을 호소하고 오늘의 북한실정을 지금까지 조련이 선전해 온 그러한 낙원과는 전혀 반대 현상이라는 것, 지금 북한에서 행해지고 있는 정치는 일본에 있으면서 공상하는 사회주의·공산주의가 아니라는 것, 이 2가지 사실을 고의로 눈 감고 종전과 같은 북한에 찬, 북송촉진을 계속한다면 그것은 인도(人道)상 가공할 죄를 범한다는 점 등을 꾸준히 호소하고 돌아다녔다. 그러나 조련의 최고 간부들은 귀를 기울이려고 하지 않았다. 그들은 오늘의 북한 실정을 모르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확일적으로 낡은 관념의 포로가 되어 정치적 편향과 독선을 고찰하려고는 하지 않았다. 그러나 북 송자는 지금에도 북한을 지상의 낙원으로 맹신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은 북한 괴뢰 - 조련으로 연결되는 기만과 허위 위에 꾸며진 선전에 꼭두각시처럼 춤추고 있는 것이다.

이들에게 상투해서 꼭 필요한 생활필수품을 가지게 하고 양복이나 자가용 자동차보다는 방한복, 무명옷, 털 옷, 신발, 미성 한 개의 무엇이라도 필요한 것을 가져가라고 외쳐 주어야 한다. 그리고 결코 지상의 낙원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고 똑똑히 가르쳐 주어야 한다.

나는 드디어 나의 주변에서부터 이것을 실행하기로 결심하였다.

‘오카야마’시의 소위 해방 기념관에서 북송을 일주일 앞둔 사람들에게 베푸는 ‘귀국 학습회’에서 나는 북한의 실상을 말하고 필요한 물건을 가져가야 한다고 말했을 때 동석한 모 간부가 “북한으로 가는 그들에게 그런 얘기를 하면 누가 가겠는가?”

하고 얼굴을 붉혔다. 내가 그 뜻을 말한 즉 그는

“일반 북송 자들은 무지한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상관없다. 바로 말을 하면 아무도 가는 사람이 없어지는 판이니까”

하고 태연하였다.

그들 이른바 조련의 간부들은 제일 교포를 니가타(新潟) 항구에서 배를 태우면 다 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것이 그들의 유일한 정치적 목적이며 그들이 떠나고 난 뒤에야 내가 알 바 아니라는 태도들이었다.

인도주의를 표방하고 만국 적십자정신의 이름 밑에 아직 국교도 회복되지 않은 일본 정부의 엉덩이를 간지러 드디어는 대한민국의 반대도 물리치고 북한으로 보내게 된 의의를 그들은 단지 제일교포를 한 사람이라고도 많이 북한으로 보내는 데에만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것은 오직 노동력이 모자라서 골치를 앓고 있는 북한에 노동원을 제공하는 것뿐이며 일본이나 한국에 정치적 압력을 가한다는 우위성을 자랑하는 데 목적이 있었을 뿐이다.

나의 언동이 그들의 눈 밖에 난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었다. 그들은 이제야 정면으로 부딪치는 나와는 논쟁을 피하면서 이면으로 나를 매장하려는 비겁한 수단으로 나왔다.

그들은 조직인인 나로부터 조직인으로서의 권한을 박탈하고자 나왔으며 나를 일본인이라고 선전하는 동시에 일본 공안청과 맥을 통하고 있다 하며 나의 열면 북송자의 충언을 터무니 없는 거짓이라고 중상과 모략을 일삼기 시작했다. 그리고는 조련에서 추방하려는 수단을 펴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제 북한의 실정을 보고 이미 나의 희망의 등불이 꺼지고만 이상 내게 무슨 미련이 있겠는가. 지금의 '북한'사회의 실정은 내가 지금까지 그려왔던 것과는 너무나 어처구니없는 '지상의 지옥'이 아니었던가. 북송자는 일본에서보다 더 잘 살기 위하여 가는 것일진대 보다 더 비참한 생활 속으로 - 거주의 자유, 직업 선택의 자유조차도 없는 암흑의 터널 속으로 보낸다니 인간의 양심이 어찌 이것을 허용할 수 있겠는가. 나는 조련 조직에서 일체 손을 떼기로 생각했다. 그리하여 장님이 되고 병어리가 되고 귀머거리가 되고 싶었다. 될 수만 있다면 청경우독에 매몰하여 세상의 소음에서 멀리 절연하고 싶었다.

나는 구두로 가능한 곳에는 구두로, 서류가 아니면 안 되는 곳에는 서류로 사임장을 발송하였다.

그러나 그러고도 나의 마음에는 평화가 찾아오지 않았다. 머릿속 한구석에는 언제나 참담한 북한의 북송자들의 생활상이 나의 양심을 괴롭히고 있었다. 나는 술을 폭음하기 시작했다. 술은 일시적으로 그 괴로움을 잊게는 하였으나 마음의 평온, 정신적인 충실을 가져다주지는 않았다. 아—, 나는 어떻게 하면 종단 말인가? 약 3개월 반 나는 모든 방문객과 담을 쌓았다. 오직 나는 나와 나의 마음을 응시하면서 고독과 싸워왔다.

◇생명을 건 공세으로

이리하여 나의 50 평생 중에서 가장 암담했던 1960년은 저물고 어느덧 61년이 찾아왔다.

1월 3일, 나는 다음과 같은 구절을 인쇄하여 연회장 대신으로 조련 전국 각 기관에 우송했다.

- 참다운 우정은 앞에서 보면 장미, 뒤에서 보면 가시와 같은 것이 아니다. (류카이크)
- 독재정치 하에서는 조국은 없다. 배신 음모, 제왕예의 충성 등이 조국과 바뀌어 진다. (라부리유이엘)
- 나에게 자유를 달라, 그렇지 않으면 죽음을 달라. (피히테)

선철의 명언에 서투른 주석을 붙일 필요는 없다. 나로서는 3개월 반 생각한 반응을 선철의 격언을 빌려서 표현한 셈이다.

이에 대한 반응은 거의 없었다. 조련은 나에게 인간으로서 견디기 어려운 스파이라는 오명을 씌웠다는 정보가 친지를 통해서 들렸다. 조련은 말단조직에 이르기까지 나를 스파이라고 유포하고 철저하게 나를 매장하려는 수단으로 나왔다는 것이다. 그들이 피히테를 반동시인으로 낙인찍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것도 이때였다. 조련의 간부들이 나의 요구를 반대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내가 만일 공적으로 '북한'의 진상을 그대로 북 송자들 앞에 털어 놓는다면 그야말로 조직은 파괴될 것이며 조련의 최고 간부들은 그들이 감행해 온 반민족적 죄악을 폭로 추궁 당하게 될 것이라는 점이었다.

나는 내가 스파이로 불릴 하등의 이유가 없으며 전 조직을 통해서 이것을 취소를 요구한다. 단, 나의 언동이 지나친 바가 있다면 비판에 응할 것이다'라는 내용으로 당시 조련 위원장에게 요청하였다.

이 요청은 다행히 쌍방 간에 합의를 보게 되었다.

그러나 그 후 2개월, 3개월이 지나가도 조련은 나의 오명을 취소하지 않았다. 완전히 배신당한 것이다.

나는 이 경과를 어느 친구에게 말했다니 그 친구는 나의 입장을 동정하면서 이러한 말을 들려주었다.

“자네는 조련 즉, 공산주의자들의 정체를 모르고 있네. 그들이 본질은 잔인하다는 한 말로써 전부를 표현하는 것이네. 나는 한때 남한에서 빨치산에 참가한 일이 있는데 그때, 그들 공산주의자들은 인민을 위하여, 대의를 위하여 라고 떠들면서 당원의 충성심을 테스트한다는 이름으로 어느 젊은 당원에게 소지주인 그의 아버지를 죽이고 가재를 약탈에 올 것을 명령하였네. 나는 그때 현장에 있었는데 만일 이 명령을 거절하면 반동이란 낙인을 찍어 그 자리에서 총살하기 때문에 그 젊은 당원은 명령을 실행했던 말일세.”

하고 공산주의자들의 여러 가지 잔인성을 상세히 말하는 것이었다.

지금 내가 많이 일본 국적을 가지지 않고 이곳이 또 일본이 아니라면 나는 벌써 처형되었을 것이라고 그 친구는 말했다.

이 친구의 충고는 곧 나에게 해당되고 있는 것이다.

나는 조련이 중앙 제정위원에까지 되었다. 뿐만 아니라 인간적인 교류에 있어서도 조련 조직 속에 깊숙이 파고 들어가 있었다. 또 아까 말한 친구의 공산주의자들의 잔인성을 전연 몰랐다고 한다면 그것은 거짓말일 것이다. 그것을 지금 자신이 겪어야 한다니 이 얼마나 비극인가 말이다.

나는 이제야 어떠한 결심을 해야만 할 시기에 왔다고 생각했다. 반대되는 위협이 아직 없다고는 하더라도 위기는 원래 모르는 사이에 접근해 오는 법이며 때문에 한층 위기가 접근하여 있는지도 모를 일이다. 조련 중앙당국은 음모와 허위야 난무하는 복마전(伏魔殿)이니까.

그 후, 나는 일조협회(日朝)의 이사회 석상에서 처음으로 현재 내가 체험하고 있는 조련과 나와는 싸움과 그 진상을 말하였다. 듣고 있던 사람들은 모두가 난처한 입장에 놓여서 침묵을 지키고 있었다. 나는 조련 측이 터무니없는 허위로써 나를 매장하려는 잔인성과 그들의 기만성을 폭로하고 일체의 진상을 기록한 팸플릿을 만들어 불일내로 발표하겠다는 폭탄적 발언을 했던 것이다.

일조협회는 조련과 직접적으로 관계가 깊은 단체이다. 내 발언을 듣고 있는 그들의 입장도 난처했으려니와 나의 결론은 이제야 움직일 수 없는 확고부동한 것이었다. 방황한 일조협회 지부장과 공산당 현 위원장 겸 일조협회 부지부장과 북송 협력회 간사장은 나를 둘러싸고 밤이 새도록 회담을 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제는 회담도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단지 약속이 성립된 것은 팸플릿을 61년 말까지 발간을 보류해 달라는 요청을 나는 2개월간 보류 해 주겠다고 양보한 것뿐이었다.

그러나 이 약속도 약속한 2개월이 지났으나 전화 한 통 엮서 한 장도 오지 않았다. 나는 또 다시 배신을 당한 것이다. 지부에서 있었던 일이 즉시 중앙으로 내통되고 그것이 또 곧 평양으로 내통되는 것이 틀림없다.

즉, 평양에서도 나를 스파이로 단정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나는 이 모든 것을 신문 기자회견으로 천하에 공포하기로 했다. 그 전에 나는 내가 친한 조련 중앙 부회장을 만나 그가 어떻게 생각하던 나의 결심을 알렸다. 이 부회장은 깜짝 놀라며 기자회견만은 연기해 달라고 하는 바람에 인정에 약한 나는 그것을 연기하고 말았다. 그때 이 씨는 후일 오카야마에서 당시 조련 간부와 나와는 회담에 임회하겠다고 약속했던 것이다. 그런데 있는 엮서 한 장도 없이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다. 나는 드디어 일체의 회담을 단념하고 나의 힘으로써 생명을 걸고 그들과 싸우기 위한 첫 발길을 내딛었다.

◇Portable 김일성

조련(朝聯)이란 무엇인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 질문은 단적으로 대답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조련이란 제일 60만 교포 중 60%로 조직한 중앙집권적 수탈기관이며 정치적, 사상적으로 북조선의 수령 김일성 괴뢰정부에 직결되어 있고 일본에 있어서 공산주의적 파괴조직이다, 라고.

이 조련의 최고 수령인 한덕수는 금년 55세(61년) 5척(尺) 6촌(寸) 약간 살찐 사나이이다. 그는 1927년에 일본에 온 이래 35년간, 특히 일본 항복 전에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정확한 그의 이력을 앓은 사람은 없다. 비밀이 많은 경력이며 그것은 녹색(綠線) 출신의 김일성을 축소한 것과 같다

그는 개인 숭배형이며 독재의식이 강하고 권력에 맹충하는 버릇이 대단하다. 그러나 이러한 성격은 공산주의자들의 공통적인 성질이며 그렇지 않고서는 공산주의 사회에서 출세할 수는 없다.

겸해서 차체에 조련의 현재의 투쟁 목표를 간단히 말해두기로 하자. 그들은 북송성취를 대승리라고 도취하고 있으며 북한괴뢰의 이른바 '남북통일 투쟁'에 발을 맞추어

- 민단 붕괴공작 전개
- 마르크스·레닌주의 교육의 철저화
- 조선 민보 배가 운동의 추진 (이것은 조련의 자금조달이 목적이다)

등이다.

이러한 목표 밑에 40만을 뭉쳐 그 배후를 북한괴뢰와 직결하고 공산주의라는 투쟁주의 수탈주의 괴도를 흔드는 조련의 조직, 단결, 파괴력은 놀랄 만한 것이다. 지난날 맥아더 장군을 괴롭힌 이른바 '민전 투쟁'이래의 그들의 파괴공작은 회상해 볼 때 그들의 동향은 결코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될 문제이다.

이와 같은 조련 조직에 대하여 나 같은 개인 나 같은 경력을 가진 사람이 단독 대결 한다는 노릇은 그것이 얼마만한 용기와 모험이 필요한가는 누구나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역원들의 성분

조련 조직을 우이(牛耳)하는 간부들은 전국적으로 펼쳐 있다. 그러나 그들은 지금의 일본의 자유경제사회에 서는 한 사람도 제 구실을 해 나갈만한 사람은 없다. 무능자의 집단이라 할 수 있다. 전국의 조직망에 숨어 있는 그들은 모두 밥 먹기 위한 수단이며 취직-직장을 얻고 있는데 지나지 않는다. 이 중의 대다수는 떼떽한 직장만 있다면 구태여 붙어 있지 않을 사람이다. 그 현저한 하나의 예로서 나는 조직 오카야마 현 또는 지부 역원의 경우를 들어 볼 수 있다. 그들은 과거 민전(民戰) 당시 분열했을 때 일본 공산당 국제부에 가담하여 도당(徒黨)을 만들었고 그 도당이 불리한 입장에 놓이자 그때까지의 자기들의 이론과 신념을 폐리(廢履)처럼 버리고 자기비판과 애원 전법으로 당시의 승자에게 무릎을 꿇고 들어간 추태란 실로 세인(世人)으로부터 빈축을 샀던 것이다.

그들에게는 이론적 근거는 전연 없고 맹목적 허무적이며 인간으로의 이념과 양심을 상실하고 오직 여생을 이끌어 나아가는 최후의 몸부림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때문에 자질을 갖춘 조직인 이라고 볼 수 없다. 이러한 사람들 중에서 현재 오카야마 지부위원장 지위에 있는 김모(金某)를 모델로 들어 조련이 전국적 지도층의 질적 척도로 삼아보자.

필자가 전후 얼마 안 되어 오카야마 본부의 지시로 양진군(仰津郡) 분회를 조직 할 때 필자는 그 김모를 제 정부장으로 등용하였다. 이것이 그가 정치 운동에 발을 들여 놓은 계기가 되었다.

그는 전후를 통하여 그 지방의 소(小)보스적 존재였으며 관할 주재소의 협력자였다.

또 당시 배급제도 하에서 밀고자로서 이름이 난 작자였다.

이 김 모는 양진군 분회가 오카야마 시 지부와 합병되고 분회가 해산되었기 때문에 그는 역원의 자리에서 제외되고 오카야마 역전의 바락크 집에서 금, 은, 고철을 고물상을 하고 있었을 때의 일이다. 몇 명의 청년들이 500인 가량 되는 금인 것 같은 연봉을 가져와서 필자에게 무엇인가를 감정해 달라고 부탁했다. 나는 본격인 김 모에게 물었더니 동이라 하기에 돌려보냈더니 실은 14금이었고 김 모가 몰래 그것을 샀던 것이다.

이것은 필자가 두 번째 북한을 방문하고 돌아와서 그 소감의 일단을 김에게 얘기했을 때다. 김일성과 조련위원장 한덕수는 인민의 피와 땀 위에 올라앉은 신흥황제와 같은 존재라고 말했을 때 그도 동조했다. 그런 그가 이튿날 이 사실을 조련 간부에게 그것을 상고하여 필자를 반역자라고 떠들어 대었다.

이런 일이 있었다. 필자가 두 번째 북한 방문을 떠나기 전에 김이 필자를 찾아와서 이라는 간부가 이러 이렇게 당신을 비방하더라 하기에 나는 이를 만나 문책을 했더니 이는 깜짝 놀라며 김을 데리고 필자를 찾아왔다. 그런데 김은 필자 앞에서 “내가 언제 이가 당신을 비방하더라고 말했느냐”고 전연 부인하였다.

이 김이 최근, 북한 괴뢰로부터 공세훈장을 받았다. 북한 괴뢰의 훈장이라는 것이 이런 종류의 것이지만 여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 필자가 북한에서 돌아와서 북한의 실태를 폭로하기 시작하자 오카야마 조직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한덕수는 흔들리는 간부의 발을 묶어놓기 위하여 훈장을 남발한 것이다.

만일 북한 사회를 보고자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필자는 일본의 조련을 그대로 북한 괴뢰의 축도라고 하고 싶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황금만능이라는 말이 있다면 북한에서는 공산당원 만능이다. 그곳에서 당원이 되자면 자본주의사회에서 백만장자가 되는 몇 갑절의 노력이 필요하다. 대개는 당원이 되기 전에 희생의 재물로 화(化)해 버린다. 지금 북한의 인민들은 조국재건이란 미명하에 천리마 운동으로 혹사되고 거기서 쫓낸 인민의 피와 땀으로 김일성과 노동당 만능의 권력 국가, 국가 자본주의 기구를 완성하기 위하여 스파이 제도, 밀고 제도, 인민 경찰의 공포사회를 조성하고 있다. 인민은 오직 죽지 않을 정도로 먹고 죽지 않을 정도로 혹사당하고 눈만 뜨면 김일성 만세, 노동당 만세를 불경처럼 외우는 목적인 이다.

이와 같은 북한을 조련은 낙원이라고 떠든다. 그건 그렇다 -고급 공산당원-신흥 귀족들에게는 낙원이다. 독재자 김일성에게는 낙원이 아니라 천국이다. 이것은 어김없이 조련에도 그대로 적용 된다. 필자는 이미 이와 같은 위만(僞滿)사회에서 손을 완전히 떼었다.

조련의 활동 상황 전모

<머리말>

일본의 재류교포는 약 60만. 이것을 크게 분류하면 한국계 30만, 북괴계 20만, 중립계 20만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중립계는 북괴계에 가까운 존재로 보인다.

조련은 1955년 5월 25일에 결성되었다. 그 이전에는 민전이라고 불리는 재일조선통일 민주전선이며 일본 공산당의 일익(一翼)으로서 각종의 일본 혁명 운동에 참가하였고 일본의 혁명 수행이 곧 한국의 혁명을 촉진한다는 견지에서 쇼와 26년 후기부터 27년 전반에 걸쳐 이른바 5.1 메이지 소요 사건 등 혁명적인 폭동을 활발히 전개하여 일공(日共)의 손에 완전히 장악(掌握)되고 그 예하에 속하게 되었다. 그러다가 쇼와 30년 5월 23일 민전 6전차 회에서 일공과 손을 끊고 종래의 격렬한 운동 방법을 숨기고 이른바 평화 5원칙에 따라 북한 괴뢰와 직결되는 운동 노선으로 변경해 갔다.

그러나 민전의 후계단체로서의 조련도 그 성격은 민전시대의 그것과 별 다름이 없다. 그것은 다음의 몇 가지 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 일공의 지도하에서 일본의 폭력 혁명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주장하며 많은 유혈 사건을 감행한 간부의 약 80%가 조련의 간부로 되어 있다는 점.
- 민전의 자산이 팔점(括點)적으로 조련자산으로 계승되었다는 점.
- 민전해산대회와 조련결성대회가 동일한 장소이며 동일한 대의원에 의해서 업무가 계승 되었다는 점.
- 민전 당시의 강령과 조련의 기실은 별 차이가 없다는 점.

이와 같은 조련은 따지고 보면 민전이 옷을 갈아입은데 지나지 않는다.

조련이 일공과 손을 끊고 평화5원칙에 의거하는 운동방침을 세웠다고 하지마는 마르크스·레닌주의 혁명이론을 신봉하고 활동하는 점은 일공과 다름없고 혁명의 실천 조직으로서 북한 괴뢰 세력과 집결하여 재일이라는 입지적 조건으로 한국의 통일운동 또는 이른바 민족 해산 혁명에 참가하여 프롤레타리아 국제 공산주의 운동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사실은 오히려 일공예측시보다 전진한 태세에 있다 하겠다.

소련의 활동 중점은 종래 재일 교포의 장기 재류, 생활안정, 일본인과 동등한 권리의 요구 등의 방침을 취하고 있었으나 1958년 8월 항(項)부터 북한 괴뢰의 재일정책의 변경에 따라 재일교포 복송축진을 과제로 내세웠으며 그 운동 추진과 동시에 내부적 조직의 강화, 통제력을 강화를 꾀하고 있다.

또 조련 술하의 교포 교육을 북한 괴뢰의 직접 지도하에 동경부 하에 조선대학을 개설하고 장래의 북한을 담당한다는 견지에서 정치 교육 기술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최근에는 ‘조련학원’일 하는 것을 설립하여 (동경 및 각 지방) ‘조련노동당’의 학습 방침을 지도이념으로 최고의 공산주의 교양을 부여하여 일본 국내에 있어서의 조련 활동의 거점 교육 기관의 삼으려는 방침을 세웠다.

◇조직

조련의 조직은 중앙 본부를 동경에

두고 중앙 기관으로서 대회 중앙 위원회가 있으며 대표 기관으로서 의장단 (의장 1명, 부의장 3명)이 있다. 지방 조직으로서 9지방 협의회(북해도, 동북, 관서, 동해, 북신, 근거, 4국구9주)와 군도부원 본부 48, 그 하부에 지부 436, 분회 1,695가 있으며 술하단체로서 ‘재일 조선 청년 동맹’ 등13단체가 있고 외부 단체로서 ‘조선 민보사’ 등 8단체가 있다.

현재의 조련 구성원은 약 120,000명이며 술하단체 구성원 약 49,500 명이며 합하면 그 세(勢) 약 169,500 명이다. 부부군현 및 지부분회 소재지와 그 역원 및 중앙 각 분과 전문위원 및 각 술하단체 간부 명은 약함……역자)

◇최근의 활동 상황

1961년 북한 괴뢰는 소련 공산당 제22차 대회에 김일성을 단장으로 하는 소위 ‘조선 노동당’ 대표단을 파견하였으며 또 사회주의 10월 혁명 44주년을 기념으로 이른바 ‘조소 친선월간(親善月間)’을 설정하여 북괴-소련 간의 음모적 단합의 강화를 도모하는 한편 중공군의 6.25동난 개입 11주년을 기념하여 평양 기타 주요 도시에서 집합하고 북괴-중공 간의 음모적 단합을 꾀하는 등 긴장된 국제 정세에 대응하여 극동에 있어서의 공산 세력의 강화를 도모 과시선전 하였다.

또 한일회담재개에 관련하여 당, 및 그들의 기관지는 총동원하여 ‘한일 회담은 동북아시아 군사동맹의 형성을 촉진하고 남한에의 경제적 침략을 기도하는 지전 반동정부의 책동’이라는 허위 선전을 펴는 한편 조선 대외문화협회 등 8단체는 일조협회가 주최하는 일조오후증진총결기대회에 메시지를 전달하였다.

이와 같은 북한 괴뢰의 대일 동향 가운데에서 1961년 10월 조련은 니가타 입항 중의 제75차 귀환선에 전국 조직부장 회의를 소집하여 북한 괴뢰 대표로부터

1.조직의 확충 2.학습조의 강화 3.사회주의 교양의 강화채신에 대한 직접 지도를 받고 ‘조선 노동당 제 44차 대회의 결정방침을 따라 중앙 위원회 제28차 확대회의를 소집하여 민족통일전선의 확대와 반미투쟁’등의 방침을 결정하였다.

이밖에 한일 회담은 재개의 급속한 진전을 중시하고 1961년 10월에 개최된 제28차 중앙위에서 채택한 한일 회담 즉시 중지 결의문에 있어 ‘한일회담에서 이루어지는 여하한 협정도 무효이다’라는 주장을 내세워 재일 조건을 이용한 국제세론의 환기와 일본 좌익 단체에 작용하여 정방법 반대 투쟁과 통합하는 대중 운동을 기도하였다. 한편 민족조직의 정비확립, 모범 분회의 표창 등으로 조직을 강화하고 대민단 파괴 공작을 전개하고 있다.

1961년 11월 27일부터 개최한 ‘조선노동당 중앙 위원회 제4기 제2회 확대 총회’에 있어서 북한 괴뢰가 62년에 완수한다는 소위 6개 고지(高地)목표에 호응하여 조련은 1961년 12월 25일 조련 중앙상임위원회 제25차 회의를 개최하고 62년도 중요과업으로서 북괴의 6개 고지를 본 따서 12월 26일 부로 ‘조선신보’에 발표하여 활동을 개시하였던 것이다. 북괴의 ‘6개 고지목표’란 1. 곡물 500만 톤 2. 직물 2억5천만 미 3. 목산물 80만 톤 4. 주택 20만 세대 5. 철강 120만 톤 6. 석탄 1,500만 톤 생산. 그런데 조련이 내세운 소위 6개 고지는 다음과 같다. 1. 민족의 통일 (물론 공산주의)로 반미투쟁의 강화 2. 간부 활동가의 학습 사업의 강화 3. 미조직 지대의 조직화 4. 민주민족 교육(기실 공산주의 교육)의 질량의 발전(학생 5만명의 확보) 5. 조선신보 독자 100% 증가 6. 조일 친선, 북괴와의 무역 증진

이상 6개 항목의 침투공작을 위하여 각지에 중앙 간부를 파견하였다. 1962년 1월 12일의 동해지방 활동가회의에 있어서 조련 부의장 이계백은 ‘민족 단합사업, 학습활동, 미조직 대책’을 가장 중요목표라고 지적하고 지도 내용에 대하여 민족 단합을 목적으로 하는 민족통일 전선사업에 있어서는 민단, 중립을 불문하고 통일전선을 형성하는데 포섭한다. 이를 위하여 간부 열성자(熱誠者)는 학습에 의하여 이론 무장해야 한다. 이 이론 무장을 위하여 간부 활동가는 ‘조선대학의 수강생이 되어야하며 조대졸업의 자격을 가져야 한다. 앞으로 이 자격을 가지지 않는 자는 간부 활동가로 인정치 않는다’라고 말했다.

◇한일 회담에 대한 동향

조련은 현하(現下) 한일회담 반대에 전 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중앙회장 한덕수는 “한일 회담은 미국의 모략이며 한국 군사정부의 모험이다. 그러나 이것은 조선 통일을 염원하는 압도적 다수의 조선 인민과 소, 중공, 북조를 중심으로 하는 평화 국가군의 반대에 의해서 실패할 것이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조련은 반대투쟁을 추진하고 일본인의 한일회담 반대의 거론을 환기하는 지도와 공작을 전개해야 한다”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조련 중앙에서는 한일 회담은 타결을 가져온다고 전망하고 있다. 중앙 사회부장 김창허(金昌許)는 “한일 회담은 타결의 공산이 강하다. 우리들은 반대운동만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고 사회당, 공산당을 중심으로 하는 일본 국민 자체의 반대 기운을 조성하는데 주력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회담 타결후의 대책을 시급히 서두르고 있다.

1. 조련의 한일회담 타결 후의 정세판단

한일 회담이 타결된다고 보는 조련은 다음과 같이 정세전망을 하고 있다.

1 한일회담이 성취되면 조련조직의 파괴공작이 적극화할 것이며 조련조직 내에서 중소기업과 또는 사상이 경고하지 않은 사람이 파괴공작의 첫 대상이 될 것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긴급하다.

2 한일회담 성립 후 한국과의 왕래가 빈번해지고 국교가 열려 민국의 대일본 정부 발언력이 증대될 것이다. 또한 조련의 기득권이 인정되지 않을 것이며 한일회담 성립은 조련에 심대한 불리를 가져온다.

3 그러나 반면으로 유리한 점도 있다.

일본과 한국과의 왕래가 빈번해지면 빈번해질수록 현재 중립계에 있는 사람들이 대한 공작요원(사상적으로

교육된 자)을 한국에 잠입시켜 한국에 대한 공산주의 세력의 침투가 용이하다(수박전술)

2. 한일회담 타결 후의 운동 방침

이와 같이 한일회담의 성립에 수반하여 주일 대표부에 파견된 주일특무원 등에 의한 조련 조직내 밖에 공작이며 정보수집이 격화될 것이므로 그 대책으로서

1. 방위에 의식을 고양시키고 신명을 걸고 조직을 지켜야 한다.
2. 간부는 조직 방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었을 때에는 즉시 지하로 잠입한다.
3. 조련에 가입한 자는 형적 연락을 가지지 말라.
4. 슬로건을 반미, 반박으로 압축하라.

등이며 금후의 운동방침으로서 전국 각 지부에 이와 같은 지령이 발해졌다.

◇특별학습조의 활동(스파이)

조련에서는 이른바 간부의 사상 통일과 단결의 강화, 북괴노동당의 정책과 노선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정신과 방침을 관철하기 위하여 조련계 교포에게 공산주의와 마르크스레닌주의의 교양을 목적으로 간부들에게 학습을 실시하고 있는데 1961년 5월 23일부터 행해진 6전 대회 이후 소위 교양학습 강화방침을 위하여 학습 조를 개편하였다.

한편으로는 1961년 11월, 니가타에 있어서 조련 간부와 북괴 정부 대표 간의 회담 결과, ‘지금까지의 형식적인 활동은 현하 시국에 적합한 방법은 아니다’라고 하여 금후 국제 정세에 맞춰 세계 혁명을 목표로 활동방침을 안출(案出)하고 그의 기준해서 활동한다. 때문에 조련은 비 합법화 조직으로서 특별 학습조를 설치하고 조직원으로는 일공산원 등을 중심으로 지하활동 유경험자 중에서 엄선하되 조련이 그 자격을 심사 추천하면 북괴 정권이 이를 재검토하여 직접 지지의 형식으로 임명한다.

이 특별학습조의 지하활동 목적과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대한공작(한국에 잠입하여 평화 통일 기운을 조성한다. 군사기밀 정치 경제, 기타 전체적인 첩보활동)
2. 대(對) 민단 공작. 대 학생 공작, 일반인에 대한 공작
3. 대일 첩보 공작(대일 첩보원 보호, 잠입, 탈출, 정착, 보조공작 등)

이 특별학습조란 기실은 스파이 조직이며 조련 각 조직과 직결되어 있으며 북괴의 직접지령에 의하여 활동하기로 되어 있다. 또 지금까지와는 달리 조련 조직부장은 북괴정권의 직접지령으로 임명되게끔 되어있다. 따라서 조직부장은 중앙으로부터 지부에 이르기까지 아무도 모르는 지역 외의 지하 인물이 임명되고 있다.

◇재정 관계

조련의 활동 상황을 검토해 볼 때 무엇보다도 무시할 수 없는 것은 자금의 동향이다. 조련의 규약 제8장 제53조에 의하여 “본회의 경비는 일반 회비, 분담금, 유지의 찬조금, 사업이득금으로 충당 한다” 또 제2장 제10조에는 “본회의 회원은 소정의 분담금과 회비를 납입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일반 회비

조련이 기본 재정인 일반 회비의 진수는 인두제가 아니고 세대단위이며 해당에 있어서는 확실한 회원의 세대를 파악함이 없이는 대체적 숫자로 추산기준으로 하고 있다. 이와 같은 기준은 조련재정의 불안정성을 말하고 있다.

이 일반 회비 징수 상황은 비교적 해명 되어있으며 지방 재정에 있어서 접하는 수입의 보합이 임기적인 기부금에 비해 크게 하회하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2. 분담금

분담금은 이 일반 회비 중에서 중앙 10%, 지방 30%, 지부 40%, 분회 20%의 배분율에 의하여 하부 기관으로부터 상부 기관으로 납입되는 것인데 이 밖에 중앙행사 등에 대하여 임시 분담금이 해당된다.

이상은 조련의 경비인 총 수입 중 기부금이며 차입금이 고액을 점하고 있으며 재정의 기본이 되는 일반 회비는 부진상태에 있다. 따라서 중앙에 대한 분담금의 상납은 회비 만으로서는 부족하며 부족분을 기부금으로써 충당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와 같이 조련의 재정은 적자경향이며 이것을 지방 각 기관이 일반 회비 징수나 각종 해당금 부족을 어떻게 보충하고 있는가? 또 이것의 찬조금과의 관계, 그리고 북괴정권으로부터의 재정원조는 어떻게 되어있는가? 이것은 조련의 재정을 아는데 필요한 점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내막을 알기에는 현재로서는 매우 힘들다.

3. 적자 보전

돌연 각 기관은 예외 없이 적자 보충을 위하여 차입금 또는 가수금에 의존하고 있다. 때문에 조련 중앙 본부는 미수금 회수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재일 상공인으로부터 기부금 강조, 북한의 귀환을 장려하며 귀환자의 재산을 기부 형식으로 몰수하여 재원을 삼고 있다.

4. 국외로부터 자금자재 원조

북괴로부터의 교육원조금 및 각종 문헌 송부 등의 사실에 대하여는 비교적 파악되어 있으며 또 귀환실현에 수반하여 몽고중공, 북괴 등 각 적십자 기관으로부터 빈곤자 구호금을 받아들이고 있다.

이들 금품의 송부의 방법은 은행, 서방 등의 기관을 통하여 들어오고 있으며 이들 기관 이외의 보다 고도한 기밀성을 가진 자금에 대해서는 알 길이 없다.

북괴로부터의 교육원조로 1961년 3월에 북괴적십자 위원회는 제9계의 송금 4억 1천 1백 6만 엔을 보내왔다. 이것은 1957년 4월 제1회의 송금 이래 합계 15억 4천 3백 1만 5천 6백 7십 6엔 일화이다. (끝)

북한(北韓) 애국(愛國) 동포(同胞)는 나를 살렸다

②

이준수

<문관>

3. 재생한 전우

그를 끼어 안은 나의 팔은 사정없이 흔들렸다.

“한국아!”

다음에 할 말을 잃고 나의 손을 차디찬 한국 군의 얼굴로 가져갔다. 그는 나의 소리를 들었다는 듯이 커다란 눈동자를 억지로 내보이다가는 다시 감아 버렸다. 마는 성급히 한국을 들어다 있던 자리에 눕히고 이곳에서 한국의 몸을 따스하게 해 보겠다는 생각을 가지는 것이 도대체 무리한 줄 알면서도 낙엽을 한 곳에 모아 놓고 흩어진 낙하산으로 그를 돌돌 말아 눕혀놓았다. 나는 그 앞에 앉아서 무엇을 먼저 해야 할 것인지 또 그가 다시 움직이면 어떠한 말로 그를 위로 할 것인지 생각할 여유조차도 없이 준비했던 식량주머니에서 강통 한 개를 꺼내 이것을 데울 욕심에 썩은 나뭇가지를 주어다 놓고 불어오는 바람을 맞으며 성냥을 그으려 할 때 번개같이 나의 머리를 지고 지나가는 것이 있었다. 안 된다, 지금 이곳은 위험하다. 불을 피우면 연기가 난다. 연기가 나면 적에게 우리들의 위치를 노출시킬 우려가 있으며 나를 잡아 가져라 하듯 알려주는 것이나 조금도 다름이 없다.

나는 성냥갑에서 가만히 손을 떼고 잠시 묵묵히 남쪽 하늘만을 쳐다보고 있는 동안 한국 군은 잠자듯이 조용했다.

나는 죽은 듯이 누워있는 그의 심장에 고동 소리와 맥박을 살폈다. 나의 손과 한국의 손을 번갈아가며 만져 보았으나 두 청년의 맥박은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조금 전에 그로부터 받은 야릇한 충격이 아직 나의 마음 한 구석에 남아 뭉클거리고 있었다.

인간을 위협 하는 최후의 무기는 죽음인데 그것을 인간 자신이 빼앗아 차지할 때엔 운명도 인간 앞에 무력하다는 말과 같이 한국 군의 행동에 대하여 왜 그랬는지 알고 싶은 생각이 마음속 한 곳에 있었다. 나는 머리를 좌우로 흔들면서 다시 한 번 눈을 비비고 나서 그를 자세히 똑바로 들여다보았다. 그의 얼굴 한 부분인 코에서는 세차지 못한 공기가 드나들며 호흡하는 대로 배 위에 덮어놓은 물체까지 조금씩 움직였다.

그를 들여다보던 나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급선무가 은신처를 찾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그의 몸을 다시 한번 감싸주고 몸을 일으켰다.

이리 저리 노출되는 몸을 나무가지로 숨겨가며 또는 나의 몸에 부딪혀 흔들리는 나무를 잡아 세워 가면서 사방을 조심스럽게 살피며 은신처를 찾아 걸어갔다.

4. 은신처

이곳 어디에 좋은 은신처는 없을까?

이 산보다 더 험악한 산은 어디쯤 있을까? 한국 군의 다리 부상이 다소 나을 때까지 두 사람이 숨기에 알맞은 은신처는 없을까? 이러한

생각은 은신처를 찾아 떠나면서부터 녹음테이프처럼 반복되어 되풀이 되었다.

소나무가 우거진 틈으로 빠져 나가려 할 때에 곧바로 나의 눈동자와 마주친 지점이 있었다. 왼편에 언덕이 지고 몇 그루의 큰 나무가 서 있는 곳이 눈에 띄었다. 나는 좌우간 그것을 살펴보기로 했다. 발을 옆 질러 가까이 가보니 언덕 한쪽 끝은 암석으로 되어 있으며 커다란 동굴이 입을 벌리고 나를 기다렸다는 듯이 뚫려 있었다.

나는 너무나도 기뻐서 잠시 눈을 감고 감사를 드렸다. 암벽 아래는 여름철에 무성했던 잡초가 물기 없이 바싹 말라 우거져 있으며 그 앞에는 바람에 날려서 모여든 커다란 가랑잎의 낙엽이 쌓여있었다.

이 곳을 자세히 보니 오래 전부터 사람의 왕래는 없는 것 같다.

나는 동굴 안으로 들어가려고 들여다보았으나 시정이 너무 제한을 당하여 조그마한 후레쉬를 켜들고 동굴 안으로 들어갔다. 내부는 내가 기대한 이상으로 숨기에 알맞은 은신처였다. 화강암을 뚫은 구멍이 사방팔방 여기저기 통했고 들어온 구멍 말고도 또 다른 출구가 들어와 통해 있었다.

동굴 안에도 추위는 마찬가지로지만 그래도 바람이나 눈 속의 별판에 있기보다는 한결 편리한 것 같다. 동굴 안에서 지도를 꺼내어 보니 이 지점은 큰 도로와 부락에서 상당히 떨어져 있어서 이곳에서 부터 7km이내에는 한 채의 집도 없는 것이 확인되었다. 물론 지도를 만든 후 설치한 건물이나 도로가 있을 런지 모르지만 일단은 안심이 되었다.

나는 동굴을 일일이 조사했다.

- 1, 동굴 주위에 사람이 다닌 흔적이 없는 가?
- 2, 동쪽 굴문에서 서쪽 굴문까지 거리는?
- 3, 동굴 안에 음료수 관계
- 4, 동굴 내부의 구부러진 각도는?



5, 동굴에서의 전망

이러한 것을 살핀 후에 이 동굴을 당분간 은신처로 결정했다. 잠시 후 나는 배를 깔고 산정으로 올라가 한국 군이 있는 곳을 자세히 살피고 우거진 나무에 몸을 숨겨가며 그쪽으로 기어갔다. 혹시 나 없는 사이에 어떠한 일을 당하지나 않았나 하는 방정맞은 생각이 머리를 통해 가슴을 싸늘하게 만든다.

나는 다시 포복을 하여 시야의 제한을 받을 무렵에야 겨우 한국 군이 있는 곳에 다다르게 되었다.

나는 그에게로 달려갔다. 그는 베개도 없이 툇을 높이 쳐든 채 크게 벌어진 입은 바싹 말라 침도 안 흐르고 석고 같은 하얀 살갓을 하고 있었다.

나는 재빨리 머리를 들어주며,
“좀 어떠니? 야! 말 좀 시원히 해봐 응?”

어린애같이 타이르듯 말했다. 그래도 그는 아무 대답도 없이 눈시울을 벗기며 햇불 같은 눈동자를 나에게 보이더니 곧 그 눈동자는 눈물 안에 쌓이고 만다. 그의 두 눈가로 맑은 눈물이 흘러 귀밑으로 내려갔다. 이것을 보고 있던

나도 더워지는 눈시울을 적시며,

“한국아 너 정말 이러면 어떻게 할 셈이나? 이러지 말고 고향땅에 들어와 네 말 한 마디 들어보자 응?”

그는 아픔을 못 견디는 듯 전신을 비비꼬다니 입이 움직였다.

“야준수야”

이 소리에 나는 병어리가 말이나 하듯이 기뻐서,

“응, 어서 말해”

하며 그의 찬 손을 꼭 쥐어 주었다.

그는 말을 계속한다.

“준수야, 미안하다.”

고르게 나오지 못하는 그의 목소리다. 너에게 고향을 시키지 않으려고 그런 비겁한 일을 하려 했는데 하고는 역시 말을 대신한 눈물만이 쏟아진다.

“준수야, 나의 비겁한 행동을 용서해라. 소리 내고 죽으면 너의 고요하게 든 잠이 깰 것은 물론이려니와 놈들이 들으면 죽어서도 나의 시체가 비참하게 될까봐 조용하게 가는 길을 택했으나 너에게 이렇게 된 이상 앞으로는 끝까지 살길을 찾아 땀물겠다. 그러니까 준수야”

그는 푹푹치 못 한 말을 계속한다.

“이번 일은 다 잊어버리고 나를 용서하겠지.”

한국 군의 말을 듣는 동안 나는 눈물과 콧물이 무릎으로 떨어지는 것을 피해서 한국 군의 손을 잡은 채로 머리를 돌리고 있다가 그의 팔을 힘 있게 움켜쥐며 말했다.

“한국아, 사람이 살 길은 얼마든지 있어. 오늘 내가 저 산에 가서 온돌방 같은 동굴을 발견했으니 오늘밤 중 그곳으로 이동해야겠다.”

내 말을 들은 그는 “그래” 하며 반갑게 대답을 한다. 나는 마치 새 힘이나 얻은 것 같은 기분으로 한국 군을 일으켜 앉혀 놓았다. 우선 찬 것이나마 얼지는 않게 내가 넣고 다니던 것으로 조금씩 간에 기별을 시켰다. 나의 눈은 벌써 건너 산골짜기를 지나 은신처로 정한 동굴을 찾았다. 잠시 후면 이곳도 시야에서 떨어져 나갈 곳이니 더이상 어둡기 전에 행동하기로 결정했다. 별이 없는 하늘에 부드러운 진동을 울리며 정찰기가 선회를 하고 있을 때였다.

나는 한국 군을 등에 업고 은신처로 향하여 눈이 녹은 곳을 찾아 이리저리 발자국을 피해 땀을 흘려가며 은신처로 정한 동굴 안으로 들어갔다. 동굴 안에 우선 식량을 운반하여 왔다. 그리고 원시적인 방법으로 부목을 대고 골절된 한국의 다리를 치료했다.

우리는 그날 하루와 하룻밤을 냉랭한 동굴 속에서 지냈다. 바위와 바윗돌 사이에는 얼음이 얼어붙어 있고 동굴 사방의 벽과 천정에는 거미줄 같은 고드름이 달려 있었다.

다음날 아침 나는 다시 근처의 탐험을 나갔다. 아무도 우리들의 낙하산 강하를 눈치 채 사람은 없는 모양이다. 무사히 탐험을 마치고 동굴로 가서 입구로 들어가려고 할 때 “조심해라”고 한국 군이 소릴 쳤다. 그는 나를 보고 웃고 있다.

그는 총을 장전하여 움직이지 않게 문 앞에 매고 낙하산 줄로 방아쇠울을 매어 그 끈을 잡고 있는 것이었다. 나는 소리 없이 반갑게 웃으며,

“야! 너도 살값 하느라고 무척 애쓰는데……”

이 말을 들은 그는 이어

“임마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는데 하물며 사람이 자기 살 궁리 못하겠니? 나를 잡으려고 어떤 놈이던지 이 동굴로 들어오기만 하면 이 줄 하나만 잡아당기면 72발이 다 나간다는 것을 알아야 해”

하는 그의 얼굴엔 이것을 믿는다는 듯이 굳은 애지와 다시 놈들과 싸우겠다는 의욕이 북돋아 오른 것 같다. 나는 더 상 한국 군에게 바랄 것이 없다. 오직 다시 싸우겠다는 의지 하나 뿐이다. 72시간 전만 하더라도 이 세상을 괴롭다는 듯이 죽음의 길을 택하려던 그가 지금에 와서 이러한 말을 나에게 하니 얼마나 반가웠는지 모른다.

나는 준비한 연료로 음식을 따뜻하게 만들어 그에게 줄 수 있었다. 밤중에 동굴 안에서 불을 피우는 것은 안개 낀 아침에 불을 피우는 것과 마찬가지로 적에게 화기를 노출시킬 우려가 없기 때문이다. 나는 한국의 웃는 얼굴을 바라보며 뜨끈하게 끓인 물과 깡통 하나를 주니까,

한국 군도 어머니가 며느리 대접하듯이
 “너도 어서 먹어라.”
 하며 웃는다. 나는 이어 미소 띤 얼굴로 한국군을 보며
 “애 고양이 쥐 사정 보듯 하지 말고 너나 어서 많이 먹어라……”
 했다.

우리는 낙하 후 처음으로 같이 작은 소리로 웃으며 공복을 메워 보았다.

“한국아 나는 성한 몸이니 아무데나 가서 못 먹고 살겠니, 없으면 슬쩍 하는 것을 이용하는 거야”

이런 농담에 한국 군은 싱글싱글 웃는다.

우리는 어제까지 무려 수십 회에 걸쳐 지도를 조사하였는데도 막연히 대동부근이라는 것을 알았을 뿐 우리
 들이 지금 있는 장소가 어디인지 확실하게 알 수가 없었다. 내일은 한국 군과 함께 이곳의 위치를 자세히 알
 기로 하고 낙엽을 깔아 놓은 자리에 눕고 낙하산을 이불삼아 덮고서 잠을 기다렸으나 좀처럼 잠은 오지 않
 았다. 헤아릴 수 없는 마음의 걱정이 밀물처럼 가슴에서 파도치기 시작했다.

이런 추위에 언제까지나 이곳에 있을 수는 없다. 매일은 낙하산을 뜯어서 손가락 없는 병어리장갑이라도
 만들까? 안 된다. 매장하여야 한다는 생각이 앞질러 대답한다. 어수선했던 나의 마음은 바지 혁대 속에 끼웠
 던 손을 빼서 머리를 고이고 누웠다. 오한이 난다할까 몸이 찌뿌드드하다 할까 몸이 떨리어 견딜 수가 없다.
 선잠을 자고난 사이에도 온통 병든 몸이 되어버린 것 같았다. 인간이란 늘 긴장해 있으면 피로해 지는 모양
 이다. 안 나던 별 생각이 나의 머리로 쑈시고 들어오는 것 같다.

나는 썩은 과일 내동댕이치듯 말아 덮은 낙하산을 차버리고 일어나 굴문 밖으로 나섰다.

흠어진 마음으로 집 잃은 어린이처럼 어두운 밤하늘을 쳐다보았다. 우리의 목숨은 이 소나무 사이로 부는
 바람과 같은 것. 소나무는 천 년을 산다. 그 사이로 생명 없는 바람이 지나가고 있지 않은가. 나는 왜 이런
 생각을 할까, 그로부터 받은 야릇한 충격이 아직 마음 한 구석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리고 조금 전에 그려본
 무서운 망상 때문에? 몸과 마음이 부딪히는 것 같은 충격을 받으며 동굴 안으로 들어가 자리에 누웠다. 감아
 지지 않는 눈을 억지로 꼭 감았다

시간은 다시 때를 찾았는지 한국 군이 나를 건드려 깨웠다. 나는 얼어붙은 것 같은 다리 마디를 뜯어가며
 일어났다.

우리는 다시 한번 밖으로 나와 지도를 관찰하고 또 한국 군의 다리가 어느 정도 회복되었는가를 보기 위해
 동굴 밖으로 나가 걸어 보기로 했다. 동굴 밖을 내다보니 겨울 날씨답지 않게 내린 눈을 다 녹일 듯이 따듯
 한 빛이 눈을 보고 있었다.

나는 한국 군의 어깨를 끼고 몸을 부축하며 동굴로부터 한 걸음 두 걸음 내딛는 순간 나와 한국 군은 그 자
 리에서 움직이지를 못했다.

2m정도 못 되는 곳에 2명의 괴뢰군이 서 있는 것이 아닌가! 놈들은 마치 우리 두 사람이 기어 나오는 것을
 예기하고 있었다는 듯이 말없이 서 있다. 나는 힘없이 한국 군을 놓았다.

한국 군은 펄석 주저앉아 동굴 앞에 있는 총을 들며 크지 못한 소리로 “손 들었!”한다.

이때 부축했던 한국 군을 놓은 것은 놈들에게 총을 쏘기 위한 동작이었다.

이때 나는 발사하려고 했다.

그러나 이곳에서 충성을 내면 우리가 위험하게 된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호주머니 속에 권총의 안전장치
 를 풀었다.

권총은 호주머니 안에서도 총구는 놈들을 향해 있고 방아쇠 일단을 걸은 손가락은 점점 앞으로 꼬부라지
 기 시작했다.

놈들과 우리들 간에 숨 막히는 침묵이 흐르는 동안 나는 놈들의 손을 보았다. 역시 놈들의 손도 호주머니
 안에 들어있다. 두명 중 키가 큰 놈이 호주머니 속에서 무엇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나는 보았다. 놈들도 호주머니 안에서 우리를 향하여 총구를 대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는 것을. 나는 작은 눈
 을 크게 뜨고 총을 쥔 손의 넓이를 죄이며 방아쇠를 잡은 둘째손가락에 힘을 가할 때였다. (다음 호에 계속)

결핵의 예방



계원철
 <공군준장·의무감>

결핵이란 결핵균이 인체 조직에 침범하여 결핵의 특유한 결핵결절을 형성하는 특수한 만성 소모성 질환으
 로서 인체의 어느 조직이나 침범할 수 있으며 가장 많이 침범되는 조직이 폐이고 기타 후두기관, 기관지 장
 막(늑막, 복막, 심낭), 임파선, 뇨로, 생식기, 중추신경계통 등의 결핵이 있다.

결핵은 고대로부터 있는 질환으로 Egypt의 Mummy(미이라)에서도 ‘척추카리에스’와 같은 병적 변화가 보이며
 중국에서도 고대로부터 있던 것이 기록에 남아있으며 한방에서 ‘노찰’, ‘골중’, ‘노해’ 등으로 부르던 것이 오
 늘날의 결핵인 것이다. 이와 같이 결핵은 장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고도로 과학 문명이 발달
 한 현금(現今)에 있어서도 한국에서는 결핵 감염자가 전 인구의 약 70%인 1,750만 명, 결핵환자가 전 인구의
 약 3.2%인 80만 명, 결핵환자의 가족 수는 환자의 5배인 400만 명, 결핵으로 인한 연간 사망자 수는 44만 명
 으로 인구 10만 명 중 130명, 즉 매 시간 4.6명이 사망하고 있는가 하면 연간 신환 발생 수는 12만 명이고 이
 로 인한 근로소득의 손실과 치료비는 연간 528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액수에 달한다. 우리 공군의 결핵환자
 수는 약 200명으로서 전 장병의 0.8% 미만이며 동원치료가 가능한 경환자 이외에는 전원 입원 가료 중이다.

이와 같은 결핵은 어떤 개인, 가정 및 국가의 고유한 병이라기보다는 사회병 이라고 생각함이 좋으며, 따라
 서 결핵을 예방하는 문제는 대단히 복잡하기 때문에 그 개인이 속하고 있는 사회의 적극적이고도 지속적인
 협력 없이는 결핵예방에 성공을 기할 수가 없다. 결핵, 특히 가장 많은 폐결핵의 예방을 위하여 취해져야 할
 사항 중 중요한 것만을 간략하게 적어 보기로 한다.

I, 결핵환자 및 결핵에 걸린 동물의 제거 및 격리……

결핵 예방의 가장 중요한 방법의 하나는 결핵환자 및 동물을 건강인으로 부터 격리시키는 것이며 동물을
 경우에는 제거해 버리는 것이 더욱 좋다. 이처럼 환자를 격리병동 입원 처리함으로써 결핵의 근원을 감소시
 킬 수 있기 때문에 결핵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가 된다. 그러므로 모든 결핵환자는 자기 자신은
 물론이고 주위의 모든 사람을 위하여 격리 병동에 입원하여야 한다.

II, 생활개선 및 개인위생에 주의……

결핵의 감염, 발병 및 사망률은 그들이 살고 있는 거주지 주택, 생활양식, 빈부의 차 및 영양문제 등과 직
 접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일언이 폐지하면 잘 먹고 잘 쉬고 잘 살면 결핵에 걸리는 확률이 낮지만 그 반
 대인 경우에는 많은 결핵 환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온 국민이 상호 협조하여 생활개선 및 향상을 도모하도
 록 해야 한다.

결핵은 사회질환이며 동시에 호흡기성 전염병인 고로 일개인, 일가족, 일지방 만의 관리로써는 충분치 않
 으며 국가 사회 전체가 협력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환자는 물론이고 건강한 사람도 모두가 국가 보건기관이
 나 외부부대의 예방계몽사업에 적극 협조, 참여하여 결핵 예방에 관한 일반 주의사항을 주지하여 개인위생
 에 각자가 주의하여야 한다.

III, 결핵의 조기발견……

결핵은 결핵균으로 인한 전염병 이므로

다른 전염병과 같이 병원체(결핵균)를 항상 배출하여 주위 사람들에게 감염시킬 위험성이 있는 환자를 조속히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 결핵은 다른 급성 전염병과는 달리 자각증상이 거의 없든가 있어도 대단히 경미하므로 부지불식간에 병은 치명적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있다. 또한 결핵의 발견 시일이 하루 빠름으로써 치료기간을 수개월 씩 단축시킬 수가 있다. 그러므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집단검진에 누락됨이 없어야 한다. 집단 검진은 튜버크린 반응 검사, Xray 간접 촬영, 진찰, 기왕력, 가정 병력, 현증력 조사, 혈침검사, 결핵균의 직접 도말 검사, 집균 검사, 배양 검사 및 동물실험 들을 상세히 하여 정확한 진단을 조속히 내리게 된다.

가, 튜버크린 반응 검사

결핵균에 감염 유무를 결정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 본 튜버크린 반응검사가 널리 사용되고 있다. 튜버크린 반응 양성은 그 전에 결핵균의 감염을 받았음을 의미하며 소수 예에서는 감염이 있으면서도 반응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있기는 하나 여하튼 튜버크린 반응 양성자는 결핵감염자라고 해석해서 틀림없다.

튜버크린 반응은 그것에 의하여 결핵의 감염 및 면역의 존부를 추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양전 시의 강도에 따라서 발병 위험성 유무의 추측도 가능하게 되었고 튜버크린 반응 강도에 따라서 B.C.G. 접종자에서 자연 감염자를 감별하는 것은 가능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튜버크린 반응은 결핵의 진단 및 예방 상 불가결의 존재로 중요한 검사방법의 하나이다.

나, Xray 검사

Xray검사는 폐결핵의 확진을 얻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검사이다. 결핵의 초기에는 하등의 임상 증후가 없고 또한 정밀한 의학적인 검사에서는 발견할 수 없던 것을 Xray검사로 인해서 많이 초기에 발견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병소의 성질, 특히 공동의 유무 및 그 입체적인 위치 결정까지도 확정함으로써 조기발견은 물론 치료방침의 결정을 지배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전 장병 및 모든 국민은 정기적인 집단검사에 적극 참여하여 누락됨이 없어야 할 것이다.

Xray검사에서 사진 상으로 유소견자로부터 객담, 위 세척액 및 후두 세척액 등 농축 피검물을 채취하여 결핵균을 증명하는 방법으로서 이에선 직접도말, 집균, 배양법 등이 있으나 필요에 따라서는 동물 접종을 하게 되는 때도 있다.

四, 면역 방법에 의한 결핵 예방……

결핵을 아무리 초기에 발견 하였다고 하여도 결핵 감염 후에는 벌써 예방이라는 점에서는 엄격히 말하면 이미 늦어 버리게 된다. 결핵을 예방함에는 결핵 감염이 일어나기 전, 즉 튜버크린 반응 검사를 하여 음성일 때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되며 천연두에는 두묘(우도)를 실시하며 장티푸스, 콜레라, 소아마비 등에는 이 병에 대한 예방 주사를 사용하는 것과 같이 결핵에도 이 병에 걸리지 않게끔 튜버크린 반응 음성일 때 미리 예방 주사인 B.C.G.접종을 실시하여야 한다.

五, 결핵환자의 적절한 치료……

결핵으로 확인된 환자의 적절한 치료는 결핵 예방의 가장 중요한 부분의 하나이다. 치료는 2가지 목적을 갖고 있다. 즉 환자의 생명을 연장시키는 것과 개방성(전염성)환자를 미개방성 (비전염성)으로 이동시킴으로써 전파를 방지하자는데 그 목적이 있다.

그러므로 모든 확인된 한자는 치료 담당자나 간호원 이외의 모든 다른 사람으로부터 격리되어 가급적 조속히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한다.

六, 기타……

(一) 우유를 충분히 소독하여 음용함으로써 우형 결핵균으로 인한 결핵 발병을 방지한다.

(二) 감기, 기관지염, 폐렴, 심이지장충, 기타 기생충증, 규폐, 당뇨병, 간장병, 폐디스토마증 등을 미리 치료해 줌으로써 제2차적으로 결핵이 발병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시킬 수 있다.

(三) 인삼을 비롯한 한약을 사용함으로써 결핵 발병을 촉진시키거나 혹은 진행시키는 수가 많이 있으므로 한약사용을 삼가야 한다.

'군수이념(軍需理念)'에 대하여

-그 제정의의(制定意義)와 내용해설(內容解說)-

김정린(金正麟)
〈공군 중령〉



군수이념
군수계획은 D일을 목표로 하고 모든 운영은 계획에 입각하되 최소의 자원으로 최대의 지원을 모색한다.

본부 군수국에서는 후방 지원분야 종사자의 군수지원 이념을 통일하고 나아가서는 후방지원 능력을 향상하여 전력 증강에 기여코져 지난 2월 27일 군수이념을 제정, 전 예하 군수 담당 부서에 시달한 바 있거니와 군수이념은 그 어귀가 표시하는바 자명한 것이나 사실상 해득하기에 따라 그 범위가 방향이 일정치 않을 것 이므로 이 지면을 통하여 다음 몇 가지로 그 제정 의의와 취지를 해설하여 공군의 모든 후방 분야 조사자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하는 바입니다.

모든 개인에게는 이상이 있어서 그 생활의 목표로 삼으며 단체는 각기 특정한 이념을 위하여 행동을 구제하고 또 공동 투쟁한다는 것은 우리의 상식으로 되어있습시다만 우리 공군의 군수지원부서에도 이런 이념을 세워 여러분의 이념을 통일하고 확고히 함은 군수지원 능력 향상의 기본 요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3개월간의 완성

(一) 항공 분창의 완성

(二) 창(廠) 및 기지에 대한 권한 이양

(三) 한미 협조 및 유대의 강화

로 결과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통합 창을 중심으로 이제 확일성 있는 후방지원을 수행할 본격적인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새해인 1963년을 맞이하여 우리를 발전시켜 온 위의 세 가지 방침을 기초로 하여 군 발전 추세에 적응할 새 이념을 총장님의 재가를 얻어 발표하게 된 것입니다.

「군수이념」

군수계획은 D일을 목표로 하고 운영은 계획에 입각하되 최소의 자원으로 최대의 지원을 도모한다.

이상인데 여기에서 그 어귀별로 나누어 의의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一) 군수계획은 D일을 목표

지난날의 군수활동은 휴전 이후 계속적으로 군이 중강일로에 서서 요구하는 바를 충족코자 평시운영에 주력하여 현행 군수 계획은 군이 D일에 확보하여야 할 전력 목표에 의식적인 집중이 없는 실정인 것입니다. 현대전에 대비하는 새로운 현존 전력개념에 순응하여 군수지원 계획을 D일에 그 목표를 둔다는 것은

첫째, 물자수용에 있어서 전시운영율의 정확한 추산으로 전쟁 예비 물자 계획과 전시 소모 팽창을 예비하는 평시의 긴축 운영을 계획할 것이며,

둘째, 물자규격 결정에 있어서 전시 기동 지원과 전시 불완전한 설비 조건을 예상한 간편 견고한 물자규격을 발전시킬 것이며,

셋째, 군수체제 및 제도절차에 있어서 군이 이상으로 하는 바는 최소한의 변경으로 전시에 임하는 것이므로 모든 군수체제 및 제도절차는 입전태세에 합당하게 융통성을 고려하고 모든 인가 문서는 반드시 전 평시로 병립 편성할 것이며,

넷째, 군소 시설은 전시에 증가될 물동량을 위한 충분한 공간을 마련하고 동시에 분산 소개를 위한 고려와 대량 파괴에 대한 최대의 내구성을 부여하도록 시설 계획관과 협조해야 할 것입니다.

(二) 모든 운영은 계획에 입각

계획에 입각한 운영은 현하(現下) 경제사회의 제1차적 명제가 되었거니와 군의 한정된 자원으로 전력의 양적 질적 향상을 지향함에 있어서 계획성 없는 운명으로는 도저히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는 없는 것입니다. 흔히 어떤 일이 성과가 기대에 어긋날 때 우리는 흔히 주먹구구식이라고 합니다만 군의 운영이 주먹구구식이나 부닥치는 대로 되어지면 안 되겠고 또 그렇게 여건이 되어있는 것입니다. 군수인은

첫째, 모든 행동에 있어서 계획 후 실천의 개념에 습관화되어야 하겠고,

둘째, 각 계획단계에 있어서 상부로부터 주어진 여건과 기본적 목표 및 지침을 성실히 수행할 것이며 자체 계획에 있어서는 능력에 여유를 둔 계획으로 실천에 100%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후방계획에서 필수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사항은

가, 수요의 정확한 판단(신빙성이 있는 Factor의 이용)

나, 자원의 획득가능성

다, 물자획득의 선행기간

라, 자원의 적기 적소 배당

이며 이를 사항의 시간 단계적 조치는 후방 계획관의 기술이 되어야겠습니다. 이러한 군수계획관의 노력은 제 작전 계획을 지원하는 수시계획과 연간 부대 운영계획에 표현되어야 하겠고 특히 각 부대 군수발전 계획에 있어서 한층 요구하는 바입니다. (본부주관 Slip 참조)

(三) 최소의 자원으로 최대의 지원(max support with minimum inventory)

연간 2억이 넘는 군사원조를 받으면서도 국가 세출의 약 30%가 국고 부담이 되어있는 군사비의 비중은 국가경제개발 계획에 상당한 압박을 주고 있는 반면에 MAP는 년년히 감소되어 더욱 국고 부담의 요구가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군사자원의 효과적인 운영이 오늘날같이 강조되고 있는 때는 없는 것입니다. 모든 부서의 관리자가 경제적 자원 활용이란 기본과제를 갖고 출발하고 있는 것이지만 우리들 공군군수 계획관은 공군병력의 34% 국고예산의 30% 거의 군원의 전 예산을 관리하기 때문에 더욱 더 전기한 명제가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군수운영에 있어서 Max support with minimum inventory는 기본개념이 되어야겠고, 어떤 종류의 군수목표에도 내재개념으로 화해야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의미하는 자원은 인력과 물론 구분되며 그 경제적 운영의 원칙적 사실을 예고해 보고자 합니다.

가, 인력

우리가 운영하는 군수인력에 대하여는 세 가지 론, 즉 ‘충분’, ‘충분이상’, ‘부족’이 다 같이 맞는 날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직 전연 인력관리는 우리가 관리위 대상으로 하지 못한 과제로

남았다는 좋은 증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정비 분야에서 노력하여 온 인사관리제도는 자체의 인력관리의 가망성을 증진시켰고 군 전체 인력관리의 터전을 마련한 셈이 됩니다만 그 효용까지는 아직 많은 노력이 필요한 줄로 압니다. 아직 효용성이 없는 확실치 못한 것이지만, 거년통계에 의하면 직접활용인시수(直接活用人事數)가 43% 기준에 23.5%로 약 10%미달이고 동질적인 부대 간에 13.5%란 차이가 있는 것을 보아 병력배속의 균등이 필요로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인력관리로서 제1차 단계로 군수분야의 인력의 균등한 배치 책, 제2차 단계로 질적 향상으로 양적 조정을 기하도록 적극적인 관계관의 조치가 필요한 것입니다.

나, 물자……

창군 이래 우리는 군수품의 애호란 구호를 듣고 또 말하여 왔습니다만 물자의 경제적 운영을 위하여 개선된 실적을 별로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관련 실적에 의하면 침구류에 있어서만도 약 7%의 초과 마모로서 약 300만원의 손실이 있는 셈이고 잉여품은 장비에 있어서 UAL 보유액의 약 20%인 480만 달러, 소모품에 있어서 소모성 품력은 재고총액의 5%인 393만 달러라는 거대한 자산의 낭비를 가져왔던 것입니다. 물론 잉여품의 발생이 일률적으로 관리의 불철저라고 할 수는 없고 장비현대화 계획에 따르는 부득이한 처리가 있지만 많은 양이 수요의 결정이 불확실했던 이유인 것은 지난 해 장비심사결과 수정비율이 68%나 되는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물자의 경제적 운영을 위 하여는

ㄱ, 물자 사양 규격의 제정

ㄴ, 수품의 영구화 계획

ㄷ, 정확한 수요 책정

ㄹ, 물자 저장 방법 개선(특히 계절 품목)

ㅁ, 제조조사 정확도 향상

ㅂ, 잉여 품목의 최대 활용

ㅅ, 교환성 물자의 경제적 수명 연장 책

등에 적극적 군수 관리책을 강구하여 비 기본물자에서 절약하여 기본물자에 투자할 수 있는 성과를 얻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군원정책에서 강요되고 또 국방정책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런 제요항은 군수 제 분야에서 과학적 관리 기술의 배양과 그 효과적 구사로서 달성되어야 하겠으며 이상의 해설에서 의미하는 것 이외에도 여러분께서 각각 처하신 지위해서 유익한 해석을 하시어 군수 활동에 이바지하시기 바랍니다.



법률과 인정

로쿠리안스의 국왕 자로가크는 국민의 풍기가 심히 흐려져 매일 음락(淫樂)에 빠져 있는 것을 한탄하여

“국민으로서 음행을 하는 자가 있으면 두 눈을 판다”

라고 엄중한 시달을 내렸다.

사람들은 매우 두려워서 음품이 약간 멎었으나 얼마 후에 최초의 위법자가 나타났다.

더욱이 그것은 왕이 가장 사랑하는 왕자였다. 이윽고 왕이 스스로 심판할 날이 왔다.

왕자의 눈을 과연 파낼 수 있을 것인가? 없다면 법의 권위는 어떻게 되는가? 국민들은 형의 선고 집행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고 바라보고 있었다.

왕자는 드디어 끌리어 나왔다. 집행관의 손에는 날카로운 칼이 번득이었다. 불행한 왕자는 눈 깜빡할 사이에 한 눈을 패었다. 계속하여 또 한 눈을 파려고 들 순간

“잠깐만! 이미 형은 그것으로 충분하다. 다른 한 눈은 이것으로 보충하라.”

피 흐르는 한 눈을 누르고 비틀거리며, 파낸 자기의 한 눈을 손바닥에 놓고 내놓은 것은 자로가크 왕 바로 그 사람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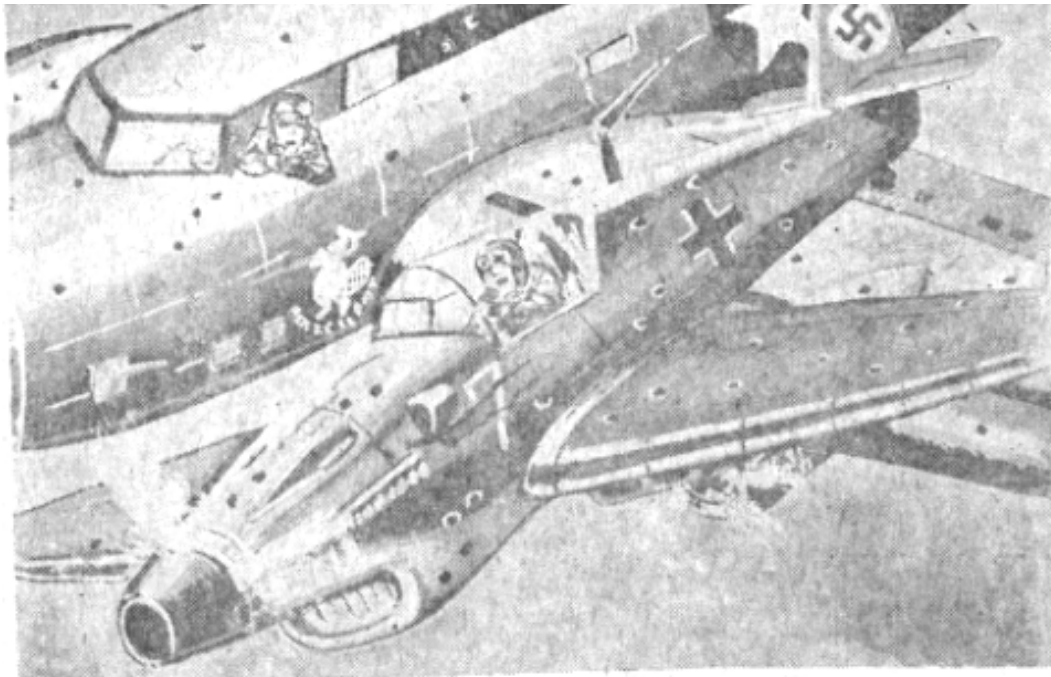
아버이로서 자식의 죄를 절반 지며 사랑하는 왕자의 한 눈을 구하고 동시에 국법의 위엄까지도 손상시키지 않은 최후의 일책은 오래 국민이 명심하는 바가 되어 그 후로는 국풍이 대단히 개선되었다.



형님 안녕히……

제2차대전 시 미 제95폭격전대의 비화

인간이 비행기를 발명하여 하늘을 날 수 있게 된 날부터 신화의 고향이었던……
'하늘'에는 수많은 '하늘의 비화'가 때로는 혜성처럼……
때로는 유성처럼 만들어지고 이루어져, 뒷날 듣는 이의 심금을 울리고 있다……
다음에 소개하는 이야기도 그중의 하나다……



미 공군 제95 폭격전대의 모든 대원들 중 '붉은 코'라는 별명을 가진 나치 공군의 ME-109 전투기가 왜 자기 전대의 요새기 편대의 주위를 빙빙 돌다가 종내 사격하지 않은 채 물러가 버렸는지 까닭을 아는 이는 대장에서 사병의 이르기까지 아무도 없었다. 다만 펜실베이니아 주 비버 출신인 미 공군 소위 에드워드 홀트만이 그 까닭을 알고 있을 뿐이었다.

1943년 10월 8일, 미 제95 폭격전대의 공중요새기 편대들은 독일 브레멘에 있는 폭격 목표 지역에 대한 공격 임무를 마치고 기지로 돌아올 때 아주 혹독한 위험을 겪었다.

미 공군기들은 독일군의 삼엄하고 치밀한 대공포화로 그 귀로를 차단당했으며 더구나 이때 중강일로에 있던 독일 공군은 전에 없이 40여 대의 전투기를 투입하여 미 제95 폭격 전대에 대한 정면정격(正面政擊)을 기도해왔다. 이래서 동 폭격전대의 B-17기들은 적전투기의 간단없는 공격으로 날개가 화염에 썩이거나 혹은 엔진에 명중 당해 급기야는 추락해 가곤 했다.

95전대가 속했던 제3 항공사단의 3개 전대가 링겐 근처까지 진출했을 때 아직도 뒤에 쳐져 따라오고 있는 요새기 편대들도 있었다.

펜실베이니아주 비버 출신인 젊은 소위 에드워드 홀트가 조종하는 B-17기도 뒤쳐진 축에 끼어 전속으로 날고 있었으나 점점 편대와 거리가 생기며 이내 아주 뒤떨어지고 말았다.

“전 승무원에게 알린다. 제3엔진 고장으로 편대 비행을 유지할 수 없다. 각원은 적기의 출현을 철저히 감시 경계하라.”라고 조종사 홀트는 인터폰으로 명했다. 그는 적지 상공에서 낙오한 아군 폭격기가 적기에 조우했을 때 어떤 위험에 빠지는가를 잘 알고 있었다. 틀림없이 적 전투기들은 고깃덩이를 발견한 굶주린 개들처럼 고장으로 고생하는 폭격기에 달려 들 것이었다.

“5시 방향 상방에 적 전투기 2대 출현”하고 후미 기관 포수가 보고했다.

“라져. 싸우자. 만일 베일 아웃 해야 하게 되면 서해안으로 방향을 틀어라.”라고 홀트 소위는 말했다. 수 분 후에 50mm 기관포가 귀를 찢는 듯 소리를 내며 불을 뿜었는가 하자 후체가 요란하게 흔들렸다.

갑자기 홀트는 조종핸들을 놓쳤다. 거대한 폭격기는 제4엔진에 고장이 생겼고 날개 끝에서는 연료가 흘러나왔다. 비행기는 점점 오른쪽으로 기울어졌고 유온계(油溫計)의 계시침은 위험 표식인 적선을 훨씬 넘고 있었다.

“웨더 포”홀트는 큰 소리로 외쳤다. 부조종사 찰스 브리안은 웨더링 스위치를 끄고 스로틀을 뒤로 잡아당겼다. 계속 터보 과급 조절기를 끈 다음 연료 밸브가 닫히도록 스위치를 돌렸다. 홀트는 수평 비행을 하려고 비행기를 바로 잡았다. 그러나 제4웨더와 제3웨더는 정상출력의 3분의 1에 불과한 15인치의 매니 홀트 압력을 내고 있을 뿐이었다. 비행 속도는 거의 실속에 이르렀다. 이것은 독일군 조종사로서는 철심자 혼장을 탈 수 있는 호적의 요격기회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적기 한 대는 브레멘 방향으로 퇴각, 그러나 다른 한 대는 계속 추격 중”이

브리안은 만약을 위해 자기 낙하산 띠를 낙하산 장구에 잡아매었다. 홀트도 낙하산을 끄집어내어 잡아맸다. B-17은 기름투성이가 된 채 거의 실속에 가까운 속도로 여전히 기우뚱거리며 날고 있었다. B-17기 내의 인터폰은 바로 뒤에 추격하는 적기가 점점 가까워 잠에 따라 말없이 침묵하고 있었다. 승무원들은 몇 분 후에 발생할 지도 모르는 사태에 자기들의 생명이 좌우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늘 인터폰으로 주고받던 유쾌한 농담이나 흥분해서 떠드는 소리가 일체 사라졌던 것이다.“아, 저 빌어먹을 독일전투기가 날개를 흔들며 우리 옆으로 따라오고 있다.”라고 포탑의 사수가 소리쳤다.

홀트는 조종실 유리창 너머로 밖을 내다보았다. 그의 시야엔 저 전투기의 기수가 점점 다가오고 있었으니 적기는 이때 홀트기에 수평으로 접근해 오고 있었다. 그 ME-109는 기수를 온통 선명한 붉은 색으로 칠했으며 바로 조종석 정면에는 “7”이란 커다란 백색의 숫자가 써 있었다. 독일 전투기의 조종사는 캐노피 너머로 이쪽 폭격기를 자세히 응시하고 있었으며, 특히 이쪽 비행기의 앞쪽에 써 있는 글자에 관심을 가진 듯했다. 자기 고향 펜실베이아의 비버를 기념키 위해, 홀트는 정비하사관에 부탁하여 뿔다리로 서서 가슴을 두드리고 있는 해리(비버)를 그 비행기에 그리고 그 밑에 큼직하게 “Holt's Eager Beavers”라고 써놓았던 것이다. 독일 전투기 조종사는 더욱 접근하여 그 그림과 글자를 보려고 했다. “이참에 저놈을 쏘아 떨어뜨리고 탈출합시다.” 부조종사가 말했다. 그러나 홀트는 마리를 저었다. 그 때는 후미포수는 포탑에서 물러나 있었고 좌측동체 사수는 그 시계(視界)안에 들어오는 것은 적기의 경우 라더 끝일뿐이었으며 단지 기수의 기관포만이 적기의 방향을 향할 수 있었을 뿐이다. “먼저 공격하기는 너무 위험하다. 좀 기다리자” 홀트가 대답했다. 점점 고도를 낮춘 적기는 B-17과 거의 수평의 위치에까지 왔다. 앞엔 근처에 왔을 땐 제3엔진의 기능도 완전히 잃었기 때문에 홀트는 나머지 엔진 두 개에 출력을 더 증가시켰다.

독일 전투기 조종사는 엔진 고장으로 정지된 프로펠러와 비틀어진 불테이드를 주시하고 있었다. 그는, 그의 전투기 캐노피 밑에 써놓은 작은 글자를 홀트가 육안으로 읽을 수 있을 정도로 자기 전투기를 B-17에 접근시켜 왔다. 그때였다. 홀트는 좀 전 수 분 동안 자기를 괴롭혔던 흑시나 하는 의혹이 분명해지는 것이었다. 그러자 산소마스크 위로 드러난 홀트의 얼굴은 순간 창백해지며 완전히 당황해하는 모습이 역연하였다. 브리안이 세 번이나 어깨를 툭툭 친 다음에야 홀트는 그를 돌아다보았다. “지금 속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브리안이 말하며 속도계를 가리켰다. 홀트는 자동적으로 기수를 낮춰 속도를 얻었다. 그러나 우리의 고도는 상당히 낮아져서 폭격기 오른쪽에 나란히 날고 있는 적 전투기와 우리는 산소마스크가 필요 없었다. 독일 조종사가 자기 산소마스크를 벗었다. 홀트는 그의 얼굴을 분명히 볼 수 있었다. 넓적하게 닳은 턱이며 미소 띠울 때 드러나는 하얀 이며 그리고 오른쪽 볼에 있는 조그만 흉터까지도 뚜렷하게 보였다.

“오오! 하느님 맙소사, 이게 웬일입니까, 제발 그렇지 않기를…….” 홀트는 입속으로 뇌었다. “뭐라구요?” 하며 브리안은 홀트의 말을 자세히 들으려고 몸을 다가 기대며 다그쳤다. 홀트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 고개를 저으며 계속 독일기를 응시하고 있었다.

“아이 참, 무엇 하는 겁니까? 글썄, 저 녀석을 좀 보세요” 하고 브리안이 말했다.

독일 조종사는 한 손으로 우리 비행기를 손짓하며 다른 손으로는 자기 귀를 두드리고 있어요. 이것은 홀트가 알아차리기 훨씬 전부터 독일 조종사는 이런 손짓을 여러 번 반복하고 있었던 것이다.

“저 자가 우리와 얘기를 하고 싶은 모양이군.”이라 하며 홀트는 고주파 통신기와 명령송신용 레시버에 눈을 돌렸다.‘자기가 하는 말을 잡을 수 있을까? 혹시 잡을 수 있을지도 모르지…….’ 속으로 생각했다. 그는 부대에서 노련한 선배 조종사들이 독일 전투기들이 이착륙 지시를 받을 때의 대화나 또 미군 폭격기와 조우하여 공격할 때 자기들끼리 주고받는 말을 고주파 통신기로 들을 수 있었다고 말하던 것을 생각해냈다. 불튼은 고주파 통신기의 4개 채널을 차례로 다 돌려 보았다. 그러나 그가 들을 수 있는 것은 북해상공에 있는 미군 폭격기와 전투기 간의 통신뿐이었다. “브리안 다시 한번 채널을 맞추어보게”라고 홀트가 말했다. 브리안은 조종실 위쪽에 있는 세계의 통신 조정 장치 중 가장 가까운 크랭크를 천천히 돌렸다. 그 통신 장치는 세 개의 주파수 대역을 갖고 있으니, 190-550kc, 3,000-6,000kc 대와 6,000-9,000kc 대였다. 브리안이 첫 번 것을 돌려본 다음 둘째 것을 반쯤 돌렸을 때 홀트는 독일어를 들을 수 있었다.

그가 귀를 더욱 가까이 대고 1인치 정도 크랭크를 더 돌리자 “여보세요, 요새 폭격기 내 말이 들리요? 내 말이 들리요?”하는 완전한 영어가 흘러들어왔다. 하지만 이 영어에 홀 때는 별로 놀라지 않았다 볼 때는 수신기를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송신기로 3.5MC에서 메서슈미트 전투기의 호출부호를 잡아 “네 말을 듣고 있다. 메서슈미트”라고 응실했다. “지금 당신네들 어찌 된 거요?” 메서슈미트가 묻자 “저런 빌어먹을 놈, 저놈이 돌지 않았어? 지금 다과회라도 하고 있는 줄 아냐?”하고 브리안이 격분했다. 그러나 “뭐 아무 일 없다. 연료가 좀 세고 있을 뿐이다.”라고 홀트가 대답했다. 두 조종사가 서로 상대를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는 동안 오랜 침묵이 흘렀다. 이들에겐 일시나마 전쟁을 잊고 있었다. 그것은 마치 남북 전쟁 때 형제가 서로 갈려 싸우다가도 밤마다 게스트버그 싸움터 우물가에서

서로 만나 전쟁을 까맣게 잊은 채 물보다는 진한 피의 정을 나누었다는 기분이었다.

갑자기 독일 조종사는 손을 흔들면서 “기지까지 무사히 도착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노력하여 무사히 귀대하십시오.”하면서 다른 말은 한마디 없이 붉은 기수를 왼쪽으로 돌려 사라졌다.

“별 이상한 일도 다 있군.”하고 브리안이 중얼였다.

홀트와 그의 승무원들은 그날 영국의 기지로 돌아왔으나 미들랜드 기지에 무사히 2개 엔진으로 착륙한 것은 홀트의 노련한 조종술 덕이었다.

승무원들 입을 통해 붉은 기수의 ME-109기의 이야기는 기지에 확 퍼졌다. 그들은 동기가 자기들을 살려준 이야기뿐 아니라, 그 때문에 얻은 나쁜 평판조차도 지멸여 났다. 이들과는 대조적으로 홀트는 일체 말이 없었다. 오히려 그 후로는 사람이 변해서 전혀 딴 사람이 되다시피 하였으며 멍청한 게 몽유병 환자 같았다. 이런 변화가 궁금하여 묻는 브리안에게도 일체 말이 없었다.

하는 수 없이 절망한 브리안은 대대장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현재의 정신상태로는 출격하여 홀트 자신과 승무원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결과 대대장에게 소환당한 홀트는 처음엔 자기를 괴롭히고 있는 문제에 관해 말하기를 거부했다. 결국은 그는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싼 채 “차라리 나를 정보장교에게 보내 주십시오 그러면 얘기하겠습니다.”라고 괴롭게 말했다.

정보 장교에게 홀트는 아주 믿을 수 없는 묘한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은 후에 조사에 의해 명백히 되었던 것이다. 홀트 일가는 제1차 대전 후에 독일에서 이주하여 1938년까지 피츠버그 근처에 살고 있었다. 홀트를 비롯하여 부모와 그의 아우 조지는 골든트라이앵글 북방 약 20마일 되는 비버에서 살았으며 다른 형제자매들도 출가하여 그 근처에서 모두 살고 있었다.

아버지가 경영하는 벽돌공장에서 일을 도우며 살고 있던 홀트와 조지는 1937년에 피츠버그 대학에 입학했다. 대학 입학 후 약 1년쯤에 동생 조지는 차츰 마음이 변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아마 독일에 사는 친척들이 종종 보내는 편지 때문인 듯 했다. 왜냐하면 그 편지 속에는 히틀러의 영도 하에 약진하는 독일 국민의 그림이 라던가 점차 발전 확대하는 나치당에 관한 신문 기사 등이 함께 보내왔고 조지는 이들에 차츰 감염되기 시작했던 것이다. 그래서 조지는 열렬히 독재자를 옹호케 되었으며 독·미 관맹 조직에도 가입하여 정기회의에 출석하고 토론도 하고 했다.

이 사실을 알아차린 조지의 아버지는 대학 학비 지급을 중지했으며 하루는 매우 노한 어조로 “만약 히틀러가 그토록 위대한 영웅이라 믿는다면 차라리 독일로 가서 살지 그러느냐?”고 꾸짖었다. 결국 조지는 심사숙고 끝에 떠날 결심을 하고 집을 떠나 뉴욕으로 가 버렸다. 그 후 한 달쯤 지나서 자기는 지금 프랑크푸르트에 있는 아저씨 댁에 와서 잘 지내고 있다는 편지가 속을 태우고 있던 아버지에게 날아들었다.

독일이 폴란드를 침입한 후에는 편지는 점점 드물었으며 조지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독일 공군 조종사 훈련을 받게 되었다고 알리는 편지를 끝으로 소식이 끊어졌다.

이 소식에 접한 아버지는 세상이 다 귀찮게만 여겨졌으며 마침내 1941년 11월 미국이 대전에 참전하기 직전에 세상을 떠났던 것이다.

“그러면 그 후로는 동생소식은 통 못 들었습니까?” 정보장교가 묻자 “전혀 한 마디 소식도 없었습니다.”하며 홀트는 머리를 저었다.

“그렇다면 그 ME-109기의 조종사가 바로 당신 아우인지 어쩐지는 분명치 않은 것 아닙니까?”

홀트는 창밖으로 무엇인가 응시하면서 “아니오, 아우가 분명합니다. 분명히 그의 얼굴을 보았으며 더구나 캐노피 및 동체에 쓰인 그의 이름을 보았습니다.”하며 이어서 “하지만 어떻게 조지가 530대나 되는 폭격기 중에서 나를 찾아낼 수 있었을까? 당신은 내가 그에게 어떤 신호를 보냈다고 의심할 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좋습니다.” 했다.

“그런 염려는 마십시오, 만일 당신이 그런 죄를 저질렀다면 내게 이런 이야길 하지는 못할 겁니다.”하며 안심하라고 미소를 띠었다.

정보장교는 잠시 손에 잡은 연필을 이리저리 노리더니, “나는 당신이 품은 의문에 대해 일부분은 풀어드릴 수 있다고 여깁니다. 스타라그에 있는 독일의 제3공군엔 그들에게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한 미 공군 하사관이 있다는 것은 별로 알려진 일은 아닙니다. 그는 자기가 알고 있는 미 공군의 정보 및 기밀을 전부 독군에게 제공했을 뿐 아니라, 새로 오는 포로들에게 동료포로임을 가장하여 각종 새로운 사실과 정보를 얻어내서 적에게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저런 나쁜 놈” 홀트가 욕을 했다.

“더구나 그 하사관은 우리 전대 소속이었기 때문에 더욱 불리합니다. 우리 비행기 미익(未翼)의 B자는 우리 전대 표시라는 것 뿐 아니라, 아마도 각 비행기의 조종사 이름까지도 그가 독군에게 알렸을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니 만약 당신 아우가 이 정보에 접했다면 폭격기 후익(後翼)의 B자를 쓴 우리 전대기(戰隊機)들을 찾아낼 수 있었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당신의 비행기를 찾아내는 것은 350대 중 하나가 아니라 최대 21대 중 하나라고 그 범위가 좁아질 것입니다. 더구나 당신 비행기에 쓰인 Holt's eager Beavers란 글씨는 곧 그에게 자기형 홀트의 비행기라는 것을 손쉽게 알게 될 게 아닙니까?”라고 정보장교가 설명했다.

“그렇다면 나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좋겠습니까?” 홀트가 말했다.

대대장은 홀트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이 일은 우리 사이만 알고 비밀로 해 두세, 홀트 소위 자네는 아우가 없는 셈 치고 날아야 하네, 자, 조지를 잊게 지금부터 ME-109는 적의 전투기이며 우리의 적이라는 것을 명심하게 그 비행기에 탄 사람이 누구든 우리에게겐 상관없는 오직 적일 뿐일세, 그 이외 신경을 쓸 것 없네”라고

엄숙하게 말했다. 이런 일이 있는 후 95폭격전대가 참가한 세 차례의 공습에서 붉은 기수의 메서슈미트는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다.

10월 14일 슈바인푸르트 공습에서 돌아오는 길에는 하늘을 뒤덮은 적 전투기의 공격을 받아 60대의 중폭격기가 격추당했다.

더구나, 동월의 엿새 동안에 전투기의 엄호도 없이 공습을 기도했던 미 제8공군은 148대의 폭격기와 승무원들을 잃었다.

그러나 그동안 홀트는 한 번도 자기 동생의 ME-109기를 발견할 수 없었다.

11월 7일엔 베젤-듀린 지구에서 122대의 폭격기가 추락당했다. 공습을 끝내고 귀로에 오른 편대들은 해안에 도달하기 약 10분 전에 30대의 적 전투기에 조우했던 것이다. 폭격기의 화약의 약함을 알고 있는 그들은 공격해 왔으며 홀트 편대도 역시 공격당하게 되었다.

이때, 홀트는 모든 화력을 쏘아대며 덤벼드는 30대의 적기들 틈에 붉은 기수를 한 자기 아우의 전투기를 보았다. “야! 저 미친 녀석 또 나타났군” 하고 브리안이 소리쳤다. 홀트는 머리를 끄덕이며 적기들이 제2로(공격로)를 취하기 전에 편대 대형을 강행하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들은, 아(我)폭격기 편대가 북해를 지나가기까지 공격 대형을 취하는 대신 계속 항로를 유지하며 따라오고만 있었다.

적 전투기 편대는 이윽고 공격을 개시하여 몇 대의 폭격기를 격추시킨 다음 갑자기 퇴각했다. 이때 퇴각하는 적기 편대에서 한 대의 ME-109기가 이탈하여 나오는 것을 보았으며 그 전투기는 이쪽 폭격기의 50모 기관포의 사정거리에 드는 고도 상에 와서 한 번 선회했다.

홀트가 수신기를 3.5MC에 맞추어 놓으니 “행운을 빈다”라 하는 독일어가 흘러나오더니 이내 그 ME-109는 방향을 돌려 사라져 버렸다.

어리둥절한 브리안은 “도대체 그 친구가 무어라고 하는 겁니까?” 하며 홀트를 쳐다보았다. 홀트는 흠칫해서 어깨를 움츠렸지만, 자기 편대들 미익에 썬진 커다란 B자를 발견한 자기 아우가 적 전투기들을 몰고 물러갔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다.

1943년 가을에서 1944년 겨울까지의 기간은 기후가 나빠서 중폭격기에 의한 고공폭격은 거의 효과를 거둘 수 없었다. 미 폭격기들은 슈바인푸르트 대 공습 시에 보여준 대로 독일공군의 강력한 방어 정면에서도 효과적으로 폭격임무를 수행할 수는 있으나 보이지 않는 목표에 폭탄을 투하하기에는 아직도 숙련과 투지가 부족했다. 연합국 측에서는 이런 기후조건에서는 주간 폭격에 심대한 제약이 따른다는 것을 주지하여 이커 장군은 Gee&Obbe라고 하는 영국이 발명한 새로운 항법 장치를 몇 대의 B-17과 B-24에 달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이 장비는 비효과적임이 판명되어 H2X라고 알려진 영국고안인 또 다른 신 장비를 써 보기로 했는데 이것은 음영지시판 위에 지형도를 그리며 지상에 계속 전파를 발사하여 탐지하는 한 개 독립 레이더 장치였다. 이 장비는 영국이 미, 영 양 공군의 수요를 채울 만치 충분히 생산해 내지 못했기 때문에 이커 장군은 MIT의 방사능 연구소에 원조를 청했다. 이래서 미국방장관의 레이더 고문이었던 데빌 T. 그릭스 박사가 이를 개량하여 H2X를 발명케 되었다.

초가을까지는 항법사들이 H2X의 사용법을 알콘바리에서 훈련받고 11월2일엔 H2X장비를 갖춘 폭격기가 첫 출격을 하게 되었다. 비록 레이더 장치를 이용한 폭격은 많은 성공을 가져오기는 했으나 안전한 것은 결코 못 되었으니 아직도 보다 많은 연습이 필요했다. 그러나 적기들은 약전후 속에서 우리 폭격기들을 찾아다녀야 하는 불리한 입장에 빠졌으니 이 사실은 우리 승무원들에게 많은 고무가 되었다. 우리의 전전후 출격은 확실히 시제 폭격보다 안전한 것이었다.

이 H2X장치 비행기는 항로 발견자라 불리었으며 그 수는 아주 제한되어 있으며 출동 때 마다 각 전대 간 서로 차지하려고 다투었다.

12월 22일, 홀트의 제95전대는 알콘바리에서 온 한 대의 항로발견자의 지휘하에 문스테트 조차장(操車場)에 대한 무차별폭격 임무를 띠고 출격했다.

이 폭격 후 귀로에서 홀트와 조지 형제는 지난 11월과는 전혀 다른 조건 속에서 다시 만났다. 그날은 아주 질고 두꺼운 적운이 끼어서 홀트는 구름 위로 솟아 산개(散開)하여 비행하고 있었다. 공격 목표 지역을 이탈한 수분 후에 홀트는 잘못하여 구름 속으로 들어갔으며 이때 구름층이 너무 두꺼워서 동료기 들은 보이지도 않았다. 회색의 커튼 속을 약 15분이나 비행한 후 휠휠트습 근처 상공에서 구름을 빠져나왔을 때 섣뚱 먼저 홀트의 눈에 띈 것은 전방 약 100야드에서 같은 방향과 고도로 날고 있는 한 대의 ME-109기였다.

“12시 방향이 적 전투기 한 대 출현” 폭격수가 외쳤다. 이 소리에 홀트는 또 다른 적기가 나타나는가 하여 사방을 둘러보았으나 단지 눈에 띄는 것은 그 메서슈미트기 한 대뿐이었다. 그 전투기는 자세히 보니 우익이 일부 떨어져 나갔으며 갑자기 100피트 쯤 고도가 떨어지더니 다시 수평 비행을 계속 하고 있었다. “붉은 기수의 ME-109이군, 또 만났다. 저놈 단단히 얻어맞은 모양이군”하고 폭격수가 소리치자, 홀트는 그 적기가 더 잘 보이도록 자기 비행기를 그쪽에 더 접근시켰다. 분명히 조지의 비행기였으며 심한 충상을 입었음을 알 수 있었다.

캐노피의 대부분은 기관포탄에 맞아 날아가 버렸으며 50모 기관포가 장비된 양익도 군데군데 떨어져나갔다. “이젠 저 놈을 잡을 수 있습니다. 소위님, 좀 더 접근합시다.” 폭격수가 흥분하여 소리쳤다. 그러나 홀트는, 공중에서 비틀거리는 아우기 타고 있는 적기를 말없이 응시하고만 있었다. 이때 그로서는 동기가 어찌되던 관심을 갖지 말고 가능하면 빨리 기지에 돌아오는 것이 제일 현명한 것이었을 게다. 그러나 그럴 수가 없었다. 또 두 말 할 것 없이 그는 자기의

B-17을 ME-109에 접근시켜 사수로 하여금 격추시키게 할 수도 있었다.

비록 자기 아우지만 하나의 적을 제거할 수 있으며 그것은 불과 수분간이면 될 수 있는 것이다. 조지가 조금 전까지만 해도 우리 요기들을 격추시켰을 것이며 만약 지금 살려준다면 장래 우리 폭격기들을 격추시키는 것을 돕는 것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에 잠겨 있는데,

“어서 가까이 감시다.”하고 폭격수가 다시 재촉했다. 이에 홀트는 결심한 듯 말했다.

“승무원에게 알린다. 곧 ME-109에 접근하겠다. 그러나 아무도 사격하지 말라. 만약 적이 먼저 공격하지 않는 한 누구도 사격해서는 안 된다.”

“아니,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장난이 아닙니다. 사느냐 죽느냐 하는 전쟁입니다.” 역시 포격수가 반대했다.

“발포를 금한다. 그가 저번에 우리를 살려줬으니 이번엔 우리가 갚자. 그리고 요 다음에 만났을 때는 격추해 버리는 것이다.”

“발포하겠습니다. 딴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나?” 하고 폭격수가 섣뚱 응하지 않자,

“닥쳐라!” 홀트가 엄하게 명했다.

홀트가 그의 거대한 폭격기를 전투기 바로 두상(頭上)에 진출시킨 다음 내려다보니 아우 조지는 조종실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있는 것이 보였으며 온통 얼굴엔 피투성이가 되어 피로워하고 있었다.

“메서슈미트, 내 말이 들리나?” 홀트가 말을 하자 아우는 고개를 번쩍 들어 머리위의 폭격기를 올려다보면서 “야! 들린다.” 하고 대답했다.

“머리를 맞았어. 계기도 다 부서지고 이 약전후를 뚫고 나갈 수가 없군요.”

자기들이 지금 북해 가까이 왔으므로 아우가 해변을 따라 안전하게 귀환할 수 있을 것을 알고 홀트는 “그러면 내 뒤를 따라라. 너를 바다 위로 인도하겠다. 알겠니?”했다. 조지는 수궁해 표시로 머리를 끄덕였다.

홀트는 네(四) 스로틀을 뒤로 당기고 짝 찬 구름 속으로 비행 방향을 잡았다. 구름 속에서 그는 아우가 따라오기 쉽도록 양익의 전등을 켰다.

두 비행기는 2만 피트 고공에서 10분에 5백 피트의 강하율로 5천 피트까지 내려왔다. 그러나 아직도 여전히 구름 속이었다.

2천 피트에서 겨우 구름을 벗어났다. 이때 “바로 아래 우군기가 간다. AB-17이다.” 하고 폭격수가 외쳤다.

홀트는 그제 바로 며칠 전에 알콘바리에서 와서 자기 전대에 배속된 ‘항로발견자’라는 것을 이내 알 수 있었다. H2X장치를 위한 특수 안테나가 보통 비행기와는 아주 판이하게 세워져 있었다. 그 역시 구름 때문에 전대에서 이탈된 것에 틀림없었다. 홀트는 즉시 자기 위해서 비행하고 있는 조지를 올려다보면서 “이제 됐다. 메서슈미트, 이제 혼자 날 수 있을 것이다. 너희 편 비행기가 나타나서 거기까지 데려다줄 것이다.” 했다.

그러나 조지는 대답이 없었다. 그는 바로 자기 앞을 날고 있는 것이 수 주일 동안 독일군을 그렇게도 괴롭혔던 새로운 레이더 장비를 갖춘 ‘항로 발견자’라는 B-17의 일종임을 알았다.

“빨리 돌아가라, 곧!” 홀트는 재빨리 경고했다.

조지는 수 초 동안 자기 형을 응시하더니 항로 발견자의 뒤로 돌아갔다. 그의 피투성이 얼굴은 마치 머리가 뒤틀리거나 한 것처럼 괴상했다.

“우리는 이제 피차 빛을 갚았수, 당신 말대로 이제 내 맘대로요”라고 마지막과 함께 손을 흔들어 인사하며 기지로 기수를 틀었다.

그러나 크게 원을 그리며 선회하여 육지로 향하던 조지는 갑자기 기수를 돌려 무심하게 날고 있는 항로 발견자에게 돌진했다.

순간 홀트는 “항로발견자! 쏘아라, 뒤에 적기가 따르다.”하고 라디오로 알리며, 동시에 스로틀을 밀어 조지의 비행기를 재빨리 따랐다. 그러면서 승무원에게 명했다. “사격!”

B-17에 장비 된 모든 기관포는 조지에게 집중사격을 퍼부었고, 때문에 비행기는 요란하게 요동했다.

항로 발견자와 메서슈미트 간에 격렬한 사격전이 벌어지고 여기에 홀트도 전 화력으로 가담했다. B-17의 플라스틱 캐노피가 부서지면서 얼음같이 차디찬 바람이 홀트의 얼굴을 때렸으며, 20mm 기관포 탄이 좌석에 박히고, 폭격기 동체에도 약 2피트나 되는 구멍이 뚫렸다. 휴대용 산소마스크가 폭발하는가 하면 파편이 계기판과 조종대에 날아와 박혔다. 이윽고 ME-107가 뒤로 불을 뿜으며 바다위로 빙글빙글 돌면서 곧두박히자, “내가 저놈을 잡았다.” 하고 포탑사수가 환성을 올렸다.

ME-109는 홀트 의 폭격기 전방 약 1리 거리에서 해변에 거의 닿도록 급강하했다. 우익 부분은 충격을 당해 떨어져 나갔고 엔진에선 시커먼 연기를 뿜고 있었다. 수 초 동안 불안정하게 뒤뚱거리며 서쪽으로 날아가더니 크게 회전하여 화란 해안 쪽으로 날아갔다. 홀트는 자기 비행기 하방을 통과하는 절름발이가 된 ME-109를 뚫어지게 내려다보았다. 자기 아우가 북해 쪽으로 빠져나가려고 두 손으로 조종간을 잡고 결사적으로 노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한편 항로 발견자는 위험을 면하여 영국 쪽으로 속도를 내어 비행해가고 있었다.

이제 홀트가 기수를 돌려 귀환한다 해도 아무도 그를 비난하지는 않을 것임을 그는 스스로 잘 알고 있었으나 그는 한 가지 결심을 했다.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바 신념이 어떤 것이던 간에 만약 그것을 확신한다면 그 신념을 위하여 스스로 목숨을 걸고 투쟁해야 할 것이다.

그 점에서 조지는 그 신념이 옳건 그르건 자기의 안전을 돌보지 않고 아주 불리한 입장에도 불구하고 ‘항로 발견자’를 공격함으로써 자기 신념을 관철하고자 했던 것이다. 그는 역시 용감한 전사였다. 그러나 그는 이제 죽어야 한다.

“승무원 제군, ME-109를 추격한다. 반드시 격추하라.”하고 홀트는 무엇인가 결심한 듯 짙막하게 말했다. 그는 해안을 따라 느리게 뒤뚱거리며 날고 ME-109를 향해 강하 자세를 취했다. 적기 후방 수 백 야드로 접근했을 때,

“공격수, 기관포사수, 찬스다. 부서진 캐노피 속의 조종사가 보이냐?” 홀트가 묻자,
“네, 보입니다.” 그들은 흥분해서 대답했다.

점점 가까워지자 자기 아우가 조종석에서 몸을 비틀며 신음하면서 뒤따르는 폭격기를 이따금 돌아다 보는 것이 보였다. 조지는 폭격기에 도전하려 했지만 비행기가 수평을 이루려하므로 곧장 화란 해 안쪽으로 비행했다. “좀 더 가까이 댁시다” 사수의 말과 동시에 기수의 기관포가 불을 뿜었다.

조지의 비행기에 명중하는 섬광이 보였다. 이때 이미 B-17은 메서슈미트 바로 위에 와 있었으며 조지가 조 정석에 처참하게 처박혀 있는 것이 보였다. 좀 더 접근해 보니 피투성이가 된 채 손을 흔들고 있었다. 그러 면서 나지막이 죽어가는 목소리가 라디오로 흘러 들린다.

“형님 안녕하……그리고 집에 가면 나를 만났었다고 전……해……주……”

물론 홀트도 자기 아우를 죽이고 싶진 않았으며 그에게 어쩔 수 없었다는 변명을 하려 했으나 그의 모습이 너무나 처참하여 차라리 조금이라도 빨리 그의 고통을 면해주는 것이 좋다고 여겨 인터폰에 대고 동체 사수에게 소리쳤다.

“빨리 사격해라!” 사격은 불과 수 초간이었다. 기관포탄으로 조지의 몸은 별집처럼 되고 비행기 날개가 화염 에 싸인 채 수락하다가 바다에 떨어지기 직전에 폭발하고야 마는 처절한 광경에 홀트는 눈을 감았다.

<후기>

이 일이 있은 후 홀트는 잠시 머리를 쉬고 안정을 얻기 위해 사우스 포스트에서 휴가를 보냈다. 휴가에서 귀대한 그는 항로 발견자를 구출하여 레이더 비밀을 적에게 누설되지 않게 한 공적으로 영예로운 비행 십 자 훈장을 받았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괴로울 뿐이었다. 그의 휴가 중에 홀트의 비행기와 승무원들은 다른 조종사를 맞아들 였으나, 첫 출격에 격추당하고 말았다.

볼트도 1944년 3월 6일에 베를린에 대한 대주간 공습에 병중인 조종사를 대신하여 출격했다가 귀로에 고사 포탄에 명중 당해 공중폭발로 아우의 뒤를 따랐다. 이렇게 해서 모두 죽었다.

2차 대전의 가장 비극적인 사건 중 하나가 이리하여 그 슬픈 결말을 내렸던 것이다.

(66P에서)

그리고 그 안테나의 운동에 따라 반사전파에 의한 영상이 동기적(同期的)으로 스코프 상을 주사(走査)하 고 미리 정한 기준의 방위선을 중심으로 그 반사판의 방위각을 가리키는 것이다 또한 반사전파가 발사 되고서 반사되어 돌아오는 때까지의 시간을 측정하고 전파의 속도로서(전파의 초동·186,000마일) 그 반 사 물체까지의 거리를 산출하는 것이다.

GCA에는 세 가지의 레이더가 사용된다. 첫째는 감시용 레이더, 둘째로는 진입방위 측정용 레이더, 그리 고 셋째로는 고도 측정 레이더인 것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진입방위 측정용 레이더와 고도 측정용 레이 더를 하나로 합쳐서 정밀진입용 레이더라고 부르고 있다.

직경 30리의 지역을 감시할 수 있는 감시용 레이더로서는 착륙하려는 항공기를 교통패도(Traffic pattern) 를 통하여 최종 진입로(Final)까지 유도하고 그곳에서부터는 정밀진입용 리더로서 항공기의 활주로를 향 한 진입 방위 및 접지 점까지의 강하각도를 감시하며 활주로까지 유도한다.

지금까지 대략 말한다 있는 관제업무, 통신업무 및 각종 항법원조 시설 등을 총괄해서 항공교통 시설 (Flight facility)이라고 한다. 이러한 교통시설은 쉽게 말해서 하늘의 길인 것이며 이들 하늘의 길이 있음으 로써 이로서 점차증가일로에 있는 항공교통의 안전성 및 정확성이 보장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항공 교통 시설은 항공기가 실용화 되고도 훨씬 뒤에 등장한 것으로서 그 역사가 매우 짧으며 각종 계기(計器) 및 전파 과학의 발전에 따라서 점차 개량될 뿐 아니라보다 신뢰성이 높고 간편하 고 새로운 방법이 발전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현재 구미각국에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제트항로가 실현 되는 날에는 훨씬 더 획기적인 항공 교통 시설의 발전이 절대로 요청될 것이다.

하늘의 길

—항공교통시설에 대하여—



박상희(朴相熙)
<공군대위·7항보(航保)>

I, 인류의 꿈

맑게 개인 푸른 하늘을 바라보노라면 문득 날아보고 싶은 충동을 느끼는 것이 우리네 인간의 상정(常情)일 것이다. 이렇게 날아보고 싶은 충동을 느끼는 것은 비단 6백 마일을 단 한 시간에 날 수 있는 현대인만이 아 니다. 희랍의 고대 신화를 보면 우리네 인류의 조상들이 과학 문명의 발달되기 훨씬 이전의 먼 옛날부터도 하늘을 날고자 하는 꿈을 지녀왔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하늘을 날고자 하는 인류의 꿈이 실현되기까지는 오랜 시일이 경과했으며 과학의 발전을 기다려야만 했던 것이다.

최초로 인간이 하늘을 난 것은 산업혁명이 시작된 훨씬 이후인 16세기말이었다. 그것도 오늘날과 같은 항 공기가 아니라 열을 가해서 팽창시켜 만든 가벼운 공기를 넣은 기구를 타고 나는 것이었다. 프랑스의 몽골 피에 형제가 10년간의 고심 끝에 열 공기를 넣은 종이 기구를 만들었으며 드디어 1783년에 인류최초의 비행 에 성공했던 것이다. 몽골피에 형제의 기구로 최초로 세계의 여러 곳에서 기구가 연이어 만들어졌고 이어서 날개를 가지고 비행하는 활공기가 발명되었다. 그러나 오늘날과 같은 본격적인 항공기가 만들어진 것은 20 세기에 접어들어서 였다.

미국의 라이트 형제가 1903년에 최초로 동력을 이용하는 비행해 성공하면서 오늘의 이르기까지 50년 동안에 항공기는 눈부시게 발전하여 왔던 것이다. 특히 인류가 그들의 생활자료(資料)와 사회적인 조직 능력을 최대 한으로 발휘한 바 있는 세계의 양차 대전은 항공기의 발전에 한 층 더 박차를 가했던 것이다.

그러면 이런 항공기가 실제로 수송에 이용된 것은 언제부터인가? 항공 수송의 역사는 지금으로부터 50년 전 인 1910년 항부터 시작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초기에는 우편과 화물만을 수송하였다. 그러던 것이 차츰 차츰 항공수송의 안전성과 신뢰성이 높아지면서 제1차 세계대전의 해인 1914년부터 정기적인 유객 항공수송을 시 작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그 후 항공기가 지리적인 장해를 넘어 다른 어떤 교통기관과도 비교될 수 없는 속도로 각 지점 간을 안전하게 연결할 수 있음이 발명되고 항공기의 군사적인 의미도 부가되면서 세계 각국 은 앞을 다투어 항공 산업에 주력하게 되었으며 하늘을 나는 항공기의 수도 날로 늘어갔다. 그리고 항공 교 통량이 늘면서 공중 충돌의 위험도 따라서 많아졌다. 또한 항공기의 속도가 빨라지고 항속거리가 멀어지면 서 육안으로만 비행한다는 것은 점차 인난(因難)하게 되었다. 이에 이러한 여러 가지 악조건을 극복하고 항 공기를 안전하고 정확하게 운항하기 위해서는 항공교통의 정리가 절대로 필요하게 되었으며 제2차 세계대 전 중에 발달한 각종 계기와 전파병기를 기초로 한 하늘의 교통정리 방법이 발전 되었던 것이다. 그것이 지 금으로부터 논급(論及)하고자하는 항공교통시설인 것이다.

II, 항공로

나무가 울창한 숲속이나 광막한 들판을 지나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느끼겠지만 그런 곳을 지날 때는 사람들이 자주 지나다니는 길을 따르는 것이 가장 안전할 것이다. 일기가 청명한 경우에는 시계가 좋으므로 어떤 곳을 질러가더라도 숲이나 들판을 지나서 쉽사리 목적지에 다다를 수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일기가 불순하여 비가 폭시 오거나 눈이 많이 와서 시계가 나쁘고 앞이 잘 보이지 아니할 때 길이 없는 숲이나 들판을 지나려고 하거나 또는 길이 있더라도 가까운 거리로 가기 위해 길을 버리고 질러가려고 하다가는 진행 목표를 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속이나 들판에서 헤매기가 일수일 것이다. 헤매다가 기운이 진해서 쓰러 졌다고 가정하더라도 길을 따라가다가 쓰러진 사람을 수색하고 구조하기는 쉽지만 길을 빠져나간 사람을 찾기 위해서는 온 숲속이나 넓은 들판을 이 잡듯이 살살이 뒤져야 하기 때문에 수색이나 구조도 힘들게 되는 것이다. 하늘에도 숲이나 들판과 같이 항공기를 위한 길이 있는 것이다. 다만 그것이 우리의 육안에는 보이지 아니하는 무선신호로써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이다. 항공기는 기상에 장치된 계기를 이용하여 이러한 길을 따라 비행함으로써 밤이나 낮이나, 일기의 호불 순에 관계없이 목적지에 안전하고 정확하게 다다를 수 있는 것이며 만약의 경우 불행히도 사고가 발생되더라도 수색과 구도가 용이하게 되는 것이다. 오늘날과 같은 하늘의 길이 마련되기 전에는 일기가 불순 할 때 비행하려는 조종사는 그야말로 원시적인 미지의 공포에 몸을 떨어야 했으며 또 그러한 경우에 비행을 좌우하는 것은 조종사의 기량과 침착, 결단, 용기 등 개인적인 요소였던 것이다 그러나 항공 교통 시설이 발달로써 이렇 쁠 하늘의 길을 따라서 비행하는 오늘날의 항공기는 항상 지상의 보호를 받고, 필요한 경우에는 언제라도 자기의 위치나 목적지의 기상을 알 수 있으며 타 항공기 와 충돌의 염려가 없도록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면서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하늘의 길을 이루는 항공교통시설은 대체로 항공교통 관제업무(Air traffic control)와 항법원조시설(navigation aids)의 두 가지로 대별(大別) 할 수 있다.

III, 항공교통관제(Air traffic control)

항공교통 관제업무로서는 공항에서 항공기의 이착륙을 관제하는 공항관제업무(airport control)와 항로를 비행 중인 항공기를 관제하는 항공관제업무(Air route traffic control) 그리고 항공기를 관제하는데 필요한 제반통신을 소통시키는 통신 업무(Communication)등의 세 가지가 있다.

a, 공항관제업무(Airport control)

모든 공항에는 크건 작건 관제탑(Control tower)이 채워져 있으며 이곳에서 공항 관제 업무를 행하는 것이다 이들 관제탑에서는 공항 지역 내의 항공기나 차량, 또는 사람의 움직임을 통제하고 충돌하는 것을 방지하며 공항 주변을 비행하는 항공기를 통제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 하는 것이다.

공항을 중심으로 해서 통상 반경 8km의 지역을 공항 관제탑의 관제권이라고 하며 이러한 관제권 들어오는 모든 항공기는 반드시 사전에 공항 관제탑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다. 시계비행규칙(VFR)과 계기비행규칙(IFR)의 두 가지 규칙에 따라서 관제업무를 수행한다.

시계비행규칙이라는 것은 기상 조건이 시정 15KM, 구름으로부터 수직으로 150M, 수평으로 600M의 거리를 가지고 비행할 수 있거나 또는 그보다 더 기상 조건이 좋은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다. 그리고 계기비행규칙이라는 것은 기상 조건이 시계비행규칙의 경우보다 나쁜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다. 즉 시계가 나빠서 조종사가 육안으로 항공기를 운항할 수 없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다. 또한 구름으로부터의 수직 및 수평 거리가 설정 시계비행규칙의 최소거리를 넘는 경우일지라도 시정이

15KM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사실상 계기에 의해서 비행치 않는다 할지라도 계기비행규칙을 적용해야 하는 것이다.

b, 항로 관제업무(Air route traffic control)

항로를 비행하는 항공기를 관제하는 곳을 항로 관제국(Artrc: Air route traffic control center)이라고 한다. 항로 관제국에서는 통신국, 다관제국, 또는 공항관제탑으로부터 항공기의 위치, 고도, 속도, 기타의 여러 가지 필요한 사항을 통보받아서는 특수하게 마련된 판에 기입한다. 그리고 이러한 판에 기입된 상황을 보고 항공기의 상호관계를 감시하고 또 항공기를 관제하므로 반드시 공항에 있지 않아도 좋다. 통신수단만 충분히 구비될 수 있다면 도시 중심지 위치하여도 무방한 것이다. 항로관제국이 관제하는 항공로라는 것은 그 통상 폭이 16KM이고 지표면으로부터 최소한 200m의 높이에서부터 그 위를 말하는 것이다. 이러한 항공로들은 세계의 주요 도시 간을 거미줄처럼 연결하고 있는 것이다.

항로관제국은 항로의 기상 상태가 시계비행규칙의 최소한보다도 악화되는 경우에 항로를 비행하는 항공기에 대해서 관제를 행함으로써 항공기 상호 간의 충돌을 방지하고 운항시간을 지킴도록 조정하고 원조하는 것이다. 또한 비상사고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고 항공기의 수색구원을 위한 절차를 취하는 것이다.

c, 통신업무(Communication)

항공기의 관제에 요구되는 제반통신을 소통시키는 곳을 통신국이라 한다. 이러한 통신국(Communication center)은 항로를 따라서 설치되어 있으며 항공기에 대한 대기통신과 통신국 상호간의 지상 통신을 행하고 항공관제국 또는 항공관제탑에 연락하며 기상 통신 사무도 행하는 곳이다. 통신 거기에는 기상 예보관도 배치되어 있어서 필요한 기상통보 및 기상예보도 수집하며 비행 계획을 작성하는 조종사를 돕는다. 조종사가 작성한 비행계획은 공항관제탑 또는 항로관제국에 통보되고 항공기의 비행이 진행됨에 따라서 항로상에 있는 통신국과 관제국 간에 필요한 사항이 전달된다.

IV, 항법원조시설(Navigation aids)

항법원조시설이라는 것은 공항에서 이착륙하거나 항로를 비행하는 항공기의 안전한 운항을 위하여 공항이나 항로에 설치한 지상시설을 말하는 것이며 그 종류도 매우 많은 뿐 아니라 그것을 완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계기 및 전초(電礎)에 관한 상당한 전문적인 지식을 필요로 하므로 여기서는 흔히 쓰이는 몇 가지만을 골라서 간략하게 소개하는데 그치기로 한다.

a, 지향성무선표식(Radio range)

지향성무선표식은 지상에 설치된 무선 송신기에서 공간으로 발사되는 지향성 무선신호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항로에 가장 많이 쓰이며 렌지 또는 비콘 이라고도 부른다.

이런 렌지는 두 가지 용도로 사용된다. 첫째로는 기상 조건이 나빠서 계시가 나쁜 경우 항공기가 지상을 보고 비행 할 수 없을 때 이것을 이용하여 자기의 방위를 알고 항로를 비행할 수 있는 것이다. 둘째로는 공항에서 첫 번째 용도의 경우처럼 기상 조건이 나쁠 때 이것을 이용하여 항공기를 강하시키고 활주로에 진입시킬 수 있는 것이다.

렌지는 8자형의 두 개의 전계로서 구성된 4개의 코스로써 이루어져 있는 것이다. 렌지의 상한(象限)은 각각 A 및 N의 무선부호(모스신호)에 의해서 식별된다. 코스는 여덟8자형 전계(電界)의 강도에 따라서 그 각도가 조절되고 특정의 항로 또는 공항의 방향을 가리키는 것이다.

항공기가코스에 따라서 정확하게 비행 하고 있을 때는 조종사의 수화기에 ‘즈으으……’하는 계속음이 들리고 A상한 쪽으로 치우치면 A부호, N상한 쪽으로 치우치면 N부호가 들리는 것이다. 정(正)코스 상을 약간 왼쪽으로 또는 바른쪽으로 비행하면 계속음과 A또는 N부호가 한꺼번에 들린다. 이렇게 계속음과 A 또는 N부호가 한꺼번에 들리는 범위를 박명권(薄明圈, Twilight zone)이라고 하는데 그 폭이 매우 좁아서 조금만 위치의 차이도 식별할 수 있으며 렌지를 이용해서 공항에 진입하는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이러한 박명권을 따라서 비행하는 것이다.



이 기사는 일본의 유력지 요미우리 신문이 세계의 지성으로 알려진 세계의 저명 학자에게 오늘의 세계 문제를 서면으로 질문하여 그 회답을 공개키로 한 기획 기사의 하나다. 요미우리신문은 지난 1월 그 첫째 기획으로 독일의 세계적인 실존 철학자 Karl Jaspers 교수에게 '이성과 핵무장'에 관해서 질문하고 그 회답을 공개한 바 있었다.



질문

실전주의라 하면 세계에서는 현실과는 유리된 주관적 관념의 유희라고 생각하는 편이 많은데 홀로 박사께서 의연히 1950년부터 원폭문제를 논의되어 왔습니다.

오늘날 회고해 보면 그 후의 현실적 추이에 부합되어 박사의 동안(洞眼)에는 새삼스레 경복(敬服)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59년 3월의 베를린 봉쇄, 1961년 8월의 동서 양독 교통제한, 59년에 SPD(사회민주당)이 추상적인 마르크스주의를 청산하고 국민 정당이 되기를 결의하여 1960년 11월에 신 강령을 채택 하였다는 사실, 최근 에 있는 SPD와 CDU(기독교 민주 동맹)와의 제휴 기능이라는 정세, 또 EEC의 확립, 그리고 최후로는 서방측의 의연한 태도가 쿠바사건을 계기로 공산 측으로 하여금 양보를 여지없게 하였다는 사실, 이 모든 사실들은 모두가 박사의 예언이 적중되었음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쿠바 사건 그리고 사건을 둘러싼 UN의 효력에 관런해서 박사의 예언적 고설에 대해서는 다소의 의의(疑義)가 없지 않습니다.

b. 전 방향무선표식(Omnirange)

앞서 말한 지향성 무선 표식을 조종사의 입장에서 볼 때 가장 불편한 점은 다름 아니라 두 개의 N상한과 A상한이 표식국(標識局)을 가운데 두고 반대 측으로 있는 것이다. 자기의 위치를 잃은 조종사는 상한부호밖에 들리지 아니 하는 경우 어느 쪽의 상한을 날고 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방위를 결정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것이다.

이해해 반해서 옴니렌지는 그 이름이 말하여 주듯이(라틴어 Omnis의 뜻은 영어의 All과 같음) 자전차 바퀴의 살처럼 이론상으로 렌지로부터 사방으로 뻗치는 무수한 코스를 이루며 항공기의 수신기는 이것을 포착하여 가시 방향지표로 바꾸고 알아서 조종사는 가시 방향지표로 바뀐 신호를 보고 즉각적으로 방향을 알 수 있는 것이다.

c. 계기착륙방식(ILS: instrument landing system)

ILS는 조종사가 사용하는 계기 착륙방식으로서 공항에 시설되어 있으며 기상상태가 좋지 않을 때 매우 유용하게 이용되는 것이다. 조종사가 스스로 항공기상의 계기를 보아서 위치, 방향 및 고도를 알 수 있으며 따라서 시정이 매우 좋지 않은 경우에도 착륙할 수 있는 것이다.

ILS는 세 가지의 장치로써 형성되어 있다. 첫째로 로컬라이저(Localizer)로 있는 공항활주로의 방향을 가리키는 빔을 이룬다(빔이라는 것은 지향성 안테나에서 방사되는 전파의 덩어리를 말하는 것으로서 마치 서치라이트에서 방사되는 강력한 선선의 덩어리와 같은 것이다) 둘째로 글라이드 패스(Glide path)는 활주로에 대해서 정확한 강하용으로 강하하는데 필요한 빔을 이루는 것이며 셋째의 팬 마커(Fan marker)는 빔으로서 진입 코스 선상에 정확한 무선정점을 만들어 접지 점까지 의 거리를 표시하는 것이다. 이것 외에도 보조로서 항공기의 제공과 로컬라이저 코스 보지를 원조하는 컴퍼스 로케이터(Compass locator)가 있으며 접지직전의 조종사가 지표를 보고 또 활주로 전방을 볼 수 있도록 하는 진입등과 활주로등이 있다.

d. 지상관제진입(G.C.A: ground control approach)

지상관제진입이라는 것은 지상에서 무선 통화를 통한 지시로써 항공기를 유도 착륙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무선에 의한 착륙에는 세 가지 방법이 있다. 첫째로는 착륙강하법(Let down)이 있다. 비콘 국 또는 다른 무선 송신국의 방위를 기상(機上)의 방향 탐지기로써 측정하고 자기의 위치를 확인하며 장애물이 없는 방향으로 강하해서 구름 밑으로 빠지는 방법인 것이다.

둘째로는 앞서 말한 ILS로서 몇 개의 전파를 조합하여 만든 착륙용 코스를 기상에 장비한 특수한 수신기로써 수신하고 또 지시기가 지시하는 대로 따라서 활주로를 향하여 코스 상을 강하하는 방법인 것이다.

셋째의 방법이 GCA인 것이다. GCA는 간단히 말해서 활주로에 대한 항공기의 방향과 고도를 지상에서 측정하고 그것을 항공기에 계속적으로 통보해서 정해진 코스를 따라 항공기를 활주로 까지 유도하는 방법인 것이다.

항공기의 방향을 측정하는 방법에는 지상의 탐지기를 사용하는 것과 레이더를 사용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지상의 방향 탐지기를 사용하는 것이 흔히 말하는 ZZ법이며 레이더를 사용하는 것이 GCA인 것이다.

레이더라고 하는 것은 전파의 직진하는 성질과 반사하는 성질을 이용하는 것으로서 측정하려는 방향으로 극초단파의 전파를 매우 짧은 일정한 간격을 두고 규칙적으로 발사해서 그것이 도중에 물체에 부딪쳐 반사되어 되돌아오는 것을 수신해서 브라운관(스코프)에 비추고 안테나의 방향으로써 전파가 방사되는 방향과 전파가 반사되어 되돌아오는 방향을 아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레이더의 안테나는 서치라이트처럼 정확한 지향성을 가지며 일정한 속도로 회전하고 상하 혹은 좌우 운동을 계속한다.

(62p로 계속)

칼 야스퍼스

칼 야스퍼스(Karl Jaspers) 박사는 독일이 낳은 세계적 실존철학자로서 1883년 오르덴부르크에서 출생, 처음에는 의학 및 정신의학을 전공하였으나, 중도에 철학으로 전향하였다. 1921년 하이델베르크 대학 교수가 되었으나 나치가 정권을 장악하게 되자 반나치 저항운동을 전개하다가 대학에서 추방되어 스위스로 망명하였다.

현재는 바젤대학 철학주임교수.

야스퍼스 교수는 인간의 본래적 존재를 ‘실존’이라 이름 붙여 인간의 존재 이유를 초월자(신)에 의해서 설명하였다. 즉 인간의 죽음, 애증, 고뇌, 죄의 극한계를 ‘4대한계경험(四大限界經驗)’이라 하고 이 극한계 상황의 이해는 초월자에 의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학문적으로는 키르케고르, 칸트, 딜타이에 영향 받은 바 크고 기독교적 실존의 연구를 통해서 실존철학을 동시에 「이성의 철학」 「커뮤니케이션의 철학」 「세계관학」 에 까지 발전시켰다. 주저(主著)는 「철학」 「진리에 관하여」 「전쟁책죄론」이 유명하다.

야스퍼스 교수는 철학자로서만 아니라 현실문제에 대하여 유니크하고 깊은 통찰을 가진 학자로서 아테나워 서독 수상과의 ‘통일과 자유의 불가분논쟁’으로서도 유명한 현실에 입각한 학자이다.

1,자유와 원폭에 대한 질문

박사의 고설에는 두 개의 노선이 있다고 봅니다. 첫째의 라인은 다음과 같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즉 옛날부터 종교가는 곧잘 현세의 종언을 설교하여 민중의 회심을 촉구하였지만 종언이라고 해도 그것은 반드시 현실적인 것이 아니며 또 가령 그것이 그렇다 하더라도 세계의 국부에 있어서의 인간 생활의 종언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원폭은 문자 그대로 인류의 종언을 초래할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 원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UN을 중심으로 원폭의 폐기를, 그리고 전력에 사용하지 않고 평화적 이용에만 협약을 체결코자 하나 사찰에는 여러 가지 기술적 인난이 있으며 또 대국에 거부권이 있는 이상 도저히 실행할 수는 없다. 즉 원폭문제는 단지 정치적—기술적 수단으로서만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정치 이상의 것이 필요하게 된다. 다시 말하면, 근대 유럽을 중심으로 진전해 온 ‘인류의 과학적—기술적 시대’여기 180도의 전환을 즉 회심을 요구하게 된다. 인간의 내적 혁명 없이는 어느 원폭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 그리고 내적 혁명에는 이성의 입장을 취함이 필요하다. 이성의 입장이란 이해하기 어려운 것, 구원받기 어려운 것, 증오의 대상이 되는 것, 이런 것들과도 교섭을 단절함이 없이 참을성 있게 협상에 노력한다는 ‘커뮤니케이션’의 무조건적인 의사’의 입장에 귀착한다.”

이것이 박사가 주장하는 ‘제1의 노선’이며 이 제1의 라인은 아무도 이론(異論)이 없다고는 하지만 동시에 정치가의 행동이나 인간의 생활을 현실적으로 움직이는데 방역을 성실한 결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박사께서는 제2의 노선 즉 제2의 라인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원폭 전쟁은 현실적으로는 자유진영과 공산진영과의 전쟁이며, 자유진영의 주요인은 이미 민주주의의 단계에 도달하여 정치적 자유가 있는 반면에 전체주의를 신봉하는 공산측은 자유가 없고 단지 예종(隸從)이 있을 뿐이며 또 그것은 “반이성의 화신이다. 때문에 원폭전쟁은 자유를 위한 전쟁이며 자유는 무엇보다도 수호되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들은 원폭전쟁에 있어서 세계적인 법질서 확립을 위하여 싸우고 있기 때문에 무력의 보유를 감히 저 버릴 수는 없다. 물론 원폭을 보유함은 이른바 단추(button) 전쟁의 우발을 수반하는 위험하기 짝이기는 하지만 자유를 지켜내기 위해서는 그와 같은 위험도 개의할 수는 없다. 그리고 독일과 같은 나라는 언제 국지전에 있어서 동독 측의 침략을 받을지 알 수 없으며 그것을 기성사실로 만들어 버릴지 모르기 때문에 서독은 자력으로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는 재무장을 하여야 한다.”

이상의 두 가지는 박사의 고견의 양면, 또는 요소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2,공산측의 '반이성'에 대한 질문

그런데 세론(世論)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것은 제2의 라인으로 생각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약간의 의문이 없지 않습니다.

자유가 서방측에만 있고 공산 측에는 없으며 또 공산측은 ‘반이성’의 화신(化身)이라고 말한 박사의 견해에

는 모순이 없지 않다고 생각되는바 입니다. 우리는 결코 전체주의 공산 측을 편들고 싶은 생각은 없다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기독교적 입장에서 인류는 신의 피조물임을 인정한다면 공산 측의 사람들도 역시 피조물이며, 따라서 일면에 있어서는 근본악을 지니고 있는 동시에 반면에 있어서는 자유를 회구하고 이성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철의 장막으로 커뮤니케이션을 거부 한다던가 미저(微底)한 계획경제를 실시하기 위하여 불손한 ‘전체지(全體知)’에 의하여 자유를 질식케 한다 하더라도 역시 자유와 이성애의 각성에 대한 가능성을 지니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러나 우리들은 우리들의 인식력의 부족과 상상력의 부족은 이들 문제는 잠시 제쳐놓고도 소련의 위협을 눈앞에 느끼는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의 사람들 사이에는 상황적 차가 있다는 점을 이해 못 하는 바는 아닙니다.

그런데 박사께서 주장하는 제2의 라인에 대한 생각은 최초부터 잠재(潛在)해 있었다고 보겠으나 그것이 명확하게 형성된 것은 56년 가을 헝가리 사건이 계기가 되었겠지요. 그러나 그때와 지금과는 세계정세가 상당히 변화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을 보인 것은 쿠바 사건입니다 쿠바 사건에 있어서 미국이 뜻밖에 강경한 조치를 취하기 때문에 것처럼 강인했던 소련도 드디어는 양보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박사의 고설의 정당성을 가장 멋있게 증명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호루쇼프도 소련의 사회주의를 조금씩 수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가 쿠바에서 것처럼 양보한 것은 아무리 독재자라고는 하지만 그의 단독의사 뿐만 아니라 그의 배후에 그의 의견에 동조하는 세력이 있음으로써 비로소 가능했을 것입니다.

현실 정세의 이와 같은 변화를 생각할 때 이제야 박사가 주장하는 제1의 라인이 출동할 단계가 아닌가 하고 짐작하는 바입니다. 즉, ‘커뮤니케이션의 무조건적 의사’에 다름 아닌 이성에 의해서 참을성 있게 협상에 노력하고 상호에 의하여 평화리에 세계질서의 확립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세론(世論)을 계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현실정치는 이론대로 운용되지는 않는 것입니다. 때문에 단지 항의하는 이외에 무엇 하나 건설적인 의견이 없는 ‘평화주의’에는 동감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은 박사께서나 우리로서도 입장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와 같이 제2의 라인을 중시함은 착실하고 건설하기는 하지만 동시에 현실적인 너무나 현실에만 대처하는 노선이 아닐 수 없습니다. 모든 사태는 그대로의 때가 있는 것입니다. 제2의 라인은 사명을 완수했습니다. 또는 완수할 때에 가까이하고 있으며 이제야 제1의 라인을 주로 하는 경계를 풀지 않는다 하더라도 단계가 아니겠습니까? 또 UN의 효력에 대해서도 제고의 요는 없을까요? 이와 같은 의혹에 대한 박사의 고견을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야스퍼스의 회답

귀지(貴誌)의 질문은 철학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다 같이 중요하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1,자유와 원폭에 대한 답

견지는 두 개의 라인 [이성에 기초를 둔 상대방과의 교섭 2원폭 무장]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데 나는 그 하나를 다른 하나의 우위에 놓을 것을 제한하는 바입니다. 상위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것은 이데아 (이념)이어야 합니다. 이데아가 가정생활에는 물론이요 작업, 사회적 행동이며, 정치에 있어서의 우리들의 활동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것을 규제하게 되고 거기에 우리들의 기본적 태도와 판단력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것에 의하여 여러 가지 현실에 대한 견해를 얻는 것이며 또 목표의 설정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견해며 목표의 설정은 어디까지나 이데아의 하위에 있는 것임은 말할 나위 없습니다.

나는 회심[현세의 과학적 기술적 시대로부터 180도의 전환을 뜻하는 인간의 내적 혁명]일반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또 특히 기술적 시대에 있어서의 인간의 전환에 대하여 얘기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만 이 전환은 우리들이 오늘날처럼 기술의 노예이며 추종자 됨을 능(能)으로 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의 주인공이 되어 미래의 인간이 됨을 궁극의 목표로 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회심이며 전환이 이미 오늘날 개개인의 있어서 신심을 바탕으로 생겨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들은 내면적으로 자유이며 초월자와 연락된 심경에 도달하여 이에 의하여 대규모의 정치가

결정적인 방향으로 이루어지기까지에는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 할 시기가 올 때까지 우리들은 현실을 조절하며 현실에 대처하며 이성이 현실을 지배 못 한다 하더라도 인간의 모든 생활이 이성의 강한 교제를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며, 이 이성이 끝내 인간으로 하여금 기술의 노예나 그것의 추종자로 동원하고 말 것이라고 믿습니까? 만일 믿기 어렵다면, 그리고 인간이 신심이라는 바탕을 지니고 있다면 이념은 보다 살아날 기회가 올 것이며 이데아는 자유와 조월자제로 사다리를 놓을 것이요. 정치도 인간 활동의 하나인 이상 정치의 방향은 이데아의 지배를 따를 것입니다. 단지 그것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헌데 정치적 자유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서방측 세계의 대다수의 사람들의 회심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회심은 이미 플라톤도 알고 있었다시피 각국민이 자기의 생애에 있어서 한 번쯤 행하면 된다는 그러한 것이 아니고 항상 새롭게 거듭 행해야만 하는 것인데 그것이 행해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자유에 있어서 가장 큰 위험은 이러한 의미에서 서방측 세계의 자신 속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나라들이 서방측 세계에 속해 있는가? 무엇보다도 먼저 수세기에 궁하여 정치적 자유를 가질 수 있었던 나라들, 국민의 대다수 사람들이 마음으로부터 민주주의를 신봉해왔던 역사를 가진 자유의 지대, 즉 영국, 네덜란드 스위스 스칸디나비아 제국, 북미라 하겠지요 B급으로 프랑스, 독일, 이태리, 일본 등을 들 수 있겠지요. 형식상으로는 의회민주주의를 취하고 있으나 근본적으로 볼 때 민주주의 심정을 조금도 가지지 않는 나라들, 즉 인도를 비롯한 동남아제국(諸國), 남미제국, 아프리카 전역은 어느 편이고 하면 솔직히 말해서 자유세계에 가산하지 않음이 좋을 것입니다. 내가 자유의 나라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민주주의에의 경험을 쌓아올린 국가 또는 민주주의에의 위협이 있을 때 그것을 독자적으로 물리치고 민주주의를 재건한 경험을 가진 국가의 한해서 적용한 것입니다.

위에서 말한 자유 대국이 실제로 연대의 실(實)을 올리는 것은 먼 훗날의 얘기가 되겠지만 자유 및 평화의 있어서 이 연대가 사실상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연대가 조약에 의하여 일체화가 된다면 더욱 이상적일 것입니다. 물론 UN은 어떠한 사정이 있어도 유지되어야 하겠지만, 그러나 UN은 전기하는 자유 제국의 연대에 비해서 기대도가 꽤 낮은 것입니다. 나는 이 같은 점을 1958년에 간행한 『원폭과 인간의 장래』라는 저서에서 말한 바와 있거니와 그 상태는 금일에도 개선된 바 없다고 생각됩니다. 국제연합은 제 대국이 이 같은 의견이며 또 세계여론에 대하여 체면을 세울 수 있는 경우에 한해서 유효하게 스위치를 넣을 수 있는 기관입니다. 국련(國聯)헌장에는 제국가의 연합이 특별히 강조되고 또 그 점에 배려되어 있기는 하나 내가 말한다면 새로이 나라가 참가할 경우에는 오랜 시간을 요하는 심사를 거치는 것은 부득이하더라도 선거에 의해서 만이 가맹확대(加盟擴大)하게끔 개조하는 것이 긴급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2, '반이성'에 대한 답

내가 공산세계 속에서 반이성의 화신을 보았다고 견지는 말하고 있으나, 그러나 서로 적대하고 있는 것은 민족이 아니고 지배의 원리[주: 야스퍼스는 전체주의와 민주주의를 지배의 원리라 하고 있다]입니다. 러시아 인도 중국인도 귀지가 말한 것처럼 피조물임에는 다를 바 없으며 또 인류로서 마땅히 사랑을 받아야 할 것이며 이런 점에 있어서 서구인이나 동양인에 차별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들도 민족으로서 위대한 역사, 문화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천년의 짧은 역사라 하지만 중국은 4,000년, 인도도 4,000년의 역사를 회고할 수 있으며, 다른 모든 민족도 이들의 문화의 참가하였으며 그들의 문화는 더욱 발전하였습니다. 이 점에 관해서는 나의 저서 「역사의 기원과 목표」

실존철학

실존철학이란 이성이라던가 정신이라던가 보다도, 현실에 존재하는 인간의 본래적인 양태를 파악하는 데서 출발하는 것으로, 키에르케고르, 니체 등이 그의 선구자이며 야스퍼스는 현존하는 세계적 실존철학자. 현대의 실존철학은 야스퍼스를 비롯해서 마르셀, 베르자예프 등 기독교적 실존철학에 대하여, 하이데카에 대표되는 무신론적 실존철학은 제2차대전 후 프랑스의 썬르트르를 중심으로 까뮈, 보오바야르 등에 의하여 철학의 범위를 벗어나서 문학, 예술의 분야에까지 실존주의 운동이 번져졌다.

속에 구체적으로 기술하였습니다. 한 번 더 되풀이합니다만 문제는 공산세계의 반이성도 아니요 민족도 아니며 지배원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주: 여기서 야스퍼스가 지적인 지배의 원리란 전체주의적 지배원리를 호칭하고 있음]

독일은 나치스의 지배원리[전체주의]에 굴복하였고 러시아인도 이 점에 있어서 다를 바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분기점은 지배가 없이는 이상적인 커뮤니티 즈이나 아니냐가 아니고 지배의 원리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반이성(反理性)을 공산세계에서 보았다고 함은 전체주의, 지배원리 그 자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3, 전체주의를 극복하는 길

서독은 공산권의 인접하고 있으며 때문에 공산권으로부터의 국지전의 위험을 막기 위하여 자유를 지키려는 재무장이 필요합니다. 이점에 관해서 귀국(일본)은 서독과는 입장을 달리하고 있기 때문에 절실성(切實性)이 박약하며, 재무장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고 귀지는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보건대 상황은 다릅니다. 국민의 이해(利害) 염려함은 금일에 있어서도 강한 문화적 의의를 가지는 것이지만 그러나 올바른 정치적 의의는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자유냐 전체주의냐의 문제입니다. 어느 국가나 그리고 최강의 국가도 한편의 전선에 참가함으로써만이 자기를 존속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서독을 비롯해서 오늘날, 미국의 지배로써 자유를 누리고 있으며 자유국가로서 존속되는 나라가 많습니다. 만일 이 같은 미국의 지지가 상실된다면 전체주의의 희생물이 될 나라가 있는 것입니다. 서독은 미국에 대하여 패자임에도 불구하고 자유를 부여했다는 점에서 미국에 대해 감사의 생각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귀국(일본)도 마찬가지 입니다. 서독에는 아직도 미국의 진주군이 있으며 주둔군은 간혹 국민으로부터 색안경 시 되고 있으나 실은 그 국민에 대해서는 하나의 혜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 서독인은 이미 이 점에 있어서 느낀 바 있습니다. 불행히도 일본이 나의 이 말에 이해가 가지 않는다면 전체주의가 일본의 이빨을 보였을 때 비로소 깨닫게 되겠지요. ‘네루’는 내가 전기한 저서에서 지적인 것과 같이 하나의 환상에 잠겨 있었기 때문에 중공의 전체주의가 인도에 그 이빨을 보였을 때[주: 인/중공 국경 분쟁을 지칭함] 네루의 중립주의가 하등의 소용도 없다는 사실을 몸소 체험하는 가장 좋은 사례가 되었습니다.

때문에 문제는 요컨대 우리가 미국의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미국 편을 드는 것이냐? 스스로의 자유를 지키기 위하여 자유제국이 스스로 무장하고 연대하여 자유를 방위하느냐? 문제의 초점은 여기에 있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나의 생각으로는 정당이나 세론이 매일을 사사건건에 너무나 빨리 그리고 너무나 경솔하게 견해를 바꾸고 있습니다. 소련이나 중공은 아직까지 그 본질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자유를 추구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전체주의적 지배의 원리는 항상 하나의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민중을 자기편으로 가지려면 자유를 주어야 하며, 자유를 주게 되면 스스로의 종언을 자초하게 됩니다. 때문에 사슬을 늦추고 난 뒤에는 반드시 반향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전체주의 지배는 내부로부터 도괴(倒壞)하지는 않았습니다. 독일이나 일본이나 이탈리아가 다시 자유를 획득한 것은 자신의 힘에 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외부로부터 극복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군사력에 의하여 외부로부터 정복됨을 의미함이 아닙니다. 자유세계의 변영에 의하여 내부로부터의 강력한 영향력에 그들 전체주의가 붕괴된 것입니다. 전체주의가 오랜 동안에는 변모할 이라고 기대된다 할지라도 변영은 우리들이 이제부터 획득해야 할 가장 긴급한 과제인 것입니다. 오늘날 자유세계는 결코 이상적인 존재는 아닌 것입니다. 우리들은 도처에서 국민국가적인 여러 가지 권리에 속박되어 묶여있습니다. 정치적 관심보다도 경제적 관심이 우위를 점하고 있을 경우에도, 불리하다고 생각했을 때 폭력에 호소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경우에도, 이 감정을 자기들의 권력충동에 이용하려는 사람들의 경우에도 다 같이 볼 수 있습니다. 도대체, 경제적 변영만의 생활은 질투심을 불리일으켜 약탈본능을 능으로 삼는데 지나지 않는 것이나, 가령 우리들 자유세계 있어서 영위되는 생활의 미질서의 사람들에게 대하여 매력만점의 전형적 생활양식이라면 그때는 인민들은 전체주의에의 질곡에서 벗어날 운동을 일으킬 것이며, 전체주의를 극복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끝)

지난 토요일 오후의 일이었다.

대전 지방 원호청에 근무하는 여동생(타자수)의 상경하겠다는 편지를 받고 용산역에 마중 나갔다. 알고 보면 그 동생이 상경하겠다는 것은 못마땅한 글을 써서 보낸 편지를 받고 즉시 반응을 일으키는 결과에 불과하다. 짐을 많이 가지고 온다기에 동생들에게 나가 보라고 했으나 마음이 꺼림직해서 열차도착시간(17시 경으로 알았음)이 임박해서 시내에서 용무를 마치고 동작동행 합승을 탔다. 그렇게 넉넉한 시간의 여유는 없어도 조급한 마음은 일지 않았다. 용산역 광장에 들어서면서부터 동생들이 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으나 보이지 않았다. 조금 지나서 안경 낀 막내 여동생이 혼자 걸어오는 것이 보였다. 그 동생의 걸음걸이가 과히 단정치 않았다. 무심코 다가오는 동생에게 “순희야, 언니 안 나왔니?” 하고 물어본즉 영겁결에 당한 일이라 놀라면서 안경 속의 눈알이 더 커진다. “싫대요.” 간단한 대답이었다.

나와 그 동생 간의 연령차가 15년이고 보면 그리 차가 적은 것도 아니긴 하지만 나를 꽤 어렵게 대한다.

“추운데 대합실에나 들어가자” 하고 함께 대합실에 들어갔다.

열차 여행하는 사람들과 신문팔이 겸 장수 구두닦이 등등으로 가득 찬 대합실은 그리 아름다운 풍경을 이루지 못 하고 있었으나 어느 모로 봐서는 우리 생활의 축소판 같은 느낌을 풍겨 주었다.

여행하는 사람들이 득실거리는 대합실에서 풍기는 형취(形臭)와 오만가지 모양으로 꾸리고 권 짐 보따리의 냄새가 동화되어 흐르는 독특한 냄새란 어떠한 화학기호나 방정식으로 표시되면 되었지 말이나 글을 가지고 표현하려면 “그저 그 냄새야” 하는 정도에 그치고 말 것이다. 육군 상등병 두 사람이 지나가며 단정히 경례를 했다. 시골에서 온 듯한 어린 아이가 걸음을 옮겨가며 나만을 뵈듯 쳐다봤다.

저만큼 걸어가던 아이가 서있던 신사의 엉덩이에 얼굴이 부딪치자 깜짝 놀라며 한 바퀴 돌고 나서 여전히 나만을 쳐다보고 있었다. 서 있던 신사는 나와 어린아이에게 시선을 번갈아 가면서 우습다는 듯 픽하고 웃었다. 나도 미소했다. 그 어린아이는 분명히 나를 순경으로 오인하였으리라.

설사 나를 순경으로 잘못 봤다고 한들 그렇게까지 노력할 필요가 있나 하고 나 혼자 의문을 가졌다. 필경 그 어린아이는 조금 전에 엄마에게 무엇 좀 사달라고 졸라대다가 엄마가 “너 그러면 순경 아저씨가 잡아간다” 하고 대합실까지 달래며 끌고 온 것이겠지—그렇지 않으면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교통순경의 힘차게 부는 호루라기 소리를 연상하며 걸던 도중에 나를 발견하지 않았을까—이렇게 내 마음대로 해석을 하고 갖다 붙여 버렸는데 갑자기 새 손님이 닥쳤다. “지금 몇 십니까?” 누군가 하고 옆을 보니 시골 냄새를 풍겨 주는 노인이었다. “네, 지금 4시 50분입니다” 하고 알려주었다. 그랬더니 노인 왈 “그래요! 저 양반은 53분이라고 하던데” 하고 중얼거리며 밖으로 나갔다. 그 노인은 고맙다는 표시를 전혀 하지 않았다. 그건 그렇다 치고 왜 다른 사람에게 물어본 시간을 나에게 와서 확인하려고 했을까? 세상 사람을 못 미더워 시간도 두 번 씩 물어보아야 마음이 놓이겠다는 건지 도저히 알 수 없다. 하기가 나의 시계도 4시 53분이었다. 그러나 분초를 다투는 일이 아니라면 그것을 구태여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까 그렇다면 왜 초까지 물어 보지 않았는가 말이다. 내 판에는 그가 꽤 노쇠하신 분이 되서 알아듣기 좋게 말씀을 드렸는데 하고 생각했다. 그 때 역원 한 사람이 픽 분주하게 앞을 지나갔다. 순간 직감적으로 그 노인이 나를 역원으로 잘못 보지나 않았나 하고 생각되었다. 그 자리에 오래 서 있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화물을 취급하는 구석자리로 자리를 옮겼다. 무심코 서 있는 나에게 또 새로운 손님이 나타났다. 어떤 중년 부인이 숨 돌릴 겨를도 없이 달려오며 종이쪽지를 붙숙 내밀었다. “저—짐을 어데서 찾지요” 하고 나를 푹푹히 보면서 섭섭하게 웃으며 뒷걸음질을 쳤다. 고개를 두어번 앞뒤로 끄덕이면서 서 있는 여인의 모습과 웃음은 역원이 아니라 군인이라고 알아차린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행동이었으리라고 생각했다. “바로 여기지요” 하고 알려줬지만은 그 여인은 웃음을 감추지 못하고 계속 뒷걸음질만 쳤다.

사무실 쪽으로 가는 그 여인은 계원으로 보이는 사람과 무엇인가 수근거리더니 급한 듯 밖으로 나가 버렸다. 알고 보니 그 여인은 소화물을 찾으러 왔으며 그곳은 대화물 취급소였다. 소화물도 짐이라고 할 수 있나 대화물도 짐이었기에 짐 찾는 곳으로 알려준 나로서는 별로 미안한 감이 들지 않았다. 역시 있던 자리가 좋았구나 하고 먼저 서 있던 자리에 돌아왔다. 인천행 개찰시간과 호남선 방면에서 오는

<장병투고>

시각유해(視覺有害)

문용주
<공군대위>



여객의 집찰시간이 겹쳐서 복잡하기 시작했다.

큰 역에서만 들을 수 있는 여객 안내가 시작되었다. 음치에 가까운 여학생이 철도노래(만일 있다면)를 공부하는 것을 녹음해 두었다가 재생하는 조의 음률이었다. 박자나 음정이 창조적이면서도 전체적으로 질서가 있었다.

기다리던 차 시간도 거의 되어가는 상 싫어 도착 시간을 확인하려고 매표구 쪽으로 가려던 찰나에 또 손님을 맞이해야만 했다. “저 통근차가 몇 시에 오나요?” 40고개를 겨우 넘었을까하는 중년 부인의 물음이었다. “글쎄요, 어디서 오는 칸데요” 하고 반문할 수밖에……”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5시 경에 온다 던 가요” “통근찬 말이지요, 부산 쪽에서도 오고 서빙고 쪽에서도 오는 게 있고 또 인천에서 오는 것이 있으니깐요” 하고 몇 분 동안에 얻은 열차 상식을 총 동원했다.

“아 참, 인천에서 온다고 했나 봐요” 이런 몇 마디의 대화 중 나는 무의식중에 그 중년 부인을 자세히 관찰했다.

둥글 둥글한 인상이었고 그래도 젊어 보이겠다는 중년기의 애착인지 모르나 입술엔 인공적인 캄프라지가 엮여있고 전에는 나이에 어울리기 힘든 디자인을 한 핸드백이 귀여져 있었다.

입고 있던 털실 스웨터는 색깔과 디자인까지도 계절과 호흡을 같이 하고 있었으며 그 부인의 흰 고무신은 깨끗한 일상생활을 암시하여 주는 듯싶었다. 굳이 한두 가지 욕심대로 그 부인에게 요구하고 싶은 것이 있었다면 가느다란 테의 안경에다가 왼손은 성경책이라도 귀여져 있었더라면 하는 것이었으리라.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럼 제가 차 시간을 봐드리죠”

하고 열차 발차시간표가 있는 곳으로 걸어갔다. 그 부인도 따라왔다. 인천에서 오는 차는 매시마다 있었다. “한 20분 전에 한 대 지나갔고요, 그리고 6시 48분, 7시 48분에 또 있고요” 이렇게 친절하게 얘기 해주었다.

그 부인은 무엇을 생각하면서 고개를 끄덕였다.“네” 그는 연상 무엇을 생각하는 듯 손등을 턱 밑에 받치고 서 있었다. 한참 만에 “고맙습니다.” 하고 다른 곳으로 갔다. 나는 그 부인의 뒷모습에 시선을 옮겨가며 다음과 같은 말을 입속에서 했다.

“미안하지만 아주머니도 나를 역원으로 잘못 보았습니다.”

동생이 타고 온다는 차는 지나갔다. 용산역에 내린 여객의 틈바구니에서 동생의 모습은 도저히 찾을 수가 없었다. 나와 같이 집찰구에서 기다리던 동생도 맥이 풀리는 모양이었다. 맨 나중에 집찰구를 빠져나온 손님이 간 뒤에도 5분 정도나 서성거렸다.

“순희야, 그만 가자” 하고 걸음을 옮기려는데 또 어떤 여인이 말을 건네 왔다. “안동에서 오는 차가 몇 시에 들어오지요?” 이런 말을 들은 나는 선뜻 이양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 거야 하는 생각이 앞서 마음이 그리 유쾌하지 못했다. “글쎄올시다, 두어 시간 있어 보시오” “그렇게 늦게 옵니까?” 요즘엔 오는 차는 제 때에 꼭 꼭 오니까요.” 하고 귀찮은 듯 대답하여 주었으나 그는 “에감사합니다.” 하고 고개를 숙였다. 나는 그 여인으로부터 감사하다는 말을 듣게 안 되어있다. 실은 안동에서 들어오는 차는 30분 후면 용산역에 와 닿는다. 그렇게 일러준 것을 곧 후회했으나 이미 늦어 있었다.

그 여인은 이미 나의 시계에서 사라지고 없었기 때문이었다.

몇몇 사람들이 나를 역원으로 잘못 보았다는 달갑지 않았던 감정을 그 여인에게로 퍼 부은 결과가 아니었을까? <이 양반들이 왜 나를……>하던 잠재의식이 하필이면 왜 그 여인에게 가서 폭발이 되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며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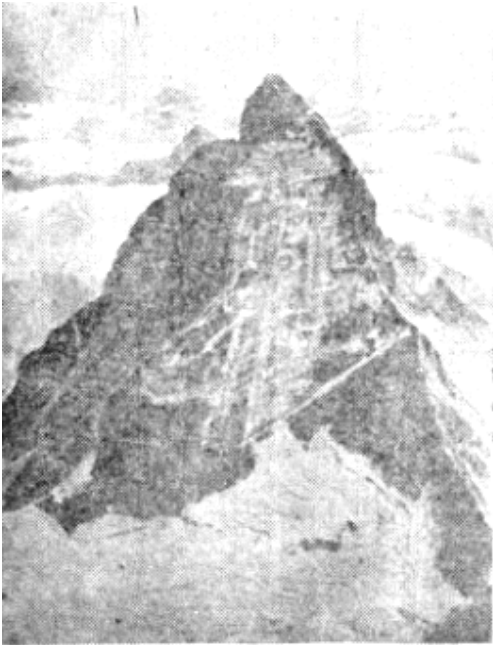
한강을 건너가는 버스 안에서는 늘 무엇을 되살려 생각하는 것이 있었는데도 이날따라 그 여인의 생각이 좁은 두뇌를 빈틈없이 오가는 바람에 어떻게 한강교를 건넜는지도 몰랐다.

방에 들어서자 옷을 갈아입는 버릇은 오랜 세월을 두고 자라온 것이었으나 이 날은 모자를 쓰고 정복을 입은 채로 거울 앞에서 보고 싶었다. 거울에 비친 나의 유니폼—. 나는 거기서 유니폼이 갖는 공통점을 새삼스레 느낄 수가 있었다. 경찰의 유니폼이나 역원의 유니폼과 군인의 유니폼은 물론 다르다. 그러나 유니폼의 구별에 세련되어 있지 못한 이들에게는 다만 하나의 공통점 모자를 쓰고 단정한 단추가 달린 이런 옷을 입은 사람이면 환경과 주관적 필요에 따라 자의적으로 자기에게 편리한 대로 계속해버리고 마는 편리한(?)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아래위로 거울에 비친 나의 모습을 훑어보던 나의 눈에 어느새 다시 명랑한 화기가 돌았다.

’그렇다. 나는 너무 유니폼의 일면적인 면만을 고집한 것이다. 유니폼은 어느 것이나 모두 국민을 위한 국민의 봉사자로 있는 것이다. 거울 건너편에는 불과 몇 분 전에 나의 통명스러운 대답에도 “고맙습니다.” 라는 말을 잊지 않았던 그 여인의 모습이 떠올랐다. 나는 화끈거리는 얼굴을 느꼈다. 그네들은 나를 잘못 본 것이 아닌 것이다.

간접은 노린다.
너와 나의 말문을
<방첩표어>



<세계경이순례>

알프스의 호랑이

— 마타혼 —

리차드 하리바톤

알프스! 이 산맥의 이름이야말로 그 옛날 고대로마시 대부터 스릴과 도전으로 알려져 왔다. 2,000년이라는 세월에 걸쳐 현기증을 느끼게 하는 산봉이나 빙하, 심산 유곡에 있는 호수, 격류의 시냇물, 낙엽송의 삼림, 꽃 피는 초원 등 이 황홀한 대자연은 모든 사람들의 환상을 자극하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알프스는 유달리 높은 것은 아니지만 (산봉 몇 개를 제외하고는 로키 산맥의 산들보다 얇은 것들뿐이다.)전체적으로 볼 때 모든 것이 극적이고 위풍이 당당하며 눈부신 흰 눈에 덮여있는 산봉들이 물결처럼 겹쳐져 보인다. 나는 소년 시절부터 이 산맥에 마음이 끌려 학교의 내 책상 위에는 그 최고봉의 하나인 마타혼을 그린 포스터가 걸려 있었으며 거기에는 ‘알프스의 호랑이’라는 표제가 붙어

있었는데 이 눈에 덮인 산을 볼 때마다 당장이라도 스위스로 가서 이 알프스를 올라가고 싶은 생각에 사로잡힌 것이었다.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드디어 그 산 밑에 섰을 때 마타혼은 나를 실망시키지는 아니하였다. 책상 위의 그림으로 본 것 만으로서 이 산이 유달리 높고 그 압력이 얼마나 수직으로 치솟아 있는지를 알 수 없었다. 마타혼을 실제로 보았을 때 평소에 생각한 것보다 훨씬 위험한 산인 것을 알게 된 것이다.

나는 그것을 올라가는 것이 지상에서의 나의 마지막 사업이 되는 한이 있더라도 굳이 그것을 성취하려고 결심하였다. 마타혼이 세계 산악사상에서 악명 높은 것이라는 것이 나의 용기를 무디게 하지는 못 하였다. 나는 마타혼의 희생자들을 묻은 묘지가 있음을 알고 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사실도 나에게서는 더 흥미를 돋우게 할 뿐이었다. 도대체 위험 하지도 않은 산을 올라가려고 하는 자가 있겠는가 말이다. 1865년까지는 마타혼(4,482M)은 정복할 수 없는 절망적인 산이라고 생각되어왔다. 알프스 산맥 중에 다른 거봉, 예컨대 알프스에서 제일 높은 산봉인 몽블랑 (4,810M)을 비롯하여 몬테로자(4,638M), 돔(4,553M), 바이스혼(4,512M), 알치혼(4,82M) 등 모두가 그보다 훨씬 옛날에 정복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마타혼 만은 세계 등산가들의 정복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었다.

그 정상 가까이 이르면서도 목적을 이루지 못 한 채 생명을 빼앗긴 모험가는 수 명을 헤아리고 구태여 그러한 모험을 하려는 사람은 같은 운명에 빠져 든 것으로 알고들 있었다.

1865년 뮌파라는 유명한 등산가가 인솔하는 4명의 노련한 영국 등산대가 이 마타혼을 정복하려고 스위스를 찾아왔다. 일행은 세 사람의 스위스인 안내인과 더불어 산기슭에 있는 체르마트 마을을 출발하였다. 마을 사람들은 대단히 언짢은 마음으로 전송을 하였는데 등산대원들은 미리 정해진 운명을 향해서 전진하는 거와도 같았다.

이 용감한 7명의 등산대원들은 한 가닥 튼튼한 줄로 서로의 몸들을 결합시켜 한 걸음 한 걸음 정상을 향해서 올라갔다. 그들이 선택한 정상에의 길은 험준한 피라미드형의 세 측면 중에서 두 측면이 마주치는 분수선을 따라 올라가는 것이었다. 일행은 가까스로 정상에서 180M 지점까지 도달할 수가 있었다. 여기까지 올라온 사람은 그전에도 있었는데 거기서 부터가 굉장히 험난한 곳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상 정복을 단념하고 여기서 되돌아서 던가 혹은 무리하게 강행을 하다가 생명을 잃어 아직껏 정상에 도달한 사람이 없었던 것이다. 그곳은 ‘단애(斷崖)의 위험지’로 불렸으며 분수선이 되어있는 곳은 수직으로 승강하기보다도 더욱 인난(因難)한 형편이었다.

그러나 이들 등산대원들은 거기서 머물려고 하지 않고 바위에 달라붙어 죽을힘을 다해서 올라간 끝에 드디어 산정의 눈을 헤치면서 절정에 도달할 수 있었다.

이렇게 해서 이 폭군과도 같은 마타혼도 영국 등산가들에 의해서 정복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일행은 하산 때 생각지도 않은 재난을 당했다. 공교롭게도 ‘단애의 위험지’에 이르렀을 때 일행 중 가장 젊은 케임브리지 대학 학생이 얼음에 미끄러져 낭떠러지에 떨어짐으로써 한 줄에 묶여있던 일곱 사람이 차례차례로 끌려 내려가 불과 뒤편과 두 사람의 안내인을 남긴 채 다른 사람들은 모두 허공에 매달리게 되었다. 나머지 사람들은 필사적으로 버텨 보았으나 일순 팽팽히 쟁겨졌던 줄이 두 동강이 나면서 세 사람의 영국 사람과 한 사람의 안내인은 아득한 1,200M 계곡으로 떨어졌다.

나 자신 이것에 올라간 것은 한 마디로 말해서 나의 생애에 있어서 잊을 수 없는 커다란 사실의 하나다.

마타혼에 올라간다는 것은 실로 나 자신은 물론 다른 동료들에게 있어서도 1센치 1센치가 투쟁의 연속이었다. 이 산으로 말하자면 전에 정복한 바 있는 멕시코의 포포카테페틀 산보다 900M나 얇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험난해서 몸이 피로하기가 이만저만한 것이 아니었다. 우리들을 로프로 결합해서 자칫하면 묘지행이 될 뻔한 것을 그때마다 저지해준 유능한 안내인이 없었다면 도저히 우리들은 정상까지는 갈 수 없었을 것이다. 마타혼의 정상을 정복하고 무사히 호텔에 돌아왔을 때는 전신이 쭈시고 아파서 한 때는 움직일 수도 없게 되어 두 번 다시 이 산에는 도전하지 않겠다고 마음으로 맹세까지 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그것도 상당히 오래된 이야기로 마타혼에서 겪은 쓰라림은 어느 정도 기억에서 사라지기는 했으나 새삼스럽게 그때 맛본 생생한 스릴을 회상하게 되었다. 만약 여러분이 기회를 얻어서 그 산을 올라가려고 한다면 나도 같이 따라가 보고자 한다. 란스에서 제네바 호반을 따라 남하하여 다시 버스프 강의 좁은 협곡을 지나면 체르마트에 도착한다. 이 매력적인 산전은 쾅쾅 열어붙은 산봉에 둘러싸여 골짜기 속에서 떨고 있는 셈이다.

지금 우리들 앞에는 아침 햇살을 받으면서 지구를 조소하는 양 위엄 있게 솟아있는 산봉이 보인다. 그것이 우리들이 지금부터 올라가려는 마타혼이다.

여기서 우리들은 한 사람 앞에 한 사람씩 긴장한 안내인을 고용하고 무거운 등산화를 비롯해서 얼음을 깨트릴 도끼, 핏겔 등 소용되는 물건들을 준비한다.

처음에는 비교적 수월하게 송림(松林) 속으로 뚫린 언덕길을 올라가게 된다. 하루 종일 이러한 언덕길을 올라가다 보면 약 2,700m되는 지점에서 부터는 조금씩 공기 희박에서 오는 호흡 인난을 느끼게 된다. 오후 늦게 3,300m지점 근처에 이르면 등산가들이 하루 밤을 쉴 수 있는 통나무집에 다다르게 된다. 이 근처에 이르면 숨이 차고 몸이 녹초가 되어 과연 이렇게 해서 끝내 올라갈 수가 있을 것인지 걱정이 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올라온 계곡 아래를 내려다 볼 때 모든 피로를 잊어버리게 된다. 이 통나무집에서 까마득한 아래쪽에 빙하지대가 보이며 먼전에는 반월형의 눈 덮인 단애가 어렴풋이 보이고 한편 1200m 꼭대기에는 마타혼의 정상이 흡사히 우리를 내려다보고 그곳에 머물러 있으라고 경고라도 하는 것처럼 석양에 반짝이고 있다.

새벽 세 시까지 잠자리에서 휴식을 취한 다음 다시 출발하게 된다. 이렇게 새벽 일찍이 출발한다는 것은 현명한 방법이었다. 해가 떠서 얼음을 녹이게 되면 2종의 위험이 따르기 때문에 그 전에 될 수 있는 대로 더 올라가는 것이 이렇게 험준한 산의 등산 방법이다. 우리들은 한 사람씩 줄을 가지고 안내인과 몸을 붙들어 매어 살을 에는 듯한 주위를 무릅쓰고 별빛을 의지해서 단애를 기어 올라간다.

우리들은 그 옛날 뮌파 일행이 올라갔던 길을 따라 같은 산봉을 올라가는 것이다. 한 걸음 한 걸음 위로 올라감에 따라서 인난은 증가해 간다. 그야말로 조심스럽게 거의 담벼락을 타고 올라가 듯 하는 것이다. 지금 올라가고 있는 바위 등은 폭이 60cm밖에 안 되어 자칫 잘못하여 미끄러진다면 600M를 그대로 떨어질 그러한 곳이다. 선두에 선 안내인은 도끼로 발붙일 곳을 만들면서 전진한다. 불과 1미터 전진하는데 손발은 물론 무릎, 손뚱, 이빨까지도 쓰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들은 특히 위험한 장소에 다다랐다. 나는 그 장소를 잘 기억하고 있다. 그 까닭은 내가 처음으로 마타혼을 올라갔을 때 이 지점에서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여 미끄러지는 통에 목숨을 잃을 뻔 하였는데 안내인이 재빠르게 줄을 잡아당겨 끌어올렸기 때문에 죽음을 모면할 수가 있었다.

우리들은 2, 3분마다 숨을 돌리기 위해서 멈추지 않으면 안 된다. 이때 머리는 어지럽고 피로 때문에 몸이 저절로 떠올리게 마련이다 그러나 등산의 인간성은 이제 겨우 시작 되었을 뿐인 것이다. 이제부터가 정말 어려운 것이다. 원판 등산 대원 네 명의 생명을 잃어버린 위험지점에 이르렀다 설상가상으로 단애로부터는 살을 에는 듯한 눈보라가 불어와서 몸을 쾅쾅 얼어붙게 한다. 우리는 이러한 강풍에 부딪쳐 바위에 착 달라붙은 채 아래를 내려다 볼 수조차 없는 것이다. 그러나 뮌파 일행이 이곳을 정복한 뒤에는 이 위험지점의 특튀어 나온 바위 위에 커다란 쇠못을 박아 거기에 케이블이 매달리게 되었다. 이 케이블을 잡고 올라가면 좋은데 우리들은 추위와 피로 때문에 아무래도 혼자서 올라 갈만한 힘이 없다. 안내인들은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선 저이들이 먼저 올라가서 케이블에 매달려 있는 우리들을 끄집어 올려 주는 것이다. 정상까지의 마지막 2-300M로 말하면 전행정(全行程) 가운데서 가장 험난할 뿐 아니라 눈도 많이 쌓여 있는 것이다. 금방 정상에 도달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것을 견딜 수 있을 것인지 실로 막막한 것이다. 그러나 안내인들은 휘몰아치는 바람 속에서도 “앞으로! 앞으로!” 라고 소리친다. 우리들은 모든 것을 체념한 듯이 눈을 지그시 감은 채 필사적으로 싸움을 계속한다.

(P93으로)

바위에의 기도

박기원(朴琦遠)



돌.
돌 같이 굳어져
바위가 되고 싶습니다.

심 심 산중 고목나무 아래
넓적이 터진 자리 잡고 앉은
우람히 치솟은 크낙한 몸체.

비바람 천년에 홍수는 밀려와도
바위 같은 궁지를 짐짓 버티고
병곳이 웃음지며 있고 싶습니다.

꽃 진다 산새는 울고 갈지라도
령(嶺) 너머 한가히 흰 구름 돌면
당홍빛 노을에 등을 조이며.

고목에 때 있어 햇순 돌아라
바위 옷 겹겹이 몸에 걸치고
목석의 정의도 번듯이 누어.

서글퍼 살다가 가는 사람들이며
깔깔대고 오는 옛된 얼굴들을
묵묵히 바라보며 있어야겠습니다.

웅장한 밀림에 소낙비 개이고
동트면 구름 바다 줄줄 연봉을
학 되어 둥둥 날어 갈거나.

먼 뒷날 욕된 이름이 내게 올지라도
저 은하물 출렁이는 이 잔잔한 위치에 서서
나는 나대로 여기 멋지게 있어야겠습니다.

주체(主體)에서
현재(現在)에의 과정(過程)

—키에르케고르/니체/하이데거—

김형석(金亨錫)
〈연세대 교수〉

실존 철학은 여러 가지로 분류되고 있다. 문제의 중심과 학문적 표준을 어디에 두는가에 따라 분류가 가능해지는 때문이다. 흔히 유신론적인 실존과 무신론적인 실존을 구별하기도 하며 고립된 실존과 사회적 실존을 비교해 보기도 하는 것이 그 대표적인 태도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우리는 오히려 실존철학의 역사적 과정을 그대로 더듬어 봄으로써 문제의 발단과 변천, 방법의 심화와 그에 따르는 체계의 성격을 더듬어 볼 수 있다면 더 의의 있는 일이 아닐까 한다. 어떤 문제를 고찰하던지 체계적인 비교와 역사적인 발전을 견비해야 하지만 후자는 전자가 지니지 못 하는 생명력과 현실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경우가 적지 않다.

실존철학의 처음 대표자는 역시 키에르케고르와 니체이다. 그러나 이 두 사람이 살아있을 때는 실존이라는 개념이 역사적인 것으로 되지도 못하였으며 두 사람의 사상과 학문 사이에는 아무런 연관성도 없었다. 키에르케고르는 덴마크의 종교적 분위기와 헤겔 셸링을 중심으로 하는 독일 관념철학을 비판 배격하여 그것들을 종합 지양시킨 하나의 새로운 철학과 신학의 방향과 내용을 얻도록 노력했을 뿐이다. 독일관념론 자체가 전통적인 기독교 정신과 연관성을 가지고 있었으며 키에르케고르는 자신이 신학과 목사직에 뜻을 기울이고 있었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에서는 키에르케고르의 철학보다도 기독교관이 문제의 핵심이었다. 그의 철학은 기독교를 이해하는 전제와 방법의 위치에 있으며 모든 목적은 어떻게 기독교의 사상과 정신이 바로 이해되어 그것이 철학적 사색과 일치될 수 있는가함에 있었다.

그러한 점에서는 전통과 당시 철학계의 공통성을 떠난 독자적인 사상가로 자처하였음이 저 지당한 처사였다. 뿐만 아니라 키에르케고르의 저술과 학문의 용어, 분위기는 완전히 덴마크의 것이었다. 19세기 전엽의 고독한 덴마크의 사상가가 그대로 유럽 대륙에 전해질 리는 만무했다. 키에르케고르가 1855년에 죽었지만 그때 니체는 겨우 11살의 소년이었다. 니체가 1900년에 죽었다하나 마지막 11년은 정신병자의 생활을 했기 때문에 사상적으로 키에르케고르와의 관계를 가진 일은 없었다.

그러므로 이 두 사람은 제각기의 사상적 상황 속에서 독자적인 내용을 전개시켰을 뿐이다. 1900년이 지나면서 키에르케고르의 저서가 독일어로 번역되기 시작했고 아직도 살아있는 신학자 칸 발트가 1919년에 유명한 『로마인서』를 쓴 것이 키에르케고르의 독일적 이해와 결실의 효시가 되었다. 발트는 키에르케고르의 신의 문제를 얻어 <신의 말씀>으로서의 신학을 체계화한 때문이다. 그러나 이때는 벌써 독일학계에 미친 니체의 영향은 대단한 것이었다. 전성기를 이루고 있던 생철학(生哲學)이 니체의

영향에서 생겨난 때문이었다. 여기에 전통적인 독일철학을 받아들이면서도 키에르케고르의 인간의 문제를 취급한 특수한 철학자가 나타났다. 그가 곧 마르틴 하이데거였던 것이다. 1917년의 『존재와 시간』은 그의 대표적인 저서일 뿐 아니라 우리에게 최초의 실존철학적 주춧돌을 놓아주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하이데거보다는 연장이면서 약간 늦게 철학계로 진출한 야스퍼스는 즐거이 실존철학이라는 간판을 들고 나섰으며 실존철학은 키에르케고르와 니체의 사상을 계승하는 것이라고 밝히기에 이르렀다.

이렇게 본다면 19세기 전반기에 던져진 실존의 문제들은 긴 역사의 흐름을 거쳐 20세기 초기에 그 체계적인 건설과 내용을 보기에 이른 셈이다. 우리들이 키에르케고르 니체 하이데거를 실존 전반기의 철학자라고 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러므로 키에르케고르와 니체 사이에는 직접적인 관계도 없으며 근본적인 정신의 일치점도 많지 못하다. 그러나 두 사람이 다 예민한 시대적인 감각을 가지고 있었으며 공통과제였던 헤겔이나 셸링에 대하여 반항적이며 새로운 시대의 모색을 전개시킨 면에서는 일치점을 가지고 있다. 키에르케고르는 독일관념론을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비판 공박했으나 니체는 같은 길을 쇼펜하우어를 통해서 전개시켰다. 만일 쇼펜하우어 니체가 없었던들 생활학을 자라리 못했을 것이며 따라서 실존에의 과정도 어려웠을 것이다.

그렇다면 칸트에서 헤겔에 이르는 독일 관념론에 대하여 키에르케고르가 항거하여 얻은 점은 무엇이며 쇼펜하우어 니체가 헤겔을 부정하여 얻은 것은 무엇인가? 한마디로 말해서 키에르케고르는 객관적인 것을 버리고 주체적인 것은 택했으며 니체는 합리적인 지성을 버리고 긍정하는 의지를 택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사상사적 변천이 서구의 근대적 성격을 떠나 현대적이며 실존적인 철학의 방향을 택하도록 만들었다.

실존철학이 본질보다 실제, 지성적인 객관성보다 주체적인 자아성을 중심으로 하는 철학이라는 근본정신은 벌써 두 선지자를 통하여 확립된 셈이다. 뿐만 아니라 두 사람에게 공통되는 특징이 있다면 본질에 대한 존재를 실재에서 주체적인 인간 고립된 자아로 이끌어 들였다는 점이다. 키에르케고르가 신 앞에 홀로 서는 자아를 논하며 니체가 영구히 윤회하는 세계 운명에 과감히 대결하는 초인을 최후의 인간으로 보고 있지만 이 둘은 다 고립된 개체들의 실존상이다.

그러면 최초의 실존적 과제를 제기해준 키에르케고르의 주체적 존재란 무엇인가? 그것은 간단한 원리에 따른다. 모든 철학의 문제는 주체로서의 자아에 속해야 하며 자아의 본질은 정신이다. 그런데 정신은 언제나 스스로를 자각하는 대립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변증적인 발전과 향상의 법칙에 따른다. 자기 자신에게 묻고 대답 할 뿐 아니라 자기 부정을 통하여 보다 높은 자신으로 올라가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이 자신을 자각하면서 부정하는 정신의 질적인 변증법을 전체적이며 근본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어떤 내용을 가지게 되는가? 여기에 나타나는 것이 다름 아닌 미적인 감성의 단계와 윤리적인 양심의 단계이다. 우리들의 생은 항상 이 두 가지 태도의 틈바구니에 있으면서 이것인가 저것인가를 되풀이한다. 그러나 그 어느 것도 진정한 해결을 주지 못한다. 모순과 긴장을 내포할 뿐 참다운 생의 정착을 가져오지는 못한다. 여기에 이 둘을 지양하는 제3의 삶의 태도가 나타나야 한다. 그것이 곧 종교적인 생의 위치이다. 여기에 이르면 벌써 감정적인 미나 윤리적인 의무감을 넘어 삶의 최종적 단계에 이르게 된다.

그러나 이 종교적 단계에도 둘이 있다. 윤리적인 종교 이성적 신앙에 위하는 종교A의 단계와 종교B의 단계이다. 전자는 진정한 윤리 이성적인 신학이 윤리적인 과정을 밟아 도달 할 수 있는 내용이다. 인간이성의 주체적인 윤리관이 긍정 포함되는 넓은 의미의 종교이다. 그러나 후자인 종교B는 초월적인 신앙에서만 주어지는 이성에 대한 계시 인간적 의무보다 신의 명령에 복종하는 절대적인 종교의 문제이다. 인간본위에서 신이 본위가 되며 주체성의 진리가 신적인 객관적 진리로 변하게 된다.

그리고 이 종교B에 도달하는 정신적 과정 인간의 본질적 범주가 다름 아닌 우울 불안 절망적인 것이다. 인간성 한가운데 자리 잡고 이 우울 불안 절망은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운명적인 정신의 질환이다. 그리고 이러한 인간의 본성을 신 앞에서 느끼게 될 때 우리는 그것들이 죄의 내용으로 변질됨을 깨닫게 된다. 종교적인 죄가 인간의 절망 불안을 자각하게 만들어 준다. 따라서 키에르케고르가 원하는 최후의 과제는 어떻게 이러한 정신적 질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치유될 수 있는가? 함이다. 그의 후반기의 사상이 주로 신학적인 문제를 취급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렇게 본다면 키에르케고르의 주체성이란 존재에서 인간, 인간에서 자아, 자아에서 정신, 정신의 종교적 과정의 순서를 밟은 셈이다. 정신은 고립된 자아의 문제이면서도 그 속에는 무한히 넓은 왕국을 지니고 있다. 변증법 단계들이 바로 여기에 속한다. 그러므로 그의 인간적 실존은 언제나 윤리적인 문제로 향하며 윤리적인 것의 완성 결론을 깊은 종교 속에서 얻고 있다. 다시 말하면 키에르케고르의 주체란 이론적인 것에서 윤리적인 것을 지향하는 주체성이다. 그가 이론의 유희, 합리의 편협성을 강하게 배격하면서 윤리적인 것만이 참 진리의 길이라고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반 체계 초 논리를 뜻하는 것도 실천과 윤리가 아니면 주체적인 것이 못되며 주체적인 것이 아니면 진리가 못 된다고 믿는 때문이다. 객관적인 진리나 이론의 체계는 쇼원도의 진열품 같아서 불필요한 장식에 지나지 않는다고 본다.

실존의 발단은 이러한 키에르케고르의 정신에서 일어났다.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고 되풀이 했지만 키에르케고르의 자아분석은 주체의 문제를 부각시킬 수 있었던 동시에 종교 앞에 부정, 좌절당하는 한계의식까지도 내포하고 있다. 그의 불안과 절망의 인간범주는 누구도 회피할 수 없는 정신적 과제로 남겨졌다. 우리는 키에르케고르를 통하여 '절망'이라는 '죽음에 이르는 병'을 발견했으며 그것이 바로 나와 현대인의 질병임을 느끼게 되었다. 현대철학이 키에르케고르의 절망으로 시작되었다는 생각도 일면 수긍되어 좋을 것이다.

키에르케고르에 비하여 니체는 약간 다른 방향을 택했다. 내성적으로 자아를 분석해보는 대신에 외형적으로 자아를 긍정하는데 집중했다. 기독교를 비롯한 모든 종교와 그에 따르는 온갖 모럴을 시대적이며 평범 선 이하의 인간적인 것이라고 단정했다. 이미 창조적인 능력 영원한 것의 용기를 상실한 무가치한 내용이라고 부정했다. 이제는 낡은 가치의 표준판을 완전히 부숴버리고 새로운 가치의 표준판을 창조해야만 한다. 지성적인 합리의 유산은 의지와 강한 생명의 발전을 위한 방편에 지나지 못한다. 인간들이 삶의 편리를 위하여 기계를 만들 듯이 사고의 편리를 위하여 합리를 이용한 것뿐이다. 그것은 진리라기보다 삶의 편리에 봉사하는 수단에 지나지 못한다. 그러면 삶의 주체는 무엇인가? 권력의지이다. 의지가 생의 근본이다. 이 의지를 창조하며 파괴와 건설을 무한히 반복하는 것이 인간의 본상이다. 그것을 감행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것은 새로운 가치관의 확립 그에 따르는 창조적인 의지가 필요하다. 이것을 갖춘 인물이 있어 모든 평범의 소인들을 이끌지 않으면 안 된다. 그 사명을 감행하는 인간이 초인이다. 그러나 이 초인의 운명은 세계 운명에 따른다. 초인들은 영구히 회귀하는 세계 운명에 흡연히 참여함으로 스스로의 사명을 다한다. 초인들은 하늘의 뜻을 땅의 의미로, 지를 의지로, 합리를 생명으로, 개인들의 운명을 윤회하는 세계운명으로 이끌어간다. 키에르케고르가 기독교적인 귀이를 주장한 데 비하여 니체는 희랍적인 세계관으로 돌아갔으며 죄인으로서의 자아가 문제를 지닌 주체라고 보는 데 비하여 니체는 초인이 됨으로써 현실의 인간성을 벗어 버리려 했다. 키에르케고르의 신 대신 세계 운명을 택한 때문이다.

그러나 이 두 사상가의 문제는 종합되었고 다시 새로운 문제로 지양되었다. 그 책임을 수행한 사람이 하이데거와 야스퍼스였다. 하이데거는 딜타이를 통하여 니체적인 생의 문제를 받아들였고 키에르케고르의 인간의 문제를 얻을 수 있었다. 에드문트 후설의 현상학적 방법을 얻은

그는 비로소 실존적인 철학의 체계를 형성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하이데거의 사상도 두 가지로 나누어 보는 편이 좋을 것이다. 그의 ‘존재와 시간’을 중심으로 삼는 전기의 철학과 그 뒤부터 오늘에 이르는 후기의 사상이다. 그렇다고 이 구별이 절대적인 것도 아니며 서로 대립되는 내용도 아니다. ‘존재와 시간’이 보다 실존적인 요소를 풍부히 가지는 현존재의 분석과 범주를 통하여 인간존재의 실상을 밝혀준 것이라면 후기의 철학은 현존재 즉세계내존재가 어떻게 참 존재로 도달 하는가 함보다 어떻게 진정한 존재가 재(在)하는 것과 관계를 가지는가 함에 비중을 두었다.

그 순서가 어떻게 간에 하이데거가 문제 삼은 것은 언제나 전통적 철학의 과제인 존재의 문제였다. 그러나 철학의 임무는 과거와 같이 존재를 증명하는 것도 아니며 존재를 이론적으로 체계 지어 놓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존재로 하여금 존재 스스로를 밝혀 나타내 주면 된다. 존재가 무엇인가를 보여주면 그것으로 족하다. 그렇다면 스스로를 밝혀 줄 수 있는 존재란 무엇인가? 그것은 다름 아닌 우리들의 현실존재이다. 즉 현존재인 것이다. 삶의 일상성이며 자아의 존재상 그 자체를 보여줌이다. 주객대립의 인식론적 문제에 국한될 필요도 없으며 주어진 원리에 추종할 의무도 없다. 삶이라는 현실존재의 모습과 내용을 그대로 보여주며 밝혀 놓으면 된다. 현존재의 존재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으며 그것이 무엇을 뜻하고 있음을 보여주면 그것이 곧 실존시가 되는 동시에 문제의 기초와 발단이 된다.

이렇게 존재를 물어나갔을 때 하이데거가 얻은 결론이 무엇인가? 여기에 나타난 것이 과거의 철학자들과 다른 특이한 내용이었다. 키에르케고르의 사상이 되살아났으며 세계전쟁을 계기로 하는 시대적 성신이 강렬히 부각되어 졌다. 삶의 일상성을 위하여서는 세계내존재가 그대로 해명되어야 하며 시간적 지평이 문제의 기반이 되지 않을 수 없다고 보았다. 공간이 삶의 터전인 존재로 역사의 생의 주변인 동시에 상황조건인 시간으로 나타난다. 여기에 언어인 것이 다름 아닌 ‘관심’, ‘배려’로서의 존재이다. 우리의 사회적 공존성이 항상 ‘배려’로 지속되고 있으며 생의 지속과 연관성은 끝없는 관심으로 전제된다.

이러한 위치에 머무는 우리들의 현존재는 스스로를 발견했을 때 이미 주어진 존재, 던져진 존재임을 알게 된다. 모든 자이는 ‘피투(被投)’적인 존재자이다. 즉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으나 주어진 상태 어떤 기분 속에 던져져 있다. 세계 속에 이미 있는 것으로서의 존재자이다. 그렇다고 이 존재자는 죽은 것도 아니며 던져진 물질도 아니다. 현존재자로서의 자이는 스스로의 존재를 요해(要解)하며 항상 주어진 현실적 조건을 받아들이면서도 본원적인 자신으로 돌아가려고 한다. 언제나 현실의 자기보다 앞서서 스스로를 초월하여 근원적 존재에로 지향하고 있다. 하이데거가 Entwurf라는 개념을 사용하는 것은 현존재는 자신으로 있으면서 스스로를 앞서 그 어디 엔가로 스스로를 투기(投企)하는 때문이다.

이와 같이 던져진 존재이면서도 스스로를 본원적인 것으로 투기해 보는 우리들의 현존재는 또 혼자 있는 고립된 존재만은 아니다. 언제나 누구와 더불어 있으며 세계 안에서 다른 존재자들과 접촉 상봉해 가는 존재이다. 그 때문에 대개의 존재자는 그 주변적인 것 속으로 빠져들어 가거나 퇴락(頹落)의 상태로 화해버리기 쉽다. 현존재자로서의 자이는 본래의 자존존재를 잊어버리고 주변의 유희와 위안에 잡혀 자아성을 상실해 버리고 만다. 이러한 삶, 즉 현존재의 모습을 단적으로 표현 지적한 것에 관심으로서의 현 존재자였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현존재는 시간적인 존재이다. 평범하며 일반성을 지닌 존재로 머물면서도 항상 본래의 존재자아의 근원이 되는 존재의원체로 돌아가려고 애쓴다. 그러나 앞에 나타나는 것 언제나 시간적 장래를 가로막는 것은 ‘죽음’이다. 이 죽음은 결정적이며 내던질 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앞에 두고 스스로의 양심의 고백을 얻게 된다. 그가 ‘선구적 결의성’을 되풀이하는 뜻이 여기에 있다. 앞에 있는 죽음으로 먼저 나감으로써 현재의 위치를 깨닫게 되며 비로소 어떤 결의를 내리게 된다.

하이데거의 시간관이 과거를 엮은 채 앞을 향하므로 현재를 결정짓는다는 모습이 그것을 말함이다.

어쨌든 하이데거가 뜻하는 현존재는 관심으로서의 존재이며 현존재가 뜻하는 바는 어떻게 근원으로서의 존재, 있어야 할 본래의 존재로 돌아갈 수 있을까에 있었다. 우리들이 그를 대표적인 실존철학의 한 사람으로 보는 근본 이유도 ‘존재와 시간’에 나타난 이러한 존재의 실존적 분석과 해명 때문이다. 그런데 최근의 하이데거는 이러한 방향을 약간 바꾸어 진리란 밝혀진 존재의 내용이어야 하나 존재는 모든 존재자들을 존재자 자 되게 하는 배후의 것 그 존재 때문에 현존재가 존재자가 되는 힘으로서의 실재라고 본다. 그러면 현존재로 하여금 존재자가 되게 하는 존재, 근원적인 힘으로서의 존재란 무엇인가? 이것은 너무 어려운 문제이다. 이론적인 내용으로 밝혀질 것도 못 되며 어떤 개인의 뜻으로 해명될 수도 없다. 그러므로 그 표현은 시적인 것이 되며 하이데거 자신은 그것을 예고하는 진리의 문지기로 만족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존재에서 현존재로 머무는 참된 방도는(Ek-sistenz) 존재의 광명 속에 서는 일이다. 존재에 관한 사상 진리 삶은 비로소 하나로 된다. 그리고 하이데거에 의하면 역사의 참된 철학자들은 모두가 이러한 길을 걸어왔다는 것이다. 때로는 하이데거가 존재는 무와 같은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존재는 스스로의 운명적 본질 그대로 어떤 존재자를 앞으로 내밀어 있게 한 뒤에는 스스로는 뒤로 물러가 숨기 때문이다. 마치 희랍어의 존재를 표시하는 $o\ \pi$ 라는 말이 분사로 있어서 존재자를 의미하면서도 있음이라는 동사를 겸하는 것과 같은 뜻이다. 그러나 하이데거의 이러한 존재해명의 문제는 삼가기로 하자. 그 자체의 설명을 위하여서도 긴 지면과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우리들의 뜻 하는 바는 그 자신보다도 실존의 문제에 있는 때문이다. 그가 오늘을 존재라는 고향을 상실한 시대이기 때문에 잃어버린 존재를 다시 찾아 다가오는 축복의 아침을 서양이 맞이해야겠다는 뜻을 전함에 이르러서는 희랍적인 사상과 기독교적인 역사의 종말관을 종합시킨 실존의 이념을 말해 주는 느낌도 있다.

그러나 우리들의 목적은 키에르케고르의 실존적과제였던 주체적인 것이 어떻게 하이데거에 이르러 형이상학적인 존재에의 내용으로 전개되었는가를 봄에 있었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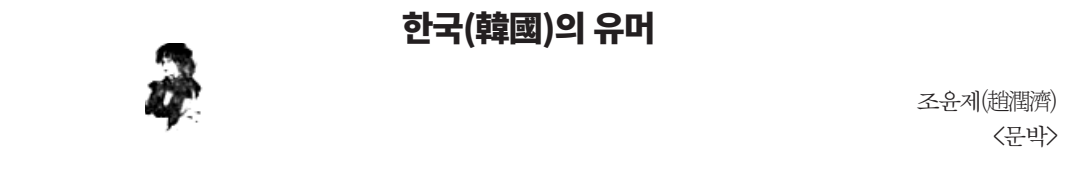


이천오백만년 전의 외상 값

40년 전에 죽은 아일랜드의 천문학자 수학자로서 케임브리지 대학의 교수였던 불경이 어느 날 레스토랑에서 점심을 즐겁게 마치고 점심 값을 치르려고 카운터에 앉은 마담에게 가서 하는 말이 “아주머니 오늘 점심은 여간 맛있게 먹지를 았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천문학 강의를 좀 하겠는데 우리 천문학에서는 세상만사가 2천 5백년을 일주기로 하여 돌고 돕니다. 즉 그만큼 시간이 흐르면 모든 것이 본래의 상태로 돌아옵니다. 아주머니 그러니 2천 5백만 년 후인 오늘에는 지금과 같이 내가 여기서 점심을 먹게 될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아주머니? 그러니 그때까지 오늘 내가 먹은 점심 값은 외상으로 해 주십시오, 어떻습니까?”

케임브리지 대학의 유명한 교수의 천문학과 외상값 이야기를 듣고 난 레스토랑의 마담이 얼굴에 미소를 지으면서 “암 좋고 말고요, 지구와 별과의 거리를 1m의 오차도 없이 재는 천문학 교수의 말씀인데 틀림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2천 5백만 년 전에도 선생님이 우리 집에 오셔서 오늘과 같이 점심을 드시고 외상으로 달았는데 오늘은 그 값을 치러 주서 아지요”

불 교수는 아무 말도 못하고 2천 5백만 년 전의 외상값을 치르고 나갔다.



한국(韓國)의 유머

조윤제(趙潤濟)
<문박>

요사이 세간에 ‘일소일소(一笑一笑) 일노일노(一怒一老)’라는 말이 돌아다닌다. 이것은 언제 누구의 입에서 흘러나온 말인지는 몰라도 확실히 옛말은 아니지마는 매우 재미있는 유머러스한 말이다. 그 뜻은 두 말할 것 없이 웃는데 한 번 젊고, 한 번 성내는데 한 번 늙는다는 말이 되겠거니와 대수롭지 않은 말인 것 같은데도 여기는 어딘지 진리가 숨어 있는 듯하다.

웃는다. 이것은 좋은 일이다.

또 어느 누구의 말이 웃음이란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보배요, 무기라고 하였으나 그것도 또 확실히 그러하며, 우리가 이 웃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며 다행한 일인지 모른다.

보라. 웃음이 있는 가정에는 행복이 있고 웃음이 있는 사회는 평화와 번영이 있지 않은가. 그러니 우리는 웃어야 한다. 그리하여 마음껏 복을 누리고 또 발전하여야 하겠다. 옛말에도 웃는 집에는 복이 들고 웃는 낮에는 침 못 뱉는다는 말이 있다.

그런데 우리들이 요사이 미팔군(美八軍)의 방송을 들어보면 그들이야말로 웃음이 많은 것 같다. 아침에 들어보아도 웃고 낮에 들어보아도 웃고 밤에 들어보아도 웃어, 온통 종일 웃음의 방송이 계속되어 그들은 도대체 그렇게 웃고 어찌 일을 하는 거야 싶을 때도 있다. 사실 그들은 잘 웃는 것 같다. 방송이 아니라 실제로 그들과 사귀어보나 혹은 그들과 같이 여행을 하여보나 그들은 항상 얼굴에 웃음을 풍기고 또 잘 웃는다. 이것은 물론 그들의 성격이지마는 사람의 얼굴을 대할 때도 엄숙한 얼굴을 보기보다는 웃는 얼굴을 더 보기 좋아하는 듯 하며 그들이 나의 얼굴을 대고 사진을 찍으려 할 때 웃어달라고 부탁하는 것을 나는 여러 번 당했다. 그만큼 그들은 웃는 것을 좋아하는 것 같다.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확실히 우리에게 비하면 젊다. 나의 젊어서 젊은것이 아니라 기분이 젊고 몸이 젊다. 어떤 이는 그들이 영양이 좋아서 나이 들어도 젊어 보인다고 하지만은, 그들이 젊다는 것은 단순히 영양관계 뿐은 아닌 것 같다. 그보다는 웃음을 좋아하고 항상 웃는데 도리어 젊음이 있는 것 같으니 즉 ‘일소일소’ 그것이 아닌가 싶다.

그러나 우리에게도 웃음이 있다. 미국 사람만치는 웃지 못할지는 몰라도 그래도 모여 앉으면 거기는 웃음이 있고 유머가 있다. 어느 날 몇 사람의 친구와 술집에 앉아서 술을 마시게 되었는데 한 친구A(남인 출신)가 술이 거나하니까 다른 한 친구(B)노론 출신에게 농을 걸면서 “저 계집이 너 어머니다” 하였다. 그러니까 B가 하는 말이 “글쎄 그런지도 모르지, 우리 아버지는 원체 여러 곳에 다녀서 수청기생이 많았으니까”라 하여 A는 약소(弱笑)를 하고 다른 여러 친구는 모두들 웃었다. 이것은 무슨 의미인가 하니 옛날에 남노(南老)의 시비(是非)가 대단하였었는데 남인은 주로 경상남도 일우(一隅)에 쫓그리고 앉아서 벼슬도 못하고 노론은 세를 얻어 경관 외직을 마음대로 하였으니 말하자면 B는 A에 대하여 너희들은 과거에 벼슬도 못 하고 지내오던 것이 지금에 와서 무슨 할 말이 있느냐 하는 조로서 몹시 핀잔을 주는 풍자의 유머다.

또 나에게 H라는 친구가 하나 있었다. 이 친구는 술을 좋아할 뿐 아니라 유머를 잘하여 어느 친구 집을 가던지 술을 내라 하면 아니 낼 수가 없고 심지어는 주인이 없다 하더라도 그 집 주부를 졸라서라도 기어이 술을 뺏어 먹고 가는 친구인데 하루는 종로에서 C라는 친구를 만나 “여보게 성북동(城北洞)에 문패도 안 붙인 새로 난 내방주점(술 붓는 여자는 나오지 않고

술상만 나오는 술집)이 하나 있는데 술 좋고 안주 좋기로 유명하니 오늘은 내가 한턱할 것이니 안 가겠나”라 하였다. C도 역시 술을 좋아하는 친구라 사양할 리가 없다. 하물며 자신이 사겠다는데야 더욱 마다할 리가 없다. 그리하여 C는 불감청이나 고소원이라고 H를 따라갔더니 H는 성북동 어느 골목을 들어서서 어떤 집 사랑으로 쭉 들어갔다. 들어가 보니 사랑도 깨끗이 치워놓아 암만 보아도 술집 같게는 안 보였지만은 H가 방에 들어앉자 안을 향하여 두 분 손님이니 거기 술 따뜻하게 데어서 술상 하나 내어 오라고 일렀다. 그 집에는 마침 주인은 외출하고 없었으나 일상 오는 H고 또 늘 하는 일이니까 그 집 주부는 주인이 있으니 없으나 전과 같지 술상을 차려서 식물을 시켜 내보냈다. 그리하여 술맛이 좋으니 안주가 깨끗하니 무엇이니 하면서 실컷 마시고 나와 각자 집으로 돌아갔다. 그 후 얼마 안 되어서 C와 H는 우연히 종로에서 다시 만났다. 이번에는 C가 “여보게 전날 그 술집, 집도 깨끗하고 조용도 하고 또 술 맛도 좋았으니 오늘은 내가 한턱할 터이니 가지 않겠나?”라고 하였다. H는 “그리하게나”하고 둘이는 또 성북동 그 집을 찾아갔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주인K가 집에 있었다. 그런데 주인 K와 C는 서로 잘 아는 터이었지만 H가 쭉 들어서면서 “자네도 여기 왔나”하고 앉는 바람에 C도 K를 술 먹으러 온 줄만 알고 “잘 되었네, 마침 잘 만났으니 우리 같이 한잔하세”하면서 이번에는 C가 안에 향하여 여기 손님이 세 분이니 요량해서 술상 하나 내오라 하였다. 이리하여 셋이 기분 좋게 만작근 먹고 일어서면서 C가 술 값을 치루라 하니 H가 K를 가리키면서 “이 사람이 주인이니가 술값은 이리 치르게”라 하였다. 그제야 C도 H에게 속은 줄 알고 셋이 한바탕 크게 웃었다. 실로 고창한 이야기요 허물없는 유머다.

이리하여 우리는 웃는다. 그런데 유머는 요새 사람에게 보다는 옛날 사람들에게 더 많은 것 같아 세간에는 술한 유머러스한 이야기가 돌아다닌다. 그 중에도 재미있는 것은 김수동의 이야기인데 김수동은 주머니에 돈은 없지마는 술을 좋아하여 항상 주막집에 가서 외상술을 마신다. 그래서 주모가 좋아할 리가 없다. 그러나 김수동은 무슨 수단을 써서라도 기어이 외상 술을 먹고야 마는데 하루는 또 전과 같이 주막에 가서 주모에게 외상술을 한잔 달라고 하니 술값은 갚지도 않으면서 무슨 염치로 또 술을 달라느니 하면서 술은 줄 생각도 않고 딴 일에 분망하고 있었다. 그때 마침 마당에 술밥을 써서 말리느라고 널어놓았었는데 주인이 짐간 그 자리를 뜬 틈에 돼지가 와서 그것을 주워 먹고 있었다. 김수동은 그것을 보았지만 쫓으려 하지도 않고 가만히 보고만 있었다. 그랬더니 주모가 되돌아와서 그것을 보고 황급히 돼지를 쫓으면서 어쩌면 돼지가 술밥을 먹는데도 쫓지도 않느냐고 김수동에게 불평을 말했다. 그러니까 김수동의 말이 “나는 그 돼지가 맞돈 주고 먹는 줄 알았지”라 하였다. 주모도 여기는 할 수 없이 “아이참 대단도 하오”하면서 또 할 수 없이 외상술을 주었다는 것이다.

김수동의 이런 이야기에 대하여 봉이 김선달의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다. 김선달이 하루는 친구와 어울리어 술집에게 만작근 술을 먹고 집으로 돌아가느라고 길을 나서니 벌써 통행시간이 오고 있었다. 숨으려고 해도 숨을 곳도 없고 도망을 치자니 더욱 위험하여 할 수 없이 네 활개를 짹 펴고 그냥 담에 바짝 붙어서 갔다. 그랬더니 술랫군들이 앞에 다가와서 “이것이 누구냐”하였다. 김선달은 “빨래울시다.”라고 하였다. 술랫군들이 ‘빨래가 어찌 말을 하느냐’하니 김선달이 하는 말이 “예, 바빠서 입은 채 그냥 빨아 널었습니다.”하였다. 술랫군들도 어이가 없이 “에이 고약한 놈”하고 그만 지나가고 말았다는 것이다.

이런 것이 유머인데 유머는 항상 사람을 웃기고 따라 일상생활에 있어서 긴장을 풀면서 우리의 생활을 부드럽게 한다. 이 유머는 영국사람에게 풍부하여 영국국회에서 흔히 어려운 법안이 한 마디의 유머로서 무사히 통과된다는 것은 처칠수상이 의회에서 노동당으로부터 한참 공격을 받다

그 답변을 요구하니 졸다가 펄쩍 깨는 척하면서 “이 늙은이가 귀가 어두워서 잘 못 들었다.”라고 한 번 유머를 던지는 바람에 그만 공기가 일전하여 졌다는 이야기뿐이 아니다. 그들은 항상 유머를 좋아하여 일상생활 여인교제(與人交際)에 있어서 흔히 유머를 던져 펍 그 생활을 부드럽게 할 뿐이 아니라 정치 생활에 까지도 이것을 이용하여 위급한 경우를 쉽게 타개하여 나가는 일이 많다 한다.

우리나라에도 물론 한 마디의 유머로써 위기를 타개하였다는 이야기는 얼마든지 있지만 위급한 경우에 꼭 한 마디의 유머로써 그 위기를 모면했다는 이야기에 이런 이야기가 있다. 옛날 평양의 어느 고지식한 감사가 수청기생을 데리고 같이 자는데 그 기생이 자다가 감사더러 ‘감사가 내 아들이지’하였다. 이 말을 들은 감사는 금방 노발대발하여 밤중에 관복을 정제하고 동헌(東軒)에 나와 앉아 육방관속(六房官屬)을 호통하여 갖은 형기를 꺼내라 하였다. 그러니 밝은 대낮도 아니요, 밤중에 이 호통이 나니 관속들은 무슨 큰일이 났나 하고 모두들 떨면서 감사의 명령대로 모든 형기를 뜰 앞에 버려 놓았다. 그리하여 감사는 금방, 그 기생을 꺼내어 목을 자를 판인데, 마침 감사가 오줌이 마려워 요강을 가져져오라 하여 소변을 보자니까 그 기생이 앞에 쫓아와서 감사 앞에 쑥 들어앉으면서 “이래면 날 죽일 텐가”하고 아양을 떨었다. 이 한마디에 감사는 그만 용기를 잃고 풀이 죽어져서 ‘옛 고년’하고 말았다는 것이다. 유머란 얼마나 힘 있는 것인가. 한 마디의 유머, 그리고 그에 따른 웃음이 얹히고 얹힌 어려운 문제를 순식간에 손쉽게 해결하고 죽을 뻔한 위급도 이로써 타개할 수 있다면 유머는 일부러 배워도 배워야 될 것이다. 그러나 유머란 배워서 되는 것이 아니요 천성으로서 저절로 우러나와야 되는 것이다. 저절로 우러나오는 것이기에 유머는 참말로 가치 있는 것인데, 우리나라 국민에는 다행인지는 몰라도 이 유머가 곧장 잘 천연스럽게 풍겨 나온다. 그리하여 옛날이야기에 이러한 유머러스한 이야기가 많이 있으니 그 한 둘의 예를 또다시 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유머와 생활(生活)—

전석만(全石萬)

우스워야웃는다. “웃는 집에 복이 온다.”라는 속담이 있다. 명량한 생활을 강조하고 있는 것만은 틀림없다. 하지만 사람이란 누구나 우스워야 웃는 법이다. 우스운 것도 없는데 무턱대고 웃을 수도 없으며 그렇게 웃는 사람이 있다면 아마 미친 사람이라 할 것이다. 웃음에는 물론 여러 가지가 있지만 명량한 웃음은 누구나 원하는 것이다. 우리가 강조하는 건전한 생활, 명량한 생활은 명량한 웃음 없이는 생각할 수 없다. ‘될 수 있으면’이 아니고 될 수 있는 대로 웃으며 살자고 누구나 말하지만 안타까운 노릇은 웃으며 살자, 웃으며 살자고 생각하면서도 무턱대고 웃을 수는 없다는 것이 웃음의 생리다. 더욱이 정신적 생활이나 물질적 생활에 있어서 유머러스(여유)한 점이 없는 우리 한국 사람에게는 모든 탐인(貪因)과 더불어 웃음의 탐인 일지도 모르며 현대적 상황에서 볼 때도 극도로 고조된 물질문명, 기계문명-특히 정서적 여건이 결핍된 도시생활-궁극무기로 위협하는 전쟁에의 불안의식-이러한 일반적 상황이 우리에게 우울과 신경질적 짜증을 던져줄 뿐이고 보니 “웃으며 살자”라고는 하지만 무리한 주문인 것 같다.

또 우리 속담에 “웃은 얼굴에 침 못 뱉는다.”라는 말도 있다. 이것은 선의를 의미한다. 사람은 불결할 때 침을 뱉는다. 천냥 빛도 웃음으로 갚는다는 속담도 같은 뜻이다.

한데, 그러기는 하지만 사람은, 누구나 우스워야 웃는다. 이 웃음—그것이 비록 일시적이거나 짜증, 우울, 불안, 신경질적 감정, 노여움 등에서 해방시켜 주는 이 웃음은 필요한 것이며 필요하다면 억지로라도 만들고 싶다.

그러나 웃음의 전제조건은 기쁜 일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기쁜 일이 없는데 웃을 수 없다는 것은 우스운 일이 없다는데 웃으라는 것과 다름이 없다. ‘기쁜 일’—우리의 생활 주변에는 과연 얼마만치나 기쁜 일이 있는가? 이 점에 있어서는 확실히 흉작인 편이고 이 기쁜 일의 풍작을 기다려서 웃을라치면 아마 웃어볼 기회란 그리 흔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고 산을 보고 웃을 수도 없고 들을 보고 웃을 수도 없으며 빌딩을 바라보고 웃을 수도 없지 않겠는가.

옛날에 어떤 양반의 집에서 일어난 일인데 하루는 종년이 그 상전 앞에 와서 하는 말이 “아범이 요사이 밖에 돌아다니며 남의 계집을 보고 다니는 모양입니다. 좀 불러서 매를 때려 주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좀 크게 꾸지람을 해 주십시오.”라 하였다. 상전이 그리하라 하고 그 종놈을 불러서 앞에 세워 놓고 “이놈 너는 요사이 남의 계집을 보고 다닌다는구나. 고안놈, 왜 내 계집을 두고 남의 계집을 보고 다닌단 말이나. 다시는 그런 행동을 하지 말아라.”라고 준절히 꾸짖어 내어 보았다. 그랬더니 옆에 이 말을 듣고 있었던 부인의 동생이 종놈이 나간 뒤에 그 형더러 “형님은 놈에게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하였다. 그 형은 “왜 내가 무엇이라 말하더냐”라고 도로 반문하니 그 동생이 “이제 형님이 왜 내 계집을 두고 남의 계집을 보러 다니느냐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라 하였다. 그러니까 그 형이 “아니 내가 언제 제수씨 말을 하더냐”라고 도로 넘겨 버렸다는 것이다.

또 이런 이야기가 있다. 연암(燕巖) 선생이라 하면 근세의 대학자니까 전화해 모를 사람이 없겠지마는 이 선생은 실험학파의 학자로 글 쓰는 글도 타분한 성리학자들의 문체를 쓰지 아니하고 실리(實利)의 새로운 글을 썼기 때문에 관계에서 미움을 받아 큰 교실도 하나 어찌 못하고 겨우 현감 자리를 하나 얻어 안의(安義)에 있었다. 그러니 그 부인의 불평이란 것은 이로 말할 바가 없었다. 그러나 연암 선생은 남과 같이 벼슬을 못 한다 하여도 만족히 생각하여 평소애 애주를 하여 날로 술 마시는 것을 유일한 낙으로 살았다. 그러나 그 부인은 어느 때고 술을 한 번 시원 스리 주는 일이 없었다. 더욱이 하루는 어디서 맛 좋은 술이 한 항아리 들어왔는 것이 확실한데도 도무지 그 부인은 그것을 아껴서 호뜻하게 주지 않았다. 그래서 연암은 참다 참다 못 하여 생각한 끝에 안으로 쫓아 들어가며 그 부인에게 오늘 아무 대감이 나를 찾아오신다 하는데 아마 찾아오시는 것이 무슨 뜻이 있는 모양 같으니 있는 안주 없는 안주해서 술상을 하나 잘 보아두라 하였다.

그러나 우리는 좀 더 웃으며 살고 싶다. 이것이 사람들의 원이라면 우리는 우리 사람 속에서, 우리 생활 속에서 우리의 행동이나 말에의 기능 속에서 웃음을 만들어내는 수밖에 없다.

무해무독의안락 그러나 웃음이란 억지로 만들 수 없다는 것이다. 설사 있다고 해도 그것은 이미 참다운 웃음과는 거리가 멀다. 관객을 억지로 웃기기 위해서 억지로 취하는 일부 희극배우 이 액션처럼 그것은 도리어 불결한 것이다. 그 액션은 오히려 관객의 눈에는 해괴망측할 뿐이다.

일시적이거나 우리를 궂은 감정에서 해방시켜 주는 웃음은 언제나 뜻하지 않는 웃음이며 동시에 무해무독한 웃음이다.

“아빠가 제일 좋아하는 친구는 엄마야”

꼬마가 옆에서 불쑥 이런 말을 한다. 마주 앉아 집안 걱정을 하던 부부는 뜻하지 않게 한바탕 웃음을 터뜨린다. 이 꼬마의 한마디는 결코 아빠는 엄마를 웃기려고 한 말은 아니다. 꼬마로서는 보는 대로 느낀 대로 사실을 말했을 뿐이고, 누구에게 득을 보이려고 한 말도 아니요, 누구에게 손을 보이려고 한 말도 아니다. 그러면서도 이 천진난만한 관찰 속에 진리가 숨어있기도 하다.

그러나 이것을 유머라고 할 수 있을까? 없을 것 같다. 왜냐하면 유머는 다분히 의식적인 행동이기 때문이다. 작년 여름에 H중위와 함께 그의 친구인 R중위의 집을 방문했을 때 H중위는 책상 위에 있는 혈직한 사기 꽃병을 만지며 이런 말을 했다.

“이거, 굉장한 거구나 한 100만원 짜리 될 것 같은데”

그러나 이 말을 R중위는 이렇게 받았다.

“500만원 줘. 그러나 그것은 1000년 후의 얘기지”

R중위의 대꾸에 H중위와 필자는 뜻하지 않게 한바탕 웃음을 터뜨렸다. 가볍게 받아 넘기는 위트가 근사했다. 이 위트는 그만한 교양이 없이는 생겨나지 않는다고 생각된다.

생각하면 껍이나 실없는 소리다. 이 실없는 속에 유머가 깃들어 있는 것이 아닐까. 오년 후- 이것이 10년 후, 50년 후라면 다시 말해서 500만원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것은 실없는 소리가 아니며 따라서 유머가 되지 않는다. 또 그 대꾸에서 누가 이를 보거나 손을 본다면 유머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뜻하지 않게 명량하고 유쾌한 웃음의 이득을 보았다.

유머는 무해무독한 생활 양태라고나 할까.

미국의 유머 작가인 마크 트웨인의 어느 작품 속에 읽었다고 기억된다. 미모의 유식한 체하는 어느 숙녀가 그가 좋아하는 신사에게 말한다.

“저는 고독을 좋아해요. 하지만 뉴욕은 글렀어요. 떠나야겠어요.”

그러자 신사의 대꾸는 이러했다.

“선량하도록 노력해보십시오. 노력을 하면 할수록 고독해질 것이라고 단언 보장합니다.”

송기엽(宋奇燁)
〈공군중위·통신전자국 근무〉

인류의 역사는 전쟁사적인 일면을 지니고 있다. 전쟁과 더불어 시대는 흘렀고 또 그 시대에 알맞게끔 이 전쟁의 수단과 방법도 변환발전(變換發展)하여 왔다. 따라서 오늘날 과학병기의 정예인 Radar가 새 시대의 전쟁 무기로 군림하여 최소의 노력으로 최대의 방어력 및 공격력을 Cover하고 나아가서는 시한적 현대전의 Key-Point가 되고 있는 것도 우연이 아니다. 최근 각국에서는 현대전쟁수단의 눈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러한 radar나, 통신망의 기능을 마비시켜 적의 전쟁능력을 파괴할 목적으로 전파 방해술의 개발해 힘쓰고 있는바 다음에 그 개략을 고찰코자 한다.

1, ECM

ECM이란 Electronic Counter Measures에서 유래한 전파방해 행위를 대표하는 말이며 이러한 행위 자체는 이미 제2차 대전의 전운이 감도는 1930년대 유럽에서 영국과 독일이 전쟁 준비에 쌍벽을 이루어 radar를 고안해 내면서부터 이미 이 Radar에 대한 방어대책으로 전파방해행위가 병행하게 발전을 하여 드디어 1939년 9월에 독일의 Zeppelin 비행선이 영국 해안선 상공에서 영국의 전파능력을 파악키 위한 탐색비행을 하였을 때 영국이 이를 기만함으로써 실천에 옮겨지게 되었던 것이다. 당시 영국은 독일공군의 맹렬한 공격에 대해 방어 작전에 중점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이 ECM에 대하여 비상한 관심을 경주하였고 그 결과 독일공군으로부터의 피해를 상당히 축소할 수 있었던 것이다.

1940년 독일은 프랑스의 해안에다 수많은 Radio station을 설치하여 여기에서 항법보도를 실시함으로써 폭격기들을 London 상공으로 정확히 유도하기에 이르자 영국에서는 이들 전파 빔(Beam)을 포착분석하고 그와 똑같은 전파를 난 발사하여 유도작전을 교란시켰으며 다음으로 모스부호통신방법에 의한 CW(Contionus wave)통신으로 독일에서 폭격기를 유도하자 영국에서는 또 그와 같은 CW통신방법으로 교란하는 데 성공하였고 다시금 독일에서 FM(Frequency modulation)통신방법을 택하자 영국에서는 이제는 유창한 독일어로 기만관제(欺瞞管制)함으로써 독일 조종사들을 속였던 것이다. 그 후 영국에서는 1941년 Libyan작전에서 처음으로 독군으로부터 전파무기에 Jamming을 받았으며 이 때부터 상호간 본격적인 ECM행위가 전개되고 드디어는 Normandy작전에서 연합군의 대대적인 ECM행위로 말미암아 독군의 Early warning system 및 해안포대를 위한 Fire control system의 Radar들은 거의 완전히 기능을 상실함으로써 상륙작전에 성공을 기하였던 것이다.

이와 같은 ECM행위는 그 대상을 적의 지상용 및 탑재용 Radar 각계통신망, 항법보조시설 등으로 하며 여기에 그 방해방법을 간략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기계적 방해수단

항공기가 금속성 물질을 적재하여 비행 도중 특정한 방법으로 이들을 살포함으로써 송신원으로 부터 발사되어 오는 전파들은 이들에 부딪쳐 엉뚱한 RF(Radio frequency)

그 부인은 대감이 대감이 오신다니 이것 필시 좋은 일이 있는 것이라 하여 부지런히 솜씨를 내어 안주를 장만하고 술을 데어놓고 했다. 그랬더니 선생은 일부러 큰소리로 안에까지 들리도록“아아 이제 대감께서 오십니까. 어서 들어오십시오.”하고 안을 향하여 “거기 술상 빨리 내오너라”라고 일렀다. 그리고는 술상을 사랑에 받아들여 놓고는 “대감 먼저 드십시오.” “예, 제가 먹겠습니다.” “대감 한잔 더 드십시오.” “그러면 이번에는 제가 먼저 먹겠습니다.” 하면서 혼자 떠들썩하고는 연방 안을 향하여 “거, 술 더 가져오너라.”한다. 술이 몇 주전자나 나갔는데도 연방 술을 가져오라 하니 대체 대감은 어떻게 생겼길래 이렇게 술을 자시는가 하고 그 부인이 사랑문 밖에 가서 문구멍을 조그만치 뚫고 들여다보니 선생이 앉아서 공연히 떠들며 부어라 먹자하는 판이었다. 이것을 본 부인은 불현듯이 문을 열어젖히며“영감 이것 무슨 일입니까”하였다. 연암 선생은 허허 웃으면서“진작 술을 줄 것이지”라 하였더라는 것이다.

유머도 이만치나 하면 벌써 보통은 넘는다. 어쩌면 그렇게도 천연스러이 흘러나오는가. 이런 것은 도저히 과작하여 될 일도 아니니 확실히 우리 민족에는 선천적으로 타고난 하나의 제주가 여기 있는 듯하다. 그런데 유머를 잘한다는 것은 물론 천성이지만은 여기에는 또 마음의 여유 없이는 되는 일이 아니다. 유예할 시간도 없는 짧은 순간에 기상천외의 지혜가 튀어 나오는 것을 돈지(頓智)라 하지마는 그러한 얇은 돈지만으로 썬는 유머가 되는 법이 아니다. 보통의 이치에 맞지 않는 기상이지마는 실로 인생의 그윽한 저 깊은데서 우러나오고 또 거기서 항상 마음의 여유가 있는 데서 전과 같은 유머가 천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이니 이것이 야말로 천성이 아니고는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러면 유머란 것이 얼마나 많은 마음의 여유에서 나오는가 하는 일례로서 다음과 같은 유머의 이야기를 들 수 있다.

어느 양반이 귀양을 가서 사사(賜死)의 엄지(嚴旨)를 받았다. 신하로서 엄지를 받으면 조그만치도 가질 수 없고 엎드려 그 엄지를 받들어 그 명에 복종하여 죽는다는 것이 신하의 도리이다. 그런데 이 양반은 엄지를 받고 복향사배 한 후에 죽이러 온 금부도사에게 자기 목을 땔 올가미를 방에 들이면 자기가 목을 매어줄 것이니 밖에서 줄을 당기라 이르고, “자 줄을 들이라.” 하였다. 도사는 줄을 방에 들였다. 그다음은“자, 이제는 줄을 당겨라.” 하였다. 그래서 도서는 힘을 다하여 줄을 당기고 그것이 시간이 지나서 이제는 죽었거니 하면서 방문을 열어보았다. 그랬더니 그 양반은 오탁하니 앉아서 허허 웃는 것이 아닌가. 즉 그 양반은 자기 목에다가 올가미를 걸고 당기라 한 것이 아니고 베개에다가 올가미를 걸어서 당기라 했던 것이다. 도사는 깜짝 놀라“이것 어쩐 일입니까” 하였더니 그 양반이 “내가 한 번 그래본 것이니, 이제 다시 올가미를 들이라” 하고 그때는 정말 자기 목에 올가미를 걸어주어서 죽었다는 것이다. 이 얼마나 마음에 여유가 있어서 한 일이겠는가.

죽는 순간까지도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또 거기다가 유머를 할 수 있다는 것은 보통 있을 수 있는 일은 아니다. 그러나 과거의 수많은 유머러스한 이야기에는 이런 것이 결코 한두 가지가 아니다. 그러면 여기 또 한 이야기를 덧붙여 두겠다. 이것은 삼국유사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신라 때에 유명한 중 영재(永才)라는 이가 있었다. 이 영재는 중이지마는 향가를 잘 하고 또 유머를 잘한다 하여 신라에서도 유명하였던 것이나 어느 때 이 중이 남암(南岩)을 가느라고 대현령(大峴嶺) 고개에 이르렀더니만 갑자기 60여 명의 도적이 칼을 빼어들고 나타났다. 그러나 영재는 조금도 당황한 빛도 없이 태연히 있으니 도적들이 도리어 괴이하게 생각하여 누구냐고 물었다. 영재라 하니 도적들도 평소에 그 이름을 들은 일이 있어 그러면 노래를 하나 지어서 읊으라 하였다. 영재는 서슴지 않고 즉석에서 멋지게 유머를 섞어 향가 한 수를 읊었더니 도적들이 그만 거기에 경복하고 흩어져버렸다는 것이다. 이것도 하나의 유머이다. 이로 보아 한국 사람의 유머는 그 역사가 멀고 이 유머러스한 성격이 한국 사람에 깊이 깃들어 있다는 것은 결코 어제 오늘이 아니다.

에너지를 발하여 송신원으로 되돌아가게 하는 교란방법으로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특질들이 그 반사체로 사용되어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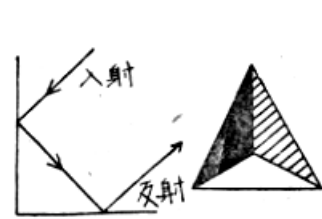
① Chaff ……

얇고 가느다란 알루미늄 호일의 가닥들을 다발로 만들어 살포하게끔 되어 진 것으로 적의 Radar scope상에서 아군의 항공기를 엄폐시키고 Fire control radar이 그릇된 Lock on을 시도하고 Target과 Chaff 사이를 Jump lock하게 하는 데 효과적이다.

② Rope ……

반사체들이 가지는 RF 특성으로 보아 반사체 가닥들의 길이가 발사주파수 파장의 1/2이 될 때 가장 큰 방해효과를 가지기 때문에 여기서 그 Chaff가닥의 길이를 맞추려면 수 미터내지 수십 미터나 되므로, 얇고 가느다란 Chaff가닥으로써는 도저히 그 형상을 유지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살포 시에도 서로 가닥들이 얹혀 골고루 살포되지 못하므로 이런 단점을 보충하기 위하여 알루미늄 호일을 테이프로 만들어서 발사전파의 반파장(半波長)에 적응시키고 그 형태를 유지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어지는 것이 Rope 반사체로서 되도록 저주파에 적응성이 크다.

③ Corner Reflector ……



직립(直立) 삼각체(三角體)로 된 수많은 작은 금속물 들로서 전파가 부딪쳐와 입사되면 이와 평행하게 반사되어 송신원으로 RF에너지가 되돌아가게끔 된 물체들이 다.

이상과 같은 반사체들은 살포하는 방법으로서 Radar와 Scope 상에 나타나는 Taget들을 완전히 Screen하기 위한 집중적이고 계속적인 살포방법이 있고 Scope 상에

나타나는 항공기의 수를 기만하기 위한 목적으로 허위목표를 주는 난발적인 살포방법이 있으며 Scope Operator로 하여금 Target식별의 과실을 범하게 하는 Single drop방법 등이 있으며 실제 작전에 있어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건들은 이때 사용되어지는 반사체와 이들의 낙하특성 및 살포 항공기의 고도 그리고 살포 구간과 Radar의 pattern 등이며 이들에 관하여는 전문적인 지식으로 계획되어지고 산정되어지며 구체적인 작전계획으로 반영되어지고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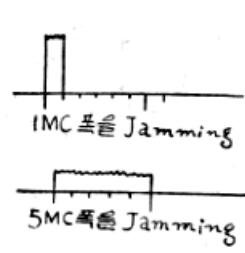
2, 전자적 방해수단

항공기에 송신기와 수신기를 장착하여 적으로부터 발사되어 오는 전파를 포착하고 거기에 해당되는 특정 한 주파수나 주파수대에 혼신을 갈 수 있는 전파를 발사하는 교란방법으로서 다음과 같은 방법들이 있다.

① Scope Jamming

사용 주파수와 꼭 같은 개개주파수를 Jammer에서 발사하는 방법.

② Sweep Jamming



적이 사용하는 여러 주파수들의 전주파수대(全周波數帶)를 한꺼번에 마비시킴으로써 단시간 내 적의 많은 Net Work를 교란시키는 방법이며 Spot Jamming과 비교했을 때 Jammer의 출력은 일정하므로 평균세력이 약한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Repeat Jamming

적의 Radar로부터 발사되어 오는 신호를 수신기로 받아 이것을 그대로 증폭하여 다시 발사원을 향해 재발사함으로써 기만하는 방법.

3, 기타

않을 수 없게 되는 고통을 갖게 된다.

작년 일이 되는데, 안익태(安益泰) 선생이 귀국해서 5/16 혁명 1주년기념 음악회를 지휘하시고 자작하신 ‘한국 현상’ Fantasy of Korea을 연주한다기에 음악은 문외한이지만 기필코 감상해 보려던 참에 다행히 초대를 받았기에 서울 시민회관 2층 구석에서 자리를 잡을 수가 있었다.

국내 요인과 외교 사절들만이 2층에 입장했는데 연주회 마지막에 이르러서 애국가가 나오고 지휘자가 돌아서서 청중을 향하여 제창할 것을 손짓하는데 구석구석에서는 쭈뼛쭈뼛하고 기립도 하지 않은 채 옆 사람만 둘러보는 신사, 숙녀들을 목격 할 때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었다.

제 나라 애국가가 나오는데 멀뚱 멀뚱거리고 입으로 부르기가 쑥스러운 친구들이 너절한 일본유행가 부스르기를 기생이나 끼고 부르라면 잘 부를 위인 같기도 하다.

가사나 똑바로 외우고 있는지 실로 한심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남은 열심히 열을 올리고 국가에 대한 경의로서 엄숙하게 제창을 요구하는데, 이런 대로 나라사랑의 관념이 무디어질 수가 있을 것인가. 이런 사람치고서 아마 입으로 애국을 가장 많이 떠벌릴 사람일 것이다.

수년 전의 얘기, C대령이 부인과 운전병을 한 방에 앓혀놓고 노기 띤 얼굴로 기합(?)을 넣고 있었다. 사연인 즉은 영외미(영외장병에게 주는 조식미)를 6개월분을 모아서 한 가마를 한꺼번에 타서 군용차에 싣고 온데서 발단된 것이다.

고급 장교나 되니까, 부대에서 쌀가마니 정도쯤은 손쉽게 가져다 먹을 수 있지 않냐는 동리사람들의 세속관심이 당연히 급여 받는 것이라 할지라도 엉뚱하게 진전되어 망신당하지 않겠느냐는 호령 이 부인과 그 운전병에게 장장 한 시간씩이나 계속 되는 것이었다.

이 불호령 이후로 C대령 님 부인이 할 수 없이 영외미가 나올 때면 자루를 들고 매달마다 종점 끝에서 배급소까지 왕복하는 모습을 보았다. 일어탁수(一魚濁水)라고 하듯이 한 사람의 그릇 때문에 그 집단, 또는 사회, 국가가 망신을 당하고, 모욕을 감수하여야만 되는 일이 얼마나 비밀비재 하는 것인가.

돌이켜, 나 하나만이라도 올바르게 되어 보자는 ‘조그마한 애국’을 지니는 사람이 우리들 가운데 과연 얼마나 있을까. 남이 하는데 나도 못 할 소냐, 한술 더 떠서 남보다 더 한층 못 하는 것이 바보요, 병신이다, 병폐(病廢)가 좋은 일은 제쳐놓고, 이기적이고 옳지 못한 일로만 발전된다면 우리의 사회는 정화될 날이 요원할 줄 믿는다.

결코 애국은 누구와 의논해서 같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서부터 출발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

<소심초(素心抄)>

내가 만난 사람들



김순경(金淳慶)
<공군대위·10전비(十戰飛)>

몇 해 전 일이다. 다년간 상사로 모셔오던 C선배께서 친상을 당하셔서 홍제동(弘濟洞) 화장장에서 마지막 고별 염불을 마치고 그 아래 절간에서 화장을 마칠 때까지 기다리느라고 점심을 끝내고서는 우두커니 있는데 마침 주지 집의 트랜지스터에서는 한일축구전의 동경중계방송이 한창 흘러나오고 우리 팀이 2대 1로 리드하여 환호성을 올리고 있었다.

시간이 되서 화장터로 올라가는 비탈길을 상주와 함께 올라가려는데

“여보게, 오늘 내가 이렇게 친상을 당했지만 우리가 일본한테 축구에 이겼다는 국가적인 기쁨에 나의 슬픔은 아무것도 아닐세”

하고 뒤따라오는 나에게 일부로 돌아서면서 긴한 말씀으로 오히려 희색을 안면에 감추지 못 하는 것이었다. 입으로만 애국하고 뒷전에서는 탄소리하는 사람들이 흔히 있는 우리네 사회인지라, 자기의 희노애락(喜怒哀樂)을 억제하고 참다운‘소시민’으로서의 애국관념이 우러나오는 말을 별로 듣지 못한지라 C선배께서 하시는 말씀에 다만 마음이 호뭇해 질 수밖에 없었다.‘선공후사(先公後私)’를 공무원들의 좌우명으로 요구되고 있지만 이것들이 특히 군인에게 있어서는 아무리 강조되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애국’은 그리 거창하고 먼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 가슴 속에‘소시민의 이념’으로서 도사리고 앉아 있는 것이기에, 알기에도 또 행하기에도 어렵게 생각해서는 안 될 일이 아닌가 싶다. 걸핏하면 남의 나라 잘사는 것을 부러워하고 제나라 형편을 입으로 통탄하는 인사가 근무시간 중에 바둑으로 소일하기가 예사이고 빙공영사(憑公營私)하여 공용차를 자가용인양 전횡하는 일을 가끔씩 우리를 주변에서 발견하지



'날들무섬증'

한국남(韓國男)
〈의학박사〉

파블로프의 조건반사(條件反射)란 생리현상(生理現象)이 있다.

즉 개에 사료를 주면 소화액의 분비가 왕성해지는데 실험적으로 사료를 줄 때마다 종을 울리곤 한다.

이런 과정이 어느 정도 경과되고 나면 이번에는 사료를 주지 않고 종만 울려도 소화액이 분비된다. 이를 가리켜 조건반사가 성립됐다고 한다.

이 조건반사는 비록 개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에서도 허다(許多)하다. 예를 들면 소방차 사이렌 소리에 대한 나의 조건반사 같은 것이다. 한 2년 전 우리 옆집 세탁소에서 갑자기 불이 났었다.

황급결에 가재(家財)는 고사하고 어린애들만 집어업고 맨발로 연기가 자욱한 행길가로 뛰어나가는 소동 속에 들려오던 소방차의 금속성 사이렌 소리가 결국 나에게 조건반사의 성립을 이루어 주고야 말았다.

그 후부터는 원근 간에 소방차 사이렌 소리만 들리면 무엇을 하고 있 던 간에 일손을 멈추고 밖으로 뛰어나가 우리 집과는 아무 관련성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전에는 가슴이 두근거리고 근심이 되어 도무지 견딜 수가 없어졌다.

이를테면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보고 놀란다”라는 속담 격이다.

이런 나의 조건반사는 비행기에 대해서도 성립되어있다.

비행기하면 하늘이 있고, 하늘하면 누구에게나 어린 시절의 추억이 있다.

어린 시절에 보던 하늘과 흰 구름. 엄마 등에 업혀서 바라보던 농부들의 밀짚모자와 잠자리가 날고 있던 가을 하늘빛.

그 하늘을 유유히 날아가는 비행기 그것은 틀림없는 어린 마음의 동경과 꿈의 심불이 었다.

그러나 어린 시절의 추억마저 고이 간직할 수 없었던 가련한 나의 처지였다.

시대적인 불운아란 이야기다. 내 나이또래 사람들의 거의 모두가 그러하듯이 내가 중학교에 입학할 무렵에 일어난 소위 대동아전쟁은 날이 갈수록 치열의 도를 가해갔다.

그래서 일제의 침략 전력이 기진맥진해질 무렵부터 일본토(土)는 물론 이려니와 우리나라 상공에까지 연합국의 비행기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B29하면 혹시 요사이는 뒤떨어진 고물딱지 폭격기 같은 인상을 주기가 일수지만 당시는 그래도 쟁쟁한 공포의 대상이었다.

이 B29를 위시(爲始)한 연합군 폭격기의 내습(來襲)이 있을 때마다 공습경보가 나붙었고 또 그럴 때마다 소위 방공반(防空班)에 편입된 우리들 중학생들은 학과(學課)는 중단되고 방공태세(防空態勢)에 동원되곤 했었다. 맨주먹으로, 그것도 어린 중학생들이 내습하는 적기(敵機)를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도무지 알 수 없는 노릇이었지만 그러나 그때는 그런 생각조차 용납될 수 없었던 긴박한 사태였다.

다행히 연합군기의 내습이 학교에 등교해 있는 주간인 경우에는 그래도 좀 괜찮았지만 집에 돌아가서 잠을 자고 있을 오밤중인 경우에는 정말 인난 했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경계경보만 나면 자기가 배당(配當)된 인근 파출소로 집합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공습(空襲)만 있으면 쫓아나가 밤을 새우는 일이 종전이 가까워짐에 따라 차차 더 빈번해져 갔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부평 조병창에 소위 학도동원(學徒動員)으로 끌려 나가 있는 동안 극에 달했다.

거의 모든 내습이 밤에 있었다.

일종의 신경전일게다. 공습에 시달려 밤마다 잠도 잘 못 이루는 날이 되풀이됨에 따라 우리들의 심신은 피로할 대로 피로해 갔고 더 나아가서는 아주 기진맥진해져버리고 말았다.

밤하늘. 거기는 공포의 폭음소리가 있었고 폭음소리가 있을 때 나에게서는 항상 피로와 공포가 있었다.

해방 직전의 이런 회색의 공포 속에서 감수성이 가장 예민한 시절을 보낸 나에게 비행기에 대한 공포의

① Decoy

가짜 표적을 띄우거나 발사시켜 적의 병력을 동원케 함으로써 경제적 손실 및 심리적 동요를 주는 방법.

② Radar Seeking Missile의 사용

발사되어 오는 RF에너지에 편승되어 그대로 발사 원에 적중하는 Guided Missile을 사용하여 적의 기지나 Site를 격파하는 방법.

③ 항공기에 Homing장비를 장착하여 송신원에서 발사되어 오는 전파를 따라감으로써 적의 기지 및 Site를 발견하여 격파하는 방법.

④ 그밖에 적의 접근하는 항공기들이 Blind Spots(지형적 장애로 인해 Radar의 Beam이 차단되어진 암지역(暗地域))를 이용하거나 난발적인 반사체 살포 Jamming방법을 써 교묘히 탈출하는 것도 ECM의 수단이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적이 이와 같은 전파방해를 가해 왔을 때를 대비한 행위로서 반 전파방해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이러한 반격행위를 ECCM이라 한다.

2, ECCM

이는 ECM 공격에 대비한 방어 수단으로서 Electronic Counter Countermeasure이며 ECM공격을 받을 가능성을 가진 모든 통신 전자 시설 부대에서는 사전에 만전의 태세를 갖추고 있어야만 할 것이다.

1. 기술상의 절차

Radar를 예로 든다면 여기에는 성능이라는 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성능을 항상 최대로 유지하도록 정비사들은 각별한 노력을 경주하여야 하며 그럼으로써 Scope에서 정확한 식별이 항상 가능하여 Scope 상에 나타나는 조그마한 이상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게 될 뿐 아니라 Jamming공격을 받는 도중에도 항공기의 식별이 어느 정도 가능해 진다. 그리고 애당초 Site를 선정할 때 적으로부터 쉽게 발견되어지지 않는 장소의 선택 문제를 고려하고 나아가서는 한 지역에 대한 Site수의 다소에 관하여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2, 운영상의 절차

ECM 공격을 받았다면 우선 적의 사용 장비와 수단을 정확히 판단함으로써 이에 대비한 행동 단계로 들어갈 수 있으며 보고의 신속성 또한 아울러 중대함을 알아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그 다음 단계로 지역 사령관의 명령일하에 따라 세부적인 작전 단계로 들어가게 된다. 따라서 통신전자 장교는 항상 자기가 취급하고 있는 장비의 전체적 또는 부분적인 동작상의 성능파악과 제한회로의 응용에 대하여 연구하고 아울러 주파수의 2차적 확보 및 2차적인 주파수 운영에 따르는 통합적인 운영절차에까지 관심을 기울여 숙지하고 연구 검토함으로써 Radar 원래의 기능과 지대공 공대공 지대지의 통신 기능을 여하한 적의 ECM 공격 하에서도 심분 발휘할 수 있도록 태세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3, 수동적 탐지방법

공격해오는 적항공기의 위치를 포착 파악하는 방법으로서 동시에 Jamming을 감지할 수 있는 지역 내의 2개소 이상의 Site를 설치하여 거기에 신호 분석장비를 장착하고 있음으로써 그림과 같은 삼각법에 의하여 Jamming의 위치 및 그의 사용 주파수 PRF PW 등을 알아내는 방법이 있다.

4, Camouflage

큰 도시나 축조물의 경우 이와 같은 인공구축물들은 크게 RF에너지의 반사효과를 가지고 있으므로 송신원으로 부터 발사되어 오는 RF 에너지를 흡수 할 수 있는 물질들을 살포시켜줌으로써 적의 전자적 공격으로부터 보호되는 방법을 Camouflage라 하며 이와 같은 방법도 있음을 말해 둔다.

이상으로 ECM과 ECCM을 간략히 소개하고 아울러 현대전에 있어서 막대한 비중을 점하고 있는 통신전자 분야의 극히 순간적인 공격전으로 인해 대세가 결정되어지는 오늘날의 당면 문제에 주목 하지 않을 수 없음을 말해 두는 바이다.



반사가 생겼다는 건 오히려 당연한 노릇이라 하겠다. 어렵게 조건반사라기보다 한마디로 말해서 비행기 공포증이 생겼다는 이야기다.

요새 말로 하면 날뜰무섭증이겠지. 이런 연유로 생긴 날뜰무섭증 때문에 나는 오랫동안 시달림을 받았다. 해방이 되고부터 아무리 그 지긋지긋한 전쟁은 끝났다고 할망정 나의 이 날뜰무섭증은 좀처럼 사라질 줄을 몰랐다.

아무리 명량한 기분 속에 잠겨 있다가도 하늘에서 비행기 소리만 들려오면 졸지에 마음이 어두워지는 것을 어쩔 수 없었다.

더군다나 밤중에 비행기 소리가 들어오면 그러지 않아도 잠귀가 밝은 나는 반사적으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설레는 가슴을 어찌할 바를 모르곤 했다. ‘전쟁은 이미 끝났다. 저건 우군의 비행기지 적의 폭격기가 아니다’ 이렇게 마음속으로 자신을 수 없이 타일러도 보고 자신에게 암시를 취보기에 애를 써도 보았지만 그러나 그런 것들은 한낱 헛수고에 지나지 않았다.

비행기 폭음소리만 들으면 무조건 무자비한 폭격이 연상되기 때문이었다.

거기에는 우군이나 연습비행 같은 건 참작될 여지조차 없는 것이었다.

이렇게 해서 ‘비행기 이콜 죽음’이란 나의 반사적 관념은 세월의 흐름 같은 건 아랑곳없다는 듯이 줄기차게 계속되어갔다.

그런데……

이런 줄기찬 나의 ‘날뜰무섭증’이 깨끗이 해소될 천재일우(千載一遇)의 찬스가 도래하였으니……

즉 6·25사변이다.

누구나 다 겪어 보았고 또 느껴보았듯이 그것은 회색의 피난(避難)시절이었다. 지루하고 답답하기 짝이 없는 절망의 피난시절이었다. 이런 회색의 절망 속에 웅크리고 있던 내 앞에 홀연히 밝은 희망의 빛으로 클로즈업한 한 존재가 있었으니……다름 아닌 비행기였다.

전세가 불리해 집에 따라 피난지의 하늘을 북으로 나는 비행기의 수도 늘어갔다.

또 북으로 향하는 폭격기와 전투기의 수가 들어감에 따라 보도되는 적의 피해도 늘어갔고 아울러 궁지에 빠졌던 전세도 리(利)를 거둬해 갔다.

그래서 피난의 후반기를 나는 뉴스나 신문을 목 빠지게 기다리는 대신 밥만 먹으면 밖으로 나가 북쪽으로 날아가는 폭격기의 대수를 헤아려보면서 보냈다.

북으로 가는 폭격기나 전투기가 많은 날은 공연히 마음이 후련해지고 든든해진다. 반대로 북으로 날아가는 비행기가 없는 날은 마음이 우울해지고 무거워만 진다.

비행기가 날지 않는 조용한 하늘은 나에게 정숙의 공포를 주었고 폭음소리에 소란스러운 하늘에서 나는 희망의 안도를 찾아보곤 했다.

참 이렇게 생각해 보면 사람의 마음이란 정말 간사한 것임에 틀림없다. 얼마 전까지도 공포감을 받던 비행기에서 오히려 안도감을 느낄 수 있다니. 이렇게 해서 일제 말기에 형성되었던 나의 비행기에 대한 공포의 조건반사는 6·25때 완전히 불식되고 반대로 안도의 반사가 형성되었다. 한 번 성립된 조건반사가 취소되기는 좀처럼 힘든 것이란 것을 몸소 경험한 듯하다.

그래서 지금은 오밤중에 들려오는 비행기 폭음소리에 나는 오히려 안도를 느낄 수 있고 평화스러운 잠과 꿈을 청할 수 있게 되어 버렸다.

지금도 나는 가끔 곡절(曲折) 많은 나의 비행기에 대한 조건반사의 발자취를 더듬어 보곤 한다.

그것은 비단 나 혼자만의 발자취라기보다 불운한 우리 민족의 발자취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동경에서 공포로 공포에서 안도로 변환한 나의 비행기의 대한 반사. 이 반사가 다시는 또 공포로 변하는 일이 없기를 기원하고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왜냐하면 다시 그것이 안도에서 공포로 변하는 날 그날은 비단 나만의 불행한 날이 아니라 온 겨레의 불행의 날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거리에서 만난 푸른 제복의 하늘의 용사들에게 마음속으로 이렇게 소리쳐 보는 것이었다. ‘믿고 있습니다’라고.

비밀 사항을
수첩에
기록 하지 말자
〈방첩 표어〉



'유니폼 산고(散考)'

임방현(林芳鉉)

〈한국일보논설위원〉

작년 여름 있나버스 속에서의 일이었다. 청량리(淸涼里) 근처에서 X군인지 OO대인지 여나못 명의 사병이 우루루 차에 올랐다. 과히 비좁은 차 안은 아니어서 그 사병들은 양쪽 손잡이에 따라 좌우로 산개(散開)했다. 아마도 그 날이 일요일이었던가 보다. 일행은 모처럼 들놀이라도 나가 일큰히 취하였거나, 아니면 동료 결혼식에서 축배잔이나 기울여 썬 좋은 기분이 되어 해질 무렵 귀대(歸隊)하는 길이었던 것 같다. 물론 차 안에서 받은 내 인상이 그랬다는 이야기고, 나를 포함한 여러 버스 손님들의 눈에 그렇게 비치기에 알맞은 거동을 그들은 했던 것이다. 한 정거장이나 갔을까. 그 중 누가 먼저 시작했는지 노래자랑이 벌어졌다. 여기저기서 터져 나와 혹은 이중창으로 혹은 삼중창으로 노래 소리는 엇히고설키더니, 급기야 요란한 합창으로 변했다. 선창이 제시하는 곡목(曲目)에 따라 사병들의 노래는 차차 열기를 더하여 노도와 같은 군가공세(軍歌攻勢)는 잠시도 쉬지 않고 버스보다도 빠른 템포로 줄 다름질 치는 것이었다.

승객들은 두리번거리며 야릇한 표정으로 서로 힐끗힐끗 쳐다보기 시작했다. 합창의 물결 속에 뛰어들기에는 노래 소리가 너무 거칠었고, 그렇다고 누구 하나 선뜻 나서 옥타브를 낮추라고 지휘 혹은 제지하기엔 그 쪽 수가 워낙 많았던 것이다.

그러자 전후좌우로 몸을 흔들던 군가합창대는 마침내 목소리만으로는 부족을 느꼈던지 리듬에 맞추어 발을 구르기 시작했다. 구르는 발도 거센 구둑발임은 물론, 여기저기서 제 노래에 스스로 도취한 군인들은 주먹을 불끈 쥐어 버스 천장을 강타하기도 했다. 구둑발 구르는 소리를 팀파니에 비긴다면 주먹으로 천장 갈기는 소리는 심벌즈라고나 할까. 엘비스 프레슬리를 방불케 하는 격정적인 지체의 요동과 더불어 버스 속에는 때 아닌 쇼가 벌어진 셈이다. 뇌동심리(雷同心理)의 탓인지 그중 좀 덜 하는 친구를 찾아보려야 허사(虛事)였다. 그들은 한결같이 열을 띄우고 있었다.

시선 둘 바를 몰라 고개를 모로 돌리고 나는 유니폼의 심리라는 가제로 토막생각을 잇기 시작했다. 하기사 그 젊은이들이 평복 차림으로 차에 났다면 저렇게 용감할 수 있을까.

명정실태(酩酊失態)만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것이니 이 쇼의 주인은 냉정히 따져 알콜 성분에 있겠다고 양해 못 할 바는 아니다. 그러나 유니폼이 원인의 전부는 아니라 하더라도 그 유력한 일원(一原)을 차지하는 것이라면 유니폼은 벌써 그 주인을 떠나서 독자적인 심리와 분위기를 지니는 것이라고 추리할 수는 없을까. 직종이 세분된 현대 사회에서 공식적 편의로 착용하게 된 유니폼이 마치 마법사의 망토 마냥 그 위력을 발휘하여 주인과 객들에게 의외의 효과를 나타내는 것이다.

망토 이야기가 나왔으니 어렸을 적 재미있는 기억이 하나 있다. 고향 사범학교를 다니던 사람으로 내 과의 공부를 돌봐주던 이가 있었다. 학교성적도 좋고 서예, 미술에도 상당한 실력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당대 청년들의 청운(靑雲)의 꿈인 일본 고등학교 입학 일면에 사로잡혀 있었다. 지금 생각하면 그가 집안이 넉넉지 못하여 처음부터 고등학교 수험을 포기하고 있었는지 혹은 한두 번 시험에 불합격의 고배를 마셨던 건지 잘 분간이 안 되지만 어쨌든 일상생활의 기조는 고교예의 동경 바로 그것이었다. 그는 조석으로 또는 공부하다가 지치면 벌떡 드러누워 ‘일고(日高)요가(儵歌)를 소리 높이 부르곤 하는 것이었다.

그가 하루는 검정색 망토를 맞추어 입었다. 도구를 갖추더니 국민학교 아동이던 나를 보고 근교에 산보(散步) 나가자고 했다. 도구를 들고 조춘(早春)의 화창한 시골 길을 따라 나섰다. 급조된 고교생을 따라가면서 나는 내심 우습기도 하려니와 어리둥절했다. 검은 망토를 펼쳐입고 굽이 높은 ‘게다’(下駄=倭나막신·당시 고교생의 상징의 하나)을 신은 것까지는 금시 알아볼 수 있었으나 백선을 맨 검정모자

한가운데에는 분별키 어려운 낮은 모표(帽標)가 붙어 있지 않은가. 똑바로 들여다보기도 계면쩍고 하여 걸어가면서 틈틈이 훑쳐본 결과 그 정체를 드디어 발견하고는 또 한 번 놀랄 수 밖에 없었다. 자기가 나온 사범학교의 모표를 180도(度)돌려서 곤두세워놓고, 그 위를 살짝 백선(白線)으로 눌러 났으니 낮은 것도 무리가 아니었다.

푸릇푸릇한 보리 싹을 좌우에 바라보며 허리춤에는 흰 타월을 길게 늘어뜨린 천하의 고등학생 하나가 꼬마 조수를 거느리고 봄 하늘에 휘파람도 가벼이 대자연을 산책하는 것이다. 이윽고 근교 왕릉 뒷산에 다다랐다. 그는 잠시 쉬어 가자고 했다. 막 잔디를 골라 엉덩이를 붙이려는 찰나, 찢줄선 눈에 무서운 형상(形相)을 한 산지기 한 사람이 삼자루를 세워 들고 쏜살같이 이쪽으로 달려오고 있지 않은가.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나는 울상이 되고 그는 계다를 벗어 들고 다리야 날 살려라 뛰기 시작했다. 숨이 차올라 한참 만에 뒤를 돌아보니 산지기는 저만큼 언덕 위에 서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 뒤미처 생각하니 우리는 입산(入山) 금지구역에 들어갔던 모양이다. 그리고 그 산지기는 검은 망토의 계다 차림의 그 청년을 틀림없이 이(李) 왕조를 망친 왜놈의 후예라고 단정했던 것 같다.

이것은 유니폼 이번(異變) 치고는 애교 있는 편이오, 고교의의 문을 꿈엔들 잊지 못한 청년이 다소 엉뚱한 연극을 꾸렸다 해도 미소를 자아내는 희극의 토막밖에 더 될 것은 없으니 무해하다고 웃어넘길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유니폼이 지니는 심리, 유니폼이 유발하는 반자동적(半自動的) 기능은 웃음거리 이상의 그 무엇을 시사(示唆)해 주고 있지 않은가 싶다. 거추장스러운 몸치장을 현대 문명의 병폐(病弊)로 보고 아예 의상의 속박으로부터 인간을 해방시키려는 운동에 ‘누디스트’라고 불리는 나체주의 운동이 있다. 구미 사회에 대소규모로 산재하는 나체주의자들은 신분적 차별이나, 모든 외식허욕(外飾虛慾)의 요소를 불식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모처럼 자연의 상태로 환원케 하며 따라서 기성도덕(既成道德)이라는 문명의 때를 씻어 사람에게 원초적이며 건강한 진짜 도덕을 깨닫게 해 주는 일종의 도덕 운동이라고 자부하고 있다. 그는 5천 명이나 되는 회원들이 모여든 프랑스 누디스트 대회에 자기도 알몸동이가 되어서 참관해 보았다는 한 여행자의 말을 들으면, 회장 안에서 남녀노유(男女老幼) 할 것 없이 모조리 나체가 되고나니, 처음에는 좀 쑥스럽기도 하던 것이 회장을 일순(一巡)할 무렵에는 이상하게도 나체상태에 친밀감과 해방감조차 느낄 수 있더라는 것이다. 이는 물론 극단적인 경우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일이다.

작게는 수위(守衛)의 모자와 옷소매의 금(金)테로부터 크게는 약장(略章), 훈장(勳章), 계급장을 장식한 각종 유니폼이 지니는 매력(魅力)은 어느 경우 매력을 넘어서 마력(魔力)으로 화(化)하여 인간관계에 벽을 구축하는 수가 있다. 그리고 이 벽은 유니폼을 입은 측으로부터와 동시에 이를 바라보는 사대자 측으로부터도 이상한 왕복효과(往復效果)를 자아내는데 복잡성이 있는 것 같다. 유니폼을 의식하면서 거동을 과장하는 측에도 흠이 있으려니와, 또한 유니폼의 존재에 과민(過敏)하게 사로잡혀 본의 아닌 오해나 곡해(曲解)를 하기 쉬운 측에도 난점은 있다.

이리하여 양자사이에선 직업의식 과잉으로 하여 비인간적 벽이 생기고 비인간지대가 형성된다. 그리고 이 모두가 유니폼에의 집념만 없어진다면 말끔히 가셔질 불필요한 요소들이라는데 유니폼성(性)의 비본래성과 비인간성이 있다.

이것이 개인관계에서 집단관계로 다시 대중관계로 확대되면 한두 사람의 선의나 친절만으로써는 도저히 조정(調整)하기 어려운 사회현상으로까지 발전하기 쉽다. 사람을 그가 지닌 값어치나 개성으로 평가함이 아니라, 먼저 그 겉모양— 쉽게 말해서 유니폼에 따라서 평가하게 되며 행동하는 측에서도 부지불식(不知不識) 중에 유니폼의 힘을 빌어 용기를 배가하는 일은 없는지, 우리나라 속담에 ‘의복이 날개’라는 말이 있지만, 날개는 훨훨 날아다니며 행세(行世)를 자유로이 할 수 있는 보조물은 될지 언 정, 남의 얼굴이 아프도록 모진 흠바람을 불어 일으키는 무기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 생활주변에서 눈에 보이는 유니폼 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유니폼의 비본래적(非本來的) 바람을 가라앉히는 방법을 고안해 낸다면, 인간관계는 한결 부드러워질 것이고 신경은 훨씬 피로를 면할 수 있을 것 같다.

비밀 사항을
수첩에
기록 하지 말자
<방첩 표어>



호양정신(互讓精神)에 대하여

곽종원(郭鍾元)
〈숙대교수〉

“저 사람들은 당파(黨派)를 만드는 나쁜 사람들이다 물론 우리 당은 별문제 있지마는—”

이것은 괴테가 한 말이다. 다른 사람들이 당파를 만드는 것을 보고 비난과 공격을 하면서도 자기 스스로 무의식중에 자기 당파를 만들고 있는 줄을 모르고 있다는 것을 비꼬아 한 말이다.

괴테가 그의 ‘잡언과 성찰’속에서 이런 말을 한 것을 보면 독일에서나 유럽에서도 당파 때문에 무척 고통을 겪은 모양이다. 세련된 민주주의가 등장되기 전의 사회에서는 당파의 고질을 없이 할 수는 없었던 모양이다.

나 자신이 경험한 바를 보더라도 괴테의 비난을 면치 못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 원래 나는 일반 상식 인처럼 파당 짓는 것을 몹시 싫어하는 한 사람이다. 과거의 우리 역사가 파당 때문에 망하고 만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될 수만 있다면 파당을 깨뜨리는 선봉이 되고 싶은 것이 나의 본의이기도 했다.

그러나 막상 내가 겪은 경험으로는 이와는 반대였다. 괴테의 말처럼 다른 사람들은 파당을 지어 나쁜 짓을 하는데 나는 항상 안하는 것 같았다. 그러나 다시 보면 나는 언젠가 벌써 그들이 반대 당파가 되어있었다. 해방직후부터 조직되었던 문학가협회(文學家協會) 때의 일이 그것이다. 처음에는 좌익계열 문맹(文盟)과 싸우고, 그들이 지하로 사라져버린 뒤에는 또 두 파로 나누어져 싸웠다.

그러면서도 항상 나는 파당을 미워하고 기회 있을 때 마다 하나로 단결되기를 주장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왜 내가 파당 짓는 구실을 하고 말았는가? 내가 파당을 지었다기보다 내가 파당 짓는 단체의 한 분자가 되고 말았는가? 이것이 문제이다.

내 생각으로는 어떤 단체이던 간에 극렬분자가 반드시 있는데 이 극렬분자를 제거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문학 단체가 둘로 대립될 때는 대다수 선량한 회원들의 의사보다 양편의 극렬분자의 의사 때문에 화합이 안 되고 만다. 이 경우, 일을 잘 하기 위한 의견 대립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보다는 항상 단체의 해게모니 쟁탈 때문에 더 싸움이 격렬했던 것을 잊어버릴 수가 없다. 파당을 지어 싸움하는 것을 싫어해서 이쪽에도 저쪽에도 가담을 안 하면, 그때는 회색분자(灰色分子)로 몰고, 또 무능력자로 몰아버린다. 부득이 오늘 한 파에 끼이게 마련인데,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절친하던 친구도 반대파라고 해서 거리에서 만나면 외면을 하고 지나간다. 마음 아픈 일이 아닐 수 없다 수 없다.

이런 일들은 결국 그 단체를 위하는 정신보다, 자기 개인의 지위나 명예에 집념이 강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들이다. 만일 진정 단체를 위하는 생각이 조금치라도 있다면, 그 단체가 두 쪽이 나고 깨어지도록 극한투쟁(極限鬭爭)을 하지 않을 것이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되는 의견을 주장하다가, 마지막에 가서 아무래도 의견 대립 때문에 단체가 파괴될 우려성이 있으면 기꺼이 머리 숙여 양보할 줄 알아야 될 것이다.

이것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파쟁이 되고 만다. 한 가정안의 일이 그렇고 한 회사, 한 학원, 한 관직의 일이 나 또 사회단체, 정당안의 일이 전부 그렇다. 양보할 줄 모르는데서 우리나라는 온통 망하는 구석이 부지기수이다. 참으로 딱한 노릇이다.

바꾸어 말하면 민주주의란 개개인의 의견 대립을 마찰 없이 조절해 나가는 세련된 방법인지도 모를 일이다. 후진성을 벗지 못한 사회일수록 극렬분자가 많고 극렬분자가 많을수록 그 나라 안의 모든 단체는 산산조각이 나도록 분열되어 나가는 것이 상례(常例)이다. 때문에 우리는 당분간 사회생활에서 단체 생활에서 직장 생활에서 ‘호양정신(互讓精神)’을 함양(涵養)하는 운동을 전개 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산으로의 몽상(夢想)

손경석(孫慶錫)
〈대한산악회〉

얼마 전에 어느 신문사로부터 극지탐험에 대한 이야기를 연재해서 써달라는 청탁을 받고 보니 가뜰이나 밑천이 짧은데다 가보지도 못한 극지지식을 공부하느라고, 쓰는 시간보다 읽는 시간이 더 많아야 했다. 그래서 제법 글발이 뒤이어 나올 때는 그럴싸하지만 한 번 막혀버리면 도무지 알맞은 글월이 머리에 떠오르지 않는다. 안간힘 쓰다시피 생각을 짜보아 봤자 신통치 않다. 그러다가 물끄러미 완자창에 눈을 돌렸다.

이번 겨울은 추울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런 겨울부터 북창(北窓)과 서창(西窓)을 폴리에틸렌 휘저림봉해 버렸더니 우풍 사나운 사랑(舍廊)도 훈훈하다 못해 198단 온돌바람에 메주찌우기 알맞게 화끈거린다. 뽀족한 생각도 나지 않고 해서 어리둥절하던 판에 생각은 다른 곳으로 줄달음 쳤다.

작년 겨울인가 일본에 들었을 때 일본 산악문필가로 이름 있는 후카다(深田)씨로부터 그분이 히말라야를 다녀온 후 엮은 기념도폭(圖幅)을 한 권 받은 적이 있었다.

하도 마음에 들은 글과 그림들이라 언제나 머리 말 문갑(文匣)위에 넣어두었는데 무심코 펴보았더니 첫 장이 쥘가르 하마르의 ‘돌제 락파’라는 7,000m 급의 처녀봉 그림이었다. 하기가 이 돌제 락파라는 히말라야의 명사는 난리 알려져 있는 히말라야의 다른 산들 모양으로 유명하지는 못하나마 네팔에 성지인 판치포카리에서 그 수려한 모습을 나타내 주는 산이며 수도 카트만두에서 그리 멀지 않은 거리에 솟아있는 유일한 처녀봉인데 대단히 관심을 끌어 온 산이었다.

2차 대전 후에 각국의 산악열이 히말라야로 집중해서 이른바 히말라야 붐을 각국에서 이룩하고 있거니와 가까운 일본도 내년에는 11개의 등반대가 히말라야로 들어간다고 한다. 우리나라도 K대학이 다올라기리 2봉으로 정찰등반대를 보냈지만 아무튼 간에 히말라야는 산악인들에게 최고의 목표지요 또한 메카임에 틀림이 없다. 마치 미술 하는 사람이 프랑스를 가고 싶어 하고 음악 하는 사람이 비엔나에 가고 싶어 하는 것 같이 산악 하는 사람이면 한 번은 히말라야의 운봉(雲峯)과 만년설 그리고 빙하들을 꿈꾸게 한다.

그런데 등산이나 산악 운동이 영국이나 스위스, 독일, 일본과 같이 그 나라 국민에게 널리 알려진 나라에서도 히말라야에 원정대를 보내려고 하면 국가적인 후원이나, 사회단체의 뚜렷한 대의명분이 없이는 좀처럼 그 막대한 비용과 거창한 사업들을 이룩할 수가 없었다. 프랑스의 자누 등반대는 프랑스 대통령이 그 후원 회장이요 영국 에베레스트등반대는 왕실과 국가가 그 후원자였으며 스위스는 산악재단이 그 뒷받침을 하였다. 일본만 하더라도 연간 20만 불에 가까운 외화를 일본산악회에 할당(割當)해서 히말라야니 남미의 안데스라던가 북미의 막킨레이로 등반대를 보내고 있다. 그 외에도 여러 대학산악회는 학교의 창립기념 사업이라는 명목들을 붙여 히말라야의 원정대열에 끼고 있음을 들을 때마다 부럽다기 보다는 꿈과 같은 이야기가 아닐 수 없다. 히말라야의 등반대가 그 나라에게 어떤 뜻에서 유익 하나 따위의 곰팡이 낀 설명 짚은 안 해도 짐작이 가겠지만, 마라톤에 나가서 우승한 것 이상으로 히말라야에서의 성공은 그 나라의 영예를 세계에 떨치게 되는 것이며 그 민족의 강함을 더불어 가르치는 일이라 생각한다. 어쨌든 간에 올라가고 싶은 산을 머리에 그리고 올라가 보겠다는데 다른 불평이 있을 리가 없다. 그래서 실은 돌제 락파에 대해서는 가까운 장래 모교인 서울대학교 창립 20주년 기념사업으로라도 명분을 붙여 올라가고 싶은 산으로 혼자서 마음먹고 있었던 자라 쓸 데 없는 몽상 아닌 공상이 마음껏 달린다. 스위스



산악재단에 지도를 주문해서 안목을 세웠더니 그럴 듯하다. 프랑스인의 「크로스」나 세계적 히말라야 연구가인 데이텐 후르츠의 히말라야 문헌을 뒤져보았으나 아직껏 올라가 보았다는 사람도 없는 상 싶다. 원정대를 조직하는 데 사람과 돈 문제가 나오는데 이만한 산이면 큰 자신은 없으나마 한번 해볼만도하고 더욱이 네팔 수도인 카트만두에서 가장 가까운 곳이 주갈 히마 르 산군이기 때문에 비용도 절약할 수 있다. 산밑의 프라트(평지)에만 도착하면 기지는 손쉽게 칠수 있고 등로를 잘 찾으면 서북쪽이나 동쪽은 등로가 있을 상 싶다. 비용도 어마어마한 중장비의 등반대가 아니고 경장비의 답사대로 차리면 일인당 2,000불 이하로 넉넉히 떨어뜨릴 수 있다. 출발하기 전에 네팔 등산사를 샅샅이 읽고 가면 산악선임자의 발자취를 더듬는 것도 큰 수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첫째는 히말라야에 우리도 몇몇히 가고 싶은 마음은 백운과 빙하에 뒤덮인 영원의 영역에 오르고 싶기 때문에 이런 덧붙이기 몽상이 뿔쳐 나온다. 둘째는 히말라야 산봉에 고춧가루를 들고 가고 싶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극동이라기보다 태평양지역에서는 산악운동을 제법한다는 우리나라 산악인이 의당히 히말라야로 가야겠다는 것이다.

전자는 의욕적인 몽상이요, 후자는 당연한 몽상이다. 또한 전자는 개인적인 숙원이요, 후자는 국가적인 필요를 뜻하는 것이다.

아무튼간에 산에 올라가는데 이강외에 다른 이유 따위의 명분을 붙이고 싶지는 않다. 그러나 실상 그 나라 국가와 국민이 등산의 참뜻을 잘 모를 때는 별별 이유와 그럴사한 명분을 붙여야만 납득되는 것이 안타깝다. 히말라야에의 길은 손쉽게는 않기 때문에 지금부터 준비해서 겨우 20주년인 2년후에 될까 말까하다. 이뿐 아니라 누가 히말라야에 가 있는 동안에 휴가를 줄까?

구차스러운 직장 따위를 훨훨 버리고 전심몰두 해 볼까.

이렇듯 생각의 실마리를 쫓다보니 마감시간 까지 재촉받는 극지탐험 원고의 뒷글이 다시 걱정된다.

히말라야로의 멋진 몽상이 행위이전에 내머리에 가득 차고 말았다. 한번도 가보지 못한 극지탐험 이야기를 쓴다는 것이 또 역시 행위이전의 몽상 일른지 모른다. 나오지 않는 글월에 멧을 부리자는 헛된 일은 몽상의 실마리가 없기 때문일까.

그래서 나의 슬기롭지 못한 눈언저리는 히말라야의 돌제 라크파안에서 먼지에 담뿍 쌓인채 아무도 돌아보지 않은 표암유묵(豹庵遺墨)인 화류객에 꽃친 “월경하의 노인과 동자”화에 눈을 돌렸다.

겨울 바람이 서창에 불어오는지 폴리에틸렌 휘저림이 흔들리는 소리가 난다.

(63년1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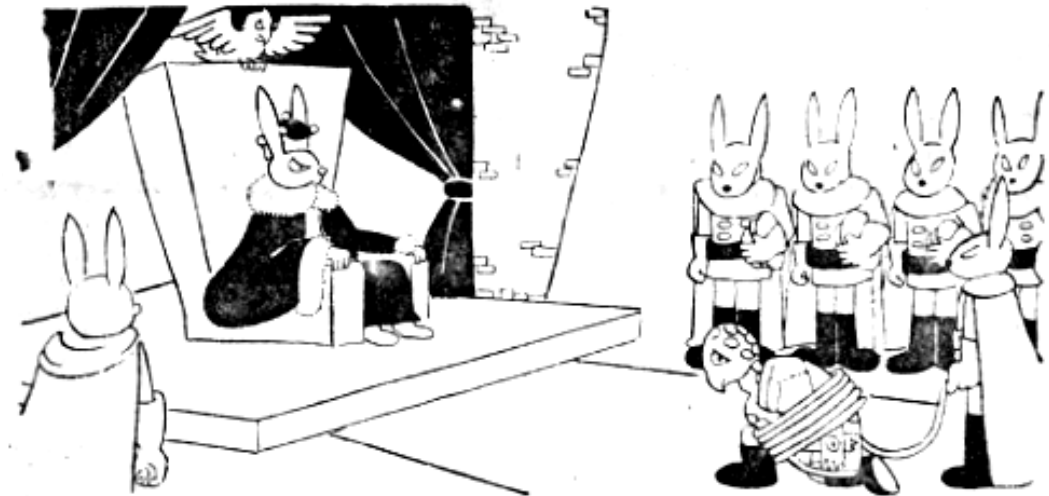
(PT5에서 계속)

드디어 안내인들이 다 올라왔다고 관성을 올린다. 이때 눈을 뜨고 바라다 보이는 광경은 말로서는 형용할 수 없는 절경인 것이다. 이곳은 해발 4,482m로서 포포카테페토루의 산정보다 960m나 얕은 것인데 경치로 말하면 그것이 문제가 안 되는 것이다. 우리들은 얼음으로 된 탐모양의 절경에 있는 것이며 여기서는 알프스의 모든 산들이 한꺼번에 바라다 보인다.

우리들은 이때까지 이렇게 피로를 느껴본 적은 없다. 그러나 마음은 즐겁기만 하다. 이 상쾌한 공기, 그리고 창공, 눈, 공간은 커다란 기쁨을 마음속으로부터 불러일으킨다. 우리들은 모든 등산대들의 평생의 야망을 성취한 것이다. 우리는 드디어 알프스의 호랑이를 정복한 것이다.

그러나 이 정상은 굉장히 위험한 곳이다. 우리는 위험이 가중하기 전에 한시라도 빨리 이곳을 탈출하지 않으면 안 된다. 다시 한번 긴장과 곤란과 투쟁 끝에 1,200미터의 사다리와 같이 가파른 바위 바닥을 내려와 전에 들렀던 통나무집에서 잠시 쉬다듬 다리를 절뚝거리며 마을로 돌아왔다. 이 평화로운 마을 배후에는 우리가 지금 막 정복하고 돌아온 얼어붙은 괴물이 태연스럽게 솟아 있다.

구석 구석 살펴보자
붉은 마수 노리는 곳
〈방첩표어〉



왕자 토끼는 왕 토끼 앞에 나와서 왕 토끼에게 진언했습니다.

“아바마마 토끼, 거북나라의 소행을 생각하면 코를 벤 놈에겐 코를 베고 귀를 벤 놈에겐 귀를 잘라주는 보복 법리(法理)가 마땅하오나 우리 토끼 왕국은 건국 이래로 보복주의를 배척하고 어디까지나 덕치주의를 시정의 근원으로 삼아 온 만큼, 비록 타국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전통 있는 덕치의 다스림에서 벗어나는 보복적 조사를 어떻게 하옵나.”

왕자 토끼가 말하고 있는 동안에 비밀국장토끼가 옆에 앉아있는 나이 많은 토끼의 옆구리를 쿡쿡 찔렀습니다.

“이 사람, 거기를 쿡쿡 찌르지 말게. 자네는 내 간을 빼려나, 거긴 내 간이 들어있는 곳이야.”

하고 나이 많은 토끼는 빙그레 웃었습니다.

“자네 간? 자네 간은 필요 없다네, 젊은 간이 약이 되지 자네처럼 늙은 간은 약효가 없다거든.”

하며 비밀 국장 토끼도 빙그레 웃었습니다.

“원, 모르는 소리, 암컷은 젊을 수록 좋고 술은 오래된 것일수록 좋다는 말이 있거든, 어디 이 거북대사한테 물어보게.”

두 영감 토끼는 이렇게 농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건 나중에 물어 보기로 하고 어서 일어서서 한 마디 거들게.”

비밀국장토끼가 재촉을 했습니다

“알았네 알았어 내가 이 나라 대 토끼왕국의 중앙 정보청 장으로서 자네 속셈을 모르겠는가.”

하고 청장토끼는 일어섰습니다.

“이제 왕자토끼님의 발언에는 뜻 깊은 바가 있습니다. 보잘 것 없는 한 마리의 거북을 죽인다고 해서 선조의 원보가 되는 것도 아니오 천 년 동안 피 없이 살아온 토끼왕국의 전통을 더럽히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자 배석하여 앉아 있던 다른 요인토끼들도 이 구동성으로 왕자 토끼와 정보 청장토끼의 말을 지지했습니다.

거북대사는 눈알을 동그랗게 해서 사방을 돌레돌레 살피고 있었습니다.

왕자토끼는 한참 동안이나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윽고 왕자토끼가 입을 열었습니다.

“음, 제공들의 말, 과인이 느낀 바 없지 않소.”

하더니 거북 대사를 바라보며 엄숙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거북대사 듣거라!”

거북대사는 깜짝 놀라며 목을 쑥 빼어 쳐들었습니다.

이제 왕 토끼가 왕자 토끼와 대신들의 진언을 들어서 자기의 목숨을 살려 줄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냉큼 목을 잘라 간을 낼 것인가 거북대사는 돌처럼 얼어서 왕 토끼의 입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거북 왕국의 '왕권신수설(王權神授설)' 소동

이때—

거북왕국에서는 국정이 매우 소란한 중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왕당파와 반 왕당파 사이에 정쟁(政爭)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반 왕당파는 왕당파가 용왕의 세력을 빌려 반 왕당파를 누르기 위해 토끼의 간을 빼앗으려다가 실패하고 거북나라의 국위(國威)를 땅에 떨어뜨렸다고 맹렬한 공격을 가했습니다.

반 왕당파의 이와 같은 비난은 사실이었습니다. 거북왕국의 왕 거북은 왕권신수설을 철저히 신봉하는 나머지 백성거북들의 생명재산을 마음대로 하고 있었습니다. 반 왕당파는 왕권신수설을 부정하고 왕국의 행패를 규탄하다가 최근에는 지하세력을 조직 중에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이번 사건이 터지자 반 왕당파는 일찍이 공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왕당파는 왕실의 힘을 빌려 모든 권력을 독차지하고 부귀영화를 누렸습니다. 그러나 반 왕당파가 그들의 커다란 위함이었습니다. 왕당파는 반 왕당파가 지하세력을 부식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나 정면으로 반 왕당파의 조직과 세력을 무찌를 만한 실력이 없었습니다. 이때에 용왕궁에서

신판(新版) 토끼전(傳) 3

제2장 중세사 편 (2)

—허허실실의 전략—

제2장 중세사 편 (2)

—허허실실의 전략—

계 문수(桂文樹)

삼화·고두현

토끼의 간을 구해달라는 요청이 왔습니다. 왕당파는 토끼의 간을 구해줌으로써 용왕국의 세력을 빌리려는 공심이 었습니다.

이와 같은 거북나라의 국정을 토끼왕국의 정보기관도 어렵듯이 알고 있었으나 거북대사를 체포하여 하룻밤 감옥 속에서 그 전모를 알아낼 수가 있었습니다. 비밀국장이나 정보청장 이 왕자토끼를 움직여 거북대사를 살려주자는 뒤에는 그만한 사정이 숨어 있었습니다.

반 왕당파 거북들은 거북대사가 토끼왕국에 포로가 된 것을 기회삼아 호기도래라 생각하고 정면으로 왕당파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왕 당파는 대사를 구출하고 치욕적인 거북국의 국위를 만회하라.”

반 왕당파는 일반시민을 선동하여 대모를 일으켰습니다. 거북왕 구성 아왕궁이 있는 수도에서는 왕 군과 반 왕당파군 간에 충돌이 일어나서 유혈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왕당파는 사태가 심상치 않음을 깨닫고 만일의 경우에 대비하여 용왕궁에 사신을 보내어 원군을 교섭했습니다.

거북왕국의 사신이 용왕궁에 이르자 궁내 대신이 몸소 나와 영접을 하고 최대의 국빈으로써 대접했습니다. 진수성찬과 색색 천주(天酒)로 대접하고 천하의 미녀로 이름 난 궁녀들이 가무성창(歌舞盛昌)으로 거북사신을 황홀케 하였습니다.

이튿날, 궁내 대신은 거북사신에게 말했습니다.

“얼마나 수고를 많이 했으니까 이번에 용왕님께서 회춘하신다면 이는 오직 귀 거북왕국의 덕분인가 아오.”

하면서

“그럼, 한시가 급하오니 가져오신 토끼 간을 주시면 곧 약을 만들까 하오.”

하는 것이었습니다.

거북 사신은 매우 난처했습니다. 그렇다고 토끼나라에 토끼 간을 구하러 간 대사토끼가 포로가 되었다고는 말할 수 없었습니다.

“이거, 대단히 죄송합니다. 실은 토끼나라에 간 대사토끼가 아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아마 열흘 이내로는 토끼 간을 가지고 돌아올 것입니다. 금차 소신이 용왕궁을 방문하게 된 소이는 다름 아니오라, 국내의 반 왕당파 토끼가 왕국에 토끼 간을 구하러 간 것은 용왕궁에 아침하기 위한 치욕적인 행위라고 떠들며 폭동을 일으켰기 때문에 원군을 청하러 온 것이오니 즉시 원군을 보내어 진압시켜 주시면 토끼 간이 도착하는 즉시 보내오리다.”

하고 적당하게 거짓말로 둘러대었습니다.

이 말을 끝이들은 용왕 궁에서는 즉시 군사회의가 소집되어 원군파견 문제가 논의되었습니다. 그 결과 즉시, 일개 사단의 특별부대를 급파하였습니다.

용왕궁의 원군이 도착하자 폭동은 어느 정도 진압 되었습니다. 폭도들, 즉 반 왕당파는 시간을 벌기 위하여 전략적으로 지하로 숨어들어 다음 기회를 노리기로 했던 것입니다

반 왕당파 수령의 망명

왕당파 거북들은 반 왕당파의 수령거북을 반역죄로 규정짓고 체포령을 내렸습니다. 수령거북은 사전에 이를 탐지하고 해외로 망명의 길을 떠났습니다. 문자 그대로 바다 밖으로 피신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수령거북은 망명 처를 우선 호랑이 나라로 정하고 상인차림으로 변장해서 국경선에 이르렀습니다. 국경선인 관문에는 용왕궁에서 파견된 부대가 지키고 있었는데 수령거북은 이 용왕군 부대에 걸렸습니다.

“누구나, 뭇 하는 놈이냐?”

하고 경비대 대장이 물었습니다. 수령거북은 태연히 말했습니다.

“수고들 하오, 본인은 왕당파의 비밀공작원으로 토끼 간을 구하러 간 대사토끼의 마중을 가는 길이오, 오늘 아침에 토끼 간을 입수하여 돌아온다는

통지를 받고 방금 준동하고 있는 반 왕당파로부터 신변을 보호하기 위하여 가는 길ियो.”
 “그렇다면 그러한 증명을 가졌겠지?”
 “당치 않는 말, 그런 것을 가지는 것은 오히려 반 왕당파 지하조직에 걸려들기 알맞은 노릇이 아니겠소. 의심스럽거든 내무청에 조화를 해 보시오.”
 하고 수령거북은 더욱 태연자약한 태도를 취했습니다.
 경비 대장은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도 그를 경계하는 마음을 게을리 하지 않았습니다.
 “잘 알았소. 그러나 본관은 그것을 확인할 책임이 있는지라 확인할 때까지 당신을 영치시키겠소. 조금 전에 우리는 반 왕당파 수령거북이 해외로 도피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경계 중에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오.”
 경비 대장은 수령거북을 부대 내에 영치하고 왕당파에서 배속된 두 거북 장교를 내무청으로 파견 하였습니다. 이들이 돌아오는 것은 내일 정오경이었습니다.
 수령거북은 일이 다 틀렸다고 각오했습니다. 탈출을 생각해 왔으나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의 주 위에는 그를 감시하는 용왕궁 군대가 삼엄한 경계망을 펴고 있었습니다.

토끼 참모들의 계략

한편 토끼왕국에서는—
 왕토끼가 거북대사에게 최후의 판결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귀공의 죄과는 마땅히 귀공의 목을 자르고—”
 하며 왕토끼는 거북대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거북대사는 완전히 죽음을 각오하고 새파랗게 질린 얼굴빛이었습니다.
 “귀공의 배를 갈라 간을 내어 까마귀 나라에 줄 것이나 우리 토끼 왕국은 건국 이래 덕치정신을 이념으로 삼아 오늘날까지 그 정신 밑에 나라를 다스려 왔으며 백성들도 보복주의를 싫어하는 지라 과인은 이 건국이념을 존중하는 뜻에서 귀공의 죄를 용서하여 사형을 면하고 석방하는 것이니와—”
 하자 왕자토끼가 다시 왕토끼 앞에 나와서 국궁 재배하며 말했습니다.
 “아바마마, 황궁 하오이다. 아바마마의 큰 덕은 만세에 빛나오이다.”
 비밀국장장 정보청장, 그리고 줄지어 앉아있던 고관들도 형리들도 엎드려 왕토끼의 덕을 앙송(仰頌)하였습니다.

죽음을 면하게 된 거북대사는 눈물을 떨어뜨리면서 말했습니다.
 “왕토끼 폐하의 은덕 천골(鴈骨)의 뼈가 가루가 되고 가족*죽과 살이 흩이 되어도 잊지 않겠오이다. 본국에 돌아가면 토끼왕국의 덕치정신을 널리 선양하여 거북 왕국도 토끼 왕국의 본을 따르도록 신명을 다하여 건의할 것이오며 토끼 왕국의 아우나라가 되어 참다운 국교의 길을 개척하는데 노력하겠나이다.”
 석방된 거북대사는 정보청장 토끼의 주선으로 토끼왕국의 덕치 정신의 구석구석을 시찰하면서 후대를 받고 며칠 동안을 토끼왕국에 머물렀습니다.
 이 동안 거북대사는 자기 나라의 정치 실정과 토끼왕국의 덕치실정을 비교하고 그전부터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반 왕당파 거북들의 주장이 옳다고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본국에 돌아가면 기회를 잡아 반 왕당파와 손을 잡고 혁명을 일으켜 토끼왕국과 같은 덕치정치를 실시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거북대사는 정보청장 토끼로부터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이러한 것이었습니다.

방금 거북나라에서는 왕당파와 반 왕당파 사이에 충돌이 일어나서 국내가 소란하며 왕당파는 용왕 궁에 게 토끼의 간을 구해준다는 조건으로 원군을 얻어 반 왕당파를 진압하고 반 왕당파의 지도자 거북인 수령 거북의 체포령을 내렸기 때문에 수령거북은 해외로 망명을 할 것인데 그는 호랑이 나라로 갈 것이나 호랑이 나라로 가자면 토끼왕국의 땅을 잠시 밟지 않을 수 없으니 이때를 이용해서 수령거북을 체포해 줄 테니 거북대사가 수령거북을 본국으로 압송하면 거북 대사는 큰 공을 세울 수 있지 않겠느냐는 이야기였습니다.

이때, 거북대사는 조심성 있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청장토끼 각하, 나의 의견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거북 왕국의 왕거북은 덕을 모르는 공포정치로써 백성거북들의 인권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거북들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고 밖으로는 국제 도의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반 왕당파가 왕권을 반대하는 것은 적어도 일리가 있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거북대사는 청장토끼의 눈치를 탐색하였습니다.
 “그것은 거북 대사 각하의 말씀이 오히려 당연하지요. 그렇다면 각하 왕당파의 반대하십니까.”
 청장 토끼도 거북대사의 속셈을 탐색하는 눈치였습니다. 거북대사는 결심을 한 듯이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우리나라에도 귀국과 같은 덕치정치가 베풀어지기를 원하는 바입니다. 어떻습니까. 무방하다면 호랑이 나라로 망명가는 수령거북을 나와 만나게 해 줄 수는 없습니까?”

이 말을 들은 청장토끼는 속으로 회심의 미소를 띠었습니다.
 “그거야 쉬운 일이지요—만, 토끼 왕국의 입장도 있으니 내밀히 해 주신다면 그렇게 할 수도 있기는 하지요.”
 “아니, 무방하면 꼭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거북대사의 뜻이 꼭 그러하시다면 그렇게 주선 해 보겠습니다. 안심하십시오.”
 청장 토끼는 또 한 번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청장 토끼는 즉시 정책원 비밀국장토끼와 밀담했습니다. 중앙 정보청과 정책원은 거북대사가 체포되자 하나의 음모를 세웠던 것입니다.

(계속)



<명랑 단편>

사랑과 덕만의 용기

최요안(崔要安)

덕만이가 하숙하고 있는 집 이층의 창문을 열면, 행길 너머로 ‘내과 소아과’의 간판이 붙은 흰 페인트를 칠한 병원의 진찰실 창문이 정면으로 바라다 보인다.

전에는 뚱뚱하고, 얼굴에 여드름이 많은 꽤 못생긴 간호원이 있었는데, 요즘은 예쁘게 생긴 간호원이 새로 와 있다.

한 보름 전 일이었다. 그날은 일요일인지, 공휴일인지가라서 늦잠을 자고 일어난 덕만은 입에 칫솔을 물고 창문을 열었다. 양지바른 병원 진찰실 창가에 허리를 기대고 중학교 삼학년인 병원 집 딸과 이야기하고 있는 새 간호원위 얼굴이 눈에 띄었다. 한 3, 40m 되는 거리이지만, 덕만의 눈에는 황홀하게 보였다.

이를 닦다 말고, 덕만은 한동안 질린 사람 같이 멀거니 바라보았다.

가까이서는 여자의 얼굴이 눈부시어 잘 바라보지를 못할 만큼 더욱 많은 수줍은 청년이었지만, 거리가 떨어 진지라 처녀의 웃는 모습 동작들을 하나하나 눈여겨 뜰어보았다. 전에는 무심코 바라보던 그 진찰실 창문에 갑자기 봄이 오고, 함박꽃이 핀 것 같이 느껴진다. 아닌 게 아니라 때는 이른 봄이었다. 간호원의 흰 가운에 비친 오전의 햇빛이 다소곳하고, 봄은 제일 먼저 그 처녀의 얼굴에 찾아온 듯했다.

덕만은 그 후부터 출근할 때나, 또는 집에 돌아왔을 때면 의례히 창문부터 열었다. 그 간호원이 있을 때면 일부러 창가에 앉아서 책을 읽었다. 간호원도 가끔 이쪽을 바라보았다. 거리를 두고 서로 시선이 한동안 마주치는 적도 있었다.

(어떡하면 저 여자하고 말이라도 한 번 건내 볼 수 있을까?)

덕만은 잠자리에 누워서 그 처녀의 생각으로 가슴이 부풀어 오르기도 했다.

(그러나 직접 나를 만나면 실망할거야 월급은 삼천원, 게다가 미남도 아닌 내 얼굴이니.)

덕만은 이런 생각을 하고, 스스로 그 여자의 생각을 밀어 던지기도 했다. 그러다가도 십 분이 못 되어 다시 생각은 그 여자에게로 쏠리었다.

한 번은 그래서 딱 미추진 일이 있었는데, 멀리서 보던 때 보다 키는 과히 크지 않았고, 그 대신 덕만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부드러운 미를 지닌 여성이었다. 얼굴 표정이 어질고, 까만 쌍꺼풀진 눈이 맑았다. 약간 두툼한 입술은 덕만을 보고, 가냘픈 미소가 어려 있었다.

그리고 일주일쯤 후의 어느 날 저녁이었다. 덕만은 창문을 열어 재끼고 그 앞에서 책을 읽고 있자니, 아래 층 주인집에 숙희의 까부는 목소리가 들렸다. 숙희는 병원 집 딸인데, 안집에 저의 한 반 친구가 있어 가끔 놀러 온다.

덕만은 은근히 귀를 기울였다. 전에는 숙희가 놀러 와서 떠드는 것이 싫었는데, 간호원과 가까이 하려면 아무래도 숙희의 힘을 빌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생각뿐이지, 이런 일에는 매우 소극적인 덕만인 지라 내려가지도 못하고, 숙희를 오라고도 못하고 있었다.

그러다 얼마 후에 층계를 올라오는 소리가 왁자하니 나고 숙희와 집 주인 딸 복희가 둘이 나타났다.

덕만은 무슨 일인가(혹은 간호원이 이야기라도 있는 것이 아닌가?)싶어 반색하며 두 여학생을 맞이했다.

“아저씨 책 많다 길래 한 권 빌리러 왔어요!”

하고, 숙희가 말한다. 숙희는 승낙도 기다리기 전에 책장 앞으로 간다.

“무슨 책을 볼 라구?”

덕만은 책에 대해서는 상당히 인색하였고, 친한 친구 간에도 잘 빌려 주지 않았는데 이 때만은 빌려 줄 생각을 했다.

“퀴리 부인의 전기를 읽고 느낀 것을 써 오라는 작문 숙제가 있거든요. 근데, 요 근방 서점에 가도 그런 책이 없지 않아요! 앗, 여기 있다!”

하면서 숙희는 우리말로 번역된 두툼한 “퀴리부인 전”을 꺼냈다.

“이 책, 오늘 하루만 빌려 주세요.”

“넌넌히 며칠 보아도 괜찮아!”

덕만은 요즘 사다 놓고 자기가 있는 책이었으나, 맘 좋게 승낙을 했다.

책을 빌린 두 여동생은 이내 나가려고 한다.

저 숙희!”

하고 독만은, 층계에 한 발자국 디딘 병원 집 딸을 불렀다.

“네!”

“요새 새로 온 간호원 이름이 뭐지?”

“왜요?”

순간 덕만은 얼굴이 빨개졌다. 숙희는 구슬 알 같은 아무진 눈으로 덕만의 속심을 들여다 보는 듯 했다.

“아니……저어, 많이 보던 얼굴 같기에, 혹시 나 아는 사람이 아닌가 해서 묻는 거야!”

“장수옥이야요, 장 간호원이 아저씨가 어디 다니시냐고 묻길래 가르쳐주었지, 아저씨 독 굽는 회사에 다니시죠!”

“독뿐이 아니고, 화병이며, 접시며, 그런 좋은 자기들을 주로 만드는 회사야!”

“아저씨 우리 간호원 좋으세요?”

숙희는 장난꾸러기 같은 눈으로 16살 나이로서는 아무지게 덕만을 바라본다.

“아, 아니……”

덕만은 당황하여, 고개를 저었다.

“그럼 싫으세요?”

숙희의 추궁은 날카로웠다.

“누가 싫구 좋구 그런 말 하랬나, 핫핫핫……”

덕만은 숙희의 시선을 피하며 격에 맞지 않는 너털웃음으로 얼버무렸다.

후 일, 덕만은 이날 그렇게 대답한 걸 몹시 후회했다. 나중 안 일이지만, 숙희는 장 간호원한테 가서 고대로 얘기를 했던 모양이었다. 또 한가지 일이 어긋나려니까, 다음과 같은 일이 며칠 후에 있었다.

시골서 어머니가 건너 마을에 사는 처녀사진을 가지고 다른 일과 겸사로 상경했었다. 마침 독만은 그날 친구 결혼식이 있어 밤늦게 돌아왔는데, 그 사이에 어머니는 집 주인 아주머니한테 그 사진을 보였고, 복희도 보았었다. 복희의 입에서 숙희의 귀로 전하고, 숙희의 약빠른 입에서 미스 장의 귀에 들어갔던 것이었다.

그날 마침 숙희에게 장 간호원이 독만의 이야기를 묻고, 책을 하나 빌려 달라고 하던 참이었다. 뿐만 아니라, 숙희에게 은근히 덕만이가 좋다는 뜻으로 말하고 있었다. 이러한 때, 덕만의 약혼 사진이 나타났으니, 미스 장은 크게 실망하고 말았던 것이었다. 덕만은 어머니가 들고 오신 사진은 첫눈에 맘에 들지 않아, 물리쳤던 것인데, 물리친 이야기는 안집에서 몰랐다.

덕만은 그 후도 늘 창문을 열고 미스 장 보라는 듯이 창가에서 책을 읽고, 혹은 진찰실 안에서 왔다갔다하는 미스 장을 멀거니 바라보았다. 하루는 전 일에 숙희한테 한 말이 계름하여 퇴짜를 맞던 간에 한 번 사랑의 표시나 해 불라고, 밤새 편지를 썼다. 좋은 글귀를 생각해서 쓰려니 편지지에 두어 장 겨우 쓰는 것이 새로 두시까지 시간이 걸렸다. 덕만은 주소를 알아가지고 우편으로 부친 생각을 했는데 간밤에 늦게 잤기 때문에 아침에 눈을 뜨니 벌써 출근 시간이 빠듯했다. 편지를 양복 아주머니에 높은 채, 회사로 갔다가 저녁에 돌아와서 병원 앞으로 가서 주소를 보아두었다. 생각하면 그 편지도 그날 아침에 바쁘더라도 부치고 떠났으면 되지 않았을까 하는 후회가 남았다. 왜냐하면 그 편지는 저녁에 부쳐서 이를 후 오전에 들어갔는데, 편지가 들어간 그날 새벽에 미스 장은 그 병원을 떠났던 것이었다.

숙희의 말을 들으면 미스 장도 시골서 결혼 말이 나서 집에서 오라고 재촉이 와서 떠났는데, 별로 맘에는 없는 사람이었다고 한다. 그런 줄 모르고 덕만은 가슴을 조이며 편지 답을 기다렸다.

나 같은 사나이가 싫더라도 한마디 편지 답장만은 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편지 끝에 썼건만, 사흘이 되고 닷새가 되어도 답장이 없을 뿐 아니라, 늘 진찰실 유리창에 비치던 미스 장의 모습조차도 안 보였다 닷새 되던 날 진찰실 창가에는 나 어린 새 간호원이 와 있었다.

그 이튿날 저녁 숙희가 어느 때와는 달리 조용한 태도로 덕만의 방으로 올라왔다. 그리고 덕만이가 보낸 편지를 내밀었다.

“……미스 장한테 보내주려고 했는데, 시골 주소를 모르지 뭐예요. 혹시 시골서 편지라도 오면 부친다고 놔두었는데, 어머니가 아저씨한테 돌려보내는 게 좋다고 해서 가지고 왔어요! 하루만 더 일찍이 편지를 하시지 그랬어요?”

“……”

덕만은 끝의 말이 이상해서

“아니, 이 편지 내용을 혹시 본 건 아니야?”

“미안하지만 보았어요, 어머니는 미스 장 어머니하고 잘 알거든요. 그리고 편지 봉을 단단히 안 하셨기 때문에 처음부터 버럭 하니 뜯어져 있었대요!”

이 편지보고 어머니가 그러셨어요, 건너편 그 청년 같으면 미스 장한테 마침한테, 아까 왔다구” 그리고 또 숙희는 조용히 말을 이었다.

“.....미스 장은 아저씨를 꽤 좋아했어요, 틈만 있으면 아저씨 방 쪽을 내다 보았어요, 아저씨한테 약혼 사진이 왔단 말을 했더니, 미스 장의 얼굴이 확 달라졌어요! 그날은 주사를 다 잘 못 놓 뻔 했어요, 정신이 멍했나 봐요”

덕만은 실망 속에서도 미스 장이 자기를 생각하는 일이 흐뭇하게 여겨졌다. 며칠 동안은 미스 장의 얼굴이 눈시울에서 떠나지를 않았다.

(앞으로는 사랑의 의사표시를 용감히 해야겠다)

이것이 덕만이가 얻은 교훈이었다. 덕만은 출퇴근버스 속에서 눈을 마주치는 직업여성이 하나 있었다. 어떤 때는 양장을 하고 어떤 때는 한복을 입는데 양장을 했을 때는 엇되어 보였지만, 한복차림에는 자기보다 나이가 들어 보이기도 했다. 얼굴판국은 미스 정과는 반대로 가름했으나 웃는 표정이 비슷했다. 한 번은 출근 시간에 버스가 종로 3가를 지나 빠듯하던 승객들이 내리고 차 안이 허술해졌는데, 그 여자가 마침 손수건을 떨어뜨리고 모르고 있었다. 덕만은 좋은 찬스가 왔다고, 그 수건을 집어주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웃으면 말하는 하이얀 치마가 인상적이었다.

요담에 만나면 인사를 하리라.’

하고 덕만은 맘먹었는데, 웬일인지 그 후로는 직장을 바꿨는지, 혹은 그만 두었는지 버스 안에서 만날 수가 없었다. 그 여자의 일도 잊어버린 두어 달 후의 일이었다. 덕만은 친구와 만날 약속이 있어 퇴근시간에 종로의 ‘상공’이라는 다방으로 들어섰다. 마침 자리가 다 차고, 원편 구석에 여자가 혼자 앉은 앞 좌석이 비어 있었다. 앉으려고 하다가 보니, 바로 버스 안에서 늘 만나던 그 여성이었다.

덕만은 반색하며,

“안녕하세요.”

하고 말을 걸었다. 여자는 좀 미심한 표정을 하고 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지) 덕만은 스스로 용기를 내어

“저를 기억하시죠?”

하고 다정히 말했다.

“누구실까?”

“손수건 생각 안하세요!”

“아하, 손수건 도매상에 계시는 분인가요? 아이 그럼 잘 만났어요.”

하며 여자의 표정이 금방 굳어지고, 이윽고 핏대를 올리며 나무란다.

“여보세요, 내가 처음으로 가게를 냈다고 글썄 사람을 속여서 손수건을 팔아요? 그거 댄 도매상에서는 반값도 안 됩니다! 이젠 당신은 물건은 싫어요! 그따위로 신용 없이 하는 법이 어디 있어요”

“아니, 전 손수건 장수가 아닙니다.”

“그만뒤, 그만뒤요! 당신 같은 사람하곤 말도 하기 싫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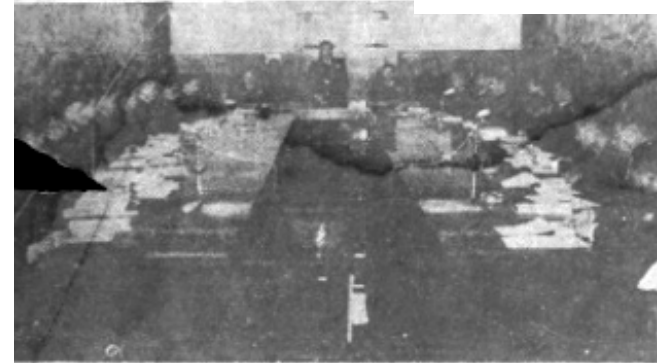
하며, 여자는 덕만을 쏘아보고는 일어서서 카운터에 가서 찻값을 갚고는 나가버렸다.

덕만은 자기의 용기가 서글펐다.

(끝)

본지(本誌)는 다음 호부터 「코메트」와 「미사일」을 결합한 「공군」으로 개제(改題)하여 발간합니다.

63년도 제1차 공군지휘관회의



63년도 제1차 공군지휘관회의가 지난 2월 13일 장 참모총장 주재하에 본부 기획상황실에서 개최되었다.

사진은 동 지휘관회의에서 훈시하는 장 참모총장

63년도 CSC 졸업식



지난 2월 27일 공군대학 63년도 CSC졸업식이 이 국방부차관을 비롯한 많은 내외귀빈이 참석한 가운데 종재학 강당에서 거행되었다.

사진은 졸업식 광경

'탑 세이버'와 '탑 독' 시상



주한미공군 사령부에서는 지난 2월 1일 10 전비단 102대대를 '탑 세이버', 108대대를 '탑 독'으로 각각 선정하고 상패를 수여하였다.

사진은 장 참모총장이 참석한 가운데 상패문 수여하는 허치슨 장군

한국학생항공연맹 결성

지난 2월 28일 서울시민회관에서 한국 최초의 학생항공연맹이 결성되어 민간항공지식의 향상과 항공기술의 개척에 헌신할 것을 다짐하였다.

사진은 결성식 광경





미사일



대한민국공군
REPUBLIC OF KOREA AIR FORCE